

2007년도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보고서 (1)

연구 책임자 : 곽 충 구

연구 보조원 : 박 진 혁

소 신 애

조사 지역 : 중국 길림성 훈춘시 경신진 회룡봉촌

국립국어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07년도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및 전사 용역’에 관하여
귀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7년 12월 20일

연구책임자 : 곽충구

2007년도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보고서 (1)

목 차

1. 조사 과정	2
2. 전사 원칙	7
3. 전사 자료	
제 1 편 구술발화	10
제 2 편 어휘	135
제 3 편 음운	189
제 4 편 문법	220
4. 제출 자료(별첨)	
(1) 지역어 현지 조사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 전량	
(2) 전사된 지역어 조사 질문지 원본 및 제보자 조사표	
(3)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4) 지역어 자료 활용 동의서	
(5) 보존용 48,000hz 웨이브 파일, 작업용 16,000hz 웨이브 파일, 전사 trs 파일	
(6) 지역어 조사 사진 파일(제보자 및 보조제보자 얼굴과 전신, 조사장면, 조사 장소, 마을 전경, 조사 항목 등)	
(7) 보고서 100부 및 원본 파일	
(8) 구술 발화 발간용 파일	

1. 조사 과정

1.1 조사 지점 개관

중국 동북의 지린 성, 헤이룽장 성, 랴오닝 성 등에는 200만에 달하는 우리 동포가 살고 있다. 이들은 19세기 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시기에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동북 3성 중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두만강 가에 위치한 조선족 마을은 대개 1세기 전에 형성된 것이어서 오랜 이주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2007년도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에서는 1882년 이후 함경북도 경흥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이주민 또는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중국 지린 성 훈춘시 경신진 회룡봉 마을을 조사 지점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이 마을의 노년층 세대가 구사하는 한국어는 흔히 육진방언으로 불리는데 매우 보수적이어서 아직도 고어를 많이 간직하고 있다. 이 지역어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조사는 몇 가지 점에서 매우 의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하나는 해외 거주 집단 이주민의 한국어를 채록하여 영구히 보존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 지역어가 국어학 연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또 19세기 이후 전개된 유이민의 역사와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 문화를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회룡봉 마을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함북 경흥군과 마주하고 있다. 두만강이 반원을 그리며 이 마을을 감돌아 흐르는 까닭에 회룡봉이 위치한 곳은 마치 유두(乳頭)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이 마을은 1882년에 함북 경흥군 출신인들에 의하여 개척된 곳으로 조선족 집단 거주 지역이다. 이 마을은 경신진에서 두만강 강안을 따라 서쪽 방향으로 약 9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약 80호의 주민이 주로 농업(벼농사와 밭농사)에 종사한다. 두만강을 따라 비옥하고 드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는데 대체로 60년대 이전에는 피가 주요 주식 작물로서 재배되었고 그 이후에는 수리 관개 시설을 대폭 개선하여 벼농사를 짓게 되었다. 마을은 주로 산 밑에 형성되어 있다.

교육 기관으로는 해방 이후 소학교(초등학교)와 초급중학(중학교)이 마을의 외곽에 세워진 바 있으나 오래 전에 폐교가 되어 현재 이 마을의 학생들은 경신진(敬信鎭) 진 소재지의 소학교와 초급중학에 다닌다. 경제 활동은 대체로 경신진과 훈춘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최근 교통이 발달하면서 훈춘시가 그 중심이 되고 있다.

회룡봉 마을은 대체로 함북의 전통 문화를 온전하게 보전하고 있는 곳으로 예부터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고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 조선족자치주의 어느 농촌이나 그렇듯이 지금은 마을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빠져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비롯한 외국으로 나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이곳은 조선족자치주에서도 아주 오지에 속한 곳이어서 방문하기가 수월하지 않았다. 지금은 회룡봉 마을을 가려면 훈춘 시내에서 하루 한 차례 다니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비나 눈이 많이 내리면 두만강과 인접한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버스가 다니지 않기도 한다. 1995년 이전에는 훈춘시에서 두만강 하구의 방천(防川)으로 가다가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한 경신진이라는 곳에서 하차하고 그곳에서 다시 두

만강을 따라 9km를 들어가야만 했다. 훈춘에서 이곳 경신진까지는 험준한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가야만 했었다. 그 험준한 산길을 가노라면 중국과 러시아 국경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경신진에서 회룡봉까지는 달리 교통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걷거나 또는 우마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자연 환경으로 말미암아 회룡봉 마을 사람들의 한국어는 매우 보수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전형적인 육진방언을 듣기 어렵다. 그러한 토박이말을 구사하는 노인들이 대부분 타계하기도 했거니와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산업의 발달로 외지와의 교류가 급격히 증가하고 또 텔레비전 등이 보급되어 웬만한 주민은 대부분 연변 표준어를 구사하기 때문이다.

1.2 조사 기간

2007. 8. 3. ~ 2007. 8. 12.

(출장 기간: 2007. 8.2. ~ 8. 13.)

8월 2일	출국, 연길시 경유 훈춘시 도착. 회룡봉촌 현지 답사
8월 3일	주제보자와 상견, 구술발화 조사 시작
8월 4일 ~ 5일	구술발화 조사
8월 6일	조사지 현지 사진 촬영
8월 7일 ~ 9일	어휘 항목 조사
8월 10일	음운 항목 조사
8월 11일	문법 항목 조사
8월 12일	보조제보자를 대상으로 구술발화 보충 조사 실시
8월 13일	귀국

1.3 제보자

(1) 주제보자

- 이름: 박
- 성별: 남
- 나이: 73세(1935년생)
- 출생지: 중국 길림성 훈춘시 경신진 회룡봉촌
(中國 吉林省 琿春市 敬信鎮 回龍峯村)
- 거주지: 중국 길림성 훈춘시 경신진 회룡봉촌
- 선대거주지: 북한 함경북도 경흥군
중국 길림성 훈춘시 경신진 회룡봉촌
조부 때 중국으로 이주함
- 직업: 농업
- 경력: 없음

- 학력: 소학교(초등학교) 졸업
- 병역: 해당없음
- 제보자 소개 과정: 2000년 마을 당서기인 이경해씨로부터 소개 받음.
- 제보자의 특기 사항: 제보자는 소학교를 마쳤지만 독서를 많이 하여 박학다식한 분이다. 함북의 대표적인 양반 가문 출신이다. 평생 농업에 종사하였지만 마을의 역사, 문화, 동식물 등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있다. 발음이 명료하다. 미세한 음성차를 인지하고 그 사실을 말해 주거나 어휘의 의미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 줄 정도로 언어학에 대한 지식도 남다르다.
- 제보자의 음성 특징: 발음이 분명함.

(2) 보조 제보자

- 이름: 김
- 성별: 여
- 나이: 80(1928년생)
- 출생지: 북한 함경북도 경흥군
- 거주지: 중국 길림성 훈춘시 경신진 회룡봉촌(中國 吉林省 琿春市 敬信鎮 回龍峯村)
- 선대거주지: 북한 함경북도 경흥군
- 직업: 농업
- 경력: 없음
- 학력: 한글 해득
- 병역: 해당없음
- 제보자 소개 과정: 2000년 마을 당서기인 이 씨로부터 소개받음.
- 제보자의 특기 사항: 성장 과정이나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탓에 그와 연관된 재미있고 흥미로운 일화는 별로 없음. 그러나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조사에 매우 협조적임.
- 제보자의 음성 특징: 목소리가 낭랑한 편이나 결치가 있어 음성 식별이 곤란한 경우도 있음. 특히 치음과 구개음 식별에 장애.

1.4 조사자

(1) 이름 : 소신애(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우교수), 박진혁(서강대학교 박사과정)

(2) 조사 일시 : 2007년 8월 3일~2007년 8월 12일

(3) 조사 장소 :

중국 길림성 훈춘시 경신진 회룡봉촌	제보자의 집
중국 길림성 훈춘시 경신진 회룡봉촌	씨 댁
중국 길림성 훈춘시 경신진 회룡봉촌	보조 제보자의 집

(4) 조사 내용

① 구술발화 파일 - CJL_HR_01 ~ CJL_HR_09, CJL_HR_29

② 어휘 파일 - CJL_HR_10 ~ CJL_HR_22

③ 음운 파일 - CJL_HR_23 ~ CJL_HR_25

④ 문법 파일 - CJL_HR_26 ~ CJL_HR_28

연 번	파 일	녹음 시간	조사 항목	제보자	조사자	조사일
1	CJL_HR_01	2:03:31	구술발화 1.1. ~ 1.2.2.	박	소신애, 박진혁	2007 8. 3
2	CJL_HR_02	1:44:23	구술발화 1.2.3. ~ 1.2.8.	박	소신애, 박진혁	8. 3
3	CJL_HR_03	2:00:18	구술발화 1.3. ~ 1.3.3.	박	소신애, 박진혁	8. 4
4	CJL_HR_04	1:43:39	구술발화 1.3.4. ~ 10336	박	소신애, 박진혁	8. 4
5	CJL_HR_05	1:34:50	구술발화 10337 ~ 1.4.3.	박	소신애, 박진혁	8. 4
6	CJL_HR_06	1:47:39	구술발화 1.5.	박	소신애, 박진혁	8. 4
7	CJL_HR_07	1:17:00	구술발화 1.6.1.	박	소신애, 박진혁	8. 5
8	CJL_HR_08	2:06:37	구술발화 1.6.2. ~ 1.8.2.	박	소신애, 박진혁	8. 5
9	CJL_HR_09	1:54:20	구술발화 1.8.3 ~ 1.9.4.	박	소신애, 박진혁	8. 5
10	CJL_HR_10	2:09:06	어휘 20101 ~ 20412	박	소신애, 박진혁	8. 7
11	CJL_HR_11	1:19:51	어휘 20413 ~ 20610	박	소신애, 박진혁	8. 7
12	CJL_HR_12	2:01:01	어휘 20611 ~ 20825	박	소신애, 박진혁	8. 7
13	CJL_HR_13	2:05:58	어휘 20826 ~ 21024	박	소신애, 박진혁	8. 7
14	CJL_HR_14	1:33:50	어휘 21101 ~ 21265	박	소신애, 박진혁	8. 8
15	CJL_HR_15	2:08:46	어휘 21301 ~ 21607	박	소신애, 박진혁	8. 8
16	CJL_HR_16	2:19:27	어휘 21608 ~ 21931	박	소신애, 박진혁	8. 8
17	CJL_HR_17	1:46:16	어휘 21932 ~ 22224	박	소신애, 박진혁	8. 8
18	CJL_HR_18	2:21:10	어휘 22225 ~ 22374	박	소신애, 박진혁	8. 9
19	CJL_HR_19	1:21:52	어휘 22375 ~ 22541	박	소신애, 박진혁	8. 9
20	CJL_HR_20	2:04:41	어휘 22601 ~ 22921	박	소신애, 박진혁	8. 9
21	CJL_HR_21	1:01:27	어휘 22922 ~ 23108	박	소신애, 박진혁	8. 9
22	CJL_HR_22	1:36:00	어휘 23109 ~ 23441	박	소신애, 박진혁	8. 10
23	CJL_HR_23	1:56:39	음운 31001 ~ 32046	박	소신애, 박진혁	8. 10
24	CJL_HR_24	2:36:35	음운 32047 ~ 32273	박	소신애, 박진혁	8. 10
25	CJL_HR_25	1:18:18	음운 32274 ~ 32362	박	소신애, 박진혁	8. 10

26	CJL_HR_26	2:03:28	문법 40101 ~ 40404	박	소신애, 박진혁	8. 11
27	CJL_HR_27	1:39:09	문법 40405 ~ 41016	박	소신애, 박진혁	8. 11
28	CJL_HR_28	1:05:59	문법 41017 ~ 41116	박	소신애, 박진혁	8. 11
29	CJL_HR_29	1:19:52	구술발화 보충 1.2.4., 1.2.5., 1.4., 10511, 10514	김	소신애, 박진혁	8. 12
합계		52:00:16				

1.5 전사

(1) 1차 전사(2007년 9월)

구술발화 : 곽충구, 박진혁, 소신애

어휘 : 박진혁, 소신애

음운 : 소신애

문법 : 박진혁

(2) 1차 점검(2007년 10월)

구술발화 : 곽충구, 박진혁, 소신애

어휘 : 곽충구, 박진혁, 소신애

음운 : 곽충구, 박진혁

문법 : 곽충구, 소신애

(3) 2차 점검(2007년 11~12월)

구술발화 : 곽충구, 박진혁, 소신애

어휘 : 곽충구, 박진혁, 소신애

음운 : 곽충구, 박진혁

문법 : 곽충구, 소신애

2. 전사 원칙

2.1 구술 발화 전사

구술 발화는 4시간 정도의 분량을 선정하여 전사하였다. 구술 발화는 문장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각 분절 단위의 끝은 반드시 문장 종결 부호(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마무리하였다. 제보자의 이야기 중에 조사자의 말이 들어가더라도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조사자 사이에 문장부호를 찍지 않았다. 내용이 전환될 경우,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이야기가 중간에 끊겨 내용이 전환되면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마무리하였다. 의미 내용상 분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분절 내에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입력하고 문장부호를 넣은 다음 이어서 { } 안에 지역어 문장에 대한 표준어 대역을 넣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었다.

형태음소 전사를 기본 원칙으로 삼아 전사하였다. 따라서 곡용형, 활용형, 파생어, 합성어 내부의 형태소 경계가 드러나도록 하였다. 단, 형태소 내부는 음소 전사를 하였다.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음운 현상으로 인하여 부가적인 발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안에 한글 또는 음성 기호로써 발음을 표시하였다. 특히, 이 지역어의 경우 /ㅈ, ㅊ, ㅍ/이 치음 또는 치조음으로 발음되는 까닭에, /자저조주/와 /쟈저쵸쥬/를 구별하여 전사하였다. /자/ 계열로 전사한 /ㅈ/은 치음 또는 치조음을 나타내고, /쟈/ 계열로 전사한 /ㅈ/은 경구개음을 나타낸다. /ㅊ/과 /ㅍ/의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따랐다.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없거나 어감이 달라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분절을 하고 전사하는 경우 분절 단위로 전사 번호를 부여하였다. 전사 번호는 분절된 문장의 맨 앞에 입력하고, 발화자 표시는 전사 번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 (조사자)나 “#” (제보자)와 같은 부호를 입력하였다. 음성 전사의 경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추측이 가능한 부분은 [x x]안에 전사하고 음성 청취와 전사가 불가능하면 음절, 혹은 모라(mora) 수만큼 ***로 표시하였다. 표준어 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2.2 어휘 항목 전사

- ① 조사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 어휘는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따라서 곡용 어미나 활용 어미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들 어미가 포함된 부분까지 전사하였다.
- ② 지역어 어절이 표준어형으로는 띄어 써야 할 경우라도 하나의 발화 단위로 판단되면 지역어의 음성 전사에서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③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는 경우 동일한 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전사하였다.
- ④ <주의>를 통하여 조사된 지역어형은 별도의 항목으로 전사하지 않았으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제 항목과 관련된 지역어 정보를 (+) 안에 기록하였다.

⑤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2”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⑥ 지역어형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어 응답란에 “*” 표시, 지시 대상은 없는데 이름만 있는 경우에는 응답형 뒤에 “&” 표시를 하였다.

⑦ 지역어 응답형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친구형은 응답형 뒤에 (+친), (+구)로 표시하였다.

⑧ 사용 빈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응답형 뒤에 (+다), (+소)로 사용 빈도 차이를 표시하였다.

⑨ 지역어형이 비칭과 존칭으로 구별될 때 비칭은 응답형 뒤에 (+비)로, 존칭은 응답형 뒤에 (+존)으로 표시하였다.

⑩ 조사 항목에 대한 지역어형이 두 개 이상이고 사용 계층이 노년층과 젊은층으로 구분되는 경우 응답형 뒤에 (+노), (+유)로 표시하였다.

2.3 음운 항목 전사

① 조사된 지역어의 어간과 어미가 통합된 음성형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② 어미를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제시한 항목에서는(‘-고(-더라)’, ‘-아/어서(-아/어도)’) 조사하기 쉬운 어미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③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 “=3”을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2.4 문법 항목 전사

① 표제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가 포함된 부분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② 표제 항목에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4”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2.5 표기 방법

① ‘위’가 단모음 [y]로 실현되거나 상향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더라도 모두 ‘위’로 전사되(+) 안에 그 사실을 밝혀주었다.

② ‘외’가 단모음 [ø]로 실현되면 ‘외’로 전사하고, 이중모음 [we]로 실현되면 ‘웨’로 전사하였다.

③ 비모음은 해당하는 음절 다음에 ~ 표시를 하였다.

④ 장음은 “:”, 인상적 장음은 “::” 등으로 표시하였다.

3. 전사 자료

제1편 구술 발화

1.1. 조사 마을의 환경과 배경

1.1.1. 마을 들여다보기

10101 # 그 똑똑한 년대는 모르겠소. {그 똑똑한 연대는 모르겠소.}

10101 @ 예. 예. {예. 예.}

10101 # 게 우리집에는 그게 있는데, 어느때 건너왔다는 게 야, 개척이 어느때라는 게. {그게, 우리집에는 그게 있는데, 어느 때 건너왔다는 게 야, 개척이 어느 때라는 게.}

10101 @ 예. 그, 그, 아바니, 아바니는 태어나시기는 그러면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두? {예. 그,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태어나시기는 그러면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10101 # 거 회룡봉에서 태어났디. {거 회룡봉에서 태어났지.}

10101 @ 예. 근데 그 전에 아바니 아버지께서…… {예. 근데 그 전에 그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10101 # 우리 클아바니때 건너왔단 말이오. {우리 할아버지 때 건너왔단 말이오.}

10101 # 우리 조부님때. {우리 조부님 때.}

10101 @ 그러면은 그분들은 어디에서 사시다가 건너오셨습두?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에서 사시다가 건너오셨습니까?}

10101 # 겨~흥군 농경동이라는 데서 왔소. {경흥군 농경동이라는 데서 왔소.}

10101 @ 예. 그, 다른 분들이랑 다 같이[가치] 이렇게…… {예. 그, 다른 분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10101 # 냐~ 우리 집안만 해두 야, 큰집 작은집이 한 십여호 할매애 왔다니. {냐~, 우리 집안만 해도 야, 큰집 작은집이 한 십여 호 함께 왔지.}

10101 @ 아 그렇습두? {아, 그렇습니까?}

10101 # 그때 그러더란 말이오. {그때 그러더란 말이오.}

10101 @ 예. {예.}

10101 # 우리 클아반네 그, 창째 돌림인데, 그 창째애 사오육촌이 야들이 건너왔다던디, 우리 클아반네 형데분이구 우리 클아반네 사촌이 또 몇 분 돼구 육촌이 또 몇 분, 이래서 야들집[야들집]이 동시에 건너왔다구 그러더구만. {우리 할아버지네 그, ‘창’자 돌림인데, 그 ‘창’자의 사오육촌이 여덟이 건너왔다던지, 우리 할아버지네 형제분이고 우리 할아버지네 사촌이 또 몇 분 되고 육촌이 또 몇 분, 이래서 여덟 집이 동시에 건너왔다고 그러더구먼.}

10101 @ 아, 그렇습두? 어떻게 건너왔습두?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건너왔습니까?}

10101 # 그, 그전에, 건너오기 전에, 그, 저어먹을 따~이 있어야 댜단 말이오. {그, 그 전에, 건

너오기 전에, 그, 지어먹을 땅이 있어야 된단 말이오.}

10101 # 기양 만져 건넨온 사름들까 열락으 해에서 좀 토지르 장만하게끔 맨들구. {그냥 먼저 건넨온 사름들과 연락을 해서 좀 토지를 장만하게끔 만들고.}

10101 # 그 다음에 거기 잇으면서 와서 집우 마련하구, 지을 사름들은 징구 무슨 냄이 내애놓 온 집우 수리르 한다든가 무스그 새집우 징구 나가구 헌집우 내애놓는 거 수리르 한다 든가 이래서 와서 채비르 했던 말이오. {그 다음에 거기 잇으면서 와서 집을 마련하고, 지을 사름들은 짓고 무슨 남이 내어놓은 집을 수리를 한다든가 무슨 새 집을 짓고 나가 고 헌 집을 내어놓는 것을 수리를 한다든가 이래서 와서 차비를 했던 말이오.}

10101 # 기애니까 건넨오기 위해서 준비사업이 게 몇 해 걸렸디 머 기계. {그러니까 건넨오기 위해서 준비사업이 그게 몇 해 걸렸지 뭐. 기계.}

10101 # 그저 물뚝 건넨온 게 애니란 말이오. 기계. {그저 훌쩍 건넨온 게 아니란 말이오. 그 게.}

10101 # 그래 와서, 그 해룡보~이라는 데 살다가 이기 훈춘짜으르 온 사름덜뚜 잇구, 왕청 간 사름덜뚜 잇구. {그렇게 와서, 그 회룡봉이라는 데 살다가 여기 훈춘쪽으로 온 사름들도 있고, 왕청 간 사름들도 있고.}

10101 # 그래서 여라 끝에 또 농가뻬디. 머. {그래서 또 여러 곳에 또 나누어졌지 뭐.}

10101 # 개: 그 후손덜이 지금 이 연변 각지에 다 잇소. {그래서 그 후손들이 지금 이 연변 각 지에 다 잇소.}

10101 @ 그러무 처음에 넘어오실 때느 박개 집안 사름들만 왔습두? {그러면 처음에 넘어오실 때는 박가 집안 사름들만 왔습니까?}

10101 # 아니 다른 집안덜뚜 많앰디 머. {아니, 다른 집안들도 많았지 뭐.}

10101 @ 그럼 그 도롱비, 도롱비하구 벌똥이하구 저기, 그 성씨가 대개 어떻게 있습두? {그럼 그 도롱비, 도롱비하고 벌등하고 저기, 그 성씨가 대개 어떻게 있습니까?}

10101 # 성씨, 그때는 야~, 김씨, 박씨, 니씨, 최씨. {성씨, 그때는 야~, 김씨, 박씨, 이씨. 최씨.}

10101 @ 본관들이 다 있대님두? 머 어디 최씨, 어디 김씨. {본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 최씨, 어디 김씨.}

10101 # 잇대앵구 기래. 응, 그런 분덜이. {있지않고 그래. 응, 그런 분들이.}

10101 # 거저 웬: 많기는 김씨하구 박씨 데일 많앰소 거기. {그저 가장 많기는 김씨하고 박씨 제일 많앰소.}

10101 @ 아, 그렇습두? {아, 그렇습니까?}

10101 # 어, 김해 김씨하구 밀양 박씨가 많앰디. {어, 김해 김씨하고 밀양 박씨가 많았지.}

10101 @ 웬 첫감에 올 때는 그 마을 이름두 몰랐습두? {맨 처음에 올 때는 그 마을 이름도 몰랐습니까?}

10101 # 원래, 그전에 올 때는 도롱비라구 했던 말이오. 더거, 해룡보~이르. {원래, 그 전에 올 때는 도롱비라고 했던 말이오. 저거, 회룡봉을.}

10101 # 도롱비라는 게 이게 한족말두 애니구 아마 무슨 녀진말인두 무슨 말인두 그렇기 뻬던 거 같애. {도롱비라는 게 이게 한족말도 아니고 아마 무슨 여진말인지 무슨 말인지 그 렇게 뻬던 것 같아.}

10101 # 거 이후에 학자덜이 말하는 게 그건 녀진말이라는 거 같애, 도롱비라구. {그 이후에 학자들이 말하는 게 그건 여진말이라는 것 같아. 도롱비라고.}

10101 # 여기 그 회룡봉 위에 쫘, 그 이 경신에 야, 지금두 그 말덜이 잇는데, 지명 이름이 남아 잇는 게, 저어네 가던 회룡보~이르 나가자네는 게 늙우 지나서 가 동넛마율이 잇대 니우? {여기 그 회룡봉 위에 쫘, 그 이 경신에 야, 지금도 그 말들이 잇는데, 지명 이름이 남아 잇는 게, 당신들 가던 회룡봉을 나가자면 거기 늙을 지나서 가 동넛마율이 잇지 않소?}

10101 # 그거 시바데기라구 했소. {그거 시바데기라고 했소.}

10101 # 그것두 그게 야, 한족사람덜 말두 애니구 조선사람덜 말두 애니란 말이오. {그것도 그게 야, 한족사람들 말도 아니고 조선사람들 말도 아니란 말이오.}

10101 # 그담에 그거 또 지나서 마을이 한내 잇는데 지금 늙이 한내 큰 거 맨들었는데 거기두 부락이 쫘쫘 잇었소. 한 야들호[야들오]. {그 다음에 그거 또 지나서 마을이 하나 잇는데 지금 늙이 하나 큰 거 만들었는데 거기도 부락이 조금 잇었소. 한 여덟 호.}

10101 # 그거 녀덕미라구 하구. {그거 녀덕미라고 하고.}

10101 # 녀덕미라구 했디 며. {녀덕미라고 했지 뭐.}

10101 # 번말이 처암엔 어뻤던디 간에 변하구 변하구 해서 녀덕미, 녀덕미 했단 말이오. {본말이 처암엔 어뻤든지 간에 변하고 변하고 해서 녀덕미, 녀덕미 했단 말이오.}

10101 # 그담에 고거 지나서 노전이라는 마을이 잇는데, 경계부터 원래 회룡봉 구역에 들었디 이전에. {그 다음에 그거 지나서 노전이라는 마을이 잇는데, 거기부터 원래 회룡봉 구역에 들었지 이전에.}

10101 # 야~, 그 노전이라는 거 이전에는 해:대, 해:대, 이랬다구. {야~, 그 노전이라는 거 이전에는 해:대, 해:대라고 했지.}

10101 # 해:대. 응, 해:대~이라구 했딤. {해:대. 응, 해:대라고 했지.}

10101 # 기애니까 기게 야~, 중국사람덜 말에는 없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야, 중국사람들 말에는 없는 말이지.}

10101 @ 그러문 웬: 가참운, 웬: 가깝운 게 그러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지금 말씀하신 거기고, 해대가 제일 가깝고 그 담에. {그러면 가장 가까운, 가장 가까운 게 지금 말씀하신 거기고, 해대가 제일 가깝고 그 다음에.}

10101 # 그담에 시바데기. {그 다음에 시바데기.}

10101 @ 시바데기구. 그문 데:일 먼 게 그림 녀덕미가 돼겠습두? {시바데기구. 그러면 제일 먼 게 그림 녀덕미가 되겠습니까?}

10101 # 아, 아니, 녀덕미 어간에 잇구 시바데기. {아, 아니, 녀덕미 사이에 있고, 시바데기.}

10101 # 이도포 앞이란 말이오. {이도포 앞이란 말이오.}

10101 @ 아, 그렇습두? 오오. {아, 그렇습니까? 오오.}

10101 # 게 이도포두 전에는 뭐, 뭐, 어떻게 나온 이름인지 봄무도~이라구 했소. {그게 이도포도 전에는 뭐, 뭐, 어떻게 나온 이름인지 봄무동이라고 했소.}

10101 # 봄무동, 봄무동, 해애티. {봄무동, 봄무동, 했지.}

10101 # 갠데 한국에서 어느때 무슨 어느 분이 말하는 게, 오도~이라구 해애티더구만 그거.

{그런데 한국에서 어느 때 무슨 어느 분이 말하는 게, 오동이라고 했다더구먼. 그거.}

10101 # 어, 게 ‘오오’가 야~, 중국말루 ‘우우’ 돼대니우? {어, 그거 ‘오’가 야, 중국말로 ‘우’ 되지 않소?}

10101 # ‘우우’가 또 조선말르, 다시 한뼘르 번디무 ‘우우’가 ‘무’울르 뉘 수 잇단 말이오. ‘무우’. {‘우’가 또 조선말로, 다시 한자로 옮기면 ‘우’가 ‘무’로 될 수 잇단 말이오. ‘무’}

10101 # 게 봉무동, 무동, 무동. 그러게 왜앓는둥 생각하건대 그거 그, 아주 그건 미묘하게 뉘는데 그거 모른단 말이오, 그거 언어학자덜이 연구를 해야 알겠디마는. {그게 봉무동, 무동, 무동...그렇게 되었는데 생각하건대 그거 그, 아주 그건 미묘하게 뉘는데 그거 모른단 말이오, 그거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알겠지마는.}

10101 # 이도포두 원래는 그거 봉무동, 봉무동, 했소. {이도포도 원래는 그거 봉무동, 봉무동, 했소.}

10101 @ 아바니, 그러면 지금 회룡봉이라고 부르게 된 거는 언제부텀두? {할아버지. 그러면 지금 회룡봉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10101 @ 그, 지금 벌등촌이랑 다 나뉘재임두? {그, 지금 벌등촌이랑 다 나뉘었지 않습니까?}

10101 # 야~, 본래 회룡봉, 노전, 벌등, 이게 서이 한 개 행정구역을르서 해룡보일르 뉘는데, 그 회룡보일르 된 게 몰라, 노전인국때라구 하는 사람두 잇구, 우리 아아때두 야~, 도롱비, 도롱비, 벌등, 벌등, 이랬소. {야~, 본래 회룡봉, 노전, 벌등, 이것이 셋이 한 개 행정구역으로 회룡봉으로 뉘는데, 그 회룡봉으로 된 게 몰라, 노전인국 때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아이때도 야~, 도롱비, 도롱비, 벌등, 벌등, 이랬소.}

10101 # 벌등, 도롱비, 해:대, 이렇게 불렀소. {벌등, 도롱비, 해:대, 이렇게 불렀소.}

10101 @ 그러면, 그, 지금처럼, 이렇게, 회룡봉, 벌등, 노전 이렇게 나뉘는 때는 아바니 아드님 때부터…… {그러면 그, 지금처럼, 이렇게, 회룡봉, 벌등, 노전 이렇게 나뉘는 때는 할아버지 아드님 때부터…….}

10101 # 야~. {야~.}

10101 @ 그 이전일까요? {그 이전일까요?}

10101 # 아니. {아니.}

10101 # 거, 기래니까 팔십 뉘 년도에 나뉘어뉘소. 팔십……팔십 삼년도에 세 개 행정굴르씨 촌을르, 노전촌, 회룡봉촌, 벌등촌 이렇게 나뉘아졌소. {그거, 그러니까 팔십 뉘 년도에 나뉘어졌소. 팔십……팔십 삼년도에 세 개 행정구로서 촌으로, 노전촌, 회룡봉촌, 벌등촌 이렇게 나뉘어졌소.}

10101 # 팔십 삼년도 올슬께오. {팔십 삼년도 올을 것이오.}

10101 # 그전엔 거저 통털어 회룡봉 해앓는데. {그 전엔 그저 통틀어 회룡봉 했는데.}

10101 # 기래구 대, 대르 편성했디. {그리고 대, 대를 편성했지.}

10101 # 소조가 한가지인 대. {소조와 같은 대.}

10101 @ 그문 그 맨 처음에 오실 때요, 오실 때에는 여기 도롱비에 아무도 아이 살았습두? {그럼 그 맨 처음에 오실 때요, 오실 때는 여기 도롱비에 아무도 안 살았습니까?}

10101 # 만저 온 사람덜이 잇엇디. {먼저 온 사람들이 있었지.}

10101 @ 만저 온 사람, 그러면 쪼끔 더 만저 온 사람두 잇구, 그 전부터 살던 사람들은 없었

슴두? {먼저 온 사람, 그러면 조금 더 먼저 온 사람도 있고, 그 전부터 살던 사람들은 없었습니까?}

10101 # 그 전에는, 그, 육군대라구서 한족들 군대들이 잇었는데 야~. {그 전에는, 그, 육군대라고 한족들 군대들이 있었는데 야~.}

10101 # 그 사람, 그 사람들이 드문드문 그 회룡봉에 땡기메 잇었는데, 벨르 집두 없이, 그레 강변 순찰으 아무래 헛갬디. {그 사람, 그 사람들이 드문드문 그 회룡봉에 다니면서 있었는데, 별로 집도 없이, 그레 강변 순찰을 아무래도 헛갬디.}

10101 # 그런 사람덜 땡기는 길이나 좀 잇었구, 따~이 좋구 하니까. {그런 사람들 다니는 길이나 조금 잇었고, 땅이 좋고 하니까.}

10101 # 이 조선에서, 그, 경흥 대안이니까 야, 건네와서 따~아 저엇단 말이오. {이 조선에서, 그, 경흥 대안이니까 야, 건너와서 땅을 지엇단 말이오.}

10101 # ‘아, 이거 이럴 바에는 건네와 살자.’ {‘아, 이거 이럴 바에는 건너와 살자.’}

10101 # 게 한 집 두 집 그레, 모두 건네와서부터 우리랑 건네올 때무, 그 때 말하는 게, 우리 클아반네랑 건네올 때는 따~이 완으르, 많이, 많이 개척해엿디. {그 한 집, 두 집 그레, 모두 건너와서부터 우리랑 건너올 때면, 그때 말하는 것이, 우리 할아버지네랑 건너올 때는 땅이 완전히, 많이, 많이 개척헛디.}

10101 @ 그문, 그, 주민들 간에는, 거기 도롱비 맨 처음 사는, 살앗던 사람들 간에는 다들 머 친척이었슴두? 아니면…… {그러면, 그, 주민들 간에는, 거기 도롱비 맨 처음 사는, 살앗던 사람들 간에는 다들 뭐 친척이었습니까? 아니면…….}

10101 # 친척이 애닌 사람덜투 많구, 또 친척두 많구, 그랬디. {친척이 아닌 사람들도 많고, 또 친척도 많고 그랬지.}

10101 # 우리 박씨네는 야듭집이[야듭찌비] 건네왔다는데 그 야듭집이[야듭찌비] 이쪽에 와서 혼사르 지내구 무슨 그레다나니 세간 내구 해서 야라 집으루 인차 인차 뿔엇다오. {우리 박씨네는 여덱집이 건너왔다는데 그 여덱집이 이쪽에 와서 혼사를 지내고 무슨 그러다보니 세간 내고 해서 여러 집으로 금세 금세 불엇다오.}

10101 @ 그 웬: 첫감에는 그러문 같은 성 가진 사람덜끼리, 사람덜끼리 몰아 살앗슴두? {그 맨 처음에는 그러면 같은 성 가진 사람들끼리, 사람들끼리 모여 살앗습니까?}

10101 # 애니. {아니.}

10101 @ 아, 그문 다, 다, 여기서 섞여서르…… {아, 그러면 다, 다, 여기서 섞여서…….}

10101 # 야, 회룡봉 그 부락에두 살구, 우리 그 클아반네두 벌뜨~에 두 집이 살앗답데. {야, 회룡봉 그 부락에도 살고, 우리 그 할아버지네도 벌등에 두 집이 살앗답디다.}

10101 # 그라구 회룡봉 부락에 땡 집 살구. {그리고 회룡봉 부락에 땡 집 살고.}

10101 # 데 벌뜨~이라는 것두 야~, 벌판 등가리란 말이 그게 벌땡, 벌땡 이러기 뿔소. {저 벌등이라는 것도 야~, 벌판 등가리(평평한 데에서 위로 높게 내민 부분)라는 말이 그게 벌등, 벌등 이렇게 뿔소.}

10101 # 우리 어느 클아바닌두 야~, 저, 박, 박참부~이라는 분이 잇었는데, 그 클아바니네 벌판 등가리 좀 높은데 잇탱구 어땡소. {우리 어느 할아버지인지 야~, 저, 박, 박창분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네 벌판 등가리 좀 높은데 있지않고 어땡소.}

10101 # 거기다 집우 좃엇데[지엇데]. {거기다 집을 지엇데.}

10101 # 그 산꿍에 들으가 쩡:디만 지금은 야~. 이전엔 쪽 나와서 궁게서 좀 높은 끝에다서 집을 쩡:구 살았는데, 벌똥집, 벌똥집 했디. {그 산자락에 들어가 짓지만 지금은 야, 이전엔 죽 나와서 거기에서 좀 높은 곳에다 집을 짓고 살았는데, 벌등집, 벌등집 했지.}

10101 # 벌판 등갈집이라구 벌똥집. {벌판 등가릿집이라고 벌등집.}

10101 # 그래서 그때부터 벌뜨~이, 벌뜨~이 댜단 말이오. {그래서 그때부터 벌등이, 벌등이 댜단 말이오.}

10101 # 벌판 등가리라는 말이 벌뜨~이디 머. {벌판 등가리라는 말이 벌등이지 뭐.}

10101 @ 그럼 벌똥이란 말은 다 오셔가지고 만들어진……. {그럼 벌등이라는 말은 다 오셔 가지고 만들어진…….}

10101 # 그럼, 음. {그럼, 음.}

10101 @ 옛날에는 다 그럼 도롱비하고…… {옛날에는 다 그럼 도롱비하고……}

10101 # 그래, 거저 도롱비르 딱 도롱비 했디. {그래, 그저 도롱비를 딱 도롱비 했지.}

10101 @ 노전이라는 거는 한족말임두? {노전이라는 것은 한족말입니까?}

10101 # 어, 어, 한족말이오. 루텐. {응, 응, 한족말이오. 루텐.}

10101 # 한족말이. {한족말.}

10101 # 그 전에는 해:대라 댜단 말이오. {그 전에는 ‘해:대’라 댜단 말이오.}

10101 @ 해래는 그럼 어떤 뜻임두? {‘해래’는 그럼 어떤 뜻입니까?}

10101 # 응? 해:대. 해:대. 해:대. 으응. {응? 해:대. 해:대. 해:대. 응.}

10101 # 응, 갠데 그제 무슨 뜻인가 모른다우 그제. {응, 그런데 그제 무슨 뜻인지 모른다오 그제.}

10101 # 도롱비두 무슨 뜻인가 모르구, 시바테기두 녁덕미두 그제 다 모른단 말이오. {도롱비도 무슨 뜻인지 모르구, 시바테기도 녁덕미도 그제 다 모른단 말이오.}

10101 # 거저 거, 말루는 야~, 녀진 사람들이 지명 이름이라 하디 머. {그저 그, 말로는 야~, 여진 사람들이 지명 이름이라 하지 뭐.}

10101 # 여이 야~, 여 회룡봉 앞에 건네가서두 야~, 지끔은 하이평 무슨 이렇게 이름이 잇대니우? 정식 이름이, 야~? {여기 야~, 이 회룡봉 앞에 건너가서도 야~, 지금은 하이평 무슨 이렇게 이름이 있잖소? 정식 이름이, 야~?}

10101 # 갠데 그제 하이평 이전에는 너울이라구 했소. {그런데 그제 하이평 이전에는 너울이라고 했소.}

10101 # 것두 기게 야~, 조선말두 애니구 중국말두 애니란 말이오. {그것도 그제 야~, 조선말도 아니구 중국말도 아니란 말이오.}

10101 # 너울이, 너울이 했소. {너울이, 너울이 했소.}

10101 # 이 두만강변에 좌우쪽에 거, 그런 이름이 지금 많은데, 조선에서두 너울이라 해서 다 잊어버렸갠디 무슨. {이 두만강변의 좌우쪽에, 그, 그런 이름이 지금 많은데, 조선에서도 너울이라 해서 다 잊어버렸갠디 무슨.}

10101 # 여기 사람두 도롱비라구 해두 모르는 게 까뜩안데. {여기 사람도 도롱비라고 해도 모르는 사람이 가득한데.}

10101 @ 그럼 그 도롱비라는 말은 아는 나이, 나아때가 어느 이상돼야 아암두? {그럼 그 도롱비라는 말을 아는 나이, 나이 대가 어느 이상 돼야 압니까?}

10101 # 우릿등렬들은 도롱비라구 하문 다 아오. {우리 또래들은 도롱비라고 하면 다 아오.}

10101 # 갠데 우리 아아들이랑은 도롱비라구 하문 모룬단 말이오. {그런데 우리 애들이랑은 도롱비라고 하면 모룬단 말이오.}

10101 @ 그럼 아드님 그 연배에서는 아는 사람이 없구. {그럼 아드님 그 연배에서는 아는 사람이 없고.}

10101 # 아, 우리 아들네 꽤거리덜뚜 늙은들이 잇어서 그말을 쓰는 지 아들사 알디 무. {아, 우리 애들네 꽤거리들도 늙은이들이 잇어서 그 말을 쓰는 집 애들이야 알지 뭐.}

10101 # 우리 아들이랑은 우리 두째꺼지랑은 아오. {우리 애들이랑은 우리 둘째까지랑은 아오.}

10101 # 도롱비, 별똥 그거 다 해:대구 시바데기구 그거 안단 말이오. {도롱비, 별똥 그거 다 해:대고 시바데기고 그거 안단 말이오.}

10101 # 늙은들이 자꾸만 그렇게 불렀으니까.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다 부르던 이름 내꺼지 대래 불렀단 말이오 그거. {늙은이들이 자꾸만 그렇게 불렀으니까.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다 부르던 이름 나까지 되도록 불렀단 말이오 그거.}

10101 # '그놈들이 또, 어, 그거 어디메르 옥천도~이르 시바데기라 한다.' {'그 놈들이 또, 어, 그거 어디를 옥천동을 시바데기라 한다.'}

10101 # 이렇게 알디. {이렇게 알지.}

10101 # 개: 앞으로 와서사 영: 없어디디 머. {그래 앞으로 와서야 영 없어지지 뭐.}

10101 @ 맨 처음 그니까 그, 옮겨 오게 댜 거는 조선땅에 땅이 별로 지을 데가 없어서 옮겨 온 것임두? {맨처음 그러니까 그, 옮겨 오게 된 것은 조선땅에 땅이 별로 지을 데가 없어서 옮겨 온 것입니까?}

10101 # 그, 농경도~에 우리 집안이 야~, 큰집 작은집이 한 삼사십호[삼사십오] 잇엇단 말이오. {그, 농경동에 우리 집안이 야, 큰 집 작은 집이 한 삼 사십 호 잇엇단 말이오.}

10101 # 기라니까, 한 마을에 그르케 다: 몰아 사니까 그 군일[구닐]이랑 잇으문 복잡아구. {그러니까, 한 마을에 그렇게 다 모여 사니까 그 군일이랑 잇으면 복잡하고.}

10101 # 그라구 또 거, 전에두 한가지디 머 지끔처럼 지끔두 무슨 큰집 작은집이나 무슨 집안 째에 일이 잇으문 무스거 내: 주구 땡기구 이래야 돼대니우? {그리고 또 거, 전에도 같지 뭐 지끔처럼 지금도 큰 집 작은 집이나 무슨 집안에 일이 잇으면 뭐 내어 주고 다니고 이래야 되잖소?}

10101 # 기애니까 세간살이 구차한 사람덜이 그거 하루 건네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데 빠치기 바쁘디, 따~이 잭아 농사는 못 짓디, 그래 바빠서 이 째에 건네와서 농사두 많이 징구, 그것두 쪼끔씩 작은 거는 피하구 큰 일에는 어땡든 가야 돼디. {그러니까 세간살이(살림) 구차한 사람들이 그거 하루 건너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데 가 보기 바쁘지(힘들지), 땅이 작아 농사는 못 짓지, 그래 힘들어서 이 째에 건너와서 농사도 많이 짓고, 그것도 쪼끔씩 작은 것은 피하고 큰 일에는 어땡든 가야 되지.}

10101 @ 음, 그러면은 이 쪽으로 넘어오신 분들 말구, 원래 사시던 데도 그러면 친척들이 많았습두? {음, 그러면은 이 쪽으로 넘어오신 분들 말고, 원래 사시던 데에도 그러면 친척

들이 많았습니까?)

10101 # 많대웁구 그래. 지금두 많디 머. {많지 않고 그래. 지금도 많지 뭐.}

10101 # 더 북조선 더 경흥군에 많디 머. {저 북조선 저 경흥군에 많지 뭐.}

10101 @ 그문 무스거 일: 있으문 그런 데 가서르 일으 해 줘구 다시 또 와야 돼구…… {그러면 무슨 일 있으면 그런 데 가서 일을 해 주고 다시 또 와야 되고……}

10101 # 아 지금은 안 되지만은 그 해방 전에 일본 아들 잇을 때에는 건너갔다 건너왔다 해엿소. {아 지금은 안 되지만은 그 해방 전에 일본 애들 잇을 때에는 건너갔다 건너왔다 했소.}

10101 # 해방 후에두 야~, 한 삼사년은 건너갔다 건너왔다 해엿소. {해방 후에도 야~, 한 삼사년은 건너갔다 건너왔다 했소.}

10101 # 제사나 무슨 혼사나 환갑이나 이런 일 잇을 때문. {제사나 무슨 혼사나 환갑이나 이런 일 잇을 때면.}

10101 # 그애 더, 조선 전제~이 이후에 못 땡기게 돼엿디. {그래 저, 조선 전쟁 이후에 못 다니게 됐지.}

10101 # 그 전까지느, 오십년도 이전까지느 글으 때에 가지구 더, 거저 촌에서 야~, 회룡봉 부락에 무슨 그거 관리르 하는 사람이 도자~아 탁 맞아가지구서 건너갔소. {그 전까지느, 오십 년도 이전까지느 글(서류)을 때어 가지고 저, 그저 촌에서 야~, 회룡봉 부락에 무슨 그것 관리를 하는 사람 도장을 탁 받아가지고서 건너갔소.}

10101 # 에, 지금으느 이 조선 건너가자무느 수속이 복잡아구 돈도 많이 물구. {에, 지금은 이 조선 건너가자면은 수속이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고.}

10101 # 다 왜국 가는 수속과 한가지루 취급아우. 이게 지금. {다 외국 가는 수속과 같이 취급하오. 이게 지금.}

10102 @ 아바니, 이, 그, 도롱비에 있는 산이나 강 이런 거 중에 좀 특이할 만한 거 있으면 쫌 얘기를 좀 해 줍소. {할아버지, 이, 그, 도롱비에 있는 산이나 강 이런 것 중에 좀 특이할 만한 것이 있으면 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10102 @ 산 이름이라든지, 아니면은 강 이름이라든지…… {산 이름이라든지, 아니면은 강 이름이라든지……}

10102 # 머, 가~이라는 게 무슨 두만가~이 앞으로 쪽 지나가는 게 거 머 두만가~이 한꺼게구. {머, 강이라는 게 무슨 두만강이 앞으로 죽 지나가는 게 그 뭐 두만강이 하나구.}

10102 # 이 회룡보~에서는 웬: 좋다는 산이 야~, 두뭇새이라는 게 잇소. {이 회룡봉에서는 가장 좋다는 산이 야~, '두뭇새이'라는 게 잇소.}

10102 @ 두뭇새이요. {'두뭇새이'요.}

10102 # 에, 둥기 이래 탁 놓은 거 두울으 이래 착 논 거터르 됐는데, 그 사이르, 그 두뭇사이디. {에, 두명 이렇게 탁 놓은 것 둘을 이렇게 착 놓은 것처럼 됐는데, 그 사이를, 그 두명 사이지.}

10102 # 그래서 이름이 두뭇사이 돼엿단 말이오. {그래서 이름이 '두뭇사이' 됐단 말이오.}

10102 # 갠: 거 두뭇새:이, 새:이. {그런 거 '두뭇새:이, 새:이'}

10102 # 두뭇새이 됐다니. 두뭇새:이. {'두뭇새이' 됐지. '두뭇새:이'.}

10102 # 두뭇새이. 그문 산이 그 둥기 두 개를 얹어논 것이 각각 산이고 그 어간은…… {‘두뭇새이’. 그러면 산이 그 두명 두 개를 얹어놓은 것이 각각 산이고 그 사이는……}

10102 # 그래 거저 그 어간으 가르쳐서, 두 산으 가르쳐서, 할때에 통털어 두뭇새이라 하문, 그 산가 그 어간 다 가르티디 머. {그래 그저 그 사이를 가리켜서, 두 산을 가리켜서, 한꺼번에 통털어 ‘두뭇새이’라 하면, 그 산과 그 사이 다 가리키지 뭐.}

10102 # 개 거기 야~, 전에는 낭기 많이 자라디, 돌이 많구 무슨 그 깔:이, 개 또 그 샷으 풀 때에 쓰는 그 새추 이런 게 다 구비하기 잇엇단 말ियो. {그래 거기 야~, 전에는 나무가 많이 자라지, 돌이 많고 무슨 그 갈대가, 그래 또 그 새끼를 풀 때에 쓰는 그 새초(억새) 이런 게 다 갖추어져 잇엇단 말ियो.}

10102 # 개:다나 그거 모루군 못 살앗디 머. {그렇다 보니 그거 모르고는 못 살았지 뭐.}

10102 # 개 거저 두뭇새르 가사 무식게 잇구 무식게 잇구, 그래서 두뭇새, 우리 회룡보~에서는 여~ 없어서는 아니 댜 게담 더게. {그래 그저 ‘두뭇새’를 가야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래서 ‘두뭇새’, 우리 회룡봉에서는 영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 저게.}

10102 @ 그 벌뜨~이하구 도롱비 사이에 이케 덕이 하나 있대님두? {그 벌등하고 도롱비 사이에 이렇게 덕이 하나 있잖습니까?}

10102 # 나~ 그 더 회룡보에서 서쪽으로 홀 보는 산이 배우대니오? 그 산으 넘어가서 잇소. 그 산으 넘어가서 잇소. {나~, 그 저 회룡봉에서 서쪽으로 바로 보는 산이 보이잖소? 그 산을 넘어가서 잇소. 그 산을 넘어가서 잇소.}

10102 @ 그, 두뭇새이 말고 또 다른 산 없습두? {그, ‘두뭇새이’ 말고 또 다른 산 없습니까?}

10102 # 개구 수루바이라는 게 또 잇디 머. {그리고 ‘수루바이’라는 게 또 있지 뭐.}

10102 @ 그건 왜 수루바이라 함두? {그건 왜 ‘수루바이’라 합니까?}

10102 # 월래 수리바위디. {원래 ‘수리바위’지.}

10102 # 갠:가 수루바이, 수루바이 이렇게 변한단 말ियो. {그러니까 ‘수루바이, 수루바이’ 이렇게 변한단 말ियो.}

10102 # 수리, 수루바이. 원래 수리바위디 머. {수리, 수루바이. 원래 ‘수리바위’지 뭐.}

10102 # 그, 수리들이 그, 야~, 둥지를 틀구 새끼를 치구, 개구 사람이 그거, 거, 벼라에 잇는다구. 떨어지기 칼 산이란 말ियो. 개 불디 못한단 말ियो 다른 짐스~이. {그, 수리들이 그, 야~, 둥지를 틀고 새끼를 치고, 그리고 사람이 그거, 그, 벼랑에 잇는다고. 떨어지기가 칼산이란 말ियो. 그래 불지 못한단 말ियो 다른 짐승이.}

10102 # 개 거기서 그런, 그런 새끼치기 좋단 말ियो. {그래 거기서 그런, 그런 새끼 치기 좋단 말ियो.}

10102 # 부엘르 거 무슨 수릴르 야~, 이런 짐승, 날짐승들[날쫄짐승들]이 거기다 새끼르 치기 좋은 데란 말ियो. {부엉이로 그 무슨 수리로 야~, 이런 짐승, 날짐승들이 거기다 새끼를 치기 좋은 데란 말ियो.}

10102 @ 전 한 번도 안, 아이 가 본 것 같은데요. {전 한 번도 안, 안 가 본 것 같은데요.}

10102 # 그렇탱구, 귀래. 그 가~에, 가~에 떡 이래 떡 이렇게 붙엇단 말ियो 가~에. {그렇잖고, 그래. 그 강에, 강에 떡 이렇게 떡 이렇게 붙엇단 말ियो 강에.}

10102 # 나~, 가~에서 이렇게 쪽 올라갔단 말이오 그 바위. 그래 수리바위란 말이오. {나~, 강에서 이렇게 쪽 올라갔단 말이오 그 바위. 그래서 수리바위란 말이오.}

10102 # 개 우선 쪽 올라가서 이래 산이 떡 생겼디. {그래 우선 쪽 올라가서 이렇게 산이 떡 생겼지.}

10102 @ 그 밑엔 물이 있구. {그 밑엔 물이 있고.}

10102 # 어~, 밑에느 물이디 며. {응, 밑에는 물이지 뭐.}

10102 # 그 산에서 가~이 자꾸만 내려때레대 흙으 파테디구 파테디구, 물이 떨어덜 거느 다 떨어데 내려가구 마감에 그 칼벼랑이 생겼단 말이오. {그 산에서 강이 자꾸만 내려때려대서 흙을 파헤치고 파헤치고, 물이 떨어질 것은 다 떨어져 내려가고 마지막에 그 칼벼랑이 생겼단 말이오.}

10102 @ 여기는 사람들은 별로 아이 올라가는 편인가 봄두? {여기는 사람들은 별로 안 올라가는 편인가 봅니다.}

10102 # 사람들, 거기 모 올라가우. 새닥다리르 가에다 놓디 못하디. {사람들, 거기 못 올라가오.}

10102 # 거 또 가서 끝까지 무슨 날짐승들[날쫂름들]으 무슨 툇가데데서 무시기르 하겠소? 낭기 한내 없디 거기 며. {그 또 가서 끝까지 무슨 날짐승들을 무슨 쫓아내서 무엇을 하겠소? 나무 하나 없지 거기 뭐.}

10102 @ 어, 보통 바위로만..... {응, 보통 바위로만.....}

10102 @ 산짐승들[산쫂름들]도 없고 맨: 날짐승[날쫂름]들만..... {산짐승들도 없고 맨 날짐승들만.....}

10102 # 그래, 산짐승[산쫂름]은 그 우에 잇디만은 거 잡아 못 먹으래 생겼단 말이오. 거. {그래, 산짐승은 그 위에 있지만은 그 못 잡아먹게 생겼단 말이오. 그.}

10102 # 여, 여스, 여스덜뚜 야~, 거기 못 내려간단 말이오. {여, 여우, 여우들도 야~, 거기 못 내려간단 말이오.}

10102 # 불디 못한단 말이오. {불지 못한단 말이오.}

10102 @ 저는 처음 들습구마. 수리바이 얘기는. {저는 처음 들읍니다. '수리바이' 얘기는.}

10102 # 게 노전에 가깝소. {그게 노전에 가깝소.}

10102 # 노전에 가깝소. 노전에서 남쪽으로 쪼끔 나가서 산으 넘어가문 그런 벼랑끝이 생긴 데..... {노전에 가깝소. 노전에서 남쪽으로 조금 나가서 산을 넘어가면 그런 벼랑끝이 생긴 데.....}

10102 @ 그문 노전이라는 게 도롱비 여깃구 벌똥이 여깃으면 노전이 왼쪽임두 오른쪽임두? {그러면 노전이라는 게 도롱비 여기 있고 벌똥이 여기 있으면 노전이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10102 # 아니. 이도폴루 가다가. {아니, 이도포로 가다가.}

10102 @ 아아, 이 중간에 있습두? {아아, 이 중간에 있습니까?}

10102 # 야아~. {야아~}

10102 @ 아, 이 중간에. {아, 이 중간에.}

10102 @ 또 재미난 어떤 산 이름 같은 거 있으면 쫂름..... {또 재미난 어떤 산 이름 같은 것

있으면 좀……}

10102 # 게에 머 손바닥만한데 무슨게 그런 게 잇겠소. {그게 뭐 손바닥만 한데 무엇이 그런 게 잇겠소.}

10102 # 거 회룡보~이, 회룡보~이문, 회룡보~이라는 게 머 쪼오끄맏탱구 어떻소? {그 회룡봉, 회룡봉이문, 회룡봉이라는 게 뭐 조그맏잖고 어떻소?}

10102 # 이 회룡보~이 지도를 보옵게. 이렇게 떡, 여보, 여 이렇게 떡 생겼단 말이오. 이렇게, 이렇게 생겼단 말이오. {이 회룡봉 지도를 보오. 이렇게 떡, 여보, 이 이렇게 떡 생겼단 말이오. 이렇게, 이렇게 생겼단 말이오.}

10102 # 요 안이 요게 노전, 요기서부터 노전이구, 회룡봉, 벌뚱, 사감방, 여 이렇게 잇는데, 여기를 보오 여 쪼오끄맏다. {이 안이 이게 노전, 여기서부터 노전이고, 회룡봉, 벌뚱, 사감방, 여기 이렇게 잇는데, 여기를 보오 이 조그맏지.}

10102 @ 벌뚱이 옆에가 무시게라 하셧슴두? 벌뚱이 옆에. {벌뚱 옆이 무엇이랴 하셧습니까? 벌뚱 옆에.}

10102 # 사감방. 거기두 사람이 없소 지금. {사감방. 거기도 사람이 없소 지금.}

10102 @ 넷날엔 잇었슴두? {옛날엔 잇었습니까?}

10102 # 넷날에 잇었소. 넷날에 한 삼십호[삼시보]이구 거기 교혜당두 잇구, 핵교두 잇구, 그랬소. {옛날에 잇었소. 옛날에 한 삼십 호고, 거기 교회당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랬소.}

10102 # 개 시장판, 시장판 하는 게 사감방의 시장판이라 했단 말이오. {그래 시장판, 시장판 하는 게 사감방을 시장판이라 했단 말이오.}

10102 @ 아바니, 그, 회룡봉이 있는 데가 이렇게 지형이 모양이 이렇게 돼 있재임두, 그래서 또 땅 모양 가지고 하는 얘기 없슴두? {할아버지, 그, 회룡봉이 있는 데가 이렇게 지형이 모양이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또 땅 모양 가지고 하는 얘기 없습니까?}

10102 # 뭐, 요~이 돌아오는 봉오리가 그 앞에 산이 잇탱구, 그, 그 렐사탑이 한내 턱 잇는, 야~. {뭐, 용이 돌아오는 봉우리가 그 앞에 산이 있잖고, 그, 그 열사탑이 하나 턱 잇는, 야~.}

10102 # 그 사람들은 요~이 돌아온다구서 회룡보~이라 했다고 그래. 그래 그 밑에 늪이두 한내 잇디 뽕구 어떻소. {그 사람들은 용이 돌아온다고서 회룡봉이라 했다고 그래. 그래 그 밑에 늪도 하나 있지 않고 어떻소.}

10102 # 그 산밑에 야~. 그래 그 봉오리르 독산이 애니구 무시게오. 산이 한내 딸르 떨어데 잇탱구 이래서. {그 산밑에 야~. 그래 그 봉우리를 독산이 아니고 뭐요. 산이 하나 따로 떨어져 있잖고 이래서.}

10102 # 독을루 잇디므 야~. {독으로(홀로) 있지 야~.}

10102 # 그게 이 산밑에 늪이 잇구 이산이 이게 전애사 개:구 무슨 야~ 좋앗겠디 머. {그게 이 산밑에 늪이 있고 이 산이 이게 전애야 그리고 무슨 야~ 좋앗겠지 뭐.}

10102 # 지금 사람들은 살면서 따~아 뛰디구 뛰룩 치께 내리구 돌두 더대구 이래서 그렇디. {지금 사람들은 살면서 땅을 파고 두룩(연신) 치켜 내리고 돌도 더 대고 이래서 그렇지.}

10102 @ 그 산이 이름이 무슨 산이라구요? {그 산이 이름이 무슨 산이라고요?}

10102 # 그거 거저 회룡보~이라구 해애티. {그거 그저 회룡봉이라고 했지.}

10102 # 그 산으 가르쳐서 회룡보~이라 해애티. {그 산을 가리켜서 회룡봉이라 했지.}

10102 @ 용이 돌아온다는 게 예:전부터 그렇게 다들 얘기를…… {용이 돌아온다는 게 예전부터 다들 얘기를……}

10102 # 그래, 사름들뚜 야~, 이 회룡봉 사는 사름들이 다 어드메 나갔다서도 다 돌아왔다구 이전에. {그래, 사름들도 야~, 이 회룡봉 사는 사름들이 다 어디 나갔다가도 다 돌아왔다고 이전에.}

10102 # 갠데 지금으느 나가문 나가는데 돌아 아니 왔소. {그런데 지금은 나가면 나가는데 안 돌아왔소.}

10102 # 엇대 돌아왔는가 하니까 해바~이 나니까 돌아왔다. {왜 돌아왔는가 하니까 해방이 나니까 돌아왔지.}

10102 # 이전에 나갔던 사름들이 야~, 각지에 갔던 사름들이, 팔일오 사십오년도 해바~이 나니까느 이전에 어드메 짝: 갔던 게 짝: 돌아왔다구. {이전에 나갔던 사름들이 야~, 각지에 갔던 사름들이, 팔일오 사십 오 년도 해방이 나니까느 이전에 어디 짝: 갔던 사름들이 짝: 돌아왔다고.}

10102 # '이 봐라 농만 돌아온 줄 아나? 사름두 돌아온 거 바라.' 이전에 늙은들이 그래더란 말이오. {'이 봐라 용만 돌아온 줄 아나? 사름도 돌아온 것 바라.' 이전에 늙은이들이 그러더란 말이오.}

10102 # '너네두 이제 살다가 어드메 갔다서 또 돌아올 게라.' 이래멘서 늙은들이 그래더란 말이오. {'너희도 이제 살다가 어디 갔다가 또 돌아올 거다.' 이러면서 늙은이들이 그러더란 말이오.}

10102 @ 그, 사십오년도 이전에 사름들이 그렇게 각지로 흩어질 일이 있었습두? {그, 사십 오 년도 이전에 사름들이 그렇게 각지로 흩어질 일이 있었습니까?}

10102 # 그렇탱구 괴래. {그렇잖고 그래.}

10102 @ 무슨 일로…… {무슨 일로……}

10102 # 애니, 핵교 가서 공부르 하구 벼슬으 한 사름을루, 기애구 또 어드메 가서 직자~ 얻어서 가서 벼얼어 먹는 사름을루, 괴래 세간나서 좋은 데 가 사는 사름을루…… {아니, 핵교 가서 공부를 하고 벼슬을 한 사름으로,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직장 얻어서 가서 벌어 먹는 사름으로, 그래 세간 나서 좋은 데 가 사는 사름으로……}

10102 @ 그럼 무시젠가, 그, 두만강두 강만 있는 게 아이구, 이롭게 줌 이케 줌 돌기도 하구, 중간에 무스거 뭐 무스게야 딱 췌에서르 뭐가 조금 생기는 것도 있대님둥? {그럼 뭇가, 그, 두만강도 강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줌 이렇게 줌 돌기도 하고, 중간에 뭐 뭐 뭐야 딱 췌여서 뭐가 조금 생기는 것도 있잖습니까?}

10102 # 어~, 섬이라구 잇디 머. {응, 섬이라고 있지 뭇.}

10102 @ 예, 고론 것들은 뭇, 니름이, 이름이 따로 없었습두? {예, 그런 것들은 뭇, 이름이, 이름이 따로 없었습니까?}

10102 # 네, 이, 그 전대야 잇엇다 없엇다 거저 그랫소. {예, 이, 그 전 대야 잇엇다 없엇다 그저 그랫소.}

10102 @ 무시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똑같은 강이라도 여기서는 무시게 고기가 마~이 나서
르 이거르 무시게라 부른다든가 뭐 그런 것두 없었습두?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똑
같은 강이라도 여기서는 뭐 고기가 많이 나서 이것을 뭐라 부른다든가 뭐 그런 것도 없
었습니까?}

10102 @ 여기는 뭐, 뭐, 숭, 숭어, 숭어가 많이 잡혀서르 뭐 무시게라 한다든가, 야리가 많이
잡혀서…… {여기는 뭐, 뭐, 숭, 숭어, 숭어가 많이 잡혀서 뭐 뭐라 한다든가, 야리가 많
이 잡혀서……}

10102 # 우리 조선 쪽에, 우리 사는 건넌쪽에 거, 게바위라고는 잇었소. {우리 조선쪽에, 우리
사는 건넌쪽에 그, 게바위라고는 잇었소.}

10102 # 그건 조선쪽에 붙은 게란 말이오. {그건 조선쪽에 붙은 것이란 말이오.}

10102 @ 음, 그럼 바로 배움두? {음, 그럼 바로 보입니까?}

10102 # 나~, 회룡보~에서 조금 올라가서 벌뜨~에서 좀 올라가서…… {나~, 회룡봉에서 조금
올라가서 벌등에서 좀 올라가서……}

10102 @ 아바니, 여기 덩, 덩이니 덕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쫘 얘기 해 주시겠습두? {할아버
지, 여기 덩, 덩이니 덕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10102 # 야~, 덕이라는 게, 산 꼭대기르 말하대니우? {야~, 덕이라는 게, 산꼭대기를 말하잖소?}

10102 # 산덕이[산떡이], 덕에: 집이요 무스~ 야~. {산덕, 덕에 집이요 무슨 야~.}

10102 @ 그, 그럼 머 유명한 덕 중에 뭐 몇 개 얘기를 해 주시면은요? {그, 그럼 뭐 유명한 덕
중에 뭐 몇 개 얘기를 해 주시면은요?}

10102 # 회룡봉에는 무슨 유명한 덕이 없었소. {회룡봉에는 무슨 유명한 덕이 없었소.}

10102 # 거저, 내 살던 데 야~, 거 앞덕이란 데 야~, 우리 살던 집 앞에 그 덕이 잇대니우? 그
덕이에 거저 여름이문 사람들이 몰아 앉아서 불두 피우구 두리 이소리 저소리 하면서
두루우 내받아 보면서 곡석 구경두 하구 물이 디문 물구경두 하구. 개니까 우리 살던
데 그 앞덕이가 기중 좋았딴. {그저, 내 살던 데 야~, 그 앞덕이란 데 야~, 우리 살던 집
앞에 그 덕이 있잖소? 그 덕에 그저 여름이문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불도 피우고 둘러
앉아서 이 소리 저 소리 하면서 들을 내다 보면서 곡식 구경도 하고 물이 지면 물구경
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살던 데 그 앞덕이 가장 좋았지.}

10102 # 그라구 회룡보~에 경해네 잇는 데 그게 야~, 뒷덕이라 해었는데 그거 회룡봉 뒷덕이.
{그리고 회룡봉에 경해네 잇는 데 그게 야~, 뒷덕이라 했는데 그거 회룡봉 뒷덕이.}

10102 # 그 뒷덕이에 그 이전에 산천다~이라는 게 잇었소. {그 뒷덕에 그 이전에 산천장이라는
게 잇었소.}

10102 # 그거 뒷덕이르 산천다~이라구 헛다구. {그거 뒷덕을 산천장이라고 헛다구.}

10102 # 산천다~이라는 게 그게 야~, 일년에 한번씩 거기 가서 부락 사람들이 제새르 지내딴.
산천을 위하는 거. {산천장이라는 게 그게 야~ 일 년에 한 번씩 거기 가서 부락 사람들
이 제사를 지내지. 산천을 위하는 것.}

10102 # 어~, 그래서 산천대~이 돼엿딴. {응, 그래서 산천장이 됐지.}

10102 # '당재:, 당재:' 하네는 그게 산이 애니우? 산으 앞당재, 뒷당재. 기애니까 산으 그렇게
두 부르댕구 어떻소? {'당재:, 당재:'하면은 그게 산이 아니오? 산을 앞당재, 뒷당재. 그

러니까 산을 그렇게도 부르잖고 어땡소?)

10102 # 앞산으 앞당재, 두엿산으 뒷당재. 당재. {앞산을 '앞당재', 뒷산을 '뒷당재', '당재'.}

10102 # '재:' 하는 게사 그게 제 원래 제 산으 재라고 하댕:구 엇디오. {'재:' 하는 거야 그게 제 원래 제 산을 재라고 하잖고 어땡소.}

10102 # '당재:' 하는 거는 머 몰라, 그 어째서 그거 당째르 붙에서 '당재' 하는두 몰라. {'당재:' 하는 것은 뭐 몰라, 그 어째서 그거 '당' 자를 붙여서 '당재' 하는지 몰라.}

10102 @ 그, 그문 산에서 제사도 지내구 이런 거를 했습두? 예전부터? {그, 그러면 산에서 제사도 지내고 이런 것을 했습니까? 예전부터?}

10102 # 그 산천으 위한다는 게 잇엇소. {그 산천을 위한다는 게 잇엇소.}

10102 @ 아바니두 같이[가치] 하셧습두? {할아버지도 같이 하셧습니까?}

10102 # 우린 못해봣소. 나~, 해바~이 나서 다 없어엿단 말ियो. {우린 못 해 봤소. 나~, 해방이 나서 다 없어졌단 말ियो.}

10102 # 공산다~에서 그런 거 다 거저 다 없애뿌렛디 머. {공산당에서 그런 것 다 그저 다 없애버렸지 뭐.}

10102 @ 아바니 옛:날에 그, 옛:날 이야기랑 엷힌 그런 연못이나 머 이런 거 있재임두? 강이나? 머, 적지라든지 머 그런 거 얘기 좀 해 줍소. {할아버지 옛날에 그, 옛날 이야기랑 엷힌 그런 연못이나 뭐 이런 것 있잖습니까? 강이나? 뭐, 적지라든지 뭐 그런 것 얘기 좀 해 주십시오.}

10102 # 그 적지는 거, 조선에, 더 북조선엿 게구. {그 적지는 그, 조선에, 저 북조선의 것이고.}

10102 # 그 해료보~이 야~, 저 쉬운 늪이라는 게 잇소. 예. 사감방에 올라가서 시장판에. {그 회룡봉이 야~, 저 '쉬운늪'이라는 게 잇소. 예. 사감방에 올라가서 시장판에.}

10102 # 쉬운, 수운이갬디 머, 수운 늪이갬디 머. 갬:데 거 즘름 거저 말이 변해에서 쉬운늪, 쉬운늪 이래덴단 말ियो. 수운늪이디 머, 수운. {'쉬운, 수운'이갬지 뭐, '수운늪'이갬지 뭐. 그런데 그 지금 그저 말이 변해서 '쉬운늪, 쉬운늪' 이렇게 된단 말ियो. '수운늪'이지 뭐, '수운'.}

10102 # 개, 쉬운늪 쉬운늪 해엿디 그저. {그래, '쉬운늪, 쉬운늪' 했지 그저.}

10102 # 그게 이전에 기네 깊어서 멩디꾸리 밋대넛다구. {그게 이전에 너무 깊어서 멩주꾸리 (멩주실꾸리) 미치지 았았다고.}

10102 @ 아 그렇습두? {아 그렇습니까?}

10102 # 하하하, 그게 엇디 그렇게 저거, 뭐 거저 말이 그렇갬디 머 그렇게사 깊우갬소? {하하하, 그게 어찌 그렇게 저거, 뭐 그저 말이 그렇갬지 뭐 그렇게야 깊갬소?}

10102 # 멩디꾸리 그게 얼마니 그게 쉬운늪이 기네 깊어서 멩디꾸리 밋대넛다구. {멩주꾸리 그게 얼마나 그게 '쉬운늪'이 너무 깊어서 멩주꾸리 미치지 았는다고.}

10102 # 기엔데 후에 그거 야~, 그 아래르 논우 하멘서 거기다서 양수기르 놓구서 거 물으 뽑앗단 말ियो. {그런데 후에 그거 야~, 그 아래를 논을 하면서 거기다가 양수기를 놓고서 그 물을 뽑앗단 말ियो.}

10102 # 갬:데 그거 말하건대, 그거 쫄구문 너 큰일[크닐] 난다구, 늪은들이 야~. {그런데 그거

말하건대, 그거 줄이면(물을 다 없애면) 너 큰 일 난다고, 늙은이들이 야~}

10102 # 그거 내 한번 쫓았단 말이오. 내 그 양수기가 발동기르 가지구 가서 그땐 전기 없었소 야~. {그거 내가 한 번 쫓았던 말이오. 내가 그 양수기랑 발동기를 가지고 가서 그 땐 전기가 없었소 야~.}

10102 # 발동기르 쫓구 가서 양수기르 앓자 해가지구서 양수기 두 대르 가지구, 게 머 양수기 그거 머 작은 따~이디 머. {발동기를 싣고 가서 양수기를 설치하려고 양수기 두 대를 가지고, 그게 뭐 양수기 그거 뭐 작은 땅이지 뭐.}

10102 # 팔인치짜리드라도 요런: 거나 돼디. 요런 거 두 개르 가지구서 쫓구는데 이틀으 쫓구니까나 야~ 물이 거이 없어디더라 말이오. {팔 인치 짜리더라도 이런 거나 되지. 이런 거 두 개를 가지고서 줄이는데 이틀을 줄이니까 야~ 물이 거의 없어지더라 말이오.}

10102 # 이게 무슨 멍디꾸리 밧뎡:다던만 무슨 세 길도 안 돼는구만. {이게 무슨 명주꾸리 미치지 않는다더니만 무슨 세 길도 안 되는구먼.}

10102 # 갠:데 너 거 다 쫓구디 말아라, 거덕 물으 길에라, 그게 물이 다 거덕이 나문 그 속에서 무시게 나올 줄으 모른다. {'그런데 너 그거 다 줄이지 말아라, 가득 물을 남겨라, 그게 물이 다 바닥이 나면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올 줄을 모른다.'}

10102 # 그게 이전에 늙은들이 말하는 게 야~, 안개 탁: 끼구 해 뜰림시무~ 야~, 그 물에서 벨란 소리 나디, 기야 그 빠얼절구 퍼어런 색깔이 나는 게 그 물 울르썬 위익 회구 왔다 갔다 했다는 게디. {그게 이전에 늙은이들이 말하는 게 야~, 안개 탁 끼고 해 뜰 때면 야~, 그 물에서 벨란 소리 나지, 그 빠얼절고 퍼어런 색깔이 나는 게 그 물 위로 휘익 헤엄치고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지.}

10102 # 그게 물으 쫓구구 야~, 그거 더 무시젠두 너 모루는데, 그게 탈이 생긴다, 다 쫓구디 말아라. {'그게 물을 줄이고 야~, 그거 저 무엇인지 너 모르는데, 그게 탈이 생긴다, 다 줄이지 말아라.'}

10102 # 갠:데 다 쫓았단 말이오 그거. 무슨거 없습데 아무것두. {그런데 다 쫓았던 말이오 그거. 뭐 없습디다 아무것도.}

10102 # 개: 거저 고기르 많이 잡아먹었소. {그래 그저 고기를 많이 잡아 먹었소.}

10102 @ 그 쉬운늬은 왜 이름이 쉬운늬임두? {그 '쉬운늬'은 왜 이름이 '쉬운늬'입니까?}

10102 # 몰라, 그거는 엇대서 쉬운늬이라 했는두. {몰라, 그것은 어째서 '쉬운늬'이라 했는지.}

10102 # 거기 경치는 좋앗소. 그게 아주 맑구[막꾸] 물이 야~, 좌우 옆아리에 그 더 풀이 줄이라는 게 그게 쭉: 자라구 그 줄무디르 사람이 드디구 들어가문 야~ 그 줄이 흔들흔들해 았소. {거기 경치는 좋앗소. 그게 아주 맑고 물이 야~, 좌우 옆에 그 저 풀이 '줄'이라는 게 그게 쭉 자라고 그 '줄' 무더기를 사람이 디디고 들어가면 야~ 그 '줄'이 흔들흔들했소.}

10102 # 거 허망에 잇엇다니. 그래 그 줄밑으루 다리르 썩 넣어네는 야~ 바위 딱딱 드디웠다니. {거 허공에 있었지. 그래 그 줄 밑으로 다리를 썩 넣으면은 야~ 바위 딱딱 디터졌지.}

10102 # 갠:데 그게 엇디 차던디 우리는 얼음이라 하디므 야~. {그런데 그게 어찌나 차던지 우리는 얼음이라고 하지 뭐 야~.}

10102 # 아: 때, 나이 어릴 때. '야, 얼음이 땡인다, 얼음이 땡인다.' {아이 때, 나이 어릴 때 '야, 얼음이 닿는다, 얼음이 닿는다.'}

10102 # 갠:데 후에는 나아 먹은 사람이 '그게 얼음이 애이다. 돌이다, 돌이다.' 이래더란 말이오. {그런데 후에는 나이 먹은 사람이 '그게 얼음이 아니다. 돌이다, 돌이다.' 이러더란 말이오.}

10102 # 아 차더란 말이오 귀게. {아 차더란 말이오 그게.}

10102 # 게 쪼끔 들어가문 그 줄띠게에서 뚝 떨어디문 거저 열매 집운두 모루디 받으 못 땡애 뵈단 말이오. 차 나서두. 귀래 겹이 나서 또 그거 깊이 못 들어가구. {그게 조금 들어가면 그 줄 지경에서 뚝 떨어지면 그거 얼마나 깊은지 모르지 받을 못 대어(닿게 해) 뵈단 말이오. 차 나서도. 그래 겹이 나서 또 그거 깊이 못 들어가고.}

10102 # 깊우긴 깊었소. 큰데 세 길이 넘긴[넘긴] 넘갯습데[넘깁습데]. {깊긴 깊었소. 그런데 세 길이 넘긴 넘갯습디다.}

10102 # 나~, 그 이전에 가~이 거길르서 썩: 나갔다서 우이 탁 맥히구서 조선쪽으로 가~이 썩 건네가구 게 높이 썩: 뻗:단 말이오. {나~, 그 이전에 강이 거기로부터 썩 나갔다가 위가 탁 막히고서 조선쪽으로 강이 썩 건너가고 그게 높이 썩 뻗:단 말이오.}

10102 # 개:니까 그 넓이 길구, 너벅지가 거저 한 오십 메:다나 육십 메다 고작이 돼디 너비, 개: 기다~으느 야~ 한 사백 메:다 돼오. {그러니까 그 넓이 길고, 너비가 그거 한 오십 미터나 육십 미터 그 쪽이 되지 너비, 그래, 기장은 야~ 한 사백 미터 돼오.}

10102 # 사백 메:다 더 돼갓다. 기우 귀게. {사백 미터 더 되갓다. 기오 그게.}

10102 # 고기는 많았소. {고기는 많았소.}

10102 # 지금 그 양어자~에서 아래르 떡 막아서 물으 더 갑해 놓구. {지금 그 양어장에서 아래를 떡 막아서 물을 더 고이게 해 놓고.}

10102 @ 아바니 그런 늪 이름 중에 또 머 재미난 거 있습두? {할아버지 그런 늪 이름 중에 또 뭐 재미난 것 있습니까?}

10102 # 그것밖에 늪이 또 없습니. 월래. {그것밖에 늪이 또 없습지. 원래.}

10102 @ 무시젠가, 그, 이도포에 들어오는 거 있대님두? 거기두 머 팔지[팔찌]에 넣니 마니 머 이렇게 말이 있든데. {뭔가, 그, 이도포에 들어오는 것 있잖습니까? 거기도 뭐 팔지에 넣으니 마느니 뭐 이렇게 말이 있던데.}

10102 # 귀게 팔지[팔찌] 일다~[일따~]에 드는데 야~, 그게 첫 늪이란 말이오. {그게 팔지 일당에 드는데 야~, 그게 첫 늪이란 말이오.}

10102 # 갠:데 첫늪, 둘췌늪, 셋췌늪 이렇게 썩: 내려가다 아홉췌데 야~야~, 아홉췌 늪까지 잇는데, 갠:데 한나는 다~이락 하구, 야듭우는 지락 했단 말이오. {그런데 첫 늪, 둘췌 늪, 셋췌 늪 이렇게 썩 내려가다 아홉췌인데 야~야~, 아홉췌 늪까지 잇는데 그런데 하나는 '당'이라고 하고, 여덟은 '지'라고 했단 말이오.}

10102 # 기애 팔지[팔찌] 일당[일땅]. {그래 '팔지 일당'.}

10102 # 갠:데 일다~[일따~]이가 금다~이란 말이오. {그런데 일당이 금당이란 말이오.}

10102 @ 다~이란 게 무시김두? {'당'이란 게 무엇입니까?}

10102 # 늪 당췌르 쓰는 게 잇댕:구. {늪 '당' 자를 쓰는 게 있잖고.}

10102 @ 그니까, 그 여덟, 야똥 개는 못이구, 연못이구, 한내는, 한내는 늪이구 그럼두? {그러니까, 그 여덟, 여덟 개는 못하고, 연못이고, 하나는, 하나는 늪이고 그렇습니까?}

10102 # 그렇겠디 머 월래. {그렇겠지 뭐 원래.}

10102 @ 그문 그 도롱, 뭐야, 무시겐두 이도포 앞에 있는 그거, 물 갑에 논, 갑해 논 거는 그거는…… {그러면 그 도롱, 뭐야, 뭔가 이도포 앞에 있는 그거, 물 고이게 해 놓은, 고이게 해 놓은 것은 그것은……}

10102 # 그게 첫늪이디 머. {그게 첫 늪이지 뭐.}

10102 @ 아, 그게 첫늪임두? {아, 그게 첫 늪입니까?}

10102 # 어, 그거 일지[일찌]디 그게. {어, 그거 일지지 그게.}

10102 @ 아바니, 그문 금당에 얹힌 무슨 옛날 이야기 이런거 없습두? {할아버지, 그러면 금당에 얹힌 무슨 옛날 이야기 이런 것 없습니까?}

10102 # 금다~에 거 꼭 교수랑은 무슨 다 황하더구만 무슨. {금당에 그 꼭교수랑은 무슨 다 환하더구먼 무슨.}

10102 @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10102 # 아니, 그나그네, 그, 더, 학생들 데리구 와서 버스 안에서 내:따까라 강이르 하는데 야~, 이 금다~이라 한테 엇대서 금다~이 돼구 무스 거기 머 흑각산이구 무스 흑덩채구, 거기 무스 니성계가 영케서 무슨 이런 게야~ 그 권하 내려가서 능꼐까지 가봤단 말이오, 그때. {아니, 그 양반, 그, 저, 학생들 데리고 와서 버스 안에서 냅다 강의를 하는데 야~, 이 금당이라 한 데가 어째서 금당이 되고 무슨 거기 뭐 흑각산이고 무슨 흑덩채고, 거기 무슨 이성계가 얹혀서 무슨 이런 게 야~ 그 권하 내려가서 능꼐까지 가 봤단 말이오, 그때.}

10102 # 영, 그 능꼐이라는 게 그게 니성계네 어느 조부가 거기 산으 써서, 그래 능꼐인데, 그 어느 풍수르 배우니까, '이게 포란 디디다.'. {응, 그 능꼐이라는 게 그게 이성계네 어느 조부가 거기 산(산소)을 써서, 그래서 능꼐인데, 그 어느 풍수쟁이에게 보이니까, '이게 포란지디다.'.}

10102 # 닭이 알으 품는 그런 곳이라구서. {닭이 알을 품는 그런 곳이라고.}

10102 # '어~, 능꼐이 포란디디요. 귀래서 여기가 명다~이다.' {'응, 능꼐이 포란지디요. 그래서 여기가 명당이다.'}

10102 # '개: 여기다서 산으 쓰문 앞으로 가서 와~이 날 수 있다.' {'그래 여기다가 산을 쓰면 앞으로 가서 왕이 날 수 있다.'}

10102 # 귀래서 거 켜는데 몇 대 손인두 마, 삼대손인두, 와~이 땀단 말두 잇구, 거 모루디 머 그런 게사 거 무슨 엇디 정말인두 거지비랜:두. {그래서 그거 켜는데 몇 대 손인지 뭐, 삼대손인지, 왕이 땀단 말도 있고, 그거 모르지 뭐 그런 거야 그 무슨 어찌 정말인지 거 짓말인지.}

10102 # 능꼐이라는 거는 확실히 잇소. {능꼐이라는 것은 확실히 잇소.}

10102 @ 능꼐은 저, 작년에도 가 봤대님두? {능꼐은 저, 작년에도 가 봤잖습니까?}

10102 @ 저는 한번도 아이 가 봤습구마. {저는 한 번도 안 가 봤습니다.}

10102 # 저는 못 가 봤디. {당신은 못 가 봤지.}

10102 @ 와서, 가서 사진의 떡구서 그러고 왔었는데. {와서, 가서 사진을 찍고서 그러고 왔는데.}

10102 @ 아바니 포란딕이다 할 때 딕이라는 거는…… {할아버지 '포란딕'이라 할 때 '딕'이라는 것은……}

10102 # 디. 지. 디. 따 디. 깔 짜. {지. 지. 지. 땅 지. 갈 지.}

10102 # 포란, 알으 품는, 그런 곳이다. {포란, 알을 품는, 그런 곳이다.}

10102 @ 아아, 이게 한족, 그니까 한짜성어네요, 그쵸? {아아, 이게 한족, 그러니까 한자성어네요, 그렇죠?}

10102 # 그래. {그래.}

10102 @ 알을, 닭이 알을 품은 땅이다. {알을, 닭이 알을 품은 땅이다.}

10102 # 그게 무슨, 달걀:으 세 개를 개:다 놓았는데 풍수 말하는데, '너 여기다 달걀:으 개:다 놔 뒤 바라 닭이 절르, 닭이 없어두 알이 까 난다.'. {그게 무슨, 달걀을 세 개를 가져다 놓았는데 풍수쟁이가 말하는데, '너 여기다 달걀을 가져다 놔 뒤 봐라 닭이 저절로, 닭이 없어두 알이 깨어져 나온다.'.}

10102 # 갠:데 후에 달걀:으 개:다 놓았는데 후에 달걀이 둘이, 서 개:났는데, 배우리 둘이 나왔더라. {그런데 후에 달걀을 가져다 놓았는데 후에 달걀이 둘이, 셋 가져다 왔는데, 병아리가 둘이 나왔더라.}

10102 @ 음, 그문 한내 어찌됐습두? {음, 그러면 하나 어찌됐습니까?}

10102 # 그거 모루딴. 그거 알이 문제 잇엇던디. 그래니까 그게 야 포란디디 옳단 말이오. 그게. {그거 모르지. 그거 알이 문제가 있었던지. 그러니까 그게 야 포란지디 옳단 말이오. 그게.}

10102 # 닭이 없어두 알으 까 나는 게니까 그게 얼마나 큰 명다~이오 그게. {닭이 없어두 알을 깨워 내는 것이니까 그게 얼마나 큰 명당이오 그게.}

10102 @ 지금은 그거 없대님두? {지금은 그거 없잖습니까?}

10102 # 그게 산이 없디무. 다 옮겨갓딴. 니성게 등극 한 다음에 다 뽑아 개: 갓단 말이오. 어드메루 가제 갓는디 모루디 머. 평양쪽으로 어디루 가제갓갓딴. {그게 산이 없지 뭐. 다 옮겨갓지. 이성계 등극한 다음에 다 뽑아 가져 갓단 말이오. 어디로 가져 갓는지 모르지 뭐. 평양쪽으로 어디로 가져 갓갓지.}

10102 @ 그럼 아바니 넷날부터 이 포란디디 얘기를 계속 들어 왔습두? {그럼 할아버지 옛날부터 이 포란지디 얘기를 계속 들어 왔습니까?}

10102 # 못 들엇단 말이오. {못 들엇단 말이오.}

10102 # 능골이란 말은 들엇디 머. {능골이란 말은 들엇지 뭐.}

10102 # 능골이 엇대서 능골인 것두 몰랐단 말이오. {능골이 어째서 능골인 것도 몰랐단 말이오.}

10102 @ 근데 어떻게 그러면은 이 포란디기 얘기는 알게 돼셨습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은 이 포란지디 얘기는 알게 되셨습니까?}

10102 # 그거 여기 채정국에 소자~이 권하 새, 출새~이란 말이오. {그거 여기 채정국의 소장이 권하 생, 출생이란 말이오.}

10102 # 갠:데 능꼴이락 할때 엇대서 능꼴인가 이 느~이란 하는 거는 이 보통 사람이 무덤쓰는 데 애난데. 개:서 이거 주쳤단 말이오 개:속. {그런데 능꼴이라고 할 때 어째서 능꼴인가 이 능이라 하는 것은 이 보통 사람이 무덤 쓰는 데가 아닌데. 그래서 이거 뒤졌단 말이오 계속.}

10102 # 갠:데 한국에 어느 반이, 낭반이 만났던디, 광교수 가톨릭 분을 만났겠디 무슨. {그런데 한국의 어느 양반을 만났던지, 광교수 비슷한 분을 만났겠지 무슨.}

10102 # 그래서 거 말하덜게두 다 우리 한국 무슨 어느 역사책에 그런 게 잇는데 그게 포란디 디요, 무슨 명다~이요 무슨 그런 말으 들어서, 오~ 이게 그래서 니성계네 어느 무슨 목조라던두 무슨 그냥반이 무덤이 거기 잇었다더구만. {그래서 거 말들 하더구먼서도 다 우리 한국 무슨 어느 역사책에 그런 게 잇는데 그게 포란지지요 무슨 명당이요 무슨 그런 말을 들어서, 오~ 이게 그래서 이성계네 어느 무슨 목조라든가 무슨 그 양반 무덤이 거기 있었다더구먼.}

10102 # 목조 이한사란 그분이, 아버지가 거기 그 능꼴에 들어갓는 모양이야. {목조 이안사란 그 분이, 아버지가 거기 그 능꼴에 들어간 모양이야.}

10103 @ 아바니, 그러면은, 그, 여기 이 도롱비 마을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어떤 검두? {할 아버지, 그러면은, 그, 여기 이 도롱비 마을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10103 # 농사르 위주루 해엿....., 그답에 예..... 고기잡이르 줌 하구. {농사를 위주로 했....., 그 다음에 예..... 고기잡이를 줌 하고.}

10103 # 두만가~에서 고기잡이르 하구. {두만강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10103 # 그답에 소르 기르구. {그 다음에 소를 기르고.}

10103 # 이전עד 두 그저 그렇게 살앗다. {이전에도 그저 그렇게 살았지.}

10103 @ 소를 기르는 것이, 그니까 팔자고 기르는..... {소를 기르는 것이, 그러니까 팔려고 기르는.....}

10103 # 농사עד 두 쓰구 팔자구두 하구. {농사에도 쓰고 팔려고도 하고.}

10103 @ 그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몇 호 정도 되면은, 고기잡이는 몇 호 이렇게.....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삶이 몇 호 정도 되면은, 고기잡이는 몇 호 이렇게.....}

10103 @ 고기잡이르 전업으루 하는 사람두..... {고기잡이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도.....}

10103 # 전업을루는 아니헛소. {전업으로는 안 헛소.}

10103 # 가슬가 봄에 그 고기 두만가~올르 오르는 계절이 잇단 말이오. {가을과 봄에 그 고기 두만강으로 오르는 계절이 잇단 말이오.}

10103 # 송어가고 연어. 그답에 황어. {송어하고 연어. 그 다음에 황어.}

10103 # 개 여름에 혹시 그 두만가~에서 그때는 고기 많애 잡을 수 잇는데, 그때 채료가 그물이 야~, 그, 면화 실이란 말이오 그제. {그래 여름에 혹시 그 두만강에서 그때는 고기 많아 잡을 수 잇는데, 그때 채료가 그물이 야~, 그, 면화실이란 말이오 그제.}

10103 # 즈끔터르 써료나 니룬이 애니구. {지금처럼 비닐이나 나일론이 아니고.}

10103 # 개다나 여름에 그 물에 들어갓다 왔다 들어갓다 왔다 하문 그거 인차 썩는단 말이오. {그렇다 보니 여름에 그 물에 들어갓다 왔다 들어갓다 왔다 하면 그거 금방 썩는단 말이오.}

- 10103 # 그래서 아까운 그물우 그거, 고기도 무슨 크기 잡디 못하면서 여름에는 그물 썩이디 말구 그거 말리워서 떡 잘: 보관해 둔단 말ियो. {그래서 아까운 그물을 그거, 고기도 무슨 많이 잡지 못하면서 여름에는 그물 썩히지 말고 그거 말려서 떡 잘 보관해 둔단 말ियो.}
- 10103 # 개 물이 찰 때애 가슬가 봄에, 그때엔 또 고기 야~, 연어하고 황어는 그거 좋은 고기란 말ियो. {그래 물이 찰 때애 가을과 봄에, 그때엔 또 고기 야~, 연어하고 황어는 그거 좋은 고기란 말ियो.}
- 10103 # 바닷물에는 그런 고기 없으 꺼요 것처럼 맛있는[마신는] 고기. {바닷물에는 그런 고기가 없을 거요 것처럼 맛있는 고기.}
- 10103 # 이 두만가~에서두 옥천동 지나서, 어, 서가산이라는 데, 그구간에서 잡은 고기 웬: 또 일등 고기란 말ियो. 제맛이 나디 며. {이 두만강에서도 옥천동 지나서, 어, 서가산이라는 데, 그 구간에서 잡은 고기가 가장 또 일등 고기란 말ियो. 제 맛이 나지 뭐.}
- 10103 @ 서가산이라는 데는 어디, 어디멤두? {서가산이라는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 10103 # 게 회룡보~이서:, 한 사십리[사십니]. {그게 회룡봉에서, 한 사십 리.}
- 10103 @ 아, 그 오는 중간에 있습두? {아, 그 오는 중간에 있습니까?}
- 10103 # 야~, 비잉: 가아르 이 돌아올라간단 말ियो. {야~, 빙가를 이 돌아올라간단 말ियो.}
- 10103 # 거저 늑롤르서[늑놀르서] 가문 한 사십리[사십니] 돼는데, 이 가~아 따라 올라가자네는 아무래두 뽕 돌다나니 한 늑십리[늑썸니] 넘갬디[넘깨띠] 며. {그저 육로로 가면 한 사십 리 되는데, 이 강을 따라 올라가자면은 아무래도 빙 돌다 보니 한 육십 리 넘겠지 뭐.}
- 10103 # 갠:데 옥천도~오서부터 하문 한 팔십리[팔썸니] 댜단 말ियो. {그런데 옥천동에서부터 하면 한 팔십 리 댜단 말ियो.}
- 10103 # 갠:데 더: 바다에서 곰만 올라와서 거 방천이 잇대니오? {그런데 저 바다에서 바로 올라와서 그 방천이 있잖소?}
- 10103 # 그건 강 어귀란 말ियो 야~. 거기서 잡은 물고기는 바닷물고기가 딱 한가지 맛이구. {그건 강 어귀란 말ियो 야~. 거기서 잡은 물고기는 바닷물고기와 똑같은 맛이고.}
- 10103 # 차츰차츰차츰 올라오면서 고기 낚은데, 옥천도~이란 데꺼지 오문, 거 바닷물 때르 다 뺏어데디구, 완전 제 민물고기 맛으 내는데 궁게서부터 옥천동부터 시작이르 해서 서가산꺼지 가는 어간에 데:일 맛잇단[마시판] 말ियो 고기. {차츰 차츰 차츰 올라오면서 고기가 나는데, 옥천동이란 데까지 오면, 그 바닷물 때를 다 벗어 버리고 완전 제대로 된 민물고기 맛을 내는데 거기서부터 옥천동부터 시작을 해서 서가산까지 가는 사이에 제일 맛잇단 말ियो 고기가.}
- 10103 # 거기 뺏어디네느, 또 물이 알아디구, 어디 또 예빈단 말ियो. {거기 벗어나면은, 또 물이 알아지고, 어디 또 여원단 말ियो.}
- 10103 # 그래 가서 고기 맛이 못하딴. {그래서 고기 맛이 못하지.}
- 10103 # 그래두 데:일 맛이 잇기는 그 회룡봉 앞에 별뜨~이 잇대니우? 별똥가 그 조야~이라는 데 잇소. 고 어간엿 게 거저 일뜨~이디 며. {그래도 제일 맛이 잇기는 그 회룡봉 앞에 별등이 있잖소? 별등과 그 조양이라는 데가 잇소. 그 사이의 것이 그저 일등이지 뭐.}

- 10103 @ 죠야~이란 게 어디뎀두? {조양이란 게 어디입니까?}
- 10103 # 게: 이도포르 가기 전에 웬: 훈춘서 들어가서 마감꼴으 잇대니우? 그래. 쫌 짧은 굴이.
{그게 이도포르를 가기 전에 가장 훈춘에서 들어가서 마지막 굴이 있잖소?}
- 10103 # 야~, 그거 흘 지나 첫부락이 그게 조애~이라는 데오. 그게 앞으루 꼴꼴이[꼴꼬디] 나가
문 가~이 배운단 말이오. 가~이 잇단 말이오. 야~. {야~, 그거 쏙 지나 첫 부락이 그게
조양이라는 데오. 그게 앞으로 꼴꼴이(곧게) 나가면 강이 보인단 말이오. 강이 잇단 말
이오.}
- 10103 @ 그럼 고기:를, 고기잡이 할 때두 이렇게 같이[가티] 나가는 그런 사람들 모임같은 게
있습두? {그럼 고기를, 고기잡이 할 때도 이렇게 같이 나가는 그런 사람들 모임 같은
게 있습니까?}
- 10103 # 야~, 망주라는 게 잇는데 야~, 망주라는 게 그게 그물으 넘자, 임자디, 그사름게 찬이,
배란 말이오 야~, 배, 그물, 그게 다 다 갖춰가지구 잇디 머, 그거 또 돈이 쫌 들어야 뎀
단 말이오 그게. {야~, 망주라는 게 잇는데 야~, 망주라는 게 그게 그물의 임자, 임자지,
그 사람에게 '찬'(배)이, 배란 말이오 야~, 배, 그물, 그게 다 다 갖춰져 가지고 있지 뭐,
그거 또 돈이 좀 들어야 뎀단 말이오 그게.}
- 10103 # 보통 사람 가져오자문 쉐[šwɛ]르 두세개르 팔아야 돼오. {보통 사람 가져 오려면 소를
두세 마리를 팔아야 되오.}
- 10103 @ 그문 망주:랑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같이[가티] 고기잡이르 함두? {그러면 망주랑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같이 고기잡이를 합니까?}
- 10103 # 그답에는 야~, 여윳손이 잇는 사름들이 가슬이나 비각질 아니해두 그집에서 느~이 할
수 잇는 사름들, 그답에 농사르 안 짓구 아무 꾸더기두 없는 사름이 거저 그런 사름들
이 그런 기회르 타서 거기 가서 일해서 버언단 말이오. {그 다음에는 야~, 여윳 손이 있
는 사름들이 가을걷이(추수)나 곡식 베는 일 안 해도 그 집에서 능히 할 수 잇는 사름
들, 그 다음에 농사를 안 짓고 아무 건더기(내세울 만한 일의 내용이나 근거)도 없는 사
람이 거저 그런 사름들이 그런 기회를 타서 거기 가서 일해서 번단 말이오.}
- 10103 # 가슬 봄우 밭갈이두 아니해두 일없을 사름, 밭갈이 할 게 없는 사름, 이런 사름을으서
고용해 쓰디 머. {가을 봄을 밭갈이도 안 해도 쫌잡을 사름, 밭갈이 할 게 없는 사름, 이
런 사름들을 고용해 쓰지 뭐.}
- 10103 # 그래서 고기르 잡우문 그거 그 고기르 절반으 쫌 갈가서 이 망주 가진단 말이오. {그
래서 고기를 잡으면 그거 그 고기를 절반을 쫌 갈라서 이 망주가 가진단 말이오.}
- 10103 @ 아 반을 같이[가치] 개: 감두? {아 반을 같이 가져 감두?}
- 10103 # 나~, 그 다음에 그 반으 그 일꾼덜이. {나~, 그 다음에 그 반을 그 일꾼들이.}
- 10103 @ 그문, 그 무시젠가, 그문 그 일을 해서르 받는 거는 고기로 받습두? {그러면, 그 뭐가,
그러면 그 일을 해서 받는 것은 고기로 받습니까?}
- 10103 # 고기루 받댕:구, 그 팔 수도 잇구, 그답에 고기르 제 가지구 가서 재빌루서 팔 수도 잇
구. {고기로 받지 않고, 그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기를 자기가 가지고 가서 스스로
팔 수도 있고.}
- 10103 # 갠:데 야~, 고기 쌀라 오는 사름이 그때는 그게 교통 공구가 나뽀댕:구 어떻소? {그런

데 야~, 고기 사러 오는 사람이 그 때는 그게 교통 공구(수단)가 나쁘잖고 어땡소?}

10103 # 술기에다 쉐[šwɛ]게다 실어가지구서 이 훈춘이나: 와야 돼디. {수레에다 소에다 실어가지고서 이 훈춘이나 와야 되지.}

10103 # 개:니까 이삼일씩 걸린단 말이오. {그러니까 이삼일씩 걸린단 말이오.}

10103 # 개: 그 가슬봄우루 하다나 날이사 좀 차디무, 그래두 물우 꺾다서는 그 드베르 가지구서는 물우 치면서 변아께구, 그담엔 낭그 탁 이래 덮어 가지구, 그래 가지구 와서 훈춘서 팔아서 가져다서는 농가준단 말이오. 함께 메칠으 했는데 얼마 간다 이렇게. {그래 그 가을 봄으로 하다 보니 날이야 좀 차지면, 그래두 물을 꺾다가 그 드베(씨 뿌릴 때 쓰는 박통)를 가지고서는 물을 치면서 ****, 그 다음엔 나무를 탁 이렇게 덮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와서 훈춘에서 팔아서 가져다가는 나뉘준단 말이오. 함께 며칠을 했는데 얼마가 간다 이렇게.}

10103 @ 아 그문 고기르 팔아서 그 돈:으 개: 가서 누기 얼마 누기 얼마 아~. {아 그러면 고기를 팔아서 그 돈을 가져 가서 누가 얼마 누가 얼마 아~.}

10103 # 그담에 그런 기회 없으 때는 저, 고기 몇 개씩 잡우문 준단 말이오 야~. {그 다음에 그런 기회가 없을 때는 저, 고기 몇 마리씩 잡으면 준단 말이오 야~.}

10103 # 할틀에 내게 고기 세개 채래디디 머. {하루에 나에게 고기 세 마리 돌아오지 뭐.}

10103 # 세개 채래디문 그것 가지구 들어와 부락에 들어와 재빌루서, '당신 이거 가지구서, 가슬에 쌀으 얼마 주우 .'!. {세 마리 돌아오면 그것 가지고 들어와 부락에 들어와 스스로 '당신 이거 가지고서, 가을에 쌀을 얼마 주오.'}

10103 # 하하하하하하! 그렇게 다 살았단 말이오. {하하하하하하! 그렇게 다 살았단 말이오.}

10103 @ 요즘에도 그럼등? {요즘에도 그렇습니까?}

10103 # 이, 지금은 고기잡이 아니하오. {이, 지금은 고기잡이 안 하오.}

10103 # 두만가~이 물이 오염돼서 고기 없단 말이오. {두만강이 물이 오염돼서 고기가 없단 말이오.}

10103 @ 슈애가 좀 올라오는…… {송어가 좀 올라오는……}

10103 # 슈애는 잇소. 슈애는 잇는데, 수애란게 무슨 땃 게 안 돼구 맛이두 연어나 소애애 비해 황어에 비해 뭐 저거 아무맛두 없소. 황어는 좀 잇구 연어나 송어두 조금씩 잇기는 잇는데, 이전으터르야~ 맛이 없단 말이오. {송어는 잇소. 송어는 잇는데, 송어란 게 무슨 몇 마리 안 되고 맛도 연어나 송어에 비해 황어에 비해 뭐 저거 아무 맛도 없소. 황어는 좀 있고 연어나 송어도 조금씩 잇기는 잇는데, 이전처럼 야~ 맛이 없단 말이오.}

10103 # 또 큰: 게 없구. {또 큰 게 없고.}

10103 @ 아바니 그러면은 고기잡, 고기잡이 하러 땡기는 그런 사람들은 꾸준히 무슨 게:처럼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는…… {할아버지 그러면은 고기잡, 고기잡이 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꾸준히 무슨 게처럼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는……}

10103 # 야~ 줄꾼이라구서야~, 그 아무개:네 줄꾼. 냐~, 그 줄으 당개는 쟈네 게:. {야~ 줄꾼이라고 야~, 그 아무개네 줄꾼. 냐~, 그 줄을 당기는 사람인데 그제.}

10103 # 그물으 빼자네는 그 줄이 잇단 말이오 거, 거. 그거 당개는 사름우 줄꾼이라크 했소. 그 물우 빼는 사름우. 그물우 당개:네는 사름우. {그물을 빼려면은 그 줄이 잇단 말이오 거,

거. 그거 당기는 사람을 줄꾼이라고 했소. 그물을 빼는 사람을. 그물을 당겨 내는 사람을.}

10103 # 아무개네 줄꾼이 야들이구 아무개네 줄꾼이 일곱이구…… {아무개네 줄꾼이 여덟이고 아무개네 줄꾼이 일곱이고……}

10103 # 망쥬 잇구 줄꾼 잇디. {망쥬 있고 줄꾼 있지.}

10103 @ 그림 그 망쥬한테 줄꾼은 항상 그문 다 붙어 잇습두? 누기네 딱 정해져서르 야는 그문 누기 망쥬네 줄꾼이구 며 이런 식으루. {그림 그 망쥬한테 줄꾼은 항상 그러면 다 붙어 잇습니까? 누구네 딱 정해져서 애는 그러면 누구 망쥬네 줄꾼이고 뭐 이런 식으로.}

10103 # 아니 그게 붙게잇기보다 그것두 망쥬두 야~ 후아구 악한 게 잇다니. 야~. {아니 그게 붙어 잇기보다 그것도 망쥬도 야~ 후하고 악한 게 있지. 야~}

10103 # 개:서 후한집으는 넘어나 대세구, 허, 줌 밍우냐~한 망쥬는 비라살이 해에서 얻어오담. {그래서 후한 집은 넘어날 태세고, 허, 줌 밍상인 망쥬는 빌려달라 해서 얻어오지.}

10103 # '네 와서 줌 해애 달라 내 섭섭이 아니 해 주께.' 하문서 야~. {'네가 와서 줌 해 달라 내가 섭섭하게 아니 해 줄게.' 하면서 야~}

10103 # 그래두 저 제 가 저 하자문 고기르 끓에멕일 때두 웬: 작은 거 끓에멕이구. {그래도 저 제 가 저 하려면 고기를 끓여 먹일 때도 가장 작은 것 끓여 먹이고.}

10103 # 거 품샅으 주는 것두 야~, 두러 제작에서 줌 더 챙기구 두러 이러는 게 알긴단 말이오 기게. {그 품샅을 주는 것도 야~, 더러 제 쪽에서 줌 더 챙기고 더러 이러는 게 알려진 단(알게끔 된단) 말이오 기게.}

10103 # 개: 어떤 집에 이 망쥬덜으는 그 떡이랑 해에서 그 줄꾼들게다 멕인단 말이오. 술두 개:다 멕이구 일 할때. 개:문 게 후한 게디. {그래 어떤 집의 망쥬들은 그 떡이랑 해서 그 줄꾼들에게 멕인단 말이오. 술도 가져다 먹이고 일할 때. 그러면 그게 후한 거지.}

10103 # 개: 그 품샅으 계산할 때두 야~, '내게 야~ 기네 많은데, 오늘날 내 뭇에서 얼마만 떼에서 너가 돼:지나 한나 잡아서 먹자.' 이렇게 하구. {그래 그 품샅을 계산할 때도 야~, '나한테 야~ 너무 많은데, 오늘날 내 뭇에서 얼마만 떼어서 너랑 돼지나 하나 잡아서 먹자.' 이렇게 하고.}

10103 # 다 사름 사는 게 이전이나 지금이나 다 그랬단 말이오. 세샤~이. {다 사름 사는 게 이전이나 지금이나 다 그랬단 말이오. 세상이.}

10103 @ 아바니도 그문 주, 줄 당개:러 한번 다녀 보셨습두? {할아버지도 그러면 주, 줄 당기러 한 번 다녀 보셨습니까?}

10103 # 이게야~, 우리 후에 해방 나서, 핵교 끝나구서 나이 어릴 때 발갈이를 하작 해두 맞잡 대앵구 일할 주 모른다구 야~, 개:서 그때 아아들르서 한 렐릴구 엘에서 이 따윗 놈들으 대레 내: 가담. '네 오늘 와서 야~, 너 줄으 당개:라.' {이게 야~, 우리 후에 해방 나서, 학교 끝나고서 나이 어릴 때 발갈이를 하려고 해도 마땅치 았고 일할 줄 모른다고 야~, 그래서 그때 애들이 한 열 일곱 열 여섯 이 또래 놈들을 데려 가지. '너 오늘 와서 야~, 너 줄을 당겨라.'}

10103 # 그래 나가서 해: 봤단 말이오. {그래 나가서 해 봤단 말이오.}

- 10103 # 그래 하다가서 그거 또 재미 붙여서 야~, 집체에서 생산대르 해: 때 그물 갖췄단 말이오. {그래 하다가 그거 또 재미 붙여서 야~, 집체에서 생산대를 할 때 그물 갖췄단 말이오.}
- 10103 # 그때는 우리 아아때보다 고기는 숙 슬해엿는데 우리 열다서[열따서 열여섯[여러선] 때보다 고기는 정말 절반도 안 낫소. {그때는 우리 아이때보다 고기는 썩 덜했는데 우리 열 다섯 열 여섯 때보다 고기는 정말 절반도 안 낫소.}
- 10103 # 그래도 잡우무야~ 생산대서 농가먹구 또 팔기두 하구. 개: 그물 갖췄는데 좋았소. {그래도 잡으면 야~ 생산대에서 나눠 먹고 또 팔기도 하고. 그래 그물 갖췄는데 좋았소.}
- 10103 # 고기르 정말 돼르 대기 먹었다. {고기를 정말 질리도록 먹었지.}
- 10103 # 가을 봄을루서 한집에다 한나씨 소애르 이룽기 크우. 알끈이나 한근 이르기 가는 거 가을에 한나, 봄에 한나 농가주구 그 화애는 거저, 집집이 거저 열매 잡우무 호배달루 농가주구. {가을 봄으로, 한 집에다 하나씩 송어를 이렇게 크오. 열 근이나 한 근 이렇게 가는 것 가을에 하나, 봄에 하나 나눠 주고 그 황어는 그저, 집집이 그저 열마 잡으면 호배달로 나눠 주고.}
- 10103 @ 아바니 그, 상새날 때도 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가티] 일을 하재임두? 그런 모임을 또 머라고 여기서…… {할아버지 그 상사(초상) 날 때도 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임을 또 뭐라고 여기서……}
- 10103 # 향뒤터~이라는 게 있는데 야~. {향뒤텅(상여계)이라는 게 있는데 야~.}
- 10103 # 그 향뒤터~에서는 향뒤르 메에 내애 가구, 그담에 어느 집안에서 어느분이 상새낫다문 그집안에서 거 주관하는 사름이 잇단 말이오. {그 향뒤텅에서는 상여를 메어 내어 가고, 그 다음에 어느 집안에서 어느 분이 상사(초상)났다 하면 그 집안에서 그거 주관하는 사름이 잇단 말이오.}
- 10103 # 개: 그사름이 무시게나 다 줌 알아야 대디. {그래 그 사름이 무엇이나 다 줌 알아야 되지.}
- 10103 # 무슨 모든 절차르. 그래 그런 사름 불레서. {무슨 모든 절차를. 그래 그런 사람 불러서.}
- 10103 # 초습부터 한단 말이오. 그담에 무스거 부고르 써서, 그담에 무슨 영저~어 쓰구. 개: 이런 절차르 다 해:서 장례 저거하문 그 사름은 호사~이란 말이오. {초습부터 한단 말이오. 그 다음에 무슨 부고를 써서, 그 다음에 무슨 영정을 쓰고. 그래 이런 절차를 다 해서 장례 저거하면 그 사름은 호상이란 말이오.}
- 10103 # 그래 그 향뒤 나갈 때까지 담당하는 사름이 잇딤. {그래 그 상여 나갈 때까지 담당하는 사름이 있지.}
- 10103 @ 향뒤터~에 있는 사름들은…… {향뒤텅에 있는 사름들은……}
- 10103 # 향뒤텅 사름들은 그 터~에서 어, 사름이 사망하문 그 터~에서 그거 다 책임지구서 물어주디 머. 공구구 향뒤구 다 준비해 잇단 말이오 향뒤터~이라는 거는. {향뒤텅 사름들은 그 텅에서 어, 사름이 사망하면 그 텅에서 그거 다 책임지고서 물어주지 뭐. 공구고 상여고 다 준비해 잇단 말이오 향뒤텅이라는 것은.}
- 10103 @ 돈을 몰아야 왜대님둥? 그것두 열매 하자문. {돈을 모아야 되잖습니까? 그것도 얼마

하자면.)

10103 # 야~, 일년에[일러네] 많이 안 몰웁니다. 경비 많이 안 든다구. {야~, 일 년에 많이 안 모읍지. 경비 많이 안 든다고.}

10103 @ 그문 을매나 몰웁두? {그러면 얼마나 모읍니까?}

10103 # 그저 한 지금, 지금으느 야~, 한 십원씩 몰우웁데. 중국돈으 무슨 십언이 무슨. {그저 한 지금, 지금은 야~, 한 십 원씩 모읍니다. 중국돈으로 무슨 십 원이 무슨.}

10103 # 그래서 그게 무스거 하는가 하나까, 그 보관하는 데 향뒤르 보관하구, 그 머 메는 줄이, 그답에 공구들이 판: 나문 바꾸구, 개: 마감에 거, 거, 향뒤터~에서 텅췌~이라는 게 있다니. {그래서 그게 무엇 하는가 하나까, 그 보관하는 데 상여를 보관하고, 그 뭐 메는 줄, 그 다음에 공구들이 낚아 망가지면 바꾸고, 그래 마지막에 그, 그, 향뒤텅에서 텅췌~이라는 게 있지.}

10103 # 텅췌~이라구서 언너 좌샤~이, 거 향뒤터~에 거, 더, 침존이라는 게 그게 야~ 거, 웬: 주임이란 말이오. {텅췌~이라고서 바로 좌상, 그 향뒤텅에 그, 저, 침존이라는 게 그게 야~, 가장 주임이란 말이오.}

10103 # 거 침존이 떡 앓구, 그답에 췌, 췌앎이, 고온이 그런 사름덜이 절으 하구, 그답에 수울 우 붓구, 그답에 다음 침존게다서 인게르 하는 그 식이 있단 말이오 그게. {그 침존이 떡 앓고, 그 다음에 췌앎이, 고온이 그런 사람들이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술을 붓고, 그 다음에 다음 침존에게 인계를 하는 그 식이 있단 말이오 그게.}

10103 @ 그럼 침존이 있으문 밑에 뭐 췌앎이, 고온이라는 이런 직책이 있단 말임두? {그럼 침존이 있으면 밑에 뭐 췌앎이, 고온이라는 이런 직책이 있단 말입니까?}

10103 @ 그문 그러게 췌: 다 한번 얘기르 해 보웁소. 그니까 웬: 높은 게 침존이구, 그다음 밑에 있는 게 이제…… {그러면 그렇게 췌 다 한 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게 침존이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게 이제……}

10103 # 그답에 고온이 잇디 무. {그 다음에 고온이 있지 뭐.}

10103 @ 그문 췌앎이는 고온이보다 높대님두? {그러면 췌앎이는 고온이보다 높잖습니까?}

10103 # 고온이 높디 무. {고온이 높지 뭐.}

10103 @ 아 고온이 높습두? {아 고온이 높습니까?}

10103 # 고온이 거 재저~이랑 관할한단 말이오. {고온이 그 재정이랑 관할한단 말이오.}

10103 # 그 안에 잇는 경비, 무슨 보관 머 이거 다 관할한단 말이오. {그 안에 있는 경비, 무슨 보관 뭐 이것 다 관할한단 말이오.}

10103 # 췌앎이는 어, 거, 더, 조밀하는 거, 구더~이 파는 거, 그거 사름으 동원 시기구, 그답에 '아무날 뗏시에 거, 두자~이 잇다, 너 오나라.' 그거 니른단 말이오. {췌앎이는 어, 거, 저, 조밀하는 것, 구덩이 파는 것, 그거 사람을 동원시키고, 그 다음에 '아무 날 뗏 시에 두 장(두 무덤)이 잇다, 너 오나라.' 그거 이른단(말한단) 말이오.}

10103 # 심바람꾼이디 머 췌앎이라는 거는. {심부름꾼이지 뭐 췌앎이라는 것은.}

10103 @ 좌상은 침존이랑 그러면 땀:두? {좌상은 침존이랑 그러면 다릅니까?}

10103 # 좌샤~이 원래 침, 침존으 좌샤~이라 하디 머. {좌상이 원래 침, 침존을 좌상이라 하지 뭐.}

10103 # 월래는 침존이라딴. {원래는 침존이라 하지.}

10103 @ 좌샤~이란 말은 더 뒤에 생긴 말임두? {좌상이란 말은 더 뒤에 생긴 말입니까?}

10103 # 그래두 흔히, 침존으 '좌상, 좌상' 하는데, 자리에 앉으문 웬: 높은 데 앉아야 댜단 말 이오, 좌샤~이. 침존이 월래 또 그자리에 앉는데, 개: 그 좌에서 높은 꼭대기에 앉는다구 '좌상, 좌상' 이랬단 말이오. {그래도 흔히, 침존을 '좌상, 좌상' 하는데, 자리에 앉으면 가장 높은 데 앉아야 댜단 말이오 좌상이. 침존이 원래 또 그 자리에 앉는데, 그래 그 좌에서 높은 꼭대기에 앉는다고 '좌상, 좌상' 이랬단 말이오.}

10103 # 개: 뭐 더 부고 낫을 때는, '침존좌하' 이렇게 부고를 낸단 말이오. {그래 뭐 저 부고 낫을 때는, '침존좌하' 이렇게 부고를 낸단 말이오.}

10103 # '좌상 좌하'라구 이렇게 아니하구. {'좌상 좌하'라고 이렇게 안 하고.}

10103 @ 그러문 침존이라는 거는 사람을 좀 대접해서 부르는 게구…… {그러면 침존이라는 것은 사람을 좀 대접해서 부르는 것이고……}

10103 # 야~, 글썰르서 어떻게 쓰는가 하니까야~, 여기 써 일없소? {야~, 글자로써 어떻게 쓰는가 하니까 야~, 여기 써도 괜찮소?}

10103 @ 예, 일없습구마, 쓰읍소. {예, 괜찮습니다, 쓰십시오.}

10103 # 싹 낮어뻐다. 이런 침, 침째던두…… {싹 잊어버렸다. 이런 '침', '침' 자딘가……}

10103 @ 예, 읍습구마, 그 글째 읍습구마. {예, 읍습니다, 그 글자 읍습니다.}

10103 # 그런 게 잇디? {그런 게 있지?}

10103 @ 응, 예, 이 침짜. {응, 예, 이 '침' 자.}

10103 # 아, 이게란 말이오. 이, 이게 모루갬다 읍은두. 읍소? {아, 이것이란 말이오. 이, 이게 모르갬다 읍은지. 읍소?}

10103 @ 그문 좌샤~이라는 것도 한뼉말임두? {그러면 좌상이라는 것도 한자어입니까?}

10103 # 좌샤~이라는 거, 저, 앉은 자리, 앉은 좌, 좌짜 잇대니우? 좌, 상. {좌상이라는 것, 저, 앉은 자리, 앉은 '좌', '좌' 자 있잖소? 좌, 상.}

10103 @ 그러문 그, 사름이 그문 향뒤터~이니 웬: 높은 게 침쵸~이구, 그밑에 또 고온이 한내 있어서 이것저것 돈이니 무시게 관리하고, 그밑에 인제 쇠엿이가 있어서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 향뒤텅이니 가장 높은 게 침존이고, 그 밑에 또 고온이 하나 있어서 이것 저것 돈이니 뭐니 관리하고, 그 밑에 이제 쇠엿이가 있어서……}

10103 # 심바람아구. {심부름하고.}

10103 @ 밑에 일하구 땅을 파구서 향뒤르 메구 이런 거 다 하구. {밑에 일하고 땅을 파고 상 여를 메고 이런 것 다 하고.}

10103 # 그 조직, 조직 구성이 그렇디. {그 조직, 조직 구성이 그렇지.}

10103 @ 그문, 각각 뻬 명씩 뻬 사람씩 이롭게…… {그러면, 각각 뻬 명씩 뻬 사람씩 이렇게……}

10103 # 그게, 한, 한, 한 터~이라는 게야~, 향뒤텅 한 개 터에 한 이삼십호[이삼시보]씩 돼는 데, 개 누기나 다 나와야 댜단 말이오 그게. 아니 나오믄 돈: 내애 돼오. {그게, 한, 한, 한 텅이라는 게 야~, 향뒤텅 한 텅에 한 이삼십 호씩 되는데, 그래 누구나 다 나와야 댜단 말이오 그게. 안 나오면 돈 내야 돼오.}

10103 @ 아 그렇습두? 일을 아이하문 돈을 내구…… {아 그렇습니까? 일을 안 하면 돈을 내고……}

10103 # 아니, 출석, 출석 아니하문, 돈: 내애 댄단 말이오. {아니, 출석, 출석 안 하면, 돈 내야 댄단 말이오.}

10103 # 개: 거저 야들이서 한번에 메는데 야~, 야들이 한 녀~이란 말이오 귀게. {그래 그저 여덟이서 한 번에 메는데 야~, 여덟이 한 녀이란 말이오 귀게.}

10103 @ 한 녀~이라구요? {한 녀이라고요?}

10103 # 응, 한녕 한녕 너 농가 메라. {응, 한 녀 한 녀 너 나뉘 메어라.}

10103 # 그문 조를 짚단 말이오 야~, 우리 야들이서 한녀~어 하구 또 따음…… {그러면 조를 짚단 말이오 야~, 우리 여덟이서 한 녀를 하고 또 따음……}

10103 @ 한 녀~이라는 것도 한째말임두? {한 녀이라는 것도 한자어입니까?}

10103 # 모르겠소 나 그건 거저 거저 한녕 한녕 하압데. {모르겠소 나 그건 그저 그저 한 녀 한 녀 함디다.}

10103 @ 그럼 여덟명이, 쇠앰이, 쇠앰이 여덟명임두? 메는 사람…… {그럼 여덟 명이, 쇠앰이, 쇠앰이 여덟 명입니까? 메는 사람……}

10103 # 메는 사람 그거 텃원이. 향뒤텃 텃원이. {메는 사람 그것은 텃원. 향뒤텃 텃원.}

10103 # 텃원, 텃원이 셔른 호이네느 삼십며~이 댄단 말이오. {텃원, 텃원이 셔른 호면 삼십 명이 댄단 말이오.}

10103 # 궁게, 주인이 없어서 못 나온 사람두 잇디 머. 머, 어디메 왜출으 했거나. {거기, 주인이 없어서 못 나온 사람도 있지 뭐. 뭐, 어디 외출을 했거나.}

10103 # 개:때문 거저 스물 다섯 스물은 개당 대디 머 거저 늘쌍. {그럴 때면 그저 스물 다섯 스물은 대개 되지 뭐 그거 늘쌍.}

10103 # 개:니까 혼자서는 그거 메구 산으루 올라가자문 함 계속 메구 가자문 바쁘구. {그러니까 혼자서는 그것 메고 산으로 올라가려면 계속 메고 가려면 힘들고.}

10103 # 개: 어기어기 메느라구서 귀게 한 야들이 메래르 댄단 말이오. 한쪽에 너씩 이릉게. {그래 번갈아서 메느라고서 귀게 한 여덟이 메도록 댄단 말이오. 한 쪽에 넷씩 이릉게.}

10103 @ 아 그러면은 온 동네 사람이 전부 모여서 자기 텃, 텃원이 돼구 그문 그중에서 이제 쇠앰이는 따로 뽑습두 그러면? {아 그러면은 온 동네 사람이 전부 모여서 자기 텃, 텃원이 되고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쇠앰이는 따로 뽑습니까 그러면?}

10103 # 아, 그, 쇠앰이는 이것도 더, 첨존으느 야~, 웬: 첫감에 시책이르 할 때 그동네서 웬: 어른부터 한단 말이오. {아, 그, 쇠앰이는 이것도 저, 첨존은 야~,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 동네에서 가장 어른부터 한단 말이오.}

10103 # 그담에 그냥반이 일년[일련]이나 냥년으 하구서 임기 돼문 그다음 사람이 하구. {그 다음에 그 양반이 일 년이나 이 년을 하고서 임기 되면 그 다음 사람이 하고.}

10103 # 그담에 또, 고온으느 야~, 중간에서 쇠앰, 쇠앰 하구 좌상하구 그 어간에 열려~이 댄단 말이오 야~. {그 다음에 또, 고온은 야~, 중간에서 쇠앰, 쇠앰하고 좌상하고 그 사이의 연령이 댄단 말이오 야~.}

10103 # 그 어간 열려~에서 할 만:한 사름으르 뽑운다니 그거는. {그 사이 연령에서 할 만한

사람으로 뽑지 그것은.)

10103 @ 그것두 한내, 한냄두? {그것도 하나(한 명), 하나(한 명)입니까?}

10103 # 한내오. 건 아무 사람이나 아니한단 말이오. {하나요. 그건 아무 사람이나 안 한단 말이오.}

10103 # 건 문서나 좀 할 수 있구, 그런 사름으르 뽑디 머. 그건 완으르 제 선거르 한단 말이오. 임며~이, 이게 저 내려가메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문서나 좀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으로 뽑지 뭐. 그건 완전히 제대로 된 선거를 한단 말이오. 임명이, 이게 저 내려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10103 @ 그럼 그밑에 췌앰이는..... {그럼 그 밑에 췌앰이는.....}

10103 # 췌, 췌, 췌앰이는 거저 거, 더, 더, 임명한단 말이오 이번엔 아무개다. {췌, 췌, 췌앰이는 그저 그, 저, 저, 임명한단 말이오 이번엔 아무개다.}

10103 @ 아 그것두 한냄두? {아 그것도 하나(한 명)입니까?}

10103 # 둘:이우. {둘이오.}

10103 @ 아 둘임두? {아 둘입니까?}

10103 # 심바람꾼은 두울이우. {심부름꾼은 둘이오.}

10103 @ 아, 그러문 터원은 다 밑에 또 따루, 딸르 또 있구. {아, 그러면 텅원은 다 밑에 또 따로, 따로 또 있고.}

10103 # 야~, 그 터원은 거저 일반 거저, 향뒤 메는 사름이다. {야~, 그 텅원은 그저 일반 그저, 상여 메는 사람이지.}

10103 @ 찜존은 그러면은 선거를 함두? {찜존은 그러면은 선거를 합니까?}

10103 # 아니우, 이미 벌써 거 정해애 잇다니. 웬: 어른 임기 때문 그다음 양반이 그르게 올라 간단 말이오. {아니오, 이미 벌써 그거 정해져 있지. 가장 어른 임기 되면 그 다음 양반이 그렇게 올라간단 말이오.}

10103 @ 아바니, 또 하겠습구마. {할아버지, 또 하겠습니까.}

10103 # 이게, 록음기 이게 좋은 것 같소. {이게, 녹음기 이게 좋은 것 같소.}

10103 @ 이거는 아췌 좋습구마. 값이 마~이 나가구. {이것은 아주 좋습니다. 값도 많이 나가고.}

10103 # 돈우 먹었겐소. {돈이 꽤 들었겐소.}

10103 @ 그래두 저희가 저희 돈으루 사는 게 아니다나니까. {그래도 저희가 저희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10103 # 싸 주웁데 이거? {사 줍니까 이거?}

10103 @ 예. {예.}

10103 # 오오, 허허! {오오, 허허!}

10103 @ 쓰구 나서 도로 또 반납해야 똔단 말입구마. 이거 쓰구 나서르. {쓰고 나서 도로 또 반납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 쓰고 나서.}

10103 @ 아까 머, 머, 산천대:라는 게 있댜었습둥? 그 산천대에서 제새르 지낼 적에도 머 돈을 몰아서 하대님둥? {아까 뭐, 뭐, 산천장이라는 게 있잖았습니까? 그 산천장에서 제사를 지낼 적에도 뭐 돈을 모아서 하잖습니까?}

10103 # 아, 그거 집집이서 수울으 맨든 집우 안패르 하구 이전에는 야~, 지금은 술으 싸디만 이전에는 고앗단 말ियो. {아, 그거 집집에서 술을 만든 집을 안배를 하고 이전에는 야~, 지금은 술을 사지만 이전에는 고앗단 말ियो.}

10103 # 개: 거 두어 서너 집에다서 수울으 맨들기 맨든단 말ियो. {그래 그 두어 서너 집에다 술을 만들게 만든단(시킨단) 말ियो.}

10103 @ 그러문 그 할 적에는 무시게야 돈우 몰아서 하는 게 아이구…… {그러면 그 할 적에는 뭐야 돈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10103 # 어, 돈올르는 엇딘가 하나까야~, 개: 부럼전이라구 잇소. 거, 야라 호이다나니 거저 돈 많이 안 내도 돼오. {어, 돈으로는 어찌하나 하나까 야~, 그래 부럼전이라고 잇소. 그, 여러 호다 보니 그저 돈 많이 안 내도 되오.}

10103 # 부럼전의 무는데 그거, 거저 한 오륙원씩, 지금 돈으로 그저 오륙원 정도나 돼갓담. {부럼전을 내는데 그거, 그저 한 오륙 원씩, 지금 돈으로 그저 오륙 원 정도나 되겠지.}

10103 @ 그 산천제 제사는 그문 언제 지냄두? {그 산천제 제사는 그러면 언제 지냅니까?}

10103 #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인데.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인데.}

10103 # 날짜는 거 각가 저항 할께오 그거. 산천다~ 정한 때. {날짜는 그 각각 정할 거요 그거. 산천장 정한 때.}

10103 @ 뭐 딸르 언제다 머, 매년, 머, 원래 매년 머 삼월 메출 이른게 없구. {뭐 따로 언제다 뭐, 매년, 뭐, 원래 매년 뭐 삼월 며칠 이런 게 없고.}

10103 # 거, 회룡봉 산천다~에서는 같은 날에 계속 하디 머. 자기 산천을 위아는 날에, 고날을 정한 날이 잇단 말ियो. {그, 회룡봉 산천장에서는 같은 날에 계속 하지 뭐. 자기 산천을 위아는 날에, 그 날을 정한 날이 잇단 말ियो.}

10103 # 가을에 어느날, 봄에 어느날. 개: 벌똥산천짜~은 또 따단 말ियो. {가을에 어느 날, 봄에 어느 날. 그래 벌등 산천장은 또 다르단 말ियो.}

10103 # 산천당마다 그 날짜 따디 머. {산천장마다 그 날짜 다르지 뭐.}

10103 @ 혼새르 할 적에서르 무스그 그, 재빌루 알아서 하암둥 아니문 머 무스거 돈을 줌 몰아서 돕아준다든가, 본텅이 말구서르. {혼사를 할 적에 무슨 그, 스스로 알아서 합니까 아니면 뭐 무슨 돈을 줌 모아서 도와준다든가, 본청 말고.}

10103 # 아, 거, 집에서 대부분 하구, 그담에 형테간이나, 그런 사람들이 돈: 낸단 말ियो 또. {아, 그, 집에서 대부분 하고, 그 다음에 형제간이나, 그런 사람들이 돈 낸단 말ियो 또.}

10103 # 개:구 마을에서 혼사에 오는 사람들이 거저 아니오디 머. 다 돈우 가지구 온단 말ियो. {그리고 마을에서 혼사에 오는 사람들이 그냥 안 오지 뭐. 다 돈을 가지고 온단 말ियो.}

10104 @ 아바니, 회룡봉에 그, 자랑꺼리같은 거 있으면 쫌 얘기해 주시겠습두? 다른 마을에는 없는데, 이 회룡봉에는 있는 게 머가 있는지…… {할아버지, 회룡봉에 그, 자랑거리 같은 것 있으면 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마을에는 없는데, 이 회룡봉에는 있는 게 뭐가 있는지……}

10104 # 회룡보~이 야~, 이전에, 광복 전에, 해방 전에, 팔일오이전에, 축구 선수 유며~했단 말ियो. {회룡봉이 야~, 이전에, 광복 전에, 해방 전에, 팔일오 이전에, 축구 선수 유명했단

말이오.}

10104 # 이, 훈춘현 경내에서는 거저 무조건[무조건] 일뜨~이구 그답에 이 조선에서두 야~, 함경북도 대회까지 참가르 했소. {이, 훈춘현 경내에서는 그저 무조건 일등이고 그 다음에 이 조선에서도 야~, 함경북도 대회까지 참가를 했소.}

10104 # 함경북도 대회에 참가르 했는데, 이게 더 간똥놈들이라구서 야~, 그 경찰들으랑 무슨 현병들이랑 내:서, 그 잘 차는 선수들으 야~, 지토~오 티고 야~, 네 꼴우 너문 무스거 이따 국가가 좋디 못하다 위협한단 말이오 야~. {함경북도 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이게 저 간도 놈들이라고 야~, 그 경찰들이랑 무슨 현병들이랑 나서서, 그 잘 차는 선수들을 야~, 호통을 치고 야~, 네 꼴을 넣으면 무슨 후에 국가가 좋지 못하다 위협한단 말이오 야~.}

10104 # 그래서 이게 함경북도 대회 한번 참가르 해서 울며 왔다구. 선수들이. 벨:이 뿔어나서. {그래서 이게 함경북도 대회 한 번 참가를 해서 울며 왔다고. 선수들이. 심통이 나서(화가 치밀어서).}

10104 # 으~, 대단히 유명했디 무, 선수들이. {응, 대단히 유명했지 뭐, 선수들이.}

10104 @ 그때도 축구가 이렇게…… {그 때도 축구가 이렇게……}

10104 # 어~, 축구, 이 화룡봉 축구대가 유머~했소. 소문났소. {응, 축구, 이 화룡봉 축구대가 유명했소. 소문났소.}

10104 # 그게 한내 유머~한 게 잇구. {그게 하나 유명한 게 있고.}

10104 # 거 화룡봉 사람들이 야~, 출세 한 사람들이 많엿디. 해방 전에나 해방 후에나. {그 화룡봉 사람들이 야~, 출세한 사람들이 많았지. 해방 전에나 해방 후에나.}

10104 # 델:이 관탕단 사람이 야~, 독립 운동 때, 예, 한규라~이 아들이, 이름 모루갓다. {제일 펜찰다는 사람이 야~, 독립 운동 때, 예, 한규량이 아들, 이름 모르갓다.}

10104 # 그냥반이, 상해 임시정부 재정부 부자~이나 그렇게 했다니. {그 양반이, 상해 임시 정부 재정부 부장이나 그렇게 했지.}

10104 # 그런 사람이 잇구, 해, 해방 전에 또 항일하는 사람덜이 북조선 인민위원회 김일성 다음우 가는 사람이 안길이라구 잇구. {그런 사람이 있고, 해, 해방 전에 또 항일하는 사람들이 북조선 인민위원회 김일성 다음 가는 사람이 안길이라고 있고.}

10104 @ 아바니, 그러면은 화룡봉에만 나는 어떤 그, 특산물같은 거 머 있음두? {할아버지, 그러면은 화룡봉에만 나는 어떤 그, 특산물 같은 것 뭐 있습니까?}

10104 # 화룡보~에 특산 없소. 거저 콩, 옥수수, 거저 이런 농사르 짓다나니 무슨. 일반 농사디 무. {화룡봉에 특산 없소. 그저 콩, 옥수수, 그저 이런 농사를 짓다 보니 무슨. 일반 농사지 뭐.}

10104 @ 콩, 옥수수도 특산물 애임두? {콩, 옥수수도 특산물 아십니까?}

10104 # 거저 콩가 옥수수 다른 땃거보다 좋앗디 무. {그저 콩과 옥수수가 다른 데의 것보다 좋았지 뭐.}

10104 # 이 훈춘이, 이거이, 이, 양자레:다 갖다 탁 쏘아노문 야~, 색깔이 쪽 땃다니. {이 훈춘이, 이게, 이, 양자리에다 가져다 탁 쏘아 놓으면 야~, 색깔이 쪽 달랐지.}

10104 # 양과~이, 양과~이 좋구, 따~이 기름져 그런디, 다른땃거보다 썩 색깔이 선머~아디 머.

{양광이, 양광이 좋고, 땅이 기름져 그런지, 다른 데의 것보다 썩 색깔이 선명하지 뭐.}

10104 @ 콩두요? {콩도요?}

10104 # 나~, 코~이 특별했디 무. {나~, 콩이 특별했지 뭐.}

10104 @ 어뜨게 특별함두? {어떻게 특별합니까?}

10104 # 색깔이 거저 닥같은 종잔데, 양장내에 창꼬에 내다 탁 쏘아:노문, 이게 그거 쏘아는 자리가 황 알갯:다니. {색깔이 그저 똑같은 종자인데, 양장 내에 창고에 내어다 탁 쏘아 놓으면, 이게 그것 쏘아 놓은 자리가 흰히 드러났지(알게 되었지).}

10104 # 그래서 이거, 회룡봉, 회룡봉 코~이라구서 거저. {그래서 이거, 회룡봉, 회룡봉 콩이라고서 그저.}

10104 @ 쌀은 별로 아이 특별함두? {쌀은 별로 안 특별합니까?}

10104 # 쌀두 이 지금 야~, 이 훈춘 경내에서는 회룡봉 쌀이 좋소. {쌀도 이 지금 야~, 이 훈춘 경내에서는 회룡봉 쌀이 좋소.}

10104 # 이 시자~에 들어오문 이게 회룡봉 쌀이라문 거저 막 잡아드우. {이 시장에 들어오면 이게 회룡봉 쌀이라 하면 그저 막 잡아 드오.}

10104 # 좋소 지금. 따~이 아주, 좋, 종단 말이오. {좋소 지금. 땅이 아주, 좋, 종단 말이오.}

10104 @ 그럼 무슨 민속 놀이라든지 뭐 놀음 같은 거는 특별한 거 없습두? 회룡봉? {그럼 무슨 민속 놀이라든지 뭐 놀이 같은 것은 특별한 것 없습니까? 회룡봉?}

10104 # 에이, 없었소. 거저 남가 같이 거저 이전에 단이 때문 구리르 매에 뛰구 씨름두 하구 했디만 그것 다 특별한 게 없구, 씨름꾼이 한내 북선에서 일뜨~한 사람이 잇긴 잇었소. {에이, 없었소. 그저 남과 같이 그저 이전에 단오 때면 그네를 매어 뛰고 씨름도 하고 했지만 그것 다 특별한 게 없고, 씨름꾼이 하나 북선(북조선)에서 일등 한 사람이 잇긴 있었소.}

10104 # 김성진이라구. 이 도문에 가서두 일, 거저 일뜨~하구 연변에서도 일뜨~했단 말이오. {김성진이라고. 이 도문에 가서도 일, 그저 일등 하고 연변에서도 일등 했단 말이오.}

10104 # 북선이라 하넌, 이전에 북선이라문 어딴메 어딴메 들었는디 모루겏소. {북선이라 하면, 이전에 북선이라 하면 어디 어디 들었는지 모르겏소.}

10104 # 남선, 북선 하대니우? 응, 북선이 어느 구역까지 들었는디 모루겏는데 어뻤든 너, 앞으루 먼디서 안 나갓갓디 머. {남선, 북선 하잖소? 응, 북선이 어느 구역까지 들었는지 모르겏는데 어뻤든 너, 앞(남)으로 먼 데서 안 나갓갓지 뭐.}

10104 # 거기서 씨름애 일뜨~했:답데. {거기서 씨름해 일등했답디다.}

10104 # 그 회룡봉에 그러루: 한 사름두 잇었디 무. {그 회룡봉에 그만한 사람도 있었지 뭐.}

10104 @ 아바니 여기 무슨 중요, 유명한 문화재나 이런 거는 없습두? {할아버지 여기 무슨 중요, 유명한 문화재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10104 # 없소. 없소 없소. {없소. 없소 없소.}

10105 @ 그문 지금 이, 회룡봉 마을 모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집이라든지 이런거 예전이랑 달라진 점이 뭐가 있겠습두? 쫘, 쫘 얘기르 해 주시면요. {그러면 지금 이, 회룡봉 마을 모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전이랑 달라진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쫘, 쫘, 얘기를 해 주시면요.}

- 10105 # 다른 곳에는 혹시 잇엇겠는디 모루갠디마는 이 경신에서느 그 우리 우엿집 기왜집 잇대니우? 기와집이. 그게 즈끔 연변에서 여, 조선 자치주에서, 그게 야~, 그 문화젤르서 남아잇소. 거 다티디 못하게끔 내엿닷뵈다니 그 집우. {다른 곳에는 혹시 잇엇겠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경신에서는 그 우리 윗집 기와집 잇잖소? 기와집. 그게 지금 연변에서 이, 조선 자치주에서, 그게 야~, 그 문화재로서 남아잇소. 그것 건드리지 못하게끔 놔뵈다지 그 집을.}
- 10105 @ 예전에는 다 초가집 애니엿습두? {예전에는 다 초가집 아니엿습니까?}
- 10105 # 다 초가집이엿디 머. {다 초가집이엿지 뵈.}
- 10105 @ 그집은 부잣집이엿나..... {그 집은 부잣집이엿나.....}
- 10105 # 어~, 쫌 잘살앗디 무. {응, 쫌 잘 살앗지 뵈.}
- 10105 @ 그문 지금 그 회룡봉 마을이 제가 왔을 때보다도 또 많이 달라졌재임두? 아:쥬 옛날에는 더 달랖, 땃:지요? {그러면 지금 그 회룡봉 마을이 제가 왔을 때보다도 또 많이 달라졌잖습니까? 아주 옛날에는 더 달랖, 달랖지요?}
- 10105 # 그럼, 그, 그, 벽돌집이 한낫두 없엇다구. {그럼, 그, 그, 벽돌집이 하나도 없엇다고.}
- 10105 # 갠:데 지금은 다 벽돌집이 애니오 회룡보~이. {그런데 지금은 다 벽돌집이 아니오 회룡봉이.}
- 10105 # 벌등두 조금씩 조금씩 지금 벽돌집이, 돌아온 해부터, 국가에서 돈우 만원씩 줘서 벌뜨~에다도 벽돌집우 징는답:데. {벌등도 조금씩 조금씩 지금 벽돌집이, 돌아온 해부터, 국가에서 돈을 만 원씩 줘서 벌등에다가도 벽돌집을 짓는다고 함디다.}
- 10105 @ 그문 네전 집은 어땠는데, 지금 집은 어떻고, 머, 네전에는 이제 어떤 성씨 사람들이 살았는데 요즘에는 어떤 성씨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이런 거를 쫌 설명을 해 주시면요? {그러면 예전 집은 어땠는데, 지금 집은 어떻고, 뵈, 예전에는 이제 어떤 성씨 사람들이 살았는데 요즘에는 어떤 성씨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이런 것을 쫌 설명을 해 주시면요?}
- 10105 # 아 사름이사 그 사름이, 그 사름이 그, 그, 그 새끼, 그 새끼를 낳아서 살다나니 거저 무슨 전통적을르서 다 거저 가매애다 밥 해애 먹구 낭그 때애구 그러는데, 집우누, 다 개뻬뵈단 말이오. {아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그, 그 자식, 그 자식을 낳아서 살다 보니 그저 무슨 전통적으로 다 그저 가마술에다 밥 해 먹고 나무 때고 그러는데, 집은, 다 개뻬뵈단 말이오.}
- 10105 # 새르 파서 니어~ 네:는 게 없어디구, 흙으 니게서 바람질 하는게 없어디구, 괴래구 더, 즈래수르 먹구, 그, 게, 무스거 상수도 잇대니우? 어~, 그것 먹구, 개: 손으루 찢던 뽀뽀 다 없어디구, 다 서서히 발전해엿뵈. 쫌쫌 쫌쫌. {새를 파서 이영 이는 게 없어지고, 흙을 이겨서 바람질 하는 게 없어지고, 그리고 저, 수돗물을 먹고, 그, 그게, 무슨 상수도 잇잖소? 응, 그것 먹고, 그래 손으로 찢던 펄프 다 없어지고 다 서서히 발전했지. 조금씩 조금씩.}
- 10105 @ 즈끔두 향뵈르 메엿두? {지금도 상여를 맵니까?}
- 10105 # 야~, 즈끔 회룡봉에는 메우. {야~, 지금 회룡봉에서는 메오.}
- 10105 @ 그문 넷날터르 마찬가지루 침존이고 다 잇습두? {그러면 옛날처럼 마찬가지로 침존

이고 다 있습니까?)

10105 # 잇, 잇기는 잇는데, 거, 첨존이락 해에서 무슨 이전터르 절이랑 탁탁 가 아니 하오.
{잇, 잇기는 잇는데, 그, 첨존이라고 해서 무슨 이전처럼 절이랑 탁탁 가 안 하오.}

10105 # 우리 벌뜨~에 잇으 때는 더, 꼭꼬 시켰다고. '안 댜다, 거, 더, 일, 일련이나 냥년으 거,
향뒤텨~에서 야~ 좌샤~을르서 모시던 분인데 너 오늘우 그냥반게 수을우 붓우 때 꼭꾸
절으 해애야 댜다.'구서르. {우리 벌등에 잇을 때는 저, 꼭꼭 시켰다고. '안 댜다, 그, 저,
일, 일 년이나 이 년을 그, 향뒤텨에서 야~ 좌상으로 모시던 분인데 너 오늘 그 양반게
술을 부을 때 꼭꼭 절을 해야 댜다.'고서.}

10105 @ 즘끔은 그런걸 아이하구. {지금은 그런 걸 안 하고.}

10105 # 즘끔 우리랑 다, 더, 해에덴 담:엔 절 하는 것 같대니우. {지금 우리랑, 다, 저, 헤어진
다음엔 절 하는 것 같지 않소.}

10105 @ 아바니 느끼기에 켈: 많이 달라, 달라진 점이 어떤 것 같습두? 예전 회룡봉 마을가
지금가? {할아버지 느끼기에 제일 많이 달라, 달라진 점이 어떤 것 같습니까? 예전 회
룡봉 마을과 지금이?}

10105 # 이전에는 한전 농사르 하던 게 지금은 벼농사구, 개: 식생활이 좀 개변돼구, 주택이 개
변돼구, 개: 교토~이 넷날에 이전에 비해서 지금 빠스가 아침 저녁을루 왔다갔다 하는게
잇구…… {이전에는 한전(밭) 농사를 하던 게 지금은 벼농사고, 그래 식생활이 좀 개변
되고, 주택이 개변되고, 그래 교통이 옛날에 이전에 비해서 지금 버스가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잇고……}

10105 @ 그, 무시젠가, 다른 동네 사람들이 넘어와서 사는 사람은 없습두? {그, 뭔가, 다른 동
네 사람들이 넘어와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까?}

10105 # 잇소. {잇소.}

10105 # 한족 사름덜 지금 들어간다데. {한족 사름들 지금 들어간다데.}

10105 # 야~, 조선 사름들으는 다 한국 갔다서 돈이나 벌어가지구 이래 시내에 들어와서 다 살
구, 한족 사름들은 농사질 가서 하느라구서. {야~, 조선 사름들은 다 한국 갔다 와서 돈
이나 벌어가지고 이렇게 시내에 들어와서 다 살고, 한족 사름들은 농사일 가서 하느라
고서.}

10105 # 갠:데 실찌루 그 사름들으는 한국 가는 것만:이 번단 말이오. 회룡보~이 갔다 한 한족
이야~, 여러집 다 채디르 한단 말이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름들은 한국 가는 것만큼
번단 말이오. 회룡봉에 갔다 한 한족이 야~, 여러 집 다 차지를 한단 말이오.}

10105 # 한 서너 너덧 집 다 채디르 해서 그거 농사질으 하네느 일년에[일련에] 한 사오 만언
씨 번:단 말이오. {한 서너 너덧 집 다 차지를 해서 그것 농사일을 하면은 일 년에 한
사오만 원씩 번단 말이오.}

10105 # 그러니까 한국 가기보다 못하댁:디 그놈들이. {그러니까 한국 가기보다 못하지 않지
그 놈들이.}

10105 # 개: 그 사름들 투자르 많이 하디. {그래 그 사름들 투자를 많이 하지.}

10105 # 기계르 마~이 쓴단 말이오. {기계를 많이 쓴단 말이오.}

10105 # 갠:데 그게 몇 해르 하문 그 사름들이 오히려 생활이 낮아디디. {그런데 그게 몇 해를

하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생활이 나아지지.)

10105 # 한국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으느 가서 뭇햇도~안 일해애 갔다와서는 이 집우 싸구 무스거 머 엇디구 엇디구 해: 또 돈이 없으문 또 나가구 그저 괴래 와서 그거 야~, 머, 더 절 거저 이래 쓰구 더래 쓰구 한족사람들게다 다 거저 써먹는단 말이오. {한국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가서 몇 해 동안 일해 갔다 와서는 이 집을 사고 뭐 뭐 어찌하고 어찌하고 해 또 돈이 없으면 또 나가고 그저 그렇게 와서 그거 야~, 뭐, 그저 이래 쓰고 저래 쓰고 한족 사람들한테다 다 그저 써 먹는단 말이오.}

10105 # 이 흥진이 이 시가지에두 야~, 장사랑 하는 게 조선사람으느 열에 한내 잇으나 마나 하구, 다 한족사람게다서 돈우 바친단 말이오. 한족사람게다 싸 먹구. {이 흥춘 이 시가지에도 야~, 장사랑 하는 사람이 조선 사람들은 열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고, 다 한족 사람들한테다 돈을 바친단 말이오. 한족 사람들한테다 사 먹고.}

10105 # 이 더 택시에 앉는 것도 한족사람들은 택시에 아니 앉소. 조선사람들은 택시에 앉소. 허허허! {이 저 택시에 타는 것도 한족 사람들은 택시 안 타오. 조선 사람들은 택시 타오. 허허허!}

10105 # 습관이 나쁘다니, 이 조선사람들. {습관이 나쁘다니까, 이 조선 사람들.}

10105 # 개뿔도 없어가지구서 거저 더…… {개뿔도 없어 가지고서 그저 저……}

1.2. 일생 의례

1.2.1. 제보자의 출생과 성장

10201 @ 아바니, 그러면요, 예, 아바니께서 어,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이제 자라왔는지, 또 형제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쫓, 부모님은 어떠셨고 이런 것들을 쫓 얘기를 해 주시겠습두?{할아버지, 그러면요, 예, 할아버지께서 어, 어디서 태어나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이제 자라 왔는지, 또 형제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쫓, 부모님은 어떠셨고 이런 것들을 쫓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10201 # 야~, 우리, 우리 할아버지때, 건네왔단 말이오.{야~, 우리, 우리 할아버지 때, 건네왔단 말이오.}

10201 # 괴래 우리 아버지는 구악, 서당 훈다~이라는 게 괴게 야~ 즈금 선생:갓뎀 야~, 서당 훈다~이, 서당 훈다~이란 말이오.{그래 우리 아버지는 구학, 서당 훈장이라는 게 그게 야~, 지금 선생이겠지 야~, 서당 훈장, 서당 훈장이란 말이오.}

10201 # 우리 아버지는 그, 거, 경흥 회암이라는 데 잇었소. 회암, 회암도~이라는 데.{우리 아버지는 그, 거, 경흥 회암이라는 데 있었소. 회암, 회암동이라는 데.}

10201 # 거기서 서당 훈당질 했단 말이오.{거기서 서당 훈장 노릇을 했단 말이오.}

10201 @ 아, 그문 왔다갔다 하셨습두?{아, 그러면 왔다 갔다 하셨습니까?}

10201 # 아니.{아니.}

10201 @ 월래 오시기 전에……{월래 오시기 전에……}

10201 # 오시기 전에. 오시기 전에. 기양 우리 할아버지네는 우리 삼촌네랑 오구, 우리 아버지 거기 떨어데서 또 서당 훈장 했:단 말ियो.{오시기 전에. 오시기 전에. 그냥 우리 할아버지네는 우리 삼촌네랑 오고, 우리 아버지 거기 떨어져서 또 서당 훈장 했단 말ियो.}

10201 # 그래나서 엇대 그, 아니 맞잡땀던두:~ 또 건너왔단 말ियो 이쪽으루.{그래서 어째 그, 안 맞았던지 또 건너왔단 말ियो 이 쪽으로.}

10201 # 그래 건너와서 우리 아버지 개:다나니 쫘 학자땀 야~. 훈장질 한 사름이. 그래 와서 두루 이 가지 더 가지 아니 맞았는데 또 로시아로 갔단 말ियो.{그래 건너와서 우리 아버지 그러다 보니 좀 학자지 야~. 훈장 노릇 한 사름이. 그래 와서 두루 이것 저것 안 맞았는데 또 러시아로 갔단 말ियो.}

10201 @ 아, 아바니 아버지께서……{아,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10201 # 야~, 우리 아버지. 러시아에 가서 늑년 잇다가서 또 다시 나왔디.{야~, 우리 아버지. 러시아에 가서 육 년 있다가 또 다시 나왔지.}

10201 # 그래 다시 나와서 살다가서 이쪽이 상새났소. 서른 닐곱살에 상새났단 말ियो.{그래 다시 나와서 살다가 일찍이 상사 났소(돌아가셨소). 서른 일곱 살에 돌아가셨단 말ियो.}

10201 # 내 아홉살때 상새났단 말ियो.{내가 아홉 살때 상사 났단(돌아가셨단) 말ियो.}

10201 # 개: 우리 누이 너에, 내 이래 오남매르 남기구서 우리 아버지 돌아갓땀. 내 아홉살때. {그래 우리 누이 넷에, 나, 이렇게 오남매를 남기고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지. 내가 아홉 살때.}

10201 @ 오남매:두 아바니?(오남매입니까 할아버지?)

10201 # 야~.{야~.}

10201 @ 그문, 그문 형제는……{그러면, 그러면 형제는……}

10201 # 어, 어, 남자는 내 한자구, 이상 누이 서에 기애 녀동새 한나.{어, 어, 남자는 나 혼자고, 손윗 누이 셋에 손아래 여동생 하나.}

10201 # 개: 지금으느 이도포에 누이, 둘쨏누이 한분이 잇구, 큰누이가 셋쨏누이는 상새나구, 웬: 젊엇동새 훈춘에 여기 잇구.{그래 지금은 이도포에 누이, 둘째 누이 한 분이 있고, 큰 누이와 셋째 누이는 상사 나고(돌아가시고), 가장 젊은 동생 훈춘에 여기 있고.}

10201 @ 그문 자라실 때 어떻게 쫘 아, 아들이 혼자라고……{그러면 자라실 때 어떻게 쫘, 아, 아들이 혼자라고……}

10201 # 야~, 거저 대우 좋앗디 머.{야~, 그저 대우 좋았지 뭐.}

10201 # 그랜:데 우리 클아바니, 해방 후에 기애니까 사십 구년도, 사십구년도에, 핵교가야~ 이도포에 중핵교 그때 처암을루 생겼는데야~, 중핵교라구 이름 안 붙이구[부티구] 보습과락 했땀.{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해방 후에 그러니까 사십 구 년도, 사십 구 년도에, 학교가 야~, 이도포에 중학교 그때 처음으로 생겼는데 야~, 중학교라고 이름 안 붙이고 보습과라고 했지.}

10201 # 보습과에 가 셔험으 츠는데 거 회룡봉에서도 야~ 나아 먹은 사람들이 나는 그때 개:알세살이나 알네살이나 요때 땀단 말ियो야~.{보습과에 가 시험을 치는데 그 회룡봉에서도 야~ 나이 먹은 사람들이 나는 그때 그래 열 세 살이나 열 네 살이나 이때 땀단 말

이오 야~.}

10201 # 그래 시험출라 갖는데 한 이삼십명 갓소 회룡보~에서. 셔바~ 간 사람들꺼지 갓단 말이오.{그래 시험 치러 갖는데 한 이삼십 명 갓소 회룡봉에서. 장가 간 사람들까지 갓단 말이오.}

10201 # 중학교라 하니까 시험 출라.{중학교라고 하니까 시험 치러.}

10201 # 그래 가서 시험 쳤는데, 우리 왜사춘이가 내하구 우리 둘쨏비 시애끼 서이 우리 아는 사름이 거저 야~, 그래 시험 떡 쳤는데 내 혼자 딱 붙엇단 말이오.{그래 가서 시험 쳤는데, 우리 외사춘과 나하고 우리 둘째 누이 시동생 셋이 우리 아는 사람이 그제 야~, 그래 시험 떡 쳤는데 나 혼자 딱 붙엇단 말이오.}

10201 # 갠:데 우리 클아바니, 내 셔험에 합격돼엿다구서 통지 떡 갓단 말이오야~, 아무날부터 등교르 하라구. 기애니까는 막 낙루를 한단 말이오.{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내가 시험에 합격됐다고 통지서 떡 갓단 말이오 야~, 아무 날부터 등교를 하라고. 그러니까는 막 눈물을 흘리신단 말이오.}

10201 @ 아, 왜 낙루를 하셧슴두?(아, 왜 눈물을 흘리셧습니까?)

10201 # 그래서 우리 누이 물어봤단 말이오. '아바니 엇대서 아니 다 핵교르 간다하는데 괴래는가.'하구.{그래서 우리 누이가 물어봤단 말이오. '할아버지, 어째서 아니 재 학교를 간다 하는데 그러는가.' 하고.}

10201 # '네 이 큰 집안으 다 떠나서 핵교르 가서 이래 더 영게 땡게 나 돌아 땡기다 붙우네느, 엇디 디케애 다가나? 어전으 패돈에 집이 돼엿다.'{'네가 이 큰 집안을 다 떠나서 학교를 가서 이렇게 저 여기 저기 나돌아 다니다 보면, 어찌 지켜 나가느냐? 이제는 패돈의 집이 되엿다.'}

10201 # 그러면서 공부르 하는 거 좋아 아니 헛단 말이오 실찌루 야~.{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것을 안 좋아헛단 말이오 실제로 야~.}

10201 # 개: 거, 거 전통적을루 그거 거저 집우 디키구, 개: 거저 이상네 왔다갔다 하는 거 다 섬기구 거 뭐 관혼상제 이런 절차르 다 밟아서 거저 이전 재래식을르서 넌 장손이니까, 나가서 어디메 나가 사회에 나가 덤베디 말고 거저 고이 거저 이거 집구백이 디키메서 살아라. 이, 이게 목적이엇단 말이오.{그래 그, 그, 전통적으로 그거 그제 집을 지키고, 그래 그제 손윗분들 왔다 갔다 하는 것 다 섬기고 그 뭐 관혼상제 이런 절차를 다 밟아서 그제 이전 재래식으로 넌 장손이니까, 나가서 어디 나가 사회에 나가 덤비지 말고 그제 고이 그제 이거 집구석 지키면서 살아라. 이, 이게 목적이엇단 말이오.}

10201 # 그래 핵교가는 거 좋아 아니헛디.{그래 학교 가는 것 안 좋아헛지.}

10201 # 개: 할아버지 그렇디, 어마니, 혼자 계시는 어마니 잇디, 삼춘이 거저 우리 일으 같이 [가티] 헛단 말이오 그때.{그래 할아버지 그렇지, 어머니, 혼자 계시는 어머니 있지, 삼춘이 그제 우리 일을 같이 헛단 말이오 그때.}

10201 # 판집이 잇으메서두, 개: 나두 보기 좋디웁디 머 괴게 야~.{판 집이 잇으면서도, 그래 나두 보기 좋지 않지 뭐 그게 야~.}

10201 # 삼춘 치즈한테 경상 티갇소. 누이네 다 스집간 다음엔 그담엔 또 바뿌디.{삼춘 처에게 항상 신세지갇소. 누이네 다 시집 간 다음엔 그 다음엔 또 힘들지.}

10201 # 아이 야, 할아버지두 그렇디.{아이 야, 할아버지도 그렇지.}

10201 # '나두 그만 두자 이거. 노인들 섭섭애 한 짓으 었디 하겠나.' 하구서, 그래 핵교 안 갓단 말이오.{'}나도 그만 주자 이거. 노인들 섭섭해하는 짓을 어찌 하겠나.' 하고서, 그래 학교 안 갓단 말이오.}

10201 # 그때 월래 그래디 말구 탁 가야, 즘끔죵: 하문 개: 무슨 간부질이나 해 먹엇겠는디. 허허허! 잘못됐:단 말이오.{그때 원래 그러지 말고 탁 가야, 지금죵 하면 그래 무슨 간부 노릇이나 해 먹엇겠는데. 허허허! 잘못됐단 말이오.}

10201 @ 그래도 그 집안을 지키셨네요.{그래도 그 집안을 지키셨네요.}

10201 # 그래서 내사 제대로 해엿디 머.{그래서 나야 제대로 했지 뭐.}

10201 # 우리 집안이 별뜨~에 게: 그때두 한 이십여 호 잇엇단 말이오.{우리 집안이 별등에 그 게 그때도 한 이십여 호 잇엇단 말이오.}

10201 # 조카네요, 무슨 맡아바니네요, 무슨 아즈반네요. 이런데 머 모든 절차르 거, 야~ 우리 사촌형님이 년세 그대멘 많은 담에 한 삼십살 돼니까 거저 내게다 쪽 냉겿단 말이오. '어전 동새 자네 하세.{'}조카네요, 무슨 큰아버지네요, 무슨 작은아버지네요. 이런 데 뭐 모든 절차를 그, 야~ 우리 사촌 형님이 연세 그대면 많은 다음에 한 삼십 살 되니까 그 저 나한테다 쪽 넘겼단 말이오. '이젠 동생 자네가 하게.{'}

10201 # 그래서 이거 무스 군일[구닐] 기내는데 주관을 거저 다 했디 무.{그래서 이거 무슨 집안 경조사 지내는 데 주관을 그저 다 했지 뭐.}

10201 # 엿대는 내, 여, 즘끔은 한국에는 모르겠소 우시라는 게 잇는두:.{어쩐지 내, 여, 지금은 한국에는 모르겠소 '우시'라는 게 잇는지.}

10201 @ 지금 우시 없습구마.{지금 '우시' 없습니다.}

10201 # 전에 야~, 내 거저 한 쉼살 오십살 거이 뉘 때까지 우시르 댕기구야~ 이랬는데 야~, 일백 쯔 네번 댕겿소.{전에 야~, 내 그저 한 쉼 살 오십 살 거의 뉘 때까지 우시를 다니고 야~ 이랬는데 야~, 일백 쯔 네 번 다녔소.}

10201 # 우시르 가고 남녀간에 우시, 그담에 서바~ 데리구 가서 혼새, 거, 더 약혼시기는 걸르야~, 개: 사돈보기르 가구 야~, 이런 것 다 거저 행: 게 일백 쯔 네번 했드란 말이오.{우시를 가고 남녀 간에 우시, 그 다음에 서방 데리고 가서 혼사, 그, 저 약혼시키는 걸로야~, 그래 사돈보기를 가고 야~, 이런 것 다 그저 한 게 일백 쯔 네 번 했드란 말이오.}

10201 @ 그 사돈보기르 그러문은 그 당사자들이 아이하구 우시가 함둥?(그 사돈보기를 그러면은 그 당사자들이 안 하고 우시가 합니까?)

10201 # 아니, 그 집안간에서는 거, 험 험 사람이 한낙씨 가야 뉘단 말이오 귀게.{아니, 그 집안간에서는 그, 사리분별력 잇는 사람이 하나씩 가야 뉘단 말이오 귀게.}

10201 # 사돈보기가 우시 따:뉘구 어뎡소?(사돈보기랑 우시가 다르잖고 어뎡소?)

10201 @ 옹습구마. 따압구마.{옹습니다. 다릅니다.}

10201 # 그래, 우리 집안에 어느 서방재: 혼사르 약혼시기겿는데 그것도 한낙 데리구 가야 데디.{그래, 우리 집안에 어느 장가들 사람 혼사를 약혼시키겿는데 그것도 하나 데리고 가야 되지.}

10201 # 그러 때두 내, 내 나섯단 말이오 그거.{그럴 때도 내가, 내가 나섯단 말이오 그거.}

10201 @ 야:, 그럼 그 일으 다 보자문 그 바빠서 엇디게 삼두?(야, 그럼 그 일을 다 보려면 그 힘들어서 어떻게 삼니까?)

10201 # 그래 거저 두루 나갔단 말이오.{그래 그저 두루 나갔단 말이오.}

10201 # 기애 뭐 환갑으 기낸다대거나 제사르 기낸다거나 할 때:두 야~, 거 다 알케:주는 사람이 잇어야 대오 그게.{그래 뭐 환갑을 지낸다거나 제사를 지낸다거나 할 때도 야~, 그다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오 그게.}

10201 # 제새르 기널때두 야~, 아무개 큰 새애기 잔 올레라, 무슨 야~ 서양제벨 해애라, 무스거머 엇디게 인사를 엇디게 올레라 이거 다 시킨 사람이 잇단 말이오.{제사를 지낼 때도 야~, 아무개 큰 새덕 잔 올레라, 무슨 야~ 서양제배를 해라, 뭐 뭐 어떻게 인사를 어떻게 올레라 이거 다 시키는 사람이 잇단 말이오.}

10201 # 그것두 내 다하구. 허허허!{그것도 내가 다 하고. 허허허!}

10201 @ 야:, 집안일을 다 보셨습구마.{야, 집안일을 다 보셨습니다.}

10201 @ 아바니 아이게시문 어똥게 다 함둥?(할아버지 안 계시면 어떻게 다 합니까?)

10201 # 지금 다 없어졌는데 그래서, 어, 내, 환갑이 지날 때꺼지 이 제사나 환갑에는 그거 해엿소. 환갑이 홀 지난 담:부터는 또 그것도 전통적인게 다 없어디구 이 시내 식당~에서 대부분 또 한단 말이오 어전은. 그래 없어졌디.{지금 다 없어졌는데 그래서, 어, 내가, 환갑이 지날 때까지 이 제사나 환갑에는 그거 했소. 환갑이 홀쩍 지난 다음부터는 또 그것도 전통적인 게 다 없어지고 이 시내 식당에서 대부분 또 한단 말이오 이제는. 그래 없어졌지.}

10201 # 한때는 이 머 바빠 보내엿소.{한때는 이 뭐 바빠 보냈소.}

10201 # 개: 또 야~, 들게댕겐디 머.{그래 또 야~, 불러다냈지 뭐.}

10201 # 아무개르 너 야~ 데레오너라.{아무개를 너 야~ 데려오너라.}

10201 # 그 사름이 어똥게 똥 것 같대얏다 하구.{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지 않다 하고.}

10201 # 대접도 받았딴 개:다나니.{대접도 받았지 그러다 보니.}

10201 @ 기내: 바빠서 어:똥함두?(너무 힘들어서 어떡합니까?)

10201 # 에이, 일없습니. 개: 더 집안을래서 다 그거 야~ 아무개 아무개 하구서 떠 받드는 그게 또.{에이, 괜찮소. 그래 저 집안을 위해서 다 그거 야~ 아무개 아무개 하고서 떠받드는 그게 또.}

10201 @ 하긴 또 그래야 또 줍아~에서는 대접 받구 이제……{하긴 또 그래야 또 집안에서는 대접 받고 이제……}

10201 # 개: 거저 즈금두 거저 아무개 아즈바니요, 아무개 만아바니요 거저, 그래 가무~ 거저 다 거저……{그래 그저 지금도 그저 아무개 작은아버지요, 아무개 큰아버지요 그저, 그래 가면 그저 다 그저……}

10201 @ 대우가 좋겠습구마.{대우가 좋겠습니다.}

10201 # 냐~.{냐~.}

10201 @ 아바니, 무시젠가 올해, 올해 낸세가 어똥, 넉치 어찌게 돼십두?(할아버지, 뭔가 올해, 올해 연세가 어똥,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10201 # 니른 서이우.{일흔 셋이오.}

10201 @ 아, 벌써 니른 서이나 돼셨습두?(아, 벌써 일흔 셋이나 되셨습니까?)

10201 @ 야:, 아바니가 그문 띠가 무시기 띠라 그러셨습두?(야, 할아버지가 그러면 띠가 무슨 띠라 그러셨습니까?)

10201 # 돼:지.{돼지.}

10201 @ 아, 아바니 돼지띠심둥?(아, 할아버지 돼지띠십니까?)

10201 # 한번은 내, 이게 엘닐굽살[엘릴굽쌀] 땀데, 이 훈춘 이 하다몬이라는 데르 우리 종조부 계셨단 말이오 우리 할아버지 동새:.(한번은 내가, 이게 열 일곱 살 땀데, 이 훈춘 이 하다몬이라는 데를 우리 종조부 계셨단 말이오 우리 할아버지 동생.)

10201 # 그집으르 설샬라 왔는데 우리 할아버지 돌아간 답:에는 그냥반 웬: 어른이니까, 개: 설샬라 왔는데 미루 왔단 말이오. 한 땃:새 미루.{그 집으로 설 쇠러 왔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양반이 가장 어른이니까, 그래 설 쇠러 왔는데 미리 왔단 말이오. 한 땃새 미리.}

10201 # 그래 왔는데 그냥 온 이튿날에 동네 제사 잇는데 야~, 그 마을에서 거 제새르 지내는 데 거기 그게 쪼끔 그 조선사름들이 거 식으 제대로 하면서 사는 동네편에 맨 조선사름들 살고.{그래 왔는데 그냥 온 이튿날에 동네 제사 잇는데 야~, 그 마을에서 그 제사를 지내는 데 거기 그게 조금 그 조선 사람들이 그 식을 제대로 하면서 사는 동네편에 맨 조선 사람들 살고.}

10201 # 그 축우 쓰는 양반이, 아들집이 더 물람에 어드메 더 반석이나 거기 갓는 모양이야. {그 축을 쓰는 양반이, 아들집에 저 물 너머 어디 저 반석이나 거기 갓는 모양이야.}

10201 # 개: '축우 쓰디 못해서 제새 엇디 기내겠는가.'구서, '이거 누가 축을 쓸 사름이 없소?' 온사름들끼리 야~ 몰아서 소마~했단 말이오.{그래 '축을 쓰지 못해서 제사를 어찌 지내겠는가.' 하고, '이거 누가 축을 쓸 사름이 없소?' 온 사람들끼리 야~ 모여서 소망했단 말이오.}

10201 # '아니, 아무개 아바니 다 가다 나니 이동네 그거 아는 사름이 어디 잇습두? 없습구마.'{'아니, 아무개 할아버지 다 가다 보니 이 동네 그것 아는 사름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10201 # 갠:데 우리 종조부 그때 거기 가서 꺾이다:서, '우리 큰짓 손재 우리집 와 잇는데 그 사름으느 거 알ळे오.'{그런데 우리 종조부 그때 거기 가서 '우리 큰집 손자가 우리집 와 잇는데 그 사름은 그것 알 거요.'}

10201 # '아 그거 무슨 말썽임두? 그럼 그냥반을 모세와야 대갬다.'구서.{ '아 그게 무슨 말썽입니까? 그럼 그 양반을 모세와야 되갬다.' 하고서.}

10201 # 갠:데 내 새과란 아안데 야~, 엘닐굽살[엘릴굽쌀]인데 야~.{그런데 내가 새과란 애인데 야~, 열 일곱 살인데 야~.}

10201 # '더, 이 지 아바니 갠:데, 이지 큰짓 손재 왔다더구만, 누김두 누김두 어디갓습두?' 이 래드란 말이오 야~.{ '저, 이 집 할아버지 그러는데, 이 집 큰집 손자가 왔다던데, 누굽니까 누굽니까 어디 갓습니까?' 이러더란 말이오 야~.}

10201 # 갠:데 우리 동새~, 늑춘 동새~ 머이라 하는가 '이 우리 형님이우. 경신에서 왔소.'{그런데 우리 동생이, 육춘 동생이 뭐라 하는가 '이 우리 형님이오. 경신에서 왔소.'}

10201 # '학새~이구마는.' 허허허허허!{'학생이구먼.' 허허허허허!}

10201 # 엘닐굽살이무[엘릴굽쌀이무] 그게 개: 아:디 무.{열 일곱 살이면 그게 그래 애지 뭐.}

10201 # '제 축을 쓸 줄 아오?{'당신 축을 쓸 줄 아오?'}
 10201 # '누기 그랩던두?{'누가 그러던가요?'}
 10201 # '아, 이지 아바니, 큰짓 손재 이지 와서 계세서 안다드라.'구.{‘아, 이 집 할아버지가, 큰집 손자가 이 집 와서 계셔서 안다더라.’ 하고.}

10201 # 개: 나는 거저 모른것터르 고개 숙이때리구 '거, 이보오, 저 내 미안하디만 내 실레르 했는데 거 었디 쫘 수고르 해 주오.'{그래 나는 그저 모르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그, 이보, 저 내 미안하지만 내 실레를 했는데 그 어찌 쫘 수고를 해 주오.'}

10201 # 이 동네아바니 그거 왜출해:서 없어서 제새르 고하겠는데 축우 즈금 못 써 잇는데 그 렇다구.{이 동네 할아버지 그 분이 외출해서 없어서 제사를 고하겠는데 축을 지금 못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10201 # '아 내, 나이 어린게 었디 그 어른들 앞에 가서 그래 돼겟슴둥?{'아 내, 나이 어린 사람이 어찌 그 어른들 앞에 가서 그래 되겠습니까?'}
 10201 # '아니, 축우 써 주우. 그게 상관 잇소?{'아니, 축을 써 주오. 그게 상관 잇소?'}
 10201 # 그래 떡 같이[가티] 갓단 말이오.{그래 떡 같이 갓단 말이오.}

10201 # 그래 가니까 그저 야~, 죠애애다서 무슨 야~, 묵으 떡, 그때는 다 먹으 갈아서 글으 쓰 때란 말이오.{그래 가니까 그저 야~, 종이에다가 무슨 야~, 먹을 떡, 그때는 다 먹을 갈아서 글을 쓸 때란 말이오.}

10201 # 다 갖차서 떡 뒤편오오편. 여 사~아 한나 떡 놓구서.{다 갖춰서 떡 들여 옹디다. 여기 상을 하나 떡 놓고서.}

10201 # 기애 거, 그냥반이 무슨 새~인거 그거 었디 아오, 내 모른단 말이오.{그래 그, 그 양반이 무슨 생인가 그걸 어찌 아오, 내가 모른단 말이오.}

10201 # 기애 '이 제세 받는 분이 무슨 새~임두?{'그래 '이 제사 받는 분이 무슨 생입니까?'}
 10201 # '모루우, 모루우.' 다 이란단 말이오. 그짓 아들들두 모르두 그러드란 말이오 무슨 새~인거.{‘모르오, 모르오.’ 다 이런단 말이오. 그 집 아들들도 모른다고 그러더란 말이오 무슨 생인지.}

10201 # 개: '년세 얼땡:두?' 개: 그거 알디 년세사.{그래 '연세가 얼마입니까?' 그래 그것 알지 연세야.}

10201 # 그래 거 덮어가지구서 무슨 새~이갓다구서 떡 쓰구서, 기애 축우 떡 써서 이래서 떡 겹해서 되리구서 홀 일어나 내레 나왔단 말이오.{그래 그것 쥘어 가지고 무슨 생이갓다 하고서 떡 쓰고서, 그래 축을 떡 써서 이래서 떡 접어서 드리고서 쓱 일어나 내려 나왔단 말이오.}

10201 # '아니, 이거 고축우 해애 대디. 써놓구 가서 대우?{'아니, 이거 고축을 해야 되지. 써 놓고 가서 되오?'}
 10201 @ 으하하하하하!{으하하하하하!}

10201 # 그래 더 굿바~에 거 구백에 가서 이렇게 써우, 혼자서 이래 떡 잇는데 곁에 아반네 가 띄하압데.{그래 저 굿방에 그 구석에 가서 이렇게 쓰고, 혼자서 이래 떡 잇는데 곁에 할

아버지들 가득합니다.}

- 10201 # 개 무슨 내애기 하구 우리집 작은짓 할아바지 또 '더 사름이 여사무사 해아서 무슨 공부는 못했디마는 거저 모든 게 다 황: 한 사름이우.' 하면서 야~, 자라~아 막 하오.{그래 무슨 이야기 하고 우리집 작은집 할아버지가 또 '저 사람이 이래저래 해서 무슨 공부는 못했지마는 그저 모든 게 흰한 사람이오.' 하면서 야~, 자랑을 막 하오.}
- 10201 # 미안하디만 거저 골우 숙이때리구, '개: 제삿사~아 채레서 언느 체르 고하겠습구마.' 하메 다 바깥으루 나갈때 나두 따라 나갔딴.{미안하지만 그저 머리를 숙이고, '그래 제삿상을 차려서 곧 제를 고하겠습니다.' 하며 다 바깥으로 나갈 때 나도 따라 나갔지.}
- 10201 # 개: 더 순서가 다 잇는데, 고축한다더구만.{그래 저 순서가 다 잇는데, 고축한다더구먼.}
- 10201 # 개: '아무개, 좀 고축 해 주오.' 하면서.{그래 '아무개, 좀 고축 해 주오.' 하면서.}
- 10201 # 개: 떡 거 강낭에 가 톱 올라가 덩개르 타구, 그저 남우 제새디만 축우 넣엇단 말이오 야~.{그래 떡 그 강낭에 가 톱 올라가 무릎을 꿇고, 그저 남의 제사지만 축을 읽엇단 말이오 야~.}
- 10201 # 그래 척 내려오니 거저 '야, 젊은 사람이 그게 양반짓 자손이 따다. 지금 아덜이 어디 더런 애 잇소.' 허허! 늙은들이 그래더란 말이오.{그래 척 내려오니 그저 '야, 젊은 사람이 그게 양반 집 자손이 다르다. 지금 애들이 어디 저런 애 잇소.' 허허! 늙은이들이 그래더란 말이오.}
- 10201 # 그래구서 난 집으루 쪽 왔딴. 그거 갖차서 먹겠소?{그러고서 난 집으로 쪽 왔지. 그것 갖춰서 먹겠소?}
- 10201 # 그래 그 집에서 여, 닭다리[닭파리]에다서 야~, 떡에다가서, 무스거 잘: 갖차서 떡 내레 왔더라니.{그래 그 집에서 이, 닭다리에다가 야~, 떡에다가, 뭐 잘 갖춰서 떡 내려 왔더라니까.}
- 10201 # 그래 우리 동새~ 머이라니 '야 이게 형님떡에 이 내싸 이 잘 먹는다.'구서.{그래 우리 동생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 '야 이게 형님 덕에 이 내가 이 잘 먹는다.' 하고서.}
- 10201 @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 10201 # 저, 그동네르 가무~야~, 가즈꺼지두, 왜우드란 말이오.{저, 그 동네를 가면 야~, 요즘까지도, 얘기하더란 말이오.}
- 10201 # '아아때, 이거, 이양반이, 그, 아무개네 집에 가 축우 니르던 사름이라.'구 하문서.{'아 이때, 이거, 이 양반이, 그, 아무개네 집에 가 축을 읽던 사름이라.'고 하면서.}
- 10201 # 우릿등렬도 잇엇단 말이오 그때 그개.{우리 또래도 잇엇단 말이오 그때 거기에.}
- 10201 # 흐흠! 그래 그 벨르 다 거저 저불거레 대겠소? 아무것도 아는게 없이. 흐흠!{흐흠! 그래 그 별걸 다 그저 떠들어서 되겠소? 아무것도 아는 게 없이. 흐흠!}
- 10201 @ 아바니 공비 하셨으문 참, 크게 돼셨을 겐데……{할아버지께서 공부를 하셨으면 참, 크게 되셨을 텐데……}

1.2.2. 결혼하기까지의 과정

10202 @ 그 무시젠두, 그, 아매 있대님둥? 아바니. 그 댁에 계신 아매. 아매는 고양이 어디뎀 두?{그 뭔가, 그, 할머니 있잖습니까? 할아버지. 그 댁에 계신 할머니. 할머니는 고양이 어디입니까?}

10202 # 헤:대라는데, 노전.{헤:대라는 데, 노전.}

10202 @ 헤:래요?{헤:래요?}

10202 @ 아 헤:래 아까 거기 말임둥?{아 헤:래 아까 거기 말입니까?}

10202 # 헤:대. 응. 게: 노전, 노전 하댕:구 어땡소.{헤:대. 응. 그게 노전, 노전 하잖고 어땡소.}

10202 @ 그문 그 아매 또 넘어오신 데가 있대님두? 그 원래 선조들이. 그것들도 경웅이십두? {그러면 그 할머니께서 또 넘어오신 데가 있잖습니까? 그 원래 선조들이. 그것도 경흥 이십니까?}

10202 # 다, 다 겨~흥. 겨~응군 사름들이오.{다, 다 경흥. 경흥군 사름들이오.}

10202 @ 그문 아매 그, 그 쪽 댁에서는 어드메 사시다 오셨는지 그건 모르십두?{그러면 할머니, 그, 그쪽 댁에서는 어디 사시다 오셨는지 그건 모르십니까?}

10202 # 그집으는 삼봉동.{그 집은 삼봉동.}

10202 @ 아매, 그 태어나신 거는 여기 회룡봉에서.....{할머니, 그 태어나신 것은 여기 회룡봉에서.....}

10202 # 여기요, 여기요 여기. 그럼.{여기요, 여기요 여기. 그럼.}

10202 @ 헤:대에서 태어나셨구요.{헤:대에서 태어나셨구요.}

10203 @ 어땡게 만나셨습두 아매?{어떻게 만나셨습니까 할머니?}

10203 # 그 머 한동네가 한가진데 야~.{그 뭐 한 동네나 마찬가지로 야~.}

10203 # 한개촌인데, 핵교두 다 같이[가티] 땡기구.{한 개 촌인데, 학교도 다 같이 다니고.}

10203 @ 아주 어렸을 때부터 봤습두?{아주 어렸을 때부터 봤습니까?}

10203 # 보댕:구 괴래.{보잖고 괴래.}

10203 @ 음, 곱아서 이렇게 데려왔습두?{음, 고와서(예뻐서) 이렇게 데려왔습니까?}

10203 # 아~, 젊었을 때 그리 밍둔 앵갓수.{아~, 젊었을 때 그리 밍진 앵갓소.}

10203 @ 지금도 곱으시든데.....{지금도 고우시던데.....}

10203 # 예하하하하하!{예하하하하하!}

10203 @ 밍둔 안한 정도가 아니라. 하하하하하하!{밍지는 앵은 정도가 아니라. 하하하하하하!}

10203 @ 그문 넌세가.....?{그러면 연세가.....?}

10203 # 동갑이우.{동갑이오.}

10203 @ 아 동갑이십두? 아 그렇습두? 어어.{아 동갑이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10203 # 우리 클아반네 우리 말아반네 대단 낭반집 자석이라구서 혼새르 터~운 헛는데 술한 디게 딸을 주겠다는 것두 다 '뿌요 뿌요.' 하구, 그때는 거, 거저 이상뿐들이 거저 정해 에 준 거 가야 댕단 말이오.{우리 할아버지네 우리 큰아버지네 대단한 양반 집 자식이라고서 혼사를 청을 했는데 술한 데에서 딸을 주겠다는 것도 다 '필요 없소 필요 없소.' 하고, 그때는 그, 그저 손윗분들이 그저 정해 준 데로 가야 댕단 말이오.}

10203 # 갠:데 머 또 호상간에 알다나니 거저 무슨……{그런데 뭐 또 서로간에 알다 보니 그저 무슨……}

10203 # 난 좀 스쫓:하압데 그른. 그쪽에서 주겠다구 왔다갔다 하디 더구나.{난 좀 우쭐합니다 그런. 그쪽에서 주겠다고 왔다 갔다 하지 더구나.}

10203 @ 대부분 이제 중매로 결혼하재임두? 거간쟁이 와서……{대부분 이제 중매로 결혼하잖 습니까? 중매쟁이가 와서……}

10203 # 응, 거간, 거간 있댕:구.{응, 중매쟁이, 중매쟁이 있잖고.}

10203 # 노전에 그 헤:대에 게 우리 왜사춘 매부 잇엇단 말이오.{노전에 그 헤:대에 거기 우리 외사춘 매부 잇엇단 말이오.}

10203 # 왜사춘 누이.{외사춘 누이.}

10203 # 그냥반들이……{그 양반들이……}

10203 @ 아아, 그냥반들이 내애기르 해서르……{아아, 그 양반들이 이야기를 해서……}

10203 # 나~, 그집에서 만져 쳐~어 들엇단 말이오.{나~, 그 집에서 먼저 청을 했단 말이오.}

10203 # 녀자집에서. 거 벌뜨~에 거 아무개네 손재 어전 나이 찻는데, 어디 거 좀 잇게 해 보 오.{여자집에서. 그 벌등에 그 아무개네 손자가 이젠 나이 찻는데, 어디 그 좀 중매해 보 오.}

10203 # 우리 거 사춘누이하구, 개:서 그 느이가 그 매부 지낙에 왓드란 말이오.{우리 그 사춘 누이하고, 그래서 그 누이랑 매부가 저녁에 왔더란 말이오.}

10203 # 그래 우리 아바니, 그, 우리 삼춘네 어마닐루 느이네들가 말해:서, 그래 다 '좋다:.' 하 더구만.{그래 우리 할아버지, 그, 우리 삼춘네 어머니로 누이네들과 말해서, 그래 다 '좋 다.' 하더구먼.}

10203 # '개: 너는 어떻냐?{'그래 너는 어떻냐?'

10203 # '무슨 내 좋닥해 대구 내 못쓴닥해 안대겟습두?{'무슨 내가 좋다고 해 되고 내가 못 쓴다고 해 안 되겠습니까?'

10203 @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10203 # 아즈바니 그때 우리 삼춘 주관할 땐데, '삼춘이 거저 곁져~하압소.' 하니 거저, '그럼 네 슸대닌 모야~이구나.'{작은아버지 그때 우리 삼춘이 주관할 땐데, '삼춘이 그저 곁정 하십시오.' 하니 그저, '그럼 네가 싫지 않은 모양이구나.'}

10203 @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10203 @ 아, 아매가 먼저 아바니를 마음에 두고 이렇게……{할, 할머니가 먼저 할아버지를 마 음에 두고 이렇게……}

10203 # 그지 아바니 잇엇단 말이오. 아바니, 아매, 어마니.{그 집 할아버지가 잇엇단 말이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10203 # 그집도 아바지 일찍 상새났디 머.{그 집도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지 뭐.}

10203 # 예, 그쪽에서 만져 열락이 왓데.{예,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데.}

10203 @ 아바니를 맘에 들어해서 그쪽에서 먼저 열락한겜두?(할아버지를 맘에 들어해서 그쪽 에서 먼저 연락한 겁니까?)

10203 # 그럼.{그럼.}

10203 @ 으하하하하하!{으하하하하하하!}

10203 # 젤, 총며~했디 무슨 농촌에서 있어서는 그랬디 그때사 이 도롱비 벌뜨~에서사 왜: 하노라 했디.{제일, 총명했지 무슨 농촌에서 있어서는 그랬지 그때야 이 도롱비 벌등에서야 가장 내로라 했지.}

10203 @ 새애기들이 다 울었겠습구마.{처녀들이 다 울었겠습니다.}

10203 # 히히히! 많애했소.{히히히! 많았소.}

10203 @ 하하하하하하! 으음, 그문 무시젠가 그문 그 혼새르 하자구 해놓구서르 뭐 그문 혼새 전에는 만나신 적이, 그니까 뭐 동미하느라 한 거 내 놓고 '그럼 우리 혼새르 맺자.' 하고 그 어간에는 그……{하하하하하하! 으음, 그러면 뭔가 그러면 그 혼사를 하자고 해놓고서 뭐 그러면 혼사 전에는 만나신 적이, 그러니까 뭐 동무하느라고 한 것 빼고 '그럼 우리 혼사를 맺자.' 하고 그 사이에는 그……}

10203 # 그 절차 많디.{그 절차 많지.}

10203 # 그담:에 우리 그렇게 약속이 딱 내불러 댄 다음에, 우리 집안 안에서 왜: 어른이 간단 말이오 아침에 일찍아:니.{그 다음에 우리 그렇게 약속이 딱 된 다음에, 우리 집안 안에서 가장 어른이 간단 말이오 아침에 일찍이.}

10203 # 우리 만아바니 한분이 계셧는데, 그래 가서 그지 우리 처 할아버지가 인사르 하구.{우리 큰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래 가서 그 집 우리 처 할아버지께 인사를 하고.}

10203 # 그래서 이래 구혼으 하는데, 이미 댄 것가 한가진 것두 '승낙으 해 주십시오.'하구 정식을르서 야, 그러문야 '사돈우 맺집셔:.' 하구 호상간에 맞절으 처~하문 이차 절차 끝나디 며.{그래서 이래 구혼을 하는데, 이미 된 것과 마찬가지로인 것도 '승낙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정식으로 야, 그러면 야 '사돈을 맺읍시다.' 하고 서로간에 맞절을 청하면 이제 절차 끝나지 뭐.}

10203 # 그다음에는 사돈보기라구 잇다구.{그 다음에는 사돈보기라고 있다고.}

10203 # 그때에는 우리 어마니, 삼춘이, 삼춘댁에, 느비네두 끼우구, 또 집안안에 가까운 거, 더 어른두 끼우구 이래 नी아들이 서방재: 같이[가티] 음식 채리구 물 네물두 가지구 그래 가서, 호상간에 사돈들이 인사르 하구, 그담에 한번 식사르 같이[가티] 하구 우리 가지구간 것두 잇구 그집에서두 갖추구, 개: 그 동네에서두 또 모운단 말이오 그래무.{그때에는 우리 어머니, 삼춘, 삼춘댁, 누이네도 끼우고, 또 집안 안의 가까운 사람, 저 어른도 끼우고 이래 일여덟 명이 신랑이랑 같이 음식 차리고 뭐 예물도 가지고 그래 가서, 서로간에 사돈들이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식사를 같이 하고 우리가 가지고 간 것도 있고 그 집에서도 갖추고, 그래 그 동네에서도 또 모인단 말이오 그러면.}

10203 # 개: 팔간집이 딱 차담 그래.{그래 팔간집이 딱 차지 그래.}

10203 # 그담:에, 손님네 쪽: 헤테데 간 다음에 그거 더 택일한 거 바친단 말이오. 글으 탁 쓴 거야 이래.{그 다음에, 손님네 다 흠어져 간 다음에 그것 저 택일한 것 바친단 말이오. 글을 탁 쓴 거 야 이래.}

10203 # 이게 아모날르서 택일 해엿는데 타당한가구.{이게 아무날로 택일했는데 타당한가 하고.}

10203 # 개: 텍 보구서 '아, 그렇게 합시다.' 하문 그날로 정하아서……{그래 텍 보고서 '아, 그

렇게 합시다.’ 하면 그 날로 정해서……}

10203 # 그래 혼새르 기내:담.{그래 혼사를 지내지.}

10203 @ 그문 그 사이에는 아매가 한번도 만나신 적이 없……{그러면 그 사이에는 할머니랑 한 번도 만나신 적이 없……}

10203 # 엇대 안 만나겄소 가참운 동넹게.{왜 안 만나겄소 가까운 동넹데.}

10203 @ 으음, 그문 뭐 예를 들어 내애놓구 딸르 만나서르 무슨 니얘기르 하신다든가 이런 건 없었습두?{으음,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내놓고 따로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신다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까?}

10203 # 어어, 거 저 머야, 웬: 처암을루 개별쩍을루 만나기는 야~, 그 등길 하느라구서, 그 정부에 가서 혼인등기르 하는게 잇단 말이오.{어어, 그 저 뭐야, 맨 처음으로 개별적으로 만나기는 야~, 그 등기를 하느라고서, 그 정부에 가서 혼인 등기를 하는 게 잇단 말이오.}

10203 # 개 등기르 하느라구서, 가스집에 가서 새얘기르 데리구 개 이도포 그때 그거 관리르 하는 부분 민저~에서 하는데 이도포꺼지 걸어서, 그래 가서 등기르 하구, 그때 식당두 없단 말이오 그게 거기 이도포에 야~, 개:구서 싸먹을 것두 없구, 개: 대비 가서 떡 와서, 노전 대비 왔단 말이오야~, 기애니까 갔다 왔다 하니까 벌써 점심때 개앳드라구.{그래 등기를 하느라고서, 처갓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그래 이도포 그때 그것 관리를 하는 부분 민정에서 하는데 이도포까지 걸어서, 그래 가서 등기를 하고, 그때 식당도 없단 말이오 그게 거기 이도포에 야~, 그러고서 사 먹을 것도 없고, 그래 도로 가서 떡 와서, 노전 도로 왔단 말이오 야~, 그러니까 갔다 왔다 하니까 벌써 점심때 됐더라고.}

10203 # 개: 올쭈 알구 정심 해 낫:습데.{그래 올 쭈 알고 정심 해 났습디다.}

10203 # 그래 정심 먹구, ‘온저녁에 여기서 나는 자고 가겠습구마 늦어서.’ 늦두댕앳단 말이오 야~.{그래 점심 먹고, ‘오늘 저녁에 여기서 나는 자고 가겠습니다 늦어서.’ 늦지도 앳앳단 말이오 야~.}

10203 # 그 그 할아버지 그 노인이 그게 무서운 노인이, 눈 크다:산 노친네.{그 그 할아버지 그 노인이 그게 무서운 노인이, 눈 커다란 노인.}

10203 # ‘야, 혼새르 기내기 전에 새얘기집에서 자고간 놈이 어디잇다더냐? 날래 가가라!’{‘야, 혼사를 지내기 전에 신부집에서 자고 가는 놈이 어디 있다더냐? 냉큼 가거라!’}

10203 #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10203 # 그, 그래서 ‘다시는 아니 오겠습구마 그래문.’{그, 그래서 ‘다시는 안 오겠습니다 그러면.’}

10203 # 그래문 질질질 ‘네 소온대로 해애라!’{그러면 질질질 ‘네 소원대로 해라!’}

10203 # 안단 말이오야~ 다.{안단 말이오 야~ 다.}

10203 # ‘그눔우새기 그게 개:소리틴다.’ 하면서.{‘그 놈의 새끼 그게 개소리 친다.’ 하면서.}

10203 # 그 아반도 그랫소 내 장난 잘췌소 이전에는 혼새 지내기 전에느.{그 할아버지도 그랫소 내가 장난 잘 췌소 이전에는 혼사 지내기 전에느.}

10203 # ‘그눔우새기 그게 개:소리 틴다.’구 그거 ‘날래 가가라.’{‘그 놈의 새끼 그게 개소리 친다.’고 그거 ‘냉큼 가거라.’}

10203 @ 음, 그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야 무슨 만내서 뭐 더 맛있는 것두 싸 먹고 더 만나서 무시게르 유구 하는데 옛날에는……{음, 그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야 뭐 만나서 뭐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뭐 만나서 뭐를 주고 하는데 옛날에는……}

10203 # 없었소. 야~, 상점이 잇긴 잇었는데 회룡봉 부락안에 잇었는데 그것도 새애기 데리구 오겠소? 이도포에선 상점이 쪼끔 잇는데 그까짓 과제나 싸서 어디에서 먹겠소?(없었소. 야~, 상점이 잇긴 있었었는데 회룡봉 부락 안에 있었었는데 그것도 신부(아가씨) 데리고 오겠소? 이도포에선 상점이 조금 잇는데 그까짓 과자나 사서 어디서 먹겠소?)

10203 @ 그문 더 딸르 어디메, 더 두만강가에서 만내서 더 니애기두 안 했습두?(그러면 뭐 따로 어디, 뭐 두만강가에서 만나서 뭐 이야기도 안 했습니까?)

10203 # 어, 그게 없었소.{어, 그게 없었소.}

10203 # 더 무슨거 혹시 야~, 더 한번 더 운동대왜 잇었는데, 게: 사람들 무렵에 떡 잇습데.{저 뭐 혹시 야~, 저 한번 저 운동 대회가 있었었는데, 거기 사람들 무리에 떡 잇습디다.}

10203 # 덜문 었디 열레서 내애 와서 쯔 말으 쯔 해애대겠는데 기왜 없더란 말이오.{어떻게 꼬셔서 빼내어 와서 쯔 말을 쯔 해야 되겠는데 기회가 없더란 말이오.}

10203 # 그애 거 우리 사춘누이랑 같이[가티] 왔는데 누이가 말했디.{그래 그 우리 사춘 누이랑 같이 왔는데 누이한테 말했지.}

10203 # '내 쯔 무슨 심바람으 시킬 게 잇는데 떠 아무개르 더 쯔 내애 보내오.'{'내가 쯔 무슨 심부름을 시킬 게 잇는데 저 아무개를 저 쯔 내 보내오.'}

10203 # '또 핵교 두우루 오라구 하구.'{'또 학교 뒤로 오라고 하고.'}

10203 # '야! 가 안간다!' 하하하하하하!{'야! 개 안 간다!' 하하하하하하!}

10203 # 개 정말 아니오드라구.{그래 정말 안 오더라고.}

10203 # 그렇소. 다 다 수죽야구 야~, 남이 보깨:바 부끄럽아서 지끔으느 무슨 어이구……{그렇소. 다 다 수줍어하고 야~, 남이 볼까봐 부끄러워서 지금은 무슨 어이구……}

10203 # 즈끔 야~ 길에서 이 시내 보네느 야~ 자전거나 타구 기나가구 보네느, 니매애 피 빠알간 놈들이 각 끌어안꾸 입우 타악 맞추구 입 떡 더구이두이 대기 야아 거 내가 같이 땡기는 사렘이 '아바니 이보 형님에, 더거 내려서 더거 데게 구두 타: 하자얏소. 데게 어디메 사렘이우?' 하하하!{지금 야~ 길에서 이 시내 보면은 야~ 자전거나 타고 지나가고 보면은, 이마에 피 빠알간 놈들이 콕 끌어안고 입을 탁 맞추고 입 떡 ***** 되게 야아 그 나랑 같이 다니는 사람이 '할아버지, 이보 형님, 저거 내려서 저거 저게 구두 타 하지 얏소. 저게 어디 사람이오?' 하하하!}

10203 # 정말, 벨란 세새~이우.{정말, 별난 세상이오.}

10203 @ 요즘엔 또 그래 아이 ** 그렇게까진 안하드라두 어쨌든간에……{요즘엔 또 그래 안 ** 그렇게까진 안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10203 # 아니 드문드문 잇소 여기. 그런 것들이 잇소.{아니 드문드문 잇소 여기. 그런 것들이 잇소.}

10203 @ 더 저이두 솔찍이 말씀드리면, 그 내애놓고는 못한단 말입꾸마 아즉은.{뭐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내애놓고는 못한단 말입니다 아즉은.}

10203 # 그 월래 그래애 대디.{그 우너래 그래야 되지.}

10203 # 그 엄매 물란하오 기게.{그 얼마나 문란하오 그게.}

10203 # 아:들이나 기나가면서 학생들이나 거저 막 보는데, 아, 정말 미개한 놈들이오.{애들이나 지나가면서 학생들이나 그저 막 보는데, 아, 정말 미개한 놈들이오.}

10203 @ 그문, 저, 사돈보기 해가지구서르 택일으 하는데, 무스거 주는 거는 없슴두? 서루 머 주고받는 거는 없슴두?{그러면, 저, 사돈보기 해 가지고서 택일을 하는데, 뭐 주는 것은 없습니까? 서로 주고받는 것은 없습니까?}

10203 # 어, 사돈보기에 가서 주는 게 잇디.{어, 사돈보기에 가서 주는 게 있지.}

10203 @ 무시게 줍두?{무엇을 줍니까?}

10203 # 그때 우리나라느 무슨 지끔터르 반지나 그런게 없덴구 어떻소.{그때 우리네랑은 무슨 지금처럼 반지나 그런 게 없잖고 어떻소.}

10203 # 뭐이 거저 수건이랑, 화장품이랑 거저 구레모같은 게랑 분이랑, 그거 즈끔터르 이게 뽕장한 게겏소? 거저 한나씨 한나씨 떡 떡 널긴 거 좇어서, 보에다 떡 싸서 그래 거저 홀 주딴 거저.{뭐 그저 수건이랑, 화장품이랑 그저 크림 같은 것이랑 분이랑, 그것 지금처럼 이게 포장한 거겏소? 그저 하나씩 하나씩 떡 떡 널린 것 주워서, 보에다 떡 싸서 그래 그저 쓱 주지 그저.}

10203 @ 어, 그러문 이제 택일때 그걸 같이[가치] 준단 말임두?{어, 그러면 이제 택일 때 그걸 같이 준단 말입니까?}

10203 # 야?{야?}

10203 @ 택일으 하는 날에……{택일을 하는 날에……}

10203 # 아니, 야, 사돈보기에 가서 이상뿐들이 만져 다: 인사르 한단 말이오 야~.{아니, 야, 사돈보기에 가서 손윗분들이 먼저 다 인사를 한단 말이오 야~.}

10203 # 그다음에 '서방 새애기 무슨 네물이나 잇겏:는두~, 준빌 한게 잇소?' 하문 개: 같이[가티]간 분이 우리 느위네 '예, 많디 못하디만 좀 준빌한게 잇습구마.' 하문 '그럼 두울우 낫아 세우우.'{그 다음에 '신랑 신부 무슨 예물이나 있겠는지, 준비를 한 게 잇소?' 하면 그래 같이 간 분이 우리 누이네 '예, 많지 못하지만 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하면 '그럼 둘을 내 세우오.'}

10203 # 개: 두울이 한내 알빠~에 서구, 한내 이쪽에서 이쪽 바~안에 서구 이 문턱우 사이에 두구서, 개: 경례르 탁 하구서. 허허허!{그래 둘이 하나는 앞방에 서고, 하나는 이쪽에서 이쪽 방안에 서고 이 문턱을 사이에 두고서, 그래 경례를 탁 하고서. 허허허!}

10203 # 머 아무말두 없디 무. 묵째라 쓱 스티구. 허허허! 그랫:소 전에는.{뭐 아무말도 없지 뭐. 묵묵히 쓱 스치고. 허허허! 그랫소 전에는.}

10203 @ 새애기는 안쥬구요 실랑한테?{신부는 안 주고요 신랑한테?}

10203 # 예, 새애기도 주옵데.{예, 신부도 줍디다.}

10203 @ 무스거 주셨슴두?{뭘 주셨습니까?}

10203 # 그때엔 아~, 라이타라는 게 야~ 지끔터르 그리 곱운게 없엇소.{그때엔 아~, 라이터라는 게 야~ 지금처럼 그리 고운(예쁜) 게 없엇소.}

10203 # 벨랑기 맨든 겐데 야~ 거즐기 맨든 겐데 그것두 귀아디 무슨.{별나게 만든 건데 야~ 조잡하게 만든 것인데 그것도 귀하지 무슨.}

10203 # 게 거 어디서 얻어 샀는두~, 그런거 한나 주구 그담에 손쭈건 한나 주구, 그래더란 말이오.{그게 그 어디서 얻어 샀는지, 그런 것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손쭈건 하나 주고, 그러더란 말이오.}

10203 @ 그때두 이케 담배를 피우셨습두?{그때도 이렇게 담배를 피우셨습니까?}

10203 # 난 그때 안 피웠소.{난 그때 안 피웠소.}

10203 @ 근테 어, 라이타를 왜 쫘스……{그런데 어, 라이터를 왜 쫘스……}

10203 # 그애 머 엇디게애 쫘:는지, 게 아무래 그런게 잇엇갓디무.{그래 뭐 어떻게 해 쫘는지, 그게 아무래도 그런 게 잇엇겔지 뭐.}

10203 # 준비르해엿는디 어뻐던디……{준비를 했는지 어뻐던지……}

10203 # 서바~ 간 다음에 우리 삼촌댁이 담배르 피우는 공구르 갖차 주더란 말이오.{장가 간 다음에 우리 삼촌댁이 담배를 피우는 공구를 갖춰 주더란 말이오.}

10203 @ 아아, 그럼 서바 가구 나서 담배를 태우셨습두?{아아, 그럼 장가 가고 나서 담배를 태우셨습니까?}

10203 # 냐~.{냐~.}

10203 @ 아 그렇습두?{아 그렇습니까?}

10203 @ 그문 혼새를 한 다음에 이제 혼새를 하는 날 그날 바로 인제 둘이 인제 처음으로 만나서……{그러면 혼사를 한 다음에 이제 혼사를 하는 날 그날 바로 이제 둘이 이제 처음으로 만나서……}

10203 # 그 절차, 혼새르 기내는 절차야~, 여기는 엇디게 하는가 하니까야~, 그날에, 그, 실랑재: 그 새애기집우 들어가는 시간이 그게 잇다니 그게 날 택일하는 그안에 그게.{그 절차, 혼사를 지내는 절차 야~, 여기는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야~, 그날에, 그, 신랑 그 신부 집을 들어가는 시간이 그게 잇지 그게 날 택일하는 그 안에 그게.}

10203 @ 오오, 뻬시에 가는가……{오오, 뻬 시에 가는가……}

10203 # 고시간에 딱 가서, 그, 걸이라는 게 잇소.{그 시간에 딱 가서, 그, 걸이라는 게 잇소.}

10203 # 쫘꿈 기다리는 게 그 안에서 머 무스거 야~, 거, 걸일 하는데, 그거 그집에서 새애기 집에서 그 무스 방석이랑 내애다 놓소 덤재랑 내애다 놓구 그 자리르 맨들어 논단 말이오.{조금 기다리는 게 그 안에서 뭐 뭐 야~, 거, 걸이를 하는데, 그거 그 집에서 신부 집에서 그 무슨 방석이랑 내애다 놓소 돛자리랑 내애다 놓고 그 자리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오.}

10203 # 개: 거기서 쫘꿈 디테르 하딤, 그, 그 디테르 하는 시간이는 그 준비덤 안에서.{그래 거기서 조금 지체를 하지, 그, 그 지체를 하는 시간은 그 준비지 안에서.}

10203 # 거 대장함이랑 받을 준비르 한단 말이오.{그 대장함이랑 받을 준비를 한단 말이오.}

10203 # 개: 누기 나서서 무스 치매르 무스 엇뎡게 받아가지구 나오는게 잇는데야~.{그래 누가 나서서 무슨 치마를 무슨 어떻게 받아 가지고 나오는 게 잇는데 야~.}

10203 # 개 대장함 준비꺼지 이제: 서방재:쪽에서느 거기꺼지 딱 준비르 해놓구 그 서리문 밖에서 마다~ 안 들어가구 개: 준비르 어전 준비대엿다 하문 대장우시라는 게 딸르 잇는데 대장함을 들이는 우시꾼이.{그래 대장함 준비까지 이쪽 신랑 쪽에서는 거기까지 딱 준비를 해 놓고 그 사립문 밖에서 마당 안 들어가고 그래 준비를 이젠 준비됐다 하면

대장우시라는 게 따로 있는데 대장함을 들이는 우시꾼.}

10203 # 슈우시란 거는 그거는 용도 우시꾼이구, 대장함 우시꾼이 그 대장함우 뒤편에 보내는데, 그 대장함 들여보내는데두 그 네뺨이 또 잇소.{수우시란 것은 그것은 용도 우시꾼이고, 대장함 우시꾼이 그 대장함을 들여 보내는데, 그 대장함 들여 보내는 데도 그 예법이 또 잇소.}

10203 # 그 새애기 첫날 치매르, 그 대장함우 받는 사람이 그 언니던디야~ 삼촌댁이던디 가까운 사람이 그거 이래 쪼끼르 떡 끼구 그 치매르 이래 앞에다 손우 이래개다 받티구 손우 아니 배우구 그 치매르 이래 앞에다 떡 문, 문우 향해에서, 이게 안에 이 문이 아니오? 그 문턱 안에서 이래 떡 이래 선단 말이오.{그 신부 첫날 치마를, 그 대장함을 받는 사람이 그 언니든지 야~ 삼촌댁이든지 가까운 사람이 그것 이래 쪼끼를 떡 끼고 그 치마를 이렇게 앞에다 손을 이렇게 갖다 받치고 손은 안 보이고 그 치마를 이렇게 앞에다 떡 문, 문을 향해서, 이게 안에 이 문이 아니오? 그 문턱 안에서 이래 떡 이래 선단 말이오.}

10203 # 개:문 대장함 우시꾼이 야~, 그거 가제다:서 어, 그 강냐~에다 또 자리르 딱 해애 놓디.{그러면 대장함 우시꾼이 야~, 그것 가져다가 어, 그 강냥에다 또 자리를 딱 해 놓지.}

10203 # 그 강냐~에 가서 이래 떡 놓, 놓는단 말이오.{그 강냥에 가서 이래 떡 놓, 놓는단 말이오.}

10203 # 그래 놓고서 이래 인사르 이룩기 하오. 이룩기 하오.{그래 놓고서 이래 인사를 이렇게 하오. 이렇게 하오.}

10203 # 그다음에 또 서쪽에다 대구서 또 한번 탁, 탁 이룩기 하고.{그 다음에 또 서쪽에다 대구서 또 한 번 탁, 탁 이렇게 하고.}

10203 # 그다음에 새애기 짹에 그 시중꾼이 그거 대장함우 강냐~에서 들어서, 거, 안깐이 한내 업고 삼촌댁이나: 언니가 거 준비르 하구 잇대니우 치매를 이래구 붙어잇는거, 그 우에다서 딱 올레논단 말이오.{그 다음에 신부 쪽에 그 시중꾼이 그거 대장함을 강냥에서 들어서, 그, 아낙네 하나 업고 삼촌댁이나 언니가 그 준비를 하고 있잖소 치마를 이렇게 하고 붙어 있는 것, 그 위에다가 딱 올려 놓는단 말이오.}

10203 # 그거 이래 가지구서 들으가서 새애기 앞에다서 그거 딱: 놓는다니.{그것 이래 가지고서 들어가서 신부 앞에다가 그것 딱 놓지.}

10203 @ 그문 그거 하고나문 치매 도로 넘겠습구마.{그러면 그것 하고 나면 치마 도로 입겠습니다.}

10203 # 어어, 그, 그 치매 또 새애기 인차 주딤 그거는.{응, 그, 그 치마는 또 신부 곧장 주지 그것은.}

10203 # 그 첫날에 넘는 옷이구 그계돼구하니까 또.{그 첫날에 입는 옷이고 그계 되고 하니까 또.}

10203 # 그래 그거 다시 넘구 그 대장함에 마주 앉아서 뚜꺼~ 연다구.{그래 그것 다시 입고 그 대장함에 마주 앉아서 뚜껑을 연다고.}

10203 # 개 안에다서 무스거 무스거 년: 거 개 한나씩 한나씩 내에서 겔에 사람이 개:딤. 새애

기는 거저 딱: 앉아 보구, 기애 기애 거, 더 거 받아간 사람이 뚜꺼~어 열구서 이건 무시게구 이건 무시게구 이래 딱: 그, 구경꾼 까뜩아디 무.{그래 안에다가 뭐 뭐 넣은 것 그래 하나씩 하나씩 내어서 결의 사람이 그러지. 신부는 그저 딱 앉아 보고, 그래 그래 그, 저, 그 받아간 사람이 뚜경을 열고서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래 딱 그, 구경꾼 가득 하지 뭐.}

10203 @ 그 뭘 주구 무시거 영습두?{그 뭘 주고 뭘 넣습니까?}

10203 # 야~, 그거 야~ 그때는 탄재, 그땀에 우에다 이래 넘는 '게포'라구 잇었소.{야~, 그거 야~ 그때는 탄자, 그 다음에 위에다 이렇게 입는 '게포'라고 잇었소.}

10203 # 서매, 서매 없는게, 겿푸를 게포라구 그러겐:, 게 일본말인두 모루겿소. 게포라구서.{소매, 소매 없는 게, 겿푸를 게포라고 그러겿는지, 그게 일본말인지 모르겿소. 게포라고서.}

10203 # 사매없이 이래 거저 탁 쓰래르 맨든 게, 그거, 탄재, 그땀에 무슨 옷견지 더르.{소매 없이 이렇게 그저 탁 쓰도록 만든 게, 그거, 탄자, 그 다음에 무슨 옷감 더러.}

10203 # 그 탄재가 게포르 녀:문 그건 다 잘한, 잘한 게디 머.{그 탄자랑 게포를 넣으면 그건 잘한, 잘한 거지 뭐.}

10203 # 그건, 게포꺼지 바빠하오 다. 그건 니즐르서 하는데야~.{그건, 게포까지 힘들어하오 다. 그건 니즈로 하는데 야~.}

10203 @ 무시거로 한다했습두?{뭘로 한다 했습니까?}

10203 # 그 전을르서. 두겍운, 두겍운 전 잇대니오 그거? 곤색으 난 그거.{그 전으로. 두꺼운, 두꺼운 전 있잖소 그거? 곤색을 떤 그거.}

10203 # 오바천같은 걸르서.{외투 천 같은 걸로.}

10203 # 돈이 많이 먹소.{돈이 많이 드오.}

10203 @ 아바니, 신애가 전이 무시젠두 모릅구마. 전이 무시젠두 말씀을 좀 해 주옵소.{할아버지, 신애가 전이 뭔지 모릅니다. 전이 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10203 # 그게 엇대, 터럭을르서 그게 켈러서 맨드는 게란 말이오. 기게, 아~.{그게 어째, 털로 그게 걸어서 만드는 것이란 말이오. 그게, 야~.}

10203 # 기애 게 좀 두겍구, 오바천이 잇대니우 그거?{그래 그게 좀 두겍고, 외투 천이 있잖소 그거?}

10203 # 그것보단 오바천보다 그걸루두 오바두 하기는 하오.{그것보단 외투 천보다 그걸로도 외투도 하기는 하오.}

10203 # 그담에 안이까지 딱 맞춰서 탁 쓰문 칩덥네라. 갠:데 사매 없딤 거저.{그 다음에 안에까지 딱 맞춰서 탁 쓰면 춥지 않지. 그런데 소매 없지 그저.}

10203 @ 그 전이란 게 표면이 반질반질: 하대님두?{그 전이란 게 표면이 반질반질 하잖습니까?}

10203 # 쫄쫄 반질반질할:라 하디 무.{조금 반질반질할까 하지 뭐.}

10203 @ 그 짐승 터럭을루 개:다가서르.....{그 짐승 털로 가져다가.....}

10203 # 야~, 그렇게 한 게담.{야~, 그렇게 한 거지.}

10203 # 개: 대장함꺼지 다: 한 다음에, 사돈네 인사르 하오. 바깥사돈네끼리.{그래 대장함까지 다 한 다음에, 사돈네 인사를 하오. 바깥사돈네끼리.}

10203 # 인사르 한 다음에 그 안내르 해에서 다른집에 새취라고 또 잇는데 야~ 손님모시는 바~안이, 거기까지 인도르 해서 우시꾼들이 들어가고 서방재:는 그 새애기집 바~아르 들어가고. {인사를 한 다음에 그 안내를 해서 다른 집에 새취라고 또 잇는데 야~ 손님 모시는 방안이, 거기까지 인도를 해서 우시꾼들이 들어가고 신랑은 그 신부 집 방으로 들어가고.}

10203 # 그땀에 잔싸~아 놓는단 말이오. 서배: 잔싸~아. {그 다음에 잔칫상을 놓는단 말이오. 신랑 잔칫상을.}

10203 # 이렇기 기다:산 이만: 넘은데 이러:침 긴데다서 머 통닭으 농구 떡두 농구 구시두 농구 그땀에 과실두 농구야~ 사탕 무스거 이런거 쭈루룩: 채레서 큰사~아 맨드딤. {이렇게 기다란 이만큼 넓은데 이만큼 긴 데다가 뭐 통닭을 놓고 떡도 놓고 구시도 놓고 그 다음에 과실도 놓고 야~ 사탕 뭐 이런 것 주루룩 차려서 큰 상을 만들지.}

10203 # 개 윤관이 곁에 탁 앉구 서배 앉구 그땀에 동네 청년들으 모아서 이래 뺑: 돌과앉아서르. {그래 윤관이 곁에 탁 앉고 신랑이 앉고 그 다음에 동네 청년들을 모아서 이렇게 빙 둘러앉아서.}

10203 # 개 이렇소 더렇소 헛소리 떡어 누루멘서 그거 잔싸~엿거 농가 먹자구서 애:르 쓴단 말이오. {그래 이렇소 저렇소 헛소리 찍어 누르면서 그거 잔칫상의 것 나눠 먹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오.}

10203 # 개: 서방재:들이 그것 농가주구. {그래 신랑들이 그것 나눠 주고.}

10203 # 그런데 거 닭이랑은 아니 헛딘단 말이오. {그런데 그 닭이랑은 안 건드린단 말이오.}

10203 # 그 닭은 거 안대디 거. {그 닭은 그 안 되지 그.}

10203 @ 그문 닭은 그문 내:농구 혼자 먹습두? {그러면 닭은 그러면 내놓고 혼자 먹습니까?}

10203 # 애니, 그거는 가져다가서, 자기가 받은 사~아 가져다가서 이상납우 앞에다서 탁 내:봐야 댄단 말이오. 나는 사~아 받았는데 그 닭이 없으문 그거 사~아 잃어버린 걸루 취급 아디. {아니, 그것은 가져다가, 자기가 받은 상을 가져다가 손윗분들 앞에다가 탁 내:봐야 된단 말이오. 나는 상을 받았는데 그 닭이 없으면 그거 상을 잃어버린 걸로 취급하지.}

10203 # 개: 서방재:르 떨떨:안게이라구 하디, 머저린게구. {그래 신랑을 멍청한 사람이라고 하지, 머저리인 거고.}

10203 @ 그러문 이제 무슨 음식이 있으문 머 나머지는 이제 농가주구 닭은 다 개:다가서르 이상뽀한데 바치구…… {그러면 이제 무슨 음식이 있으면 뭐 나머지는 이제 나눠 주고 닭은 다 가져다가 손윗분한테 바치고……}

10203 # 개: 다른 것두 이 길, 길, 길디무 괴게. {그래 다른 것도 이 남, 남, 남지 뭐 그게.}

10203 # 개: 또 그것도 동네에서 또 사람 보아 가면서, 서방재: 좀 툐툐한 게문 그거 먹자구서 막 대애들멘서 야~ 헛소리 떡어누르멘서 내애 노라구 어부작으 티디 무. {그게 또 그것도 동네에서 또 사람 봐 가면서, 신랑이 좀 툐툐한 사람이면 그것 먹으려고 막 달려들면서 야~ 헛소리 찍어 누르면서 내놓으라고 소리를 치지 뭐.}

10203 # 갠:데 게 서방재: 얼떨:안 게문 그런 장난도 안 쓰구, 개:다 홀 내애노문 그거 엇디갯소 그거. {그런데 그게 신랑이 멍청한 사람이면 그런 장난도 안 치고, 그러다 썩 내놓으면 그것 어찌겠소 그거.}

10203 # 남우 서방재 머저리 취급 하겠소?(남의 신랑 머저리 취급하겠소?)

10203 # 개: 거저 앓은 사람들두 그거 보아 가면서 장난썬단 말ियो.{그래 그저 앓은 사람들도 그거 봐 가면서 장난 친단 말ियो.}

10203 # 게 위론데야, 어~, 잘못하문[잘모타문] 안 대디.{그게 위론데 야~, 어~, 잘못하면 안 되지.}

10203 # 그 집안안엿 사람들두: 난처해아디, 개: 거런 장소에 가서 행세르 체세르 잘하는 사람 우눈 더 관탕은 사람이구, 그런데 가서 막잡일루서 거저 두이짜 어떻게 됐는지 주인집 사 어떻게 됐든디 서배 멘목이 어떻게 돼든디 그래문 그거 못썬단 말ियो 그거.{그 집 안 안의 사람들도 난처해하지, 그래 그런 장소에 가서 행세를 처세를 잘하는 사람은 저 켜찰은 사람이고, 그런 데 가서 마구잡이로 그저 뒤야 어떻게 됐는지 주인집이야 어떻게 됐든지 신랑 멘목이 어떻게 되든지 그러면 그거 못썬단 말ियो 그거.}

10203 # 어, 그런 게 발생대디 말게끔 하는 사람이 꼭 잇단 말ियो 그게 싹 묻운 데.{어, 그런 게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사람이 꼭 잇단 말ियो 그게 싹 모인 데.}

10203 @ 그렇게 큰 사~아 받고 나문 그다음에 무시게 함두?(그러게 큰 상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10203 # 그래 잔싸~아 받구 그다음에 정심싸~이 들어오디 무.{그래 잔칫상을 받고 그 다음에 점심상이 들어오지 뭐.}

10203 # 정심싸~이 들어오는데 거 밥우 한사발우 뜨구, 채소르 몇개 놓구, 국우 한사발 놓구, 그밥에다:서 달걀 두개르 딱 파묻는데, 개: 서방재: 한나 먹구 그 사~아 고대루 들어서 새애기 앞에 개:다 놓오무 새애기 또 그 절에 그 술에 그 밥에 그 국에 고거 고대루 또 나머지르 먹은단 말ियो.{점심상이 들어오는데 그 밥을 한 사발을 뜨고, 채소를 몇 개 놓고, 국을 한 사발 놓고, 그 밥에다가 달걀 두 개를 파묻는데, 그래 신랑이 하나 먹고 그 상을 그대로 들어서 신부 앞에 가져다 놓으면 신부가 또 그 젓가락에 그 숟가락에 그 밥에 그 국에 그거 그대로 또 나머지를 먹는단 말ियो.}

10203 @ 그문 그 서방, 서방재:가 먹고서르 길에노:문 인제 그거 그대로 먹구, 그문 달걀이도 두개였는데 한개 먹구, 야아.{그러면 그 신랑, 신랑이 먹고서 남겨 놓으면 이제 그것 그대로 먹고, 그러면 달걀도 두 개였는데 한 개 먹고, 야아.}

10203 @ 어어, 그럼 그렇게해서 점심싸~아 받고나문 그다음에는 인제 어찌함:두?(어어, 그럼 그렇게 해서 점심 상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찌합니까?)

10203 # 거, 점심싸~아 받은 다암에 예, 이쪽에 거 우시르 간 사름덜이 물어본단 말ियो, 거 쥬 인을르 앓은 사람가.{그, 점심상을 받은 다음에 예, 이쪽에 그 우시를 간 사람들이 물어본단 말ियो, 그 주인으로 앓은 사람한테.}

10203 # 사둔이 어던으 시간이 절차가 끝날 시간이 됐:는데, 어쩜 갈길이 멀다든가 칩다든가나 구실이 탈이 잇단 말ियो 말할 탈이야~. '여사무사한테 엇디 시간좀 다우쳐 주겠습두? 알아바 주옵셔.' 하무 '예, 그랩셔.' 하구서 나가서 '예, 준비땃:습구마.' 하구 알게문 우 시꾼들이 나선단 말ियो.{사둔이 이제는 시간이 절차가 끝날 시간이 됐는데, 어쩜 갈 길 이 멀다든가 칩다든가나 구실이 탈(핑계)이 잇단 말ियो 말할 탈이 야~. '이래저래한테 어찌 시간 좀 서둘러 주겠습니까? 알아 봐 주십시오.' 하면 '예, 그럼시다.' 하고서 나가

서 '예, 준비됐습니다.' 하고 알리면 우시꾼들이 나선단 말이오.}

10203 # 그때사 자동차 없디.{그때야 자동차 없지.}

10203 # 마차술기나 거저 소술기란 말이오 야~.{마차 수레나 그저 쇠수레란 말이오 야~.}

10203 # 개: 술기르 메워가지구서 더 노에다서 니부자리에다서 야~ 새애기 갓추메르 싹구, 그
담에 더 새애기 앓을 술기 또 따단 말이오.{그래 수레를 메워 가지고서 저 농에다가 이
부자리에다가 야~ 신부 짐을 싣고, 그 다음에 저 신부가 앓을 수레가 또 다르단 말이
오.}

10203 # 그 꽃, 꽃이두 달구 야~ 이런 술기 잇는데 야~, 마차. 말케다두 꽃우 달구.{그 꽃, 꽃도
달고 야~ 이런 수레가 있는데 야~, 마차. 말에다가도 꽃을 달고.}

10203 # 그랜저 강냥 밑으르 못들으간단 말이오.{그런 것 강냥 밑으로 못 들어간단 말이오.}

10203 # 개: 새애기 인돌 해에서 내애다서 술기에 앓히구 서방재:두 같이[가티] 앓구.{그래 신
부 인도를 해서 내어다가 수레에 앓히고 신랑도 같이 앓고.}

10203 @ 그 강냥이라는 게 무시잼두?{그 강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10203 # 강냐~이라는 게 이 채석이 잇디옙:구 어떻소.{강냥이라는 게 이 채석이 있잖고 어떻
소.}

10203 # 집에서 이래 집우 문, 문우 열구 홀 나가문 이래 이렇게 높은 게 잇대니우? 쫄쫄.{집
에서 이렇게 집을 문, 문을 열고 쭉 나가면 이렇게 이렇게 높은 게 있잖소? 조금.}

10203 # 그거 강냐~이라담.{그것을 강냥이라 하지.}

10203 # 허허허! 못들어봤소 강냐~이라는거?{허허허! 못 들어봤소 강냥이라는 거?}

10203 @ 아입구마. 지금 제가 이제 이 하는게, 이 하는 사람들은 강냐~이가 무시젠지 모르, 모
르대님두? 그래서 저이가 이제 아바잇택에두 가보고 했으니까 이제 구조가 머릿속에 딱
알기는데, 이게 또 말로만 하니까는 모르는 사람은 이, 이 무시젠두: 모르대님두? 이케.
그래서 지금 내애기 했단 말입구마.{압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하는 게, 이 하는 사람들
은 강냥이 뭘지 모르,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아버지 택도 가 보고 했으
니까 이제 구조가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데, 이게 또 말로만 하니까는 모르는 사람은 이,
이 뭘지 모르잖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10203 @ 음, 그러문 진짜 술기 태와서르 그문 오문 끝이[끄티] 남두?{음, 그러면 진짜 수레 태
워서 그러면 오면 끝이 남니까?}

10203 # 그래 오고서, 더, 거 우시르 갔던 사름덜이, 새애비, 식애비, 식에미, 무슨 그 친척이
마주~우 나와 춤우 안 추무 술기르 탁 세우구 들어 안 가오.{그래 오고서, 저, 그 우시를
갔던 사름덜이, 시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무슨 그 친척이 마중을 나와 춤을 안 추
면 수레를 탁 세우고 안 들어가오.}

10203 # 그래서 막 춤우 추메 나온단 말이오.{그래서 막 춤을 추며 나온단 말이오.}

10203 # 그두 무리르 지어 나오디 머 그때애 야~, 친척들이 거저 많이 나온단 말이오.{그것도
무리를 지어 나오지 뭐 그때애 야~, 친척들이 그저 많이 나온단 말이오.}

10203 # 기래가서 길:이 한판 내애놓구 자우짝에서 춤우 추구 궁겔르서 이래.{그래 가서 길 가
운데 내놓고 좌우쪽에서 춤을 추고 거기로부터 이렇게.}

10203 # '그럼 그, 그 엇디 야~ 너 꽃같은 새애기 뵈여오는데 춤두 안 추구 빼언이 서구 잇겠

나?’ 하문서. 그 장난꾼들이 많으니까.{‘그럼 그, 그 어찌 야~ 너 꽃같은 신부(새댁) 들어오는데 춤도 안 추고 뻘히 서 있겠나?’ 하면서. 그 장난꾼들이 많으니까.}

10203 # 그래 땡 들어가요.{그래 땡 들어가요.}

10203 # 개: 들어가문 게 윤식이라는 게 또 잇는데 새애기르 인도르 하는 사름이.{그래 들어가면 거기 윤식이라는 사람이 또 잇는데 신부를 인도를 하는 사람.}

10203 # 그 윤식으 하는 사름이 새애기르 안낼 해해서 바~안에 뒹여다 앓히구, 그담:에 또 새애기 잔짜~이 딸르 들어오오 서배:집에서.{그 윤식을 하는 사람이 신부를 안내를 해서 방안에 뒹여다 앓히고, 그 다음에 또 신부 잔칫상이 따로 들어오오 신랑 집에서.}

10203 @ 그문 그 윤식이란 사람은 그, 그, 누긴가 그니까 그, 그, 모야 새애기 집에서 따라오는 사람임두?(그러면 그 윤식이란 사람은 그, 그, 누구냐 그러니까 그, 그, 뭐야 신부 집에서 따라오는 사람입니까?)

10203 # 아니. 이쪽에서 결쳐~아오.{아니. 이쪽에서 결정하오.}

10203 @ 그럼 그 우시는 서방재:느 우시르 하고 그 새애기는 우시 아이 읍두?(그럼 그 우시는 신랑은 우시를 하고 그 신부는 우시가 안 읍니까?)

10203 # 아니 오오. 즈끔은 오웁데. 이전엔 아니 왓소. 이전엔 없엇소.{안 오오. 지금은 읍디다. 이전에 안 왓소. 이전엔 없엇소.}

10203 # 새애기느 거저 혼자서 거저 술기에 앓아서 거저 타고 온단 말이오.{신부는 그저 혼자서 그저 수레에 앓아서 그저 타고 온단 말이오.}

10203 # 데릴라 가는 녀자 없단 말이오.{데리러 가는 여자가 없단 말이오.}

10203 # 즈끔으느 거 딸르 한내 가대닐구 어떻소. 전에는 없엇소.{지금은 그 따로 하나가 가잖고 어떻소. 전에는 없엇소.}

10203 # 개: 와서, 마다~에서부터 이쪽에서 그 인도르 하는 윤식이라는 게, 게 음, 서배 왜개편이나, 델쭈룩 서배 왜개 좋단 말이오. 그렇기 결쳐~아디.{그래 와서, 마당에서부터 이쪽에서 그 인도를 하는 윤식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음, 신랑 외가편이나, 뒹수록 신랑 외가가 좋단 말이오. 그렇게 결정하지.}

10203 # 그래 서배 왜개 맞같은 사름이 없으때네는 집안안에서 더 친척에 가까운 친척에서 젊은 사름우, 그것두 애기서리르 하는 것두 아니대구, 야~, 새앤이 들어두 아니대구 부모가 무슨 그러 때두 아니대구.{그래 신랑 외가에 마땅한 사람이 없을 때면은 집안 안에서 저 친척에 가까운 친척에서 젊은 사름을, 그것도 임신한 사람도 안 되고, 야~, 상인(초상)이 들어도 안 되고 부모가 무슨 그럴 때도 안 되고.}

10203 @ 그문 윤식이 하는 사람은 웬 그문 스집 아이 간 새애기가 데려가야 대겠습구마.{그러면 윤식이 하는 사람은 맨 그러면 시집 안 간 처녀가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10203 # 아니. 스집간 사름두……{아니. 시집간 사람도……}

10203 @ 아, 애기서리만 아이하문……{아, 임신만 안 했으면……}

10203 # 야~, 애기서리만 아니하구 상, 상재 애니문 일없단 말이오.{야~, 임신만 안 하고 상, 상당한 자가 아니면 괜찮단 말이오.}

10203 # 기애구 또 더 혼자난 사름우는 젊어두 안 대구.{그리고 또 저 혼자 된 사름은 젊어도 안 되고.}

10203 # 과부는 안: 댄단 말이오.{과부는 안 댄단 말이오.}

10203 # 우시르 가는 것두 더 호, 호올애비나 상쳐자리나 상쳐르 해에서 따른 저르 가져가두
안: 대구.{우시를 가는 사람도 저 호, 홀아비나 상쳐 자리나 상쳐를 해서 다른 처를 가져도 안 되고.}

10203 # 그러, 그렇단 말이오 그거.{그러, 그렇단 말이오 그거.}

10203 @ 음, 그래서 같이[가티] 머 인도해 가문 그다음에는 머 또 무시기 아이함둥?(음, 그래서 같이 뭐 인도해 가면 그 다음에는 뭐 또 뭐 안 합니까?)

10203 # 그, 잔싸~이 들어오디.{그, 잔칫상이 들어오지.}

10203 # 새애기 잔싸~ 서배:집에서 또 채린다구.{신부 잔칫상 신랑 집에서 또 차린다고.}

10203 # 그 새애기 잔싸~으느 야~, 거, 저녁에 남기는 게 있습니.{그 신부 잔칫상은 야~, 그, 저녁에 남기는 게 있습지.}

10203 # 서방새애기, 저녁에 먹으라구서 딸르 남기는게 야~.{신랑 신부, 저녁에 먹으라고서 따로 남기는 게 야~. }

10203 # 그거 체에다서, 이 갈그나 츠는 체 잇대니오?(그거 체에다가, 이 가루나 치는 체 있잖소?)

10203 # 그 체에다 담는다는거.{그 체에다 담는다는 거.}

10203 # 그 체에다 담아서, 남게 놓구, 사~아 물릴때, 그땸에 그 나머지는 다시 또 잘: 싸서 샘 일첫길이라는 게 잇소. 그담에 마감에 야~.{그 체에다 담아서, 남겨 놓고, 상을 물릴 때,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다시 또 잘 싸서 삼일 첫길이라는 게 잇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야~.}

10203 # 샘일첫길에 가때, 다른 음식으 갖추구, 그 새애기 상받은 거, 거 대비 새애기집우 가져 간다구.{삼일 첫길에 갈 때, 다른 음식을 갖추고, 그 신부 상 받은 것, 그것 도로 신부 집을 가져간다고.}

10203 @ 그렇습두? 금, 거기는 닭이 아이 들어감두?(그렇습니까? 그럼, 거기는 닭이 안 들어갑니까?)

10203 # 닭이 잇디.{닭이 있지.}

10203 @ 아, 그문 그때 그 달, 닭도[닥또] 보냄두?(아, 그러면 그때 그 달, 닭도 보냅니까?)

10203 # 어~, 보내덴:구 그래.{응, 보내잖고 그래.}

10203 @ 아, 그러무 그때부터 이제 갈가지구 머 이제 나나, 농가서 먹긴 먹는데……{아, 그러면 그대부터 이제 갈라지고 뭐 이제 나뉘, 나뉘서 먹긴 먹는데……}

10203 # 아니, 거 저 새애기 장싸~에는 머 더 남자들이 끼우댐:다나니 거저……{아니, 그 저 신부 잔칫상에는 뭐 저 남자들이 끼우지 않다 보니 그저……}

10203 @ 아아, 고대:로 받은 상태로?(아아, 그대로 받은 상태로?)

10203 # 냐~, 거저 집안안에 녀자들끼리 거저 우스갯소리나 하멘서 수올라 붓어 올리구, 거 새애기 또 야~ 거 더 윤식이 하는 사름이 석잔으 권하는데 이전에는, 게 새애기 앉아서 거 수올우 딱딱 먹는게 없디무.{냐~, 그저 집안 안의 여자들끼리 그저 우스갯소리나 하멘서 술이나 부어 올리고, 그 신부가 또 야~ 그 저 윤식이 하는 사름이 석 잔을 권하는데 이전에는, 그게 신부가 앉아서 그 술을 딱딱 먹는 사람이 없지 뭐.}

10203 @ 옹습구마. 누기 먹겠습두?(옹습니다. 누가 먹겠습니까?)

10203 # 그래서 떡 입우 땃:다서는 이래 떡 받으무, '이거 엇디라고? 누기 주라고?' 개: 물어본단 말ियो. 곁에서 그 윤식일 선 사름이.{그래서 떡 입을 땃다가는 이래 떡 받으면, '이거 어쩔까요? 누구 줄까요?' 그래 물어본단 말ियो. 곁에서 그 윤식이를 선 사름이.}

10203 # 괴야문 이 시아바지게 드리락 한다거나 야~ 시어마니게 드리라 한다거나 머 식형께 드리락 한다거나 이래 석잔으 다 농가서 이래 이상분들께다 권한단 말ियो.{그러면 이 시아버지게 드리라고 한다거나 야~ 시어머니께 드리라 한다거나 뭐 시형께 드리라고 한다거나 이래 석 잔을 다 나눠서 이래 손윗분들께다 권한단 말ियो.}

10203 # 그게 새애기 사~아 받는 절차, 들어가디.{그게 신부가 상을 받는 절차, 들어가지.}

10203 # 개 말도 아니하고 거저 그거 거저 괴래 잇으문 꼭 말으 시기디 무.{그래 말도 안 하고 그저 그거 그저 그래 잇으면 꼭 말을 시키지 뭐.}

10203 # 지금 식당에서 하다나 좋소. 거저 더……{지금 식당에서 하다 보니 좋소. 그저 저……}

10203 @ 즘끔도 장상은 받대님두?(지금도 잔칫상은 받잖습니까?)

10203 # 장싸~아 받는데 서방새애기 같이[가티] 앉아서 받댕:구 어땡소.{잔칫상을 받는데 신랑 신부가 같이 앉아서 받잖고 어땡소.}

10203 @ 아, 한, 한내 받습두?(아, 하, 하나 받습니까?)

10203 # 야~, 할메 같이[가티] 딱 앉아서…… 여기서는 그렇게 하오.{야~, 한꺼번에 같이 딱 앉아서…… 여기서는 그렇게 하오.}

10203 # 머 새애기집에 가 받고 서배:집에 가 받고 없소.{뭐 신부 집에 가 받고 신랑 집에 가 받고 없소.}

10203 @ 그럼 그, 그 머야, 새애기 장쌍에서 지금 갈가나 먹으라면 나중에 둘이 한내 한방에 있을 때……{그럼 그, 그 뭐야 신부 잔칫상에서 지금 갈라서나 먹으려면 나중에 둘이 하나 한 방에 있을 때……}

10203 # 야~, 그때애. 그거 더, 니부자리르 폐주는 사름이 또 잇소.{야~, 그때애. 그거 저, 이부 자리를 펴 주는 사름이 또 잇소.}

10203 # 어, 집안안에 그거 더, 그것도 야~ 쯔m 깨끗한[깨끄탄] 분이 해애 대디.{어, 집안 안에 그거 저, 그것도 야~ 쯔m 깨끗한 분이 해야 되지.}

10203 # 무슨 무슨 더 테테부레한 뭐 애기서리르 한다거나 무스 야~ 과부 대거나 무스 엇댓거나 안: 댜단 말ियो.{무슨 무슨 저 지저분한 뭐 임신을 했거나 무슨 야~ 과부 되거나 무슨 어쨌거나 안 댜단 말ियो.}

10203 # 그런 사름 들으워서 자리르 갖차준단 말ियो. 니불으 폐, 잘 깔개 깔구 니불 펴구 베개꺼지 떡 놓구 그담에 그거 내리워서 사~아 한나 가지구 들어와서 상 우에다 올레놓구서 '이거 먹구 자야 대오. 괴래사 자석이랑 빨리 본다압테. 이거 먹대니문 안:땡:니.' 하문서 야~. 하하하!{그런 사름 들어와서 자리를 갖춰 준단 말ियो. 이불을 펴, 잘 깔개 깔고 이불 펴고 베개까지 떡 놓고 그 다음에 그거 내려서 상을 하나 가지고 들어와서 상 위에다 올려 놓고서 '이거 먹고 자야 되오. 그래야 자식이랑 빨리 본다 합디다. 이거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야~. 하하하!}

10203 # 그래, 그애 무슨 아니 싫어서 안먹겠소? 이거 거저.{그래, 그래 무슨 아니 싫어서 안 먹겠소?}

10203 # 기애 남자가 아무래도 만져 먹디.{그래 남자가 아무래도 먼저 먹지.}

10203 # 그래 녀자가 아무래도 그, 우물우물하면서 부끄럽아 하겠디 야~.{그래 여자가 아무래도 그, 우물우물하면서 부끄러워하겠지 야~.}

10203 # '먹소. 이거 먹대니문 못쓰오. 아:르 못난다압데.' 허허허허허!{'먹소. 이것 먹지 않으면 못쓰오. 애를 못 낳는다 합디다.' 허허허허허!}

10203 # 이런말 하는 사름두 잇구, 이런말 아니하담 조매 또.{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말 안 하지 줌처럼 또.}

10203 # 다 알구 이런 사름들끼리는 허물이 없이 그래 아뭇소리나 하는 건 그래 거저 말하디 마는……{다 알고 이런 사름들끼리는 허물이 없이 그래 아무 소리나 하는 건 그래 그저 말하지마는……}

10203 # 넷날 혼새는 그렇게 했소.{옛날 혼사는 그렇게 했소.}

10203 @ 그문 그, 그 둘이 드, 들어가는 바~은 어떤 방임두?(그러면 그, 그 둘이 드, 들어가는 방은 어떤 방임두?)

10203 # 신빠~이라 하디 무.{신방이라 하지 뭐.}

10203 @ 그문 신빠~이 이게 방이 네 개 있대님두? 어느쪽에 놓습두?(그러면 신방이 이게 방이 네 개 있잖습니까? 어느 쪽에 놓습니까?)

10203 # 거 노인들이나 잇으무 웬: 옷칸에.{그 노인들이나 있으면 맨 위칸에.}

10203 # 굿바~이란데 잇대니우? 사잇방 넘에짝에.{굿방이란 데 있잖소? 사잇방 너머쪽에.}

10203 @ 아, 굿방에다가 그 신방을 차림두?(아, 굿방에다가 그 신방을 차립니까?)

10203 @ 아 그렇습두? 그문 다른, 식, 식기들두 한대 자는데 그러문 고 방 **놓구서, 다, 다 옆에서 *** 자겠습구마 또?(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식, 식기들도 한 군데 자는데 그러면 그 방 **놓고서, 다, 다 옆에서 *** 자겠습니다 또?)

10203 # 다른 반:에서는 문우 꼭꼭 닫아놓디 다.{다른 방안에서는 문을 꼭꼭 닫아놓지 다.}

10203 # 우리집이랑 그렇탱구 어떻소?{우리집이랑 그렇잖고 어떻소?}

10203 # 별뜨~엿집이 그게 문이 다 있탱고 거저 어느 칸이나 다 닫으무 거저 독관따두 대디 거저.{별등의 집이 그게 문이 다 있잖고 그저 어느 칸이나 다 닫으면 그저 독관도 되지 그저.}

10203 @ 거 소리는 소리 들기고 그 들기고 무시기 다 할텐데 어찌……{그 소리는 소리 들리고 그 들리고 뭐 다 할 텐데 어찌……}

10203 # 무슨말 하는가 듣딤. 이래:.{무슨 말 하는가 듣지. 이렇게.}

10203 @ 으하하하하하하하! 야, 이 보문은 다른 짓곳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구멍을 뿜 내고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는데……{으하하하하하하하! 야, 이 보면은 짓곳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구멍을 뿜 내고 들여다 보는 사람도 있는데……}

10203 # 거 더 창문우 이전에는 조애로 붙이탱:구[부티탱구] 어떻소.{그 저 창문을 이전에는 종이로 붙이잖고 어떻소.}

10203 # 거 창문우 이래 짹짹 들여다보는 걸르서……{그 창문을 이렇게 짹짹 들여다 보는 걸

로……}

10203 @ 아, 그런 사람이 있었습두?{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10203 # 잇대앵구 괴래. 그거 더 집안안에 거 안깐들이 거저 야~ 나이 어린 안깐들이 야래: 군 일[구닐] 끝이문[끄티문] 아무래두 큰짓 작은 집이 야래: 잇댕구 어땡소. 느비넬르 무스 조캐넬르 머 왜사춘넬르 다 가까운 것들이……{있잖고 그래. 그거 저 집안 안의 그 아낙네들이 그거 야~ 나이 어린 아낙네들이 여럿이 큰일(집안 경조사) 끝이면 아무래도 큰집 작은집이 여럿이 있잖고 어땡소. 누이네로 무슨 조카네로 뭐 외사촌네로 다 가까운 사람들이……}

10203 @ 남자들은 아이보구 왜 안깐들이 와서 봄두?{남자들은 안 보고 왜 아낙네들이 와서 봄니까?}

10203 # 야, 대부분 여자들이 괴래딤, 남자들이 게 무슨.{야, 대부분 여자들이 그러지, 남자들이 그게 무슨.}

10203 @ 어어, 야, 그거 참 복잡하압구마.{어어, 야, 그거 참 복잡합니다.}

10203 @ 그럼 다음날 그문 그문 그 다음날 그문 아침에 일어나서르 무스그 해야……{그럼 다음날 그러면 그러면 그 다음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해야……}

10203 # 이틀 또~안에는 새애기 자리에 니대니우.{이틀 동안에는 신부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소.}

10203 @ 그냥 늑어잇습두?{그냥 누워 있습니까?}

10203 # 아니, 따~아 더 자리에 앓으내:르 잇디 무.{아니, 땅을 저 자리에 앓은 채로 있지 뭐.}

10203 @ 아아, 아무일두 아이하구……{아아, 아무 일도 안 하고……}

10203 # 야~, 그래 거저 더 시격 해에서 바테 덜여가문 서방 새애기 마주앓아 먹구 사흘으느, 이틀으. 혼삿날부터 이틀으.{야~, 그래 그거 저 식사 준비 해서 받쳐 들어가면 신랑 신부가 마주 앓아 먹고 사흘은, 이틀을. 혼삿날부터 이틀을.}

10203 # 그담에 삼일째 날에 삼일첫길 간단 말이오. 첫, 첫걸음으.{그 다음에 삼일째 날에 삼일첫길 간단 말이오. 첫, 첫걸음을.}

10203 #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애대디.{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야 되지.}

10203 # 밥으 해에서 어, 새애비 사~아 들구 메느리, 그담에 세에미는 땀 사~이 없단 말이오 야~.{밥을 해서 어, 시아버지 상을 들고 며느리, 그 다음에 시어머니는 땀 상이 없단 말이오 야~.}

10203 # 개: 거저 모듬싸~이래구 해 세에미두 같이[가티] 앓구, 그담에 식사 쭉 끝난 담:에 네단이라는 게 잇소.{그래 그거 모듬상이라고 해 시어머니도 같이 앓고, 그 다음에 식사 쭉 끝난 다음에 예단이라는 게 잇소.}

10203 # 새애기쪽에서 네단을 놓는데, 식애비부터, 야래: 앓소. 식애비 웬: 첫감에 앓구 그담에 무슨 야~ 삼춘이 앓구 무슨 그담에 떡 큰집 무슨 말아비랑 이래 순서대루 쭉: 앓구 형님넬르 이래 쭉: 앓소 닐야들이 앓습니.{신부 쪽에서 예단을 놓는데, 시아버지부터, 여럿이 앓소. 시아버지 맨 처음에 앓고 그 다음에 무슨 야~ 삼춘이 앓고 무슨 그 다음에 떡 큰집 무슨 큰아버지랑 이렇게 순서대로 쭉 앓고 형님네로 이렇게 쭉 앓소 일여덟이 앓

습지.}

10203 # 개: 사~에다서 준빌 한단 말이오. 사~아 한나 놓구 그 우에다서 죠애르 한나 떡 페구 식애비게다서 거 베개르 이전에는, 이만: 토~이 크구 이만:이 긴거 자우쪽에다 복째가 수째르 떡 쓰구 그런 베개르 한나 놓구 그담에 또 그 우에 판거 야~ 옷이나 잇으무 괴래 놔:서 새애기 들구 들어와서 앞에다 탁 놓구서 절으 한단 말이오.{그래 상에다가 준비를 한단 말이오. 상을 하나 놓고 그 위에다가 종이를 하나 떡 펴고 시아버지께다 그 베개를 이전에는, 이만큼 통이 크고 이만큼 긴 것 좌우쪽에다 '복(福)' 자와 '수(壽)' 자를 떡 쓰고 그런 베개를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판 것 야~ 옷이나 있으면 그래 놔서 신부가 들고 들어와서 앞에다 탁 놓고서 절을 한단 말이오.}

10203 # 괴래무 식애비 돈으 착 주디 무.{그러면 시아버지가 돈을 착 주지 뭐.} 돈우 톱 준단 말이오. 상우에다 떡 올레놓디 무.{돈을 톱 준단 말이오. 상 위에다 떡 올려놓지 뭐.}

10203 # 개: 새애기 그거 받대옹구 그 돈우 덕접, 개: 그, 그거 또 시중꾼이 야~ 그 사~아 받아가지구 나가서 식애비 바~에다서 놓다거나 어드메 팔르 둔단 말이오 그거.{그래 신부가 그것 받지 않고 그 돈을 직접, 그래 그, 그거 또 시중꾼이 야~ 그 상을 받아 가지고 나가서 시아버지 방에다가 놓는다거나 어디 따로 둔단 말이오 그거.}

10203 # 그담에 또 그 사~에다서 또 다음분이[다음뿌니] 거, 다음분이거[다음뿌니거] 이래 갖차가지구 나가구 웬: 마감에 거 더 거 죠끔 먼 친척이나 칠춘팔춘 이른 분들에게는 야~ 엇디 그리 많이 놓겠소 무스거 잇어서 그래 거저 수건이나, 양말이나, 그런 거 이래 놓구서 거저 인삿절이담 거저.{그 다음에 또 그 상에다가 또 다음 분의 것, 다음 분의 것 이래 갖춰 가지고 나가고 맨 마지막에 그 저 그 조금 먼 친척이나 칠춘 팔춘 이런 분들에게는 야~ 어찌 그리 많이 놓겠소 뭐 잇어서 그래 그저 수건이나, 양말이나, 그런 것 이렇게 놓고서 그저 인사 절이지 그저.}

10203 # 개:두 그거 야~ 그사람들도 돈 내:애 댄단 말이오. 작아나마나 돈: 내애댄단 말이오. 그건 집안안에 법칙이니까 건.{그래도 그거 야~ 그 사람들도 돈 내야 댄단 말이오. 적으나마나 돈 내야 댄단 말이오. 그건 집안 안의 법칙이니까 그건.}

10203 @ 그문 돈은 다 어찌, 어, 어드메 썸두?{그러면 돈은 다 어찌, 어, 어디다 썸니까?}

10203 # 그 새애기 가지디.{그 신부가 가지지.}

10203 @ 아아, 아하하하하하!{아아, 아하하하하하!}

10203 @ 다 끝난 다음에……{다 끝난 다음에……}

10203 # 야~, 그, 그 몰아서 마감에 새애기 가지구, 그, 그기사, 그 돈운 누기 가지디 못하오. {야~, 그, 그 모아서 마지막에 신부가 가지고, 그, 그거야, 그 돈은 누가 가지지 못하오.}

10203 @ 올겠습구마.{올겠습니다.}

10203 # 그거 가지구 가서, 그돈우 거르만에 탁 넣언단 말이오 그다음에야~, 얼팬거 많단 말이오 안깐들도 주디 하다나 거저 적댕:디.{그것 가지고 가서, 그 돈을 주머니에 탁 넣는단 말이오 그 다음에 야~, 얼마인가 많단 말이오 아낙네들도 주지 하다 보니 그저 적지 않지.}

10203 # 그래서 첫길에 그게 다 끝난 담:에, 그담에 술기에다서 잔싸~아 받은 걸르 다른 거 음석으 채린 걸르 그래 떡 삶구 서방 새애개, 그담에 식애비, 세에메, 한또 대애여섯이, 또

간단 말ियो.{그래서 첫길에 그게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레에다가 잔칫상을 받은
걸로 다른 것 음식을 차린 걸로 그렇게 떡 싣고 신랑 신부, 그 다음에 시아버지, 시어머
니, 또 대여섯 명이, 또 간단 말ियो.}

10203 # 괴래 가서 '첫날 혼개에는 피차에 즐거웠습니다.' 하구 인사들 떡 하구. 호호호!{그래
가서 '첫날 혼개에는 피차에 즐거웠습니다.' 하고 인사들 떡 하고. 호호호!}

10203 # 괴래 나무 개: 또 개 점심때 다: 대엿디.{그리고 나면 괴래 또 괴래 점심때 다 되었지.}

10203 # 괴래 점심 갖차 먹구.{괴래 점심 갖취 먹고.}

10203 # 개: 새애기 그 돈우 탁 내애나서 제 에미가나 제 더 언니가나 '이거 저 네단 드리구서
받은 돈이라.'구서, 괴아구 체에본단 말ियो 야~ '야, 너 집안 이게 점말 구준하다더니만
돈두 많이 생겼구나.'{괴래 신부가 그 돈을 탁 내어 와서 제 어머니한테나 제 저 언니
한테나 '이거 저 예단 드리고서 받은 돈이라.'고서, 그리고 세어 본단 말ियो 야~ '야,
너 집안 이게 정말 구준하다더니만 돈도 많이 생겼구나.'}

10203 # 개 집안이 많:댕:구야~ 단순한 집으느 돈이 몇 글썽 없단 말ियो.{괴래 집안이 많지 않
고 야~ 단순한 집은 돈이 몇 푼 없단 말ियो.}

10203 # 으음, 그래서 야 '시집 잘갓다!'.{으음, 그래서 야 '시집 잘 갓다!'.}

10203 # 괴래 삼일 첫길꺼지 갔다 온 담:에는 앞치매르 두루구서 완전 주부 대디 머.{괴래 삼
일 첫길까지 갔다 온 다음에는 앞치마를 두르고서 완전 주부 되지 뭐.}

10203 @ 그문 누긴가 그 아까 식애비는 그러문 그 베개르 주는데, 그문 식어, 시어머니하구
무스거 다른 사람들한테는……{그러면 누군가 그 아까 시아버지는 그러면 그 베개를 주
는데, 그러면 시어, 시어머니하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는……}

10203 # 시어머니게라는 잘하오. 시어머니꺼지는.{시어머니한테랑은 잘하오. 시어머니까지는.}

10203 @ 그문 무시게르 아이 댐두?{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10203 # 옷우 하야 대디.{옷을 해야 되지.}

10203 @ 아 옷을 놓습두?{아 옷을 놓습니까?}

10203 # 어~, 아래옷불우 탁 해애서.{어~, 아래 윗 벌을 탁 해서.}

10203 # 괴래 그 우들 이전에 보션이꺼지 떡 한단 말ियो.{괴래 그 우리들 이전에 버션까지 떡
한단 말ियो.}

10203 @ 아예 딱 일썩을 해서.{아예 딱 한 벌을 해서.}

10203 # 어어. 기애 새애기집이 좀 넉넉한 집으느, 스느비 식애끼 그거 다아 해애 대오. 옷으
다 해애 대.{어어. 괴래 신부 집이 좀 넉넉한 집은, 시누이 시동생 그것 다 해야 되오.
옷을 다 해야 돼.}

10203 # 개 제 자기 천으 무스거 할라, 거 네단으 갓출라 하문 돈이 많이 들었소.{괴래 제 자
기 천을 뭐 하랴, 그 예단을 갓추랴 하면 돈이 많이 들었소.}

10203 @ 니불 같은 건 아니 해옴두?{이불 같은 건 안 해 옵니까?}

10203 # 아니. 니불우는 그 새애기 첫날 이불이라구서 원래 또 하는 법이 잇딤 그거는.{아니.
이불은 그 신부 첫날 이불이라고서 원래 또 하는 법이 있지 그것은.}

10203 # 잘하는 집우는 니불 두 채, 세 채 이렇게 하딤.{잘하는 집은 이불 두 채, 세 채 이렇게

하지.}

10203 @ 새애기 집에서?(신부 집에서?)

10203 # 야~, 새애기 집에서 하담.{야~, 신부 집에서 하지.}

10203 @ 야, 그문 돈이 쟈기 들겠습구마.{야, 그러면 돈이 많이 들겠습니다.}

10203 # 쟈게 드우. 새, 새애기 집에서 서배:집보다 썩 더드디 무.{많이 드오. 신, 신부 집에서 신랑집보다 썩 더 들지 뭐.}

10203 @ 옹겠습구마.{옹겠습니다.}

10203 @ 야, 그문 그거 한번 치르자문 그 돈을 다 어디메서 감당을 함두?(야, 그러면 그거 한번 치르려면 그 돈을 다 어디서 감당을 합니까?)

10203 # 개: 새애기 한나 스집 보내자문사 준비 거, 오래: 준비 해에 대담.{그래 신부(처녀) 하나 시집 보내자면야 준비 그, 오래 준비를 해야 되지.}

10203 # 발써 여람살때부터 준비르 한단 말이오 어떤집으는.{벌서 여남은 살때부터 준비를 한단 말이오 어떤 집은.}

10203 # 이전에 베랑 하는 집으느 야~, 삼베 잇대니우? 그거 네단 놓을 꺼 벨르서, 식애비게랑 야~ 베천으 보드라운 베천이 구스~이나 열썩 같은 걸르 옷감우 썩채르 딱 놓소.{이전에 베랑 하는 집은 야~, 삼베 있잖소? 그것 예단 놓을 것 베로, 시아버지께랑 야~ 베천을 보드라운 베천이 구 승이나 열 승 같은 걸로 옷감을 필 채로 딱 놓소.}

10203 # 베개가 같이[가티].{베개랑 같이.}

10203 @ 무슨 우티르 아이 짓구 말……{무슨 옷을 안 짓고 말……}

10203 # 아니 짓구서. 그거는 엇디 그, 그집에 와서 맞게끔 하자구 그러갸디.{안 짓고서. 그것은 어찌 그, 그 집에 와서 맞게끔 하려고 그러갸지.}

10203 @ 으흠, 그러문 시, 시어미는 우티를 놓구 시아버지는 그냥 우티 아이 놓구 그냥……{으흠, 그러면 시, 시어머니는 옷을 놓고 시아버지는 그냥 옷 안 놓고 그냥……}

10203 # 썩채르 탁 놓는단 말이오. 죠애애다 떡 싸서.{필 채로 탁 놓는단 말이오. 종이에다 떡 싸서.}

10203 # 메다, 메닷수 많다구 그거느.{미터, 미터 수 많다고 그것은.}

10203 @ 한뼘임두? {한 필입니까?}

10203 # 한뼘이란 말이오 완으르.{한 필이란 말이오 완전히.}

10203 # 기애니까 한볼 하구두 남디[남띠] 무슨.{그러니까 한 벌 하고도 남지 무슨.}

10203 @ 옹습구마. 그……{옹습니다. 그……}

10203 # 기애 그 나머지르 해, 그거, 식애비 해: 님구 나머지 길는 거 가지구서야~ 그 아래 무슨 동생네들게랑 '이게 이게 내 야 다 님겠냐 야~ 찌뜨레기는 아무개르 줘라.' 또 이렇게 맹령한단 말이오. 그래 놓구디 무슨.{그래 그 나머지를 해, 그거, 시아버지 해 입고 나머지 남는 것 가지고서 야~ 그 아래 무슨 동생네들한테랑 '이게 이게 내가 야 다 입겠냐 야~ 나머지는 아무개를 줘라.' 또 이렇게 맹령한단 말이오. 그래 나누지 무슨.}

1.8. 세시 풍속과 놀이

1.8.3. 전설과 설화

- 10811 @ 아바니, 인제는 넷날 내기를 쫘……도깨비 얘거나 이런 거 혹시 있으문 쫘 해 주웁소. {할아버지, 이제는 옛날 이야기를 쫘……도깨비 얘거나 이런 것 혹시 있으면 쫘 해 주십시오.}
- 10811 # 그런 거 내 잘 모르오. {그런 것은 내 잘 모르오.}
- 10811 @ 귀신 얘기 이런 거 모름두? {귀신 이야기 이런 것 모르십니까?}
- 10811 # 귀신 니얘기는 잘 모르는 데 야, 거 더 구며~어 하능 거. {귀신 이야기는 잘 모르는데 예, 그것 저 구명을 하는 것.}
- 10811 # 거 아까 말하대넌데? 거. {그것은 아까 말하지 않았소? 그것.}
- 10811 # 그 부셰르 씨 가지구 그거 한 번 구경안 게 잇는데 가깝아서 못 구경아다나니 거저 거 어부작티는 소리는 들었는데 무슨 말 하는가는 모르구. {그 부서(부적)를 써 가지고 그것 한 번 구경한 것이 있는데 가까운 데서 구경을 못했기 때문에 그 저 그 요란스러운 소리는 들었는데 무슨 말 하는가는 모르고.}
- 10811 # 거 먼데서 달이받아보니까더 부셰르 쓴 거는 그거는 봤단 말이오 야. {거 먼 데서 들여다 보았기 때문에 부서를 쓴 것은, 그것은 봤단 말이오. 예.}
- 10811 # 게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게 이게 구며~이라구서 야, 그거 한가지 잇었는데 다 없어디구. {그것이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게 이게 구멍이라구서 예, 그것 한 가지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 10811 @ 그럼 무스거, 넷날 니얘기 무스거 넷날, 노아매께서 말씀 아이 해 주셨습두? {그럼 무슨, 옛날 이야기 무슨 옛날, 할아버지 어머니께서 말씀 안 해 주셨습니까?}
- 10811 # 기래구서 어떤 일이 또 잇었는가 하니까 그, 그, 썩얘기래는 게 그거, 말소리 썩썩썩한다구서 거 썩얘기, 복술이 와서 아까 그게 한 게구 야, 그거는. {그러고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그, 그, 썩얘기라는 게 그것, 말소리 썩썩썩한다고 해서 그거 썩얘기, 복술이 와서 아까 그것 한 것이고 예, 그것은.}
- 10811 # 그전에, 우리 동네 노인덜이 말하는 게 야, 또 한 집이서 그런 놀음 해었는데, 대르 낸다는게 있디 머. {그 전에, 우리 동네 노인들이 말하는 것이 예, 또 한 집에서 그런 놀음을 했는데, '대를 낸다'는 게 있지 뭐.}
- 10811 # 대르 내는게 그것두 야, 거 복술인데, 복술이 와서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야, {대를 내는 게 그것도 예, 거 복술이인데, 복술이 와서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예,}
- 10811 # 솔낭그, 거 더, 어떤, 그것두 거 어느 안간이 벼~이 낫는데, 그게, 스느비, 스집 갈 나이 돼서 죽엇단 말이오 야. {소나무, 그 저, 어떤, 그것도 그 어느 아낙이 병이 낫는데, 그것이, 시누이, 시집 갈 나이 돼서 죽엇단 말이오.}
- 10811 # 게 죽은 게 그 안간이게 빼챇단 말이오. 올찌세미게. 올케게 떡 빼챇거덩. {그래 죽은 것이 그 아낙에게 들렸단 말이오. 올케에게. 올케에게 떡 들렸거든.}
- 10811 # 게 거저 빼챇는두 안 빼챇는두 그 복술이 빼챇다 하니까더 그저 거기다 빼챇는

가 알구서 기래무 엇디문 돼겟는가, 대르 내야 된다. {그래 그저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그 복술이 들렸다 하니까 그저 거기다가 들렸는가보다 알고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대를 내야 된다'.}

10811 # 게 대르 낼 준비르 어떻게 하람두? 이래니까 그 집에서 그 복술이 말하는게, 솔낭그, 거 깨끗한 걸르 앓은키 한나 반짜 쪼끔 높은 거 클거리르 썩 빼에서 가제오나라. {그래 '대를 낼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러니까 그 집에서 복술이 말하는 것이, '소나무, 그 깨끗한 것으로 앓은키 하나 반짜리 조금 높은 것 그루를 썩 빼어서 가져오너라.'}

10811 # 요렁춤 가는 거 따박술 거 쫘 요런 거 야, 그런 거 한나 글그 썩 빼에 가제오나라. {'요 정도로 가는 것 다복술 그저 쫘 요런 것 예, 그런 것 하나 그루 썩 빼어 가져오너라.'}

10811 # 그 다음에 예, 솔아치르, 뉘이 달긴 채르, 요막씩 짤가서, 그저 한 대 콩단 한나 되리만히 가제오나라. {'그 다음에 예, 솔가지르, 뉘이 달린 채로 요만큼씩 잘라서, 그저 한 대 콩단 하나 될만큼 가져오너라'.

10811 # 그 다음에 배르 또 무슨 뗏 자, 갓좌라. {'그 다음에 배를 또 뗏 자, 갓추어라'.

10811 # 기래구서 무스그 야, 저 구경꾼덜이두 많이 모두겟는데, 술두 쫘 준비르 하구 안쥐두 쫘 준비르 해라, 기래문 웬다구. 개 아무 날에 대르 내겟는데, 이 준비 다 하문 내 온다. {그러고서 무슨 예, '저 구경꾼들이 많이 모이겠는데, 술도 쫘 준비를 하고 안주도 쫘 준비를 해라', 그러면 된다고. 그래 '아무 날에 대를 내겟는데, 이 준비 하 하면 내가 온다'.

10811 # 게 다 났다구 그별으 하니꺼더 그날에 텍 왔단 말이오. 새박에. {그래 다 났다고 기별을 하니까 그 날에 텍 왔단 말이오.}

10811 # 기래 와서 다 돌아보구 어, 준비 났다. 오늘 대르 내겟다. {그래 와서 다 돌아보고, '어, 준비 났다. 오늘 대를 내겟다'}

10811 # 갠데 이눔두 역시 사바~에다 부셰르 썩 붙이구 야, 개 거 빨건 천, 그 노란 천, 퍼런 천으 다 드리우구, {그런데 이눔도 역시 사방에다 부서를 썩 붙이고 예, 그래 그 빨건 천, 그 노란 천, 퍼런 천을 다 드리우고,}

10811 # 그 다음에 좇불으 탁 켜 놓구, 그 다음에 귀신이 빠친 그 안간이 올찌세미르 그 솔낭그 이래 떡 쥐워서 야, 떡 앓히구, {그 다음에 좇불을 탁 켜 놓고, 그 다음에 귀신이 들린 그 아낙, 올케를 그 소나무 이렇게 떡 쥐게 해서 예, 떡 앓히고,}

10811 # 개구 무슨 좇빨건 슈건 같은 거 골에다 텍턱 씌우구. {그리고 무슨 시빨건 수건 같은 것을 머리에다 텍턱 씌우고,}

10811 # 노인덜이 말하는게 그 보는 듯이 하는데 야, 거 우리 아아때느 딱 불으 끄구 들 엇단 말이오. 귀신이 확실히 잇다는 선전인데 기게 야, 정말 잇는 걸르 듣디. 우리사 그거. {노인들이 말하는 것이 그 보는 듯이 하는데 예, 그거 우리 아이때는 딱 불을 끄고 들엇단 말이오. 귀신이 확실히 잇다는 선전인데 그것이 예, 정말 잇는 것으로 듣지. 우리야 그거.}

10811 # 개 대르 내는데, 복술이 양푼 덩덩덩덩덩 두들거서 땡 티구서느 말으 한단 말

이오. {그래 대를 내는데, 복술이 양푼 덩덩덩덩덩 두들겨서 땡 치고서는 말을 한단 말이오.}

10811 # 무스거, 무스거 어느 거 어느 거 못 가지구 갓는다, 천이무 천이라가구, 돈이무 돈이라가구, 그릇이무 그릇이라가구, 귀띠무 귀띠라구 하구 야. {무슨, 무슨 어느 것, 어느 것 못 가지고 갓는지, 천이면 천이라고 하고, 돈이면 돈이라고 하고, 그릇이면 그릇이라고 하고, 귀면 귀라고 하고 예.}

10811 # 못 가져가서 애수안 게 잇으무 그거 무시개라구서 가르치구 {못 가져가서 섭섭한 것이 있으면 그거 무엇이라고서 가리키고.}

10811 # 게 누기게 무슨 원한이 있어서 할 말두 못하구 가시무 그 말두 하구. {그래 누구에게 무슨 원한이 있어서 할 말도 못 하고 갓으면 그 말도 하고.}

10811 # 그거 막 추진단 말이오. 양푼으 두드리멘서. {그것을 막 주워섬긴단 말이오. 양푼을 두드리멘서.}

10811 # 그 사람으 그 혜뉴~우 하는 사람으 좀 학식이 잇는 아바닌데 야, 거 복술이 곁에 가서 그거 구겨~어 하메 듣다나니까, 담배르 피우구 술으 마시메 곁방에 앉아 듣다나니까더 잘 하더란 말이오. 듣기 좋기. {그 사람은, 그 시늉을 하는 사람은 좀 학식이 잇는 할아버지인데 예, 그 복술이 곁에 가서 그것 구경을 하며 듣다보니까,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곁방에 앉아 듣다보니까 잘 하더란 말이오. 듣기 좋게.}

10811 # 거 박병란이라느 아바니 야, 또 거런 데 저 흥취두 잇는 양반이다. 기억력두 좋구, 게 거저 그 장소에서 그거 거저 고대루 못 구경한 사람덜께다서 딱 말하는데, {그 박병란이라느 할아버지 예, 또 그런 데 저 흥취도 잇는 양반이지. 기억력도 좋고. 그래 그거 그 장소에서 그거 그저 그대로 못 구경한 사람들에게다 딱 말하는데,}

10811 # 게 한참쫘 그저 무시개라구 다 말하다사느 쾌익! 소리르 티멘서 야, 무시개라구 획 하네느 거 부세들이 절르서 야, 바름두 아니 부는데 스르륵 올라갔다 쭉 내려오구 야, {그래 한참쫘 그저 무엇이라고 다 말하다가서는 '쾌익!' 소리를 치면서 예, 무엇이라고 획 하니까 그 부서들이 저절로 예, 바람도 아니 부는데 스르륵 올라갔다 쭉 내려오고 예,}

10811 @ 부세들이요? {부서들이요?}

10811 # 부서르 써서 붙인 죠애. 게 그더 스르륵 올라갔다 스르륵 내려오구. 이쪽에다 놓은 즈름발 그 더, 천들이 색깔 천들이 흔들흔들흔들흔들 펄렁펄렁펄렁펄렁 이렇더라는 게디. {부서를 써서 붙인 종이, 그게 그저 스르륵 올라갔다 스르륵 내려오고, 이쪽에다 놓은 주름발 그 저, 천들이 색깔 천들이 흔들흔들흔들흔들 펄렁펄렁펄렁펄렁 이러더라는 거지.}

10811 # 기래네느 쟈쎈 더 사기르 내서 야, [x향분x] 잡아 두두리구 빙빙빙빙 그 솔낭그 쥐구 앓은 그 그 안간이르 빙빙빙빙빙빙 돌면서 야, 거더 솟궁기인 테르 그 [x불켈x]르서 야, 단방 때레 죽이는 척 하메 이래 막 이래멘서, {그러니까 점점 더 신을 내서 예, [x양푼x] 잡아 두드리고 빙빙빙빙 그 소나무 쥐고 앓은 그, 그 아낙

을 빙빙빙빙빙빙 돌면서 예, 그저 정수리인 테를 그 **로 예, 단박 때려 죽이는
척 하면서 이렇게 막 이러면서,}

10811 # 기래면서 도에르 한나 앉아서 탁 넣어서 어저느 대 난다, 도에르 한나 가져오
라. 디도에르. {그러면서 동이를 하나 앉아서 탁 넣어서 '이제는 대 난다, 동이를
하나 가져와라'.}

10811 # 기에 디도에르 떡 가져다 앞에다 떡 왔단 말이오. 거 더, 그 안간이. 대르 난,
그 내는 그 낭그 켜 안간이르 야. {그래 질동이를 떡 가져다 앞에다 떡 왔단 말
이오. 그 저, 그 아낙. 대를 난, 그 (대를) 내는 그 나무 켜 아낙을 예,}

10811 # 그 다음에 대르 버려라, 이래구. 기래는꺼더 그게 막 이래 후둘후둘후둘 떨어서
느 무슨 말을 하더라우. {그 다음에 '대를 버려라', 이러고. 그러니까 그게 막 이
렇게 후둘후둘후둘 떨어서 무슨 말을 하더라우.}

10811 # 나는 거저 천에 해에 가자던 거 무슨 무슨, 어느 무슨 저굴깜우, 그거 어디메다
어쨌든두 나를 아니 주구서 없어디구. {나는 그저 천에 해 가자던 것, 무슨 무슨,
어느 저고리감을, 그거 어디에다 어쨌는지 나를 아니 주고서 없어지고,}

10811 # 또 무스거 무스거느 어득이 돼구 었더디구 배 천이 어느거느 었더디구 배우구
리감이 없어디구 무스그 이런 말으 띄어 누루는데 {또 무엇 무엇을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배 천이 어느 것은 어떻게 되고 배우구리(?)감이 없어지고 무슨 이
런 말을 늘어놓는데}

10811 # 그 올찌세미는 실지르 야, 그 안간이, 그 새애기 죽은 다음에 스집우 왔는데 그
런 말으 띄어 누루는데 그, 그 새애기 에미, 들어보니까더 옳다 말이오 야, 이 우
리 며느리 오기 전에 딸이느 죽었는데 었드기 그거 아는가 하는 게디. {그 올케
는 실제로 예, 그 아낙, 그 처녀 죽은 다음에 시집을 왔는데 그런 말을 늘어놓는
데 그, 그 처녀 에미, 들어보니까 맞단 말이오 예, 이 우리 며느리 오기 전에 딸
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하는 것이지.}

10811 # 확실히 제 딸이 와서 그 사름우 통해서 그 말으 시기는 겐데 그 며느리는 어떤
기 잇엇구 없던 것두 모르는데 딱 맞게 탁탁탁탁 말한단 말이오. {확실이 자기
딸이 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말을 시키는 것인데 그 며느리는 어떤 것이 있었
고 없던 것도 모르는데 딱 맞게 탁탁탁탁 말한단 말아오.}

10811 # 기래 어저는 그거 걷어가지구서 가개시니까 네 어저느 네 가제갈 거느 내 다
걸어서 더 주개시니까, 네 혼자뿐이 애닌데, 따라온 귀신덜이 이게 무슨 귀신, 무
슨 귀신 막 부르더라우. {그래 이제는 그것을 걷어가지고 가겠으니까 너 이제는
너 가져갈 것은 내가 다 걸어서 주겠으니까. 너 혼자뿐이 아닌데, 따라온 귀신들
이 이게 무슨 귀신, 무슨 귀신 막 부르더라우.}

10811 # 어디메서 온 무슨 귀신이 어디메서 온 무슨 귀신이 야, 어느 북망산에 잇엇던,
무슨 어느 거지 구신이 남자없는 귀신이 어느 해앤이구 무슨 어느 더퀴구 야.
{어디에서 온 무슨 귀신, 어디에서 온 무슨 귀신이 예, 어느 북망산에 잇엇던 무
슨 어느 거지 귀신이 남자없는 귀신이 어느 해앤이고 무슨 어드 더퀴고 예,}

10811 # 해 귀신 명단이란 탁탁탁탁 부르면서 이 잡것들이 다 모다서 너르 해티니까 오

놀은 내 시기는대루 가꿈 걷어가지구 가라 하면서 야, 기에 곁에 것덜이 얻어먹
자구서 귀신덜이 말으 안 듣는단 말이오. {헤 귀신 명단을 탁탁탁탁 부르면서 '
이 잡것들이 다 모여서 너를 해치니까 오늘은 내 시키는대로 싹 걷어가지고 가라
' 하면서 예, 그레 곁의 것들이 얻어먹자고 귀신들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오.}

10811 # 그 귀신들으 만져 잡아 놓어야 돼겠는데, 네 아무아무 귀신이 네 이노음! 하구
서 양푼으 땅 티구서 야, 거 술낭그, 단으 요막씩 딱딱 묶었다구. 술낭그 뉘우,
{그 귀신들을 먼저 잡아 놓어야 되겠는데, '너 아무아무 귀신 네 이놈!' 하고서
양푼을 땅 치고서 예, 그 소나무, 단을 요만큼 딱딱 묶었다고. 소나무 잎을.}

10811 # 요막씩 길게 해서. 경계다서 아무 귀신이라는 거 떡 쓴단 말이오. 야. 이거는 아
무 귀신이다, 그, 그거는 아무 귀신, 아무 귀신 그거 다 넣어놔단 말이오. 술낭그
단에다서. {요만큼 길게 해서. 거기에다 아무 귀신이라는 것을 떡 쓴단 말이오,
예. 야, 이것은 아무 귀신이다, 그, 그것은 아무 귀신 그것 다 넣어놔단 말이오.
소나무단에다가서.}

10811 # 붓글썰르서 탁 써서 야, 조애르 텍 감아 붙엿는데 네 이놈, 아무 아무 귀신이
네 무스거 더 얻어먹자구서 앓는 사름으 해티문서 곁에서 빙빙 도느냐! 땅땅땅땅
티면서 개꿈 날래 잡아 디레라 하네스 {붓글씨로 탁 써서 예, 종이를 텍 감아 붙
였는데 '네 이놈, 아무 아무 귀신 너 무엇을 더 얻어먹자고 앓는 사람을 해치면
서 곁에서 빙빙 도느냐!' 땅땅땅땅 치면서 '모조리 얼른 잡아 들여라!' 하니까}

10811 # 거 앓는 사름이 야, 그거 가래에서 켜다구 이래. 손우 후둘후둘후둘 [x떨레서x]
이래 떡 췌에서 거 도에 안에다느 놓어야 돼디 야. 거 도에 안에다서. 가되놓는
게 그렇단 말이오. {그 앓는 사름이 예, 그것을 가려서 켜다고, 이렇게. 손을 후둘
후둘후둘 [x떨면서x] 이렇게 떡 쥐어서 그 동이 안에다 놓어야 되지, 예. 그 동이
안에다가서. 가두어 넣는 것이 그렇단 말이오.}

10811 # 그 도에 안에 들으가디 마자구션 맥, 이래 맥으 쓰는데 그 귀신이, 그 단이, 술
낭그단이 귀신인데 그게, 이게 대르 안는 사름이 귀신이 빠친 사름이 그거 넣어
서 거기다서 놓어야 돼겠는데, 떡 쥐구서는 놓자네느 들어 안 가자구 이게 빠득
질한단 말이오. {그 동이 안에 들어가지 말자고서 힘, 이렇게 힘을 쓰는데 그 귀
신이, 그 단이, 소나무단이 귀신인데 그게, 이것이 대를 안는 사름이 귀신이 들린
사름이 그것을 넣어서 거기에다가서 놓어야 되겠는데, 떡 쥐고서는 놓자고하니까
안 들어가자고 이것이 버팀질한단 말이오.}

10811 # 기래 넣겠다구서 이래구 이거는 귀신이느 안 들으가겠다구. {그래 넣겠다고서
이러고 이거는 귀신은 안 들어가겠다고 하고.}

10811 # 기래니까 이게 보는 사름마다, 야, 이게 귀신이 이게 정말 대단하다. 갠테 더거
잡아 딜이는 더 복술이, 아, 대단한 메~인이다. 테, 정말 여~웅, 여~웅, 정말 '대방
괘'라구서. 방법이 많구 수단이 많은 그런 '대방괘'다. {그러니까 이게 보는 사름
마다, '야, 이게 귀신이 이게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저것 잡아들이는 저 복술이,
아, 대단한 명인이다. 저, 정말 영웅, 영웅, 정말 '대방괘'라고서. 방법이 많고 수
단이 많은 그런 '대방괘'다.}

- 10811 # 게 호려~어 냅다 한단 말이오. [x잡아x] 두드리구서 무슨 가끔 물러나구 무슨 아무데 귀신의 불리다서 너르 어떻게 하겠다가구, {그래 호령을 냅다 한단 말이오. [x잡아x] 두드리고서 무슨 가끔 물러나고 무슨 아무 데 귀신을 불리다가서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 10811 # 그거 불러오기 전에 네 날래 질르 순순히 들으라 하면서 땡땡 잡아 들이문 마감에 었디디 못해서 스프르르 들으간 거 거기다 떡 놓우문 그 복술이 또 야, 그, 더 복채 잇대니우? 그 채르 가지구서 그, 고, 그 둥기, 도에 아구리르 이래 획 젓으면서 너느 어저느 못 나온다 딱 테놓구, 기래구 한나 가와 넣엇단 말이오. {그것을 불러오기 전에 너 어서 스스로 순순히 들어가라 하면서 땡땡 잡아 들이면 마지막에 어찌지 못해서 스프르르 들어간 것을 거기다 떡 놓으면 그 복술이 또 야, 그, 저 복채 있잖소? 그 채를 가지고서 그, 고, 그 두명, 동이 아구리를 이렇게 획 젓으면서 너는 이제는 못 나온다 딱 쳐놓고, 그러고서 하나 가워 넣엇단 말이오.}
- 10811 # 갠데 그게 귀신이 술한 귀신인데 그게 다 잡아 넣어야 돼디. {그런데 그게 귀신이 술한 귀신인데 그게 다 잡아 넣어야 돼지.}
- 10811 # 개 또 그 다음에 또 냅다 가래우문사 티구서 빙빙빙빙 떠서 아무 귀신이 아무 데서 와서 무슨 얻어먹자구서 안직두 네 말으 안 듣구서 거기서 빙빙 돌아티메 앓는 사름으 해티느냐. 같이 따라댕기메 그만이 얻어먹어서문 됐디, 바랄 게 무시기 잇어서 야, 이래면서 막 구며~어 하구 어부성 티구 [x못을x] 혁 티면서 가끔 잡아넣어라 하문 {그래 또 그 다음에 또 냅다 가리면서 치고서 빙빙빙빙 떠서 '아무 귀신이 아무 데서 와서 무엇을 얻어먹자고서 아직도 너 말을 안 듣고서 거기서 빙빙 돌아다니면서 앓는 사람을 해치느냐.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만큼 얻어먹었으면 됐지, 바랄 것이 무엇이 잇어서, 예', 이러면서 막 구멍을 하고 요란스럽게 떠들고 ** 혁 치면서 '모조리 잡아넣어라!' 하면,}
- 10811 # 그 앓는 사름이 또 그거 가래에서 췌 언녕 아깨 식을르서 게 바빠 넣구 어쁜 거느 고더 [x고조소고리x] 쑥 들으가구, 약한 귀신은. {그 앓는 사름이 또 그거 가려서 쥐어 얼른 아까 식으로서 그것을 힘들게 넣고 어떤 것은 그저 [x다소곳이x] 쑥 들어가고, 약한 귀신은.}
- 10811 # 개 억센 귀신들으느 서너번, 너덧번씩 호려~어 해애사 게구나 넣어서 한 알땃 귀신의 그 안에다 떡 잡아 넣으무 그게 찬단 말이오. {그래 억센 귀신들은 서너번, 너덧 번씩 호령을 해야만 겨우 넣어서 한 열땃 귀신을 그 안에다 떡 잡아 넣으면 그게 찬단 말이오.}
- 10811 # 그 다음에 그 우에다서 백지르 떡 덮어서 녀과리르 왜삿이라는 게 잇소.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백지를 떡 덮어서 가장자리를 외삿이라는 것이 잇소. }
- 10811 # 이룽기, 이룽기 꼬무 오른삿이디마느 이룽기 꼬무 왜삿이거덩. {이렇게, 이렇게 꼬면 오른삿이지만 이렇게 꼬면 외삿이거든.}
- 10811 # 그 왜삿으 서 발으 가지구서 그거 도에르 떡 봉한단 말이오. 우으 덮은 죠애르. 떡 뽕 돌과서 떡 봉하구서 우에다서 부셰르 탁 쓰구 그 꼭대게에 그 죠애애다서

부셰르 탁 써서 이거 어저느 가져다서 아무 데다 파 묻어라 하디, 머. 알케준 방향에다서. {그 외삿을 세 발을 가지고서 그것 동이를 떡 봉한단 말ियो. 위를 덮은 종이를. 떡 빙 돌려서 떡 봉하고서 위에다 부서를 탁 쓰고 그 꼭대기에 그 종이에다가서 부서를 탁 서서 '이거 이제는 가져다가 아무 데에다 파묻어라' 하지 뭐. 가르쳐준 방향에다가서.}

10811 # 아무아무데다 개다 파 묻어라 하문 곁에 친척에 사름덜이 모았던 사름덜이 그 술낭그 도에르 들구 가디. {'아무아무 데에다 가져다 파묻어라' 하면 곁의 친척의 사람들이 모였던 사람들이 그 소나무 동이를 들고 가지.}

10811 # 게 들구 가서 구데에 파구서 그, 도에채르 착 파묻아 데디우. 개문 벼~이 똑 떨어데 나갔단 말ियो. {그래 들고 가서 구덩이를 파고서 그, 동이 채로 착 파묻어버리요. 그러면 병이 똑 떨어져 나갔단 말ियो.}

10811 # 그런 일이 잇엇다구서 그 늙은이 말하는데 야, 그 듣건대는 굉장하더란 말ियो. {그런 일이 잇엇다고서 그 늙은이 말하는데 예, 그 듣건대는 굉장하더란 말ियो.}

10811 # 음, 거 듣는 데 사름덜이 술한 게 앓아서 이래구 앓아서 듣디 머. 거저. 어. {음, 그 듣는 데 사람들이 술한 게 앓아서 이러고 앓아서 듣지 뭐. 그저. 응.}

10811 @ 그게 어느때 이야김두? {그게 언제 이야기입니까?}

10811 # 그게 어뻤던간에 우리 나기 전에 일이랍데. 음, 그 아바니 게 그때 한 육십이 넘었으니까. {그게 어뻤던간에 우리 태어나기 전에 일이라고 합디다. 음, 그 할아버지 그게 그 때 한 육십이 넘었으니까.}

10811 # 그래서 귀신의 잡아딜이는 복술이르 봤다구서 벼~이, 야, 벼~이 떨어디구. {그래서 귀신을 잡아들이는 복술이를 봤다고 병이, 예, 병이 떨어지고.}

10811 # 갠데 그거 야, 그 천들이나 야, 그 비넬르 무슨 야, 그 은가락지랑 스집갈 때 줄 거, 쥐가지구 가는 게 잇단 말ियो. 실패요, 무스그 야, 이런 거. 뭐 그리 대단한 게 잇엇겠소? 그, 그 때에. {그런데 그것 예, 그 천들이나 예, 그 비너를 무슨 예, 그 은가락지랑 시집갈 때 줄 것, 쥐가지고 가는 게 잇단 말ियो. 실패요, 무슨 예, 이런 것. 뭐 그리 대단한 게 잇엇겠소? 그, 그 때에.}

10811 # 게 그런 거 싹 다, 새애기 죽으니까더 어떤 거느 아깝아서 저 형데끼리나 곁입이 거 삼춘택에나 이런 사름들께다 한 개지씩 줬단 말ियो. {그래 그런 것 싹 다, 처녀가 죽으니까 어떤 것은 아까워서 자기 형제끼리나 곁의 그 삼춘택에나 이런 사름들에게 한 가지씩 줬단 말ियो.}

10811 # 게 죽은 사름이느 그거 제 개져가디 못해서 아깝아 하는데, 거 태와 데디무 가제간 걸르 돼디. 아니 태왔단 말ियो. {그래 죽은 사름은 그것을 자기가 가져가지 못해서 아까와 하는데, 그 태워버리면 가져간 것으로 되지. 안 태왔단 말ियो.}

10811 # 개 더 그게 올찌세미게 탁 빼줬단 말ियो. 시집오기 전에 죽은 올찌세미게 빼쳐서, {그래 저 그게 올케에게 탁 들렸단 말ियो. 시집오기 전에 죽은 올케에게 들려서,}

10811 # 그게 어떤 게 어떤 게 어디로 간 거 그 새애기 입으, 귀신이 그 올찌세미게르 통해서 말으 시게서, 해서, {그게 어떤 것이 어떤 것이 어디로 간 것을 그 처녀

입을, 귀신이 그 올케를 통해서 말을 시켜서, 해서}

10811 # 거 귀신덜이 거 또 따라가서 네 거, 거 찾아오라구 해서 야, 더퀴덜이 거 찾아오라구서 뜰게가지구서 와서 네 올찌세미게 빼쳐서. {그 귀신들이 그 또 따라가서 네 것, 그 찾아오라고 해서 예, 더퀴들이 그 찾아오라고 부추겨서 와서 네 올케에게 들려서}

10811 # 앓느라고사 무슨, 거 티서어 하구 무스거 그런 거 한단 말ियो. 그거, 그 귀, 귀신덜이 얻어먹엇단 말ियो. {앓느라고 무슨, 그 치성을 하고 무슨 그릇 것을 한단 말ियो. 그것을, 그 귀신들이 얻어먹엇단 말ियो.}

10811 # 게 자꾸 더 얻어먹, 맥자구서 더 앓기게 하디. {그래 자꾸 더 얻어먹자고서 더 앓게 하지.}

10811 # 기래 거 복술이란 게 그 귀신덜의 자아('다'를 잘못 말한 듯 함) 잡아넣구, 그 본인 소감대루 다 찾아사자 태와 데디구 기래구 벼~이 떨어뎃단 말ियो. {그래 그 복술이라는 게 그 귀신들을 다 잡아넣고, 그 본인 소감대로 다 찾아서 태워버리고 그러고 병이 떨어졌단 말ियो.}

10811 @ 그렇습두? {그렇습니까?}

10811 # 야. 기래 그거 용한 대방패라구서. {예. 그래 그거 용한 대방패라고서.}

10811 @ 그 대방패라는 게……? {그 대방패라는 것이……?}

10811 # 대방패라는 게, 거 모르겠소. {대방패라는 것이, 그 모르겠소.}

10811 # 패라는 게 그게 머 귀신이……보다 '귀신 패'엔두 게. 괴, 응, 대방패, 괴르 패라 가디. {패라는 것이 그게 뭐 귀신이……보다 '귀신 패'인지 그것이. 괴, 응, 대방패, 괴를 패라고 하지. }

10811 @ 아바니, 그 더퀴라는 거느? {할아버지, 그 더퀴라는 것은?}

10811 # 더퀴라는 거느 귀신두 못 돼구 그더 떠돌아 땡기는 거. 귀신이 채 못 뎃단 말ियो. {더퀴라는 것은 귀신도 못 되고 그저 떠돌아 다니는 것. 귀신이 채 못 뎃단 말ियो.}

10811 # 귀신에 향렬에 들디 못한 게디. 더퀴. {귀신의 향렬에 들지 못한 것이지.}

10811 # 켜데 더퀴는 시집 못 간 새애기던디 그 다음에 더 서바~아 못 간 총각 죽음이던디, 야. 열 대여섯살씩 먹은 이런, 이런 게 죽은 게. {그런데 더퀴는 시집 못한 처녀던지, 그 다음에 저 장가 못 간 총각 죽음이던지, 예. 열 대여섯살씩 먹은 이런, 이런 것이, 죽은 것이.}

10811 # 귀신이 발며~어 못한 게란 말ियो. 그거 더퀴라가디. 머. {귀신이 발명을 못한 것이란 말ियो.}

10811 @ 아 그렇습두? {아, 그렇습니까?}

10811 # 응. {응.}

10811 # 그 다음에 왜앤이라는 게 잇는데 또 야. 왜앤이라는 거느 어저는 다 거 친척이 구 자손 만대 몇 대르 내레가면서 뿌레데뎃단 말ियो. 더느 산제두 아니 기내구, 기제두 안 데디구. 임자없는 귀신이, 고훈이 뎃단 말ियो. {그 다음에 왜앤이라는 것이 잇는데 또 예. 왜앤이라는 것은 이제는 다 그 친척이고 자손 만대 몇 대를

내려가면서 뿌려버렸단 말이오. 더는 산제도 안 지내고, 기제도 안 지내고. 임자 없는 귀신이, 고훈이 됐단 말이오.}

10811 # 기에 그게 화앤이 돼서 떠돌아 댕긴단 말이오. 그거 화앤이라 하디. 머. {그래 그것이 화앤이 돼서 떠돌아 다닌단 말이오. 그것을 화앤이라고 하지 뭐.}

10811 @ 돌보는 후손이 없는 귀신이…… {돌보는 후손이 없는 귀신이……}

10811 # 야, 후손이 있어두 내애 뼈렷단 말이오, 어저느. 응. 제새두 안 기내구. 그게 화앤이다. {예, 후손이 있어도 내버렸단 말이오. 이제는. 응. 제사도 안 지내고. 그게 화앤이지.}

10811 # 더퀴는 귀신이 발며~어 못한 게. 스집우 안 가구 서바~아 안 간 게. 게 아아덜 죽은 거는 화앤이 웬다 더퀴 돼는 법이 없다. {더퀴는 귀신이 발명을 못한 것. 시집을 안 가고 장가를 안 간 것. 그래 아이들 죽은 것은 화앤이 되거나 더퀴 되는 법이 없다.}

10811 # 그저 더 년자~이, 그저 십오 세 이상 돼서 시집 장가르 못간 거 죽우문 더퀴 댜단 말이오. 음. {그저 더 연장(年長)이, 그저 십오 세 이상 되어서 시집 장가를 못간 것이 죽으면 더퀴 댜단 말이오. 음.}

10811 @ 귀신이 발명 못했다는 게 귀신이 아이 댜다는 애김두? {귀신이 발명 못했다는 것이 귀신이 안 댜다는 얘기입니까?}

10811 # 귀신이, 대열에 못섰다는 게디. 귀신자격으 못 가졌단 말이오. 어. {귀신 대열에 못섰다는 것이지. 어.}

10811 @ 그거 발명이 못됐다 함두? {그것을 발명이 못 되었다고 합니까?}

10811 # 귀신이 발명. 귀신 자격즈~이란 말이오. 귀신 자격즈~으 못 댜다는 게디. {귀신 발명. 귀신 자격증이란 말이오. 귀신 자격증을 못 댜다는 것이지.}

10811 # 발, 려~이라구 하대니우? 즉금 무스그. 야. 너느 어떠어떠한 일으 해라 하는 발려~이 내려오댕구 어떻소? {발, 령이라고 하지않소? 지금 무슨, 예. 너는 어떠어떠한 일을 해라 하는 발령이 내려오지않고 어떻소?}

10811 @ 음, 발령이 내렸습꾸마. {음, 발령이 내렸습니다.}

10811 # [x발퀴x] 귀신, 거, 거 더 두목덜이 예, 명, 명려~이라는 명. 명려~어 내리우대냈단 말이오. 귀신에 들어오는 명려~어 몬 받았단 말이오. {** 귀신, 그, 그 두목들이 예, 명, 명령이라는 명. 명령을 내리지 않았단 말이오. 귀신에 들어오는 명령을 못 받았단 말이오.}

10811 # 그게 발명, 귀신이 발며~어 못 받았다구. {그것이 발명, 귀신 발명을 못 받았다고.}

10811 @ 그럼, 아주 어린 아아 죽으문 무스그 댜두? {그럼, 아주 어린 아이가 죽으면 무엇이 됩니까?}

10811 # 그거는 뭐, 뭐, 귀신이 애니디, 머. 그저. 아무 것두 더, 더퀴두 애니구, 귀신두 아니구 화앤두 애니구. {그것은 뭐, 뭐, 귀신이 아니지 뭐. 그저 아무 것도 더, 더퀴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화앤도 아니고.}

10811 @ 그럼 무시기 댜두? {그럼 무엇이 됩니까?}

10811 # 거 없단 말이오. 그러무. {그 없단 말이오. 그러면.}

10811 @ 귀신 말구 이렇게 뽀 나구 이런 거는…… {귀신 말고 이렇게 뽀 나고 이런 것은……}

10811 # 아, 그거는 도깨비구. {아, 그것은 도깨비고.}

10811 @ 아, 따암두? {아, 다릅니까?}

10811 # 아, 도깨비사 귀신에 아니 드디. 며. {아, 도깨비야 귀신에 안 들지 뭐.}

10811 @ 그 무스갸두? {그럼 무엇입니까?}

10811 # 거는 거저 직금 유령, 유령 하는데 야, 유령 등속이다. 그게 원래 없는 게구 또, 도깨비라는 것두 원래 없단 말이오. 그게, 아니 존재르 하디. 며. {그것은 그저 지금 유령, 유령 하는데 예, 유령 등속이지. 그것이 원래 없는 것이고 또, 도깨비라는 것도 원래 없단 말이오. 그것이, 존재를 하지 않지.}

10811 # 게 허재비르 보는 게, 눈에 선히 배우구, 눈으 감으네는 서물서물 배우구, 뽀난 것두 애구, 더, 더 입이 쪽 찢개디구, 니빨이 엉켰구 야, {그래 허깨비를 보는 것이, 눈에 선히 보이고, 눈을 감으면 서물서물 보이고, 뽀난 것도 있고, 저, 저 입으 쪽 찢어지고, 이빨이 길게 밖으로 드러나고 예,}

10811 # 이래……(이빨이 엉켰구……) 나, 그런 거 보문, 꿈에나 보문 도깨비 그, 봤다가구. 그래는데. {이래……(이빨이 길게 밖으로 드러나고……) 예, 그런 것을 보면, 꿈에나 보문 도깨비 그, 봤다하고. 그러는데.}

10811 @ 엉켰다는 게 무시기 말임두? {엉켰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10811 # 이래 엉키기 쪽 나온 거 니빨이. 엉켰디, 며. 이래 설피기, 길기 쪽쪽 드리운 거. 귀신의 그리는 게랑 그렇댁구 어떻소? {이렇게 이빨이 밖으로 쪽 길게 나온 것, 엉켰지 뭐. 이래 길게 쪽쪽 드리운 것. 귀신을 그리는 것이랑 그렇지 않고 어떻소?}

10811 # 도깨비르 그리는 게랑 다 그렇댁구 어떻소? 그림우. {도깨비를 그리는 것이랑 다 그렇지 않고 어떻소. 그림을.}

10811 @ 니빨이…… {이빨이……}

10811 # 눈이랑 뽀룽기 쪽 가르 찢애디게 맨들구. 게, 게 결국으는 야, 유려~이란 말이오. 사름이 환사~에 나타나는 거. {눈이랑 뽀나게 쪽 가로 찢어지게 만들고, 그것이, 그것이 결국은 예, 유령이란 말이오. 사람의 환상에 나타나는 것.}

10811 # 거 없는 게디 며, 다. 기랜데 전설으느나 넷말에느 도깨비 말이 많다구. {그것은 없는 것이지 뭐. 다. 그런데 전설이나 옛말에는 도깨비 말이 많다고.}

10811 @ 아……

10811 # 거 도깨빌래서 무슨 사름이 홀리워 땡기거나 그런 거는 뽀르 있는 것 같대니해. 귀신이 빠치거나 더퀴 불거나 해안이 불는 거는 잇는데. {그 도깨비이기 때문에 무슨 사름이 홀려 다니거나 그런 것은 뽀로 있는 것 같지 않아. 귀신이 들리거나 더퀴 불거나 해안이 불는 것은 잇는데.}

10811 # 해애니느 어떤 데서 불는가 하니까 야, 사름이 홀 고단해구, 줌 기진맥진해에서 먼 길을 걸어가는데, 거 해안이 드나드는 문토~이 잇단 말이오. {해애이는 어떤

데서 붙는가 하니 예, 사람이 홀 고단하고, 좀 기진맥진해서 먼 길을 걸어가는데, 그 왜앤이 드나드는 문턱(?)이 있단 말이오.}

10811 # 게 회룡보~에서는 어디덴가 하니까 노전으 홀 지나서 그, 흠이 잇탱구 어떻소? 수문 같은 거 하나 해애놓구 노전 앞에 야, 그쭈만에 이전에는 다리 잇었소. {그 회룡봉에서는 어디쭈인가 하니까 노전을 홀 지나서 그, 흠이 있지않고 어떻소? 수문 같은 것 하나 해놓고 노전 앞에 예, 그쭈에 이전에는 다리가 있었소.}

10811 # 그 흠에다 다리르 놓았소. 즉금은 향관으 묻어서 도까아 묻어서 야, 거 물이 내려라 했디마는 전에느 다리르 놓았다구. {그 흠에다 다리를 놓았소. 지금은 배수관을 묻어서 예, 그 물이 내려가게 했지만 전에는 다리를 놓았다고.}

10811 # 그 다리르 건널 때문 늘상 왜앤이 게 붙는다구 했소. {그 다리를 건널 때면 늘 살 왜앤이 그것이 붙는다고 했소.}

10811 @ 아, 그렇습두? 그러문 그 어떻, 어떻게 거 기나 땡졌습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어떻게 거기를 지나다녔습니까?}

10811 # 그래서 거 맥이 진해서 흔들흔들하구 이래 오다서는 야, 앞에서 무시기 크다:산게 턱 나사나서 야, {그래서 그 맥이 진해서 흔들흔들하고 이렇게 오다보면 예, 앞에서 무슨 커다란 것이 턱 나타나서 예,}

10811 # 개 이래 보차가네느 또 커디구 커디구 커디구 이래 자꾸 올리보다 보다나무 두을르 쭈 대배진단 말이야, 사름이 야. 진한 맥에 개 홀 물았다. 개 홀 물았아문 원래 진한데다가서 거더 세상 모르구서 게다 쿨쿨쿨쿨 자디. {그래 이렇게 보가고하면 또 커지고 커지고 커지고 이렇게 자꾸 올라다 보다보면 뒤로 쭈 자빠진단 말이야, 사름이 예. 진한 맥에 그래 홀 주저앉지. 그래 홀 주저앉으면 원래 진한데다가 그저 세상 모르고 그러다 쿨쿨쿨쿨 자지.}

10811 # 개서 아침이 돼나 사름이 가다가 발견하문 아이구 이게 어떻게 돼서 이롭게 됐는가구. {그래서 아침이 되어 사름이 가다가 발견하면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가고.}

10811 # 야, 말으 말아라, 엇저낙에 왜앤이게 붙덜케서 내 여기서 세상 모르구서 굶아 떨어뻤다구서. {야, 말을 말아라. 엇저녁에 왜앤이에게 붙들려서 나 여기서 세상 모르고 굶아 떨어졌다고서.}

10811 # 기래 그런 거 왜앤이라구 한단 말이오. 한 사름 뿐이 아니래우. 그렇기 거 문토~에서 야래애 그런 경과를 경해, 겪었던 말이오. {그래서 그런 것을 왜앤이라고 한단 말이오. 한 사름 뿐이 아니라오. 그렇게 그 문턱(?)에서 여럿 그런 경과를 겪었던 말이오.}

10811 # 기래 [x김선해x] 다래에 왜앤이 잇니라, 왜앤이 잇니라, 그렇기 돼앰디. 우리 아아때 거기 땡길 때 멍심해애라. {그래 [x김선해x] 다리에 왜앤이 있느니라, 왜앤이 있느니라, 그렇게 되었지. 우리 아이때 거기 다닐 때 조심해라.}

10811 # 그래 거기 기날 때애느 엇디문 돼는가 하문, 춤우 세 번으 튼, 튼, 튼, 밧구 위어리 위리, 위어리 위리, 위어리 위리. 개르 키우라는 게디. 거 왜앤이느 개르 숲에한다우. {그래서 거기를 지날 때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침을 세 번을 튼,

똥, 똥 뽏고 워어리 워리, 워어리 워리, 워어리 워리. 개를 키우라는 것이지. 그
왜앤이는 개를 싫어한다오.}

10811 @ 아, 그렇습두? {아, 그렇습니까?}

10811 # 나, 그래 개르 부르문 왜앤이 왔다두 달아난다는 게디. {예, 그래 개를 부르면
왜앤이 왔다가도 달아난다는 것이지.}

10811 # 그래서 우리 더, 이도포에 친척이 많다나니꺼더 고모넬르, 왜갈르, 야, 금당이랑
이래 있다나니꺼더 늘상 어머니가 같이 갔다서 늦어서 올 때, 해 넘어가서 거기
지나올 때 잇단 말이오. {그래서 우리 저, 이도포(훈춘시 경신진 진정부 소재지)
에 친척이 많다보니까 고모네며, 외가며 예, 금당(지명)이랑 이렇게 있다보니까
늘상 어머니와 같이 갔다가 늦어서 올 때, 해 넘어가서 거기를 지나올 때 잇단
말이오.}

10811 # 기래무 우리 어머니, '야, 개르 불러라. 왜앤이, 왜앤이 불으리라.' 기라문 난 세
상 모르구 워어리 워리, 워어리 워리, 똥이, 똥이, 똥이 이라메 기나뎡겠디. 머.
{그러면 우리 어머니께서 '야, 개를 불러라. 왜앤이, 왜앤이 불겠다.' 그러면 나는
세상 모르고 워어리 워리, 워어리 워리, 똥, 똥, 똥 이러면서 지나다녔지 뭐.}

10811 @ 춤우 그랬습두? {침을 그렇게 했습니까?}

10811 # 춤우 발으무, 세 번 춤우 발구 개르 세 번 부르무 왜앤이 안 붙는다는거 엇디겠
소? {침을 뽏으면, 세 번 침을 뽏고 개를 세 번 부르면 왜앤이 안 붙는다는 것을
어찌겠소?}

10811 @ 아, 그렇습니까?

10811 # 어, 그래 게 엇대 기래는 것두 모르구 그저. {어, 그래 그것이 어째서 그러는 것
인가도 모르구 그저.}

10811 # 음, 내꺼지두 거기 기넬 때 어맨가 같이 뎡기문 야, 그래 해 봤소. {음. 나까지
도 거기를 지날 때 어머니와 같이 다니면 예, 그렇게 해 봤소.}

10811 @ 음, 음, 더퀴, 더퀴는 어찌 붙습두? {음, 음, 더퀴, 더퀴는 어떻게 붙습니까?}

10811 # 더퀴라는 거느, 쫓, 기계, 귀신이 발며~어 못한 켜데, 귀신보다 약하단 말이오.
{더퀴라는 것은, 쫓, 그것이, 귀신이 발명을 못한 것인데, 귀신보다 약하단 말이
오.}

10811 # 음, 그저 붙었다두 거저 [x대송은x], 거저 무스그 맥이문 그저 인차 달아난단
말이오. {음, 그저 붙었다가도 그저 [x대개는x], 그저 무엇을 먹이면 그저 바로 달
아난단 말이오.}

10811 @ 엇디 맥임두? {어떻게 먹입니까?}

10811 # 게 더, 아아랑 앓으네느 야, 그, 그 복술이느, 그 도인으 개다 배운단[pwεundan]
말이오. 야아 이게, 엇대 이게 메출으 좀 때때부랭기 먹두두 앓구 이래 때르 내구
아아 썩 예베에 간다구. {그것이 저, 아이가 앓으면 예, 그, 그 복술이를, 그 도인
을 데려다 보인단 말이오. 야 이것이 어째 이것이 며칠을 좀 시원찮게 먹지도 앓
고 이렇게 때를 쓰고 아이가 썩 여워어 간다고.}

10811 # 개 게 떡 번데디무 데 게 더퀴 붙었구나. 기라메 알케에 주디. 머. {그래 그것이

떡 뒤집어지면 저 그 더퀴 붙었구나, 그러면서 알려주지 뭐.)

10811 # 그거 진지르 떠서, 진지르 한 사발으 해애사, 한 종지르 해애서, 거 아무데 가서 무르츠각질 해애라. {그거 진지를 떠서, 진지를 한 사발을 해서, 한 종지를 해서, 그 어느 곳에 가서 물리치는 일을 해라.}

10811 # 거게다 농구서 무르쳐데디라구. {거기다가 농고서 물리쳐버리라고.}

10811 # 무르츠각질 해애라. 거기 개다 농구서. 농구서 돌아서구 잇으라구. 응. {물리치는 일을 해라, 거기에 가져다 농고서. 농고서 돌아서 잇으라고. 응.}

10811 # 그릇에 담아서 사~에 받혀서 그 밥우, 진지르 한나 딱 가져다농구서 돌아서 잇으라구. {그릇에 담아서 상에 받쳐서 그 밥을, 진지를 하나 딱 가져다 농고서 돌아서 잇으라고.}

10811 # 거 무슨 빌거나 그런 것두 없이, 거더 돌아서 잇으라구. {그 무슨 빌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저 돌아서 잇으라고.}

10811 # 기래 돌아서 잇다가서 거 경계다서 쏘아서 파묻어놓구 집에 오문 똥다구, 그래서 시킨단 말이오. {그래 돌아서 잇다가 그 거기에다가 쏘아서 파묻어놓고 집에 오면 된다고, 그렇게 시킨단 말이오.}

10811 # 기래무 집으 와서 한 이틀 기나무 아아 또 벼~이 떨어디구, 더퀴 달아났단 말이오. 거 얻어먹구서. {그러면 집에 와서 한 이틀 지나면 아이 또 병이 떨어지고, 더퀴 달아났단 말이오. 그것을 얻어먹고서.}

10811 # 개 무르츠각질, 더퀴 무르쳐각질으느 험하다구. 험히 떨어딘다구. 기계 폐폐부레 한 감기걸린 거길래 그르기 떨어디디, 무슨 더퀴……어, 무르춘다구. {그래 물리치는 일, 더퀴 물리치는 일은 쉽다고. 쉽게 떨어진다고. 그게 별것 아닌 감기 걸린 것이기에 그렇게 떨어지지, 무슨 더퀴……어, 물리친다고.}

10811 @ 그러면 그, 진지라는 거는 그림, 더퀴한테만 맥이는 켜두? {그러면 그, 진지라는 것은 그림, 더퀴에게만 먹이는 것입니까?}

10811 # 야, 진지는 거 다 제새르 기넬 때두 진지두 쟁구, 개 머 이상 사~에다서 올리는 밥두 진지라가디. {예, 진지는 그 다 제사를 지낼 때도 진지도 짓고, 그래 뭐 웃어른 상에다가 올리는 밥도 진지라고 하지.}

10811 @ 더퀴는 무스그 먹으라구 진지르 채려쭈두? {더퀴는 무엇을 먹으라고 진지를 차려쭈니까?}

10811 # 응, 그 밥우 먹구 가라구 기래디. 게 밥이란 말이오. 진지라는 게, 결국…… {응, 그 밥을 먹고 가라고 그러지. 그게 밥이란 말이오. 겹지라는 것이 결국……}

10811 @ 밥이랑 햄은 아이……? {밥과 반찬은 아니……?}

10811 # 아, 없디. {아, 없지.}

10811 @ 햄두 없구 밥…… {반찬도 없고 밥……}

10811 # 나, 밥인데루 거 좀, 저 풀진 밥이, 풀진 밥우 한단 말이오. {예, 밥인데 그 좀, 저 찰진 밥, 찰진 밥을 한단 말이오.}

10811 @ 풀진 밥이라 하암두? {‘풀진 밥’이라고 합니까?}

10811 # 음, 찰밥이디 기계. 차넉쌀이나 조이찰쌀, 그런 걸르 한단 말이오. 기자~이나.

{음, 찰밥이지 그것이. 찰쌀이나 차좁쌀 그런 것으로 한단 말이오. 기장이나.}

10811 # 게 귀신놀음이 꼬 그 마암에 안 들어두 엇디겟소? 이사는, 이사는 없디, 벼~어는 때에야 돼갓디. 게 그럼 그런가 하구서 정서~어 넣어서 한단 말이오. 기래두 거. {그 귀신 놀음이 그, 그 마암에 안 들어도 어찌겟소? 의사는, 의사는 없지. 병은 고쳐야 되겠지. 그래서 그럼 그런가 하고서 정성을 넣어서 한단 말이오. 그래도 그것.}

10811 # 개무 엇디게 때에서 떨어디거등. 기래서 그때 사름덜은 ‘야, 이 귀신이 있다. 헌사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때어서 떨어지거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야, 이 귀신이 있다. 헛것이 아니다.’}

10811 # 게 둥벼~이사 되겟소? 둥벼~이 걸린 게사 돼겟소, 기계? 어저느 그런 일으 해 앳이니꺼더 앳는 사름두 신심으 또 가지구 그래다나니 떨어딜 수 있다. {그것이 중병이야 되겟소? 중병이 걸린 것이야 되겟소, 그것이? 이제는 그런 일을 했으니까 앳는 사람도 신심을 또 가지고 그래다보니 떨어질 수 있지.}

10811 @ 아바니 아주 재밌습꾸마. 더, 더퀴랑, 아주 왜앤이랑 붙은 이야기…… {아바니, 아주 재미있습니다. 더, 더퀴랑 아주 왜앤이랑 붙은 이야기……}

10811 # 어어. {어어}

10811 @ 처음 듣습꾸마. {처음 듣습니다.}

10811 # 처음 듣는 말이 잇디 무슨. 음. {처음 듣는 말이 있지 무슨. 음.}

10811 @ 그 어린 아아들한테 저희, 저희 아매, 아매 막 옛날 얘기 많이 해 주시구 그랬었는데 아바니두 뭐 그런 거 재미난 옛날 얘기 이런 것 또…… {그 어린 아이들한테 저희, 저희 할머니 막 옛날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랬었는데 할아버지께서도 뭐 그런 것, 재미난 옛날 이야기 이런 것 또……}

10811 # 그 우리 어마니라는 그런 말으 아니 하디. 어디메 나가 들, 들은 게 없구. 갠데 동네 늙은덜이 돌아댁기메 듣구 보구 이런 거 야, 동네서 그 긴 밤에 모다 앉아서 한쪽 칸에서느 쉬천으 놀구, {그 우리 어머니께서는 그런 말씀올 안 하시지. 어디에 나가서 들, 들은 것이 없고. 그런데 동네 늙은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듣고 보고 이런 것을 예, 동네에서 그 긴 밤에 모여 앉아서 한쪽 칸에서느 쉬천(노름의 일종)을 놀고,}

10811 # 한쪽 칸에서느 모르는 늙은덜이 거저 앉아서 기계 잡담우 띄어 누루메 노는데 야, 그런 니얘기 하네느 거 또 그거 듣겟다구서 따라간단 말이오. 우리는 아아 때. {한쪽 칸에서느 모르는 늙은이들이 그거 앉아서 그게 잡담을 늘어놓으면서 노는데 예, 그런 이야기 하면 그 또 그것을 듣겟다고서 따라간단 말이오. 우리는 아이 때.}

10811 # 게 내 가서 그런 말이 벌어뻐다 하네느 곁에 아아 또 불러오디 머. ‘야 아무개 아무개 가자. 야, 그 늙은 덜이 거 말하는 게 재밌더라. 귀신 넷말 하는 게 머리 것이 [x시시x] 올라가더라’ 이래메 좋아서 또 따라온단 말이오. 기라무 서너, 너더이 거저 앞에 띄 나사얏소. {그래 내 가서 그런 말이 벌어뻐다 하면 곁에 아이를 또 불러오지 뭐. ‘야 아무개 아무개 가자. 야, 그 늙은이들이 그 말하는 것이

재미있더라. 귀신 옛말 하는 것이 머리 ** 올라가더라' 이러면서 좋아서 또 따라 온단 말이오. 그러면 서너, 너댓이 그저 앞에 떡 나와앉소.}

10811 # 기라무 늙, 같은 늙은덜두 몇이 잇디만 아아덜꺼지 턱 끼우문 그 늙은덜 더 사기 나서 말으 잘 하디 머. 그래서 한밤중꺼지 듣구 올때 많았디. {그러면 늙, 같은 늙은이들도 몇이 있지만 아이들까지 턱 끼우면 그 늙은이들이 더 신이 나서 말을 잘 하지 뭐. 그래서 한밤중까지 듣고 올 때 많았지.}

10811 # 그런 귀신 니얘기뿐이 아니라 무슨 야, 다른 니얘기두 많디 머. 넷말이 그게. 그래 그 넷말 듣자구 모두는 데문 꼭 따라갔디. {그런 귀신 이야기뿐이 아니라 무슨 예, 다른 이야기도 많지 뭐. 옛말이 그게. 그래서 그 옛말 듣자고 모이는 데면 꼭 다라갔지.}

10811 @ 머리깃이 머리 어디메르 말함두? {머리깃이 머리 어디쯤을 말합니까?}

10811 # 음? {음?}

10811 @ 머리깃이 설설 नी어난다. {머리깃이 설설 일어난다.}

10811 # 아니, 머리. {아니, 머리.}

10811 @ 으으음, 머리, 머리깎, 머리깎 말함두? {으으음, 머리, 머리카락, 머리카락을 말합니까?}

10811 # 냐, 냐. {예, 예.}

10812 @ 아바니, 그럼 넷날에 무슨 장수, 힘센 장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 이른거 없엇습두? {할아버지, 그럼 옛날에 무슨 장수, 힘센 장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10812 #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집안에 박주사 클아바니라구서 대단히 힘이 세구 경우 바르구 활약으 하던 분이 잇엇소. 박창일이라구서.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집안에 박주사 할아버니라고서 대단히 힘이 세고 경우 바르고 활약을 하던 분이 잇엇소. 박창일이라고서.}

10812 # 그 양반이 어저는 다 일백 한 이삼십살은 돼았겟으니까. 일백 이삼십살두 남디 머. {그 양반이 이제는 다 백 한 이삼십살은 되엿겟으니까. 백 이삼십살도 넘지 뭐.}

10812 # 내 여남은살 땃 때 칠십이 넘어 상새났으니까. 음. 일백 한 사오십년 돼디. 머. {내 여남은살 땃 때 칠십이 넘어 돌아가셨으니까. 음. 백 한 사오십년 되지 뭐.}

10813 @ 그 뭐 또 재미난 얘기가 있으면 또.....그 아바니 그 들엿던 얘기, 니얘기 중에 뭐 기억나는 거 있으면..... {그 뭐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으면 또.....그 아바니 그 들엿던 이야기, 이야기 중에 뭐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10813 # 그 어디메 어느 술한 말으 듣구 [x완이사x] 닛어디구 그렇디. 어떤 대목에서는 무스게나 잇다문 혹시 그 췌애막아 생각키우겟는두. {그 어느 곳 어느 술한 말을 듣고 [x이제는x] 잇혀지고 그렇지. 어떤 대목에서는 무엇이 잇다면 혹시 연상되어 생각이 나겟는지.}

10813 # 이보오, 칠십살꺼지 살게 엇데 들은 말이 작앗겟소? {이보오, 칠십살까지 산 사람이 어째서 들은 말이 적었겟소?}

10813 @ 무슨 그 도롱비 마을에 얹힌 전설같은 게 없습두? {무슨 그 도롱비 마을에 얹힌 전설같은 것이 없습니까?}

10813 # 거기 크게 전설이 없습니. {그게 크게 전설이 없소.}

10813 # 그리고 또 거게 야, 민간에서 하는 방책이 고내방뒤라는 게 또 있소. {그리고 또 그게 예, 민간에서 하는 방책이 ‘고내방뒤’라는 것이 또 있소.}

10813 # 고내방뒤라구서. {고내방뒤라고서.}

10813 @ 게 무시갸두? {그것이 무엇입니까?}

10813 # 그것두 야, 도둑질한 거 그거 판:하는데, 직금 판:이디만 야, 그거 도둑질 한 놈 우 붙들기 위해서 고내방뒤르 하는데. {그것도 예, 도둑질한 것, 그것을 재판하는데, 지금은 재판이지만 예, 그것 도둑질 한 놈을 붙들기 위해서 고내방뒤를 하는데.}

10813 # 게 어떤 일인가 하문, 스집갈 새애기 그 천으 잃어뿌렛단 말이오 야. {그것이 어떤 일인가 하면, 시집갈 처녀가 그 천을 잃어버렸단 말이오 예.}

10813 # 기래서 혼새르 기낼때 막대한 지장 보기 뵈단 말이오 야. {그래서 혼사를 치를 때 막대한 지장을 보게 뵈단 말이오 예.}

10813 # 새로 갓추자문 돈이 또 많이 들디. 기래 이거 붙들어야 돼갸는데 붙드는 쉬 없단 말이오. 게 어디 가 빼우니꺼더 고내방뒤르 하문 붙둔다. {새로 갓추자면 돈이 또 많이 들지. 그래서 이것을 붙들어야 되갸는데 붙드는 수가 없단 말이오. 그래서 어디로 가 보이니까 ‘고내방뒤’를 하면 붙둔다.}

10813 # 게 고내방뒤르 어뜨기 하는가 하문 즉금부터 내 말하는 게 이게 고내방뒤란 말이오 야, {그래 고내방뒤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부터 내 말하는 것이 이것이 고내방뒤란 말이오 예,}

10813 # 실그, 한나 농구 경계다서 밑으 실, 그 실기란 게 궁게 숭숭숭숭 낫땡구 어땡소, 야? {시루를, 하나 놓고 거기에다가 밑을, 그 시루라는 것이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지않고 어땡소, 예?}

10813 # 거기다서 시르밑으 간단 말이오. 그 올라출르서 딱 결은 거. {거기에다가 시루 밑을 간단 말이오. 그 올라초로 딱 짚 것을.}

10813 # 기래 텍 꼭 농구 덮패르 탁 덮구 고내르 그 안에다 떡 넣소. {그래서 텍 꼭 놓고 덮개를 탁 덮고 고양이를 그 안에다 떡 넣소.}

10813 # 개구서 불으 땡다구 밑에서. 기라무 이게 따갑아나서 야, 게 타든 못하게꾸 해야 돼디. 타문 안 뵈단 말이오. {그러고서 불을 땡다고 밑에서. 그러면 이것이 뜨겁다보니까 예, 그것이 타지는 못하게끔 해야 되지. 타면 안된단 말이오.}

10813 # 게 그거 바빠 후디. 그거. 고내르. {그래서 그것을 못살게 굴지. 그것을. 고양이를.}

10813 # 기래 뜨겁아나구 거저 그 내구리 올라가구 들에다나니꺼더 고내 영 바쁘기 뵈단 말이오. {그래서 뜨겁고 그저 그 연기 오라가고 들어가다보니까 고양이가 영 힘들게 뵈단 말이오.}

10813 # 게 덮패르 나, 얇운 거 덮는다구. 고내 파닥상하문 솟아나올 수 잇는 거. {그래

서 덮개를 예, 얇은 것을 덮는다고. 고양이가 파닥거리면 솟아나올 수 있는 것
을.}

10813 # 갠데 게 고내 악이 날 때꺼지 놔 줘야 돼디. {그런데 그 고양이가 악이 날 때까지 놔줘야 하지.}

10813 # 게 그 처암에느 이래 누루구 잇는단 말이오.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렇게 누르고 잇는단 말이오.}

10813 # 이게 어저는 악이 날다 할 이 정도 뗏을때 손으 뚝 떼구 나서디 사름들이 야. {이것이 이제는 악이 났다 할 이 정도 되었을 때 손을 뚝 떼고 나서지. 사름들이, 예.}

10813 # 기라문 그놈 고내 화닥닥 탁 똤에나가서 야, 눈에 달이 들어서 거 더 도둑질해 간 사름우 야, 가서 탁 막달개르 문다우. {그러면 그놈 고양이가 화닥닥 탁 뛰어나가서 예, 눈에 독기가 들어서 그 저 도둑질해 간 사름을 예, 가서 탁 목을 문다오.}

10813 @ 아, 그렇습두? {아, 그렇습니까?}

10813 # 야. {예.}

10813 # 개서 동네 사름덜 다 모다놓디. 남녀간에 야, 도깽아아덜 내놓구서느, 게 그더 움직이지 못하는 늙은덜 내놓구 다 모든, 다 오라구 한단 말이오. {그래서 동네 사름들 다 모아놓지. 남녀간에 예, 어린아이들 빼놓고서는, 그것 그저 움직이지 못하는 늙은이들 빼놓고 다 모은, 다 오라고 한단 말이오.}

10813 # 아니 가문 '네 아무래 도둑질 해엿겠다. 모 오는 거 보니', 기래구 먼테르 간 사름두 다 불러온단 말이오 야. 으식간:한 늙우느. {안 가면 '네 아무래도 도둑질 했겠다. 못 오는 것을 보니', 그리고 먼 데를 간 사름도 다 불러온단 말이오 예. 어지간한 늙은.}

10813 # 게 거저 마을사름덜이 거저 오늑십명, 칠팔십명 이래 다 모두구 한판에다서 고내르 떠는데, 갠데 기게 회룡보~이서 한 번 해엿는데 그 일으 우리 아아때 우리 그 소학교 이학년, 삼학년 때란 말이오. 고게. {그래 그저 마을사름들이 그저 오륙십 명, 칠팔십 명 이렇게 다 모우고 한 가운데에다 고양이를 찌는데, 그런데 그것이 회룡봉에서 한 번 했는데 그 일은 우리 아이때 우리 그 소학교 이학년, 삼학년 때란 말이오, 그게.}

10813 # 곱만 고 일본 아아덜이 거 해방난, 나기 곱만 그 전이란 말이오. {금방 그 일본 아이들이 그 해방난, 나기 금방 그 전이란 말이오.}

10813 # 게 그집 오래비, 내가 동깽짜리 잇엇는데 자기네 누이 줌 스집갈 게 그 천으 잃어뿌렛거든. {그래 그집 남동생, 나와 동깽짜리 잇엇는데 자기네 누나 줌 시집갈 게 그 천을 잃어버렸거든.}

10813 # 개서 고내방뒤르 한다구 그놈 아아두 도깽이다나니 그더 오늘 우리 도깽, 더 고내방뒤르 하는데 구겨~어 안 가겠나, 안 가겠나 하문서 개 우리 야래애 또 그 그 등렬들이 한 반 아아들이 야, 따라 잣단 말이오. 한 이십 며~이. {그래서 고내방뒤를 한다고 그놈도 어린아이다보니 그저 오늘 우리 어린아이, 저 고내방뒤를 하

는데 구경을 안 가겠나, 안 가겠나 하면서 그래 우리 여럿이 또 그, 그 또래들이 한 반 아이들이 예, 따라 갔단 말이오. 한 이십 명이.}

10813 # 개구 머리죽이 서서 구겨~어 하는데, 그 고내, 나오긴 나왔단 말이오 그게, 엇데 안 나오겠소. 바쁜 게. {그리고 멀찍이 서서 구경을 하는데, 그 고양이, 나오긴 나왔단 말이오 그것이, 어째서 안 나오겠소. 힘든 것이.}

10813 # 기래 나와서 사름 잇는 데 가서 어느 거 덮티디 았더란 말이오. {그래 나와서 사람 잇는 데 가서 어느 것도 덮치지 았더란 말이오.}

10813 # 게 탁 나와서 뱅뱅뱅뱅 돌아서 사름이 없는 공간으 빙빙 돌아서 가달 어간으 빠데 나가디. 게 곁으르 오문 사름들이 다 피한단 말이오. 기계 또. 개 그 쫘이 생긴 데 쪽 달아났단 말이오. {그것이 탁 나와서 뱅뱅뱅뱅 돌아서 사름이 없는 공간을 빙빙 돌아서 가랑이 사이를 빠져 나가지. 그것이 곁으로 오면 사람들이 다 피한단 말이오. 그것이 또. 그래 그 틈이 생긴 데로 쪽 달아났단 말이오.}

10813 # 게 도둑 붙들기는 무슨 개도둑 붙들겠소? 개 고내방뒤 해두 해하압데. 그거. {그것이 도둑 붙들기는 무슨 개도둑 붙들겠소? 그래 고내방뒤 해도 헛합디다. 그것.}

10813 # 기래서 그 집이서 인심 잃엇단 말이오. {그래서 그 집에서 인심을 잃엇단 말이오.}

10813 # 네 더 도둑으 앞올루 붙두디 두우루 붙두는 법이 어디 잇나? {너 저 도둑을 앞으로 붙들지 뒤로 붙드는 법이 어디 잇나?}

10813 # 그렇기 해애 가지구서 네 만민으 모디게 하구 또 아니 오문 도둑질 해앤 걸르서 티구 그 가운데 너 말한 거느 여사무사한 말이 무슨무슨 말 하는데 이게 정당한가 안깐덜두 막 떠들구 야. {그렇게 해 가지고 너 만민을 모이게 하고 또 안 오면 도둑질 한 것으로 치고 그 가운데 너 말한 것을 이러저러한 말이 무슨무슨 말 하는데 이것이 정당한가, 아낙네들도 막 떠들고 예.}

10813 # 남자덜두 야, 거 왜디 못할 것들이 [x못들x] 좇으 한다구 욱하구. {남자들도 예, 그 되지 못할 것들이 몹쓸 짓을 한다고 욱하고.}

10813 # 겐데 그 집이서 그 성공 못했으니까 거저 곶으 숙이때리구 거저 까딱 못하구 잇엇디. 머. {그런데 그 집에서 그 성공을 못했으니까 그저 머리를 숙이고 그저 까딱 못하고 있었지, 뢰.}

10813 # 게 본디 쓸데 없더라구, 고내방뒤. 하는 거 보기는 봤는데 쓸데 없더라구. {그것이 본디 쓸데없더라고, 고내방뒤. 하는 것을 보기는 봤는데 쓸데없더라고.}

10813 @ 게 도둑 잡는 방법임두? {그것이 도둑 잡는 방법입니까?}

10813 # 게 그 위협이겠디. 아무래. {그것이 그 위협이겠지. 아무래도.}

10813 # 야, 위협해애서 야, 이거 고내 나와서 내 이거 목아지르 물무 엇디갯냐? 내 해엿소 하메 내놓으라는 겐데, 정작에 게 무시기 내애두 안 놓거니와 그 고내 나가 그 사름우 줍디 못하더란 말이오. 못 물더란 말이오. 모르더란 말이오. 그게. {예, 위협해서 '야, 이거 고양이 나와서 내 이거 모가지르 물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 했소.' 하며 내놓으라는 것인데, 정작 그 무엇을 내놓지도 았거니와 그 고양이 나가서 그 사람을 잡지 못하더란 말이오. 못 물더란 말이오. 모르더란 말이오.}

10813 @ 어찌 알겠습두? {어찌 알겠습니까?}

10813 # 개 후에 생각해보니까더 우리 즉금꺼디 생각해보문 그건 위협수단이다. {그래 후에 생각해보니까 우리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그것은 위협수단이지.}

10813 # 음. 아닌, 아닌 방법이다. {음. 아닌, 아닌 방법이지.}

10813 @ 그 시집갈 천을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그 천이라는 게 돈이랑 이런 거 다 말합두? 아니면…… {그 시집갈 천을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그 천이라는 것이 돈이랑 이런 것을 다 말합니까? 아니면……}

10813 # 아니, 형겅이. {아니, 천.}

10813 @ 그냥 형겅이르…… {그냥 천을……}

10813 # 형겅이. 어, 형겅으 흠쳐갓다. 머. 어느 놈이. {천. 어, 천을 흠쳐갓지 뭐. 어느 놈이.}

10813 # 그 흠쳐간 놈우 붙들어야 돼겠는데 판:으 하는 쉬 없단 말이오. {그 흠쳐간 놈을 붙들어야 되겠는데 재판할 하는 수가 없단 말이오.}

10813 # 그 때 뭐 경찰이 그거 무슨 밝혀 주겠는가, 지금터르 고~안국에서 밝혀 주겠는가. {그때 뭐 경찰이 그것을 무슨 밝혀주겠는가, 지금처럼 공안국에서 밝혀주겠는가.}

10813 # 아무 것두 없다나니 그거 재빌르 그 밝혀야 돼겠는데, 무슨 선택은 없디, 아무 근거는 무, 잡을 꼬토리 없단 말이오. {아무 것도 없다보니 그거 스스로 그 밝혀야 되겠는데, 무슨 좋은 방법은 없지, 아무 근거는 무, 잡을 꼬투리 없단 말이오.}

10813 # 기레니까 어디엔가 이거 어때시무 붙들겠는가 점을 티라 티올라 갓단 말이오. {그러니까 어디엔가 이것 어땠으면 붙들겠는가 점을 치러, 치러 갓단 말이오.}

10813 # 그게, 쫓, 고내방뒤르 해애시문 나오겠는두 그 전에느 나올것 같대니구. {그게, 쫓, 고내방뒤를 했으면 나오겠는지 그 전에는 나올 것 같지 않고.}

10813 # 그래서 고내방뒤르 해애는데 못 나타났다. {그래서 고내방뒤를 했는데 못 나타났지.}

10813 @ 아바니, 아까 고내애 바빠, 서 눈에 달이 들어서 도둑질으 해간 사람으 막달개르 문다 했습두? {할아버지, 아가 고양이 힘들어서, 눈에 독기 들어서 도둑질을 해 간 사람을 목을 문다고 하겠습니까?}

10813 # 야. {예.}

10813 @ 그 달이 든단 말이 무스검두? {그 '달이 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10813 # 으흠, 눈에 달이 든다네느 똑 동서남북으 분, 분간으 못하구 악에 받친 게디. {으흠, 눈에 달이 든다는 것은 똑 동서남북을 분, 분간을 못하고 악에 받친 것이지.}

10813 # 으응, 고내 악에 받치문 눈에 달이 든다구. 눈색깔이 좇빨겅게 똥단 말이오. 그 게 달이 든 게디. {으응, 고양이 악에 받치면 눈에 독기 든다고. 눈색깔이 시빨겅게 똥단 말이오. 그게 달이 든 것이지.}

10813 @ 막달개르 문다구 하는 거는요? {'막달개를 문다'고 하는 것은요?}

10813 # 막 달게붙는, 달젠, 달게든다구. {막 달려드는, 달려든다고.}

10813 @ 막 달게든다구…… {막 달려든다고……}

10813 # 응, 달게붙는다구. 막달개애 달게든다구. {응, 달려든다고. 목에 달려든다고.}

10813 # 이 막달개라는 게 이게디. 예. 목달개애 달게붙는다구 이거 탁 무는 거. {이 '막 달개'라는 것이 이것(목젖 인근의 앞목 부분을 가리킴)이지. 예. 목에 달려든다고, 이것을 탁 무는 것.}

10813 @ 여기를 막달개라 함두? {여기를 '막달개'라고 합니까?}

10813 # 목달개. {'목달개'}

10813 @ 목달개? {'목달개'}

10813 # 으응. {응.}

10813 @ 목달개, 막달개, 맥달개…… {'목달개', '막달개', '맥달개'……}

10813 # 응, 먹달개. {응, '먹달개'}

10813 @ 예. {예.}

10813 # 게, 게 [x여어어x] 모르디. 고내 모른단 말이오. {그것이, 그것이 *** 모르지. 고양이 모른단 말이오.}

10813 # 사람이 모르는데 고내 알겠소? {사람이 모르는데 고양이가 알겠소?}

10813 @ 달이 든다는 게 그럼 고내 그 무시기 눈에 막 그냥 광채가 반짝반짝할 정도로 악에 받쳐서…… {'달이 든다'는 것이 그럼 고양이 그 무슨 눈에 막 그냥 광채가 반짝반짝할 정도로 악에 받쳐서……}

10813 # 야, 야. {예, 예.}

10813 @ 그런게 옳대담두? {그런 것이 맞지 않습니까?}

10813 # 그렇디 머. {그렇지 뭐.}

10813 @ 고내가, 고내 화, 고내가 이 뺨이 빨어나, {고양이가, 고양이 화, 고양이가 이 화가 나서,}

10813 # 그럼. {그럼.}

10813 @ 막 휘황해가지구 불이 번쩍번쩍번쩍…… {막 휘황해가지고 불이 번쩍번쩍번쩍……}

10813 # 그게디. 눈에 달이 든다는게. {그것이지. '눈에 달이 든다'는 것이.}

10813 @ 아바니, 그럼 고내방되는 옛날부터 이 도롱비에서 또…… {할아버지, 그럼 고내방되는 옛날부터 이 도롱비에서 또……}

10813 # 도롱비에서 한번은 잇엇다구. {도롱비에서 한 번은 있었다고.}

10813 @ 한 번은 헛습두? {한 번은 했습니까?}

10813 # 한 번 딱 잇엇다구. {한 번 딱 있었다고.}

10813 @ 니얘기는 옛날부터 이래이래, 이 어찌어찌 해라…… {이야기는 옛날부터 이렇게이렇게, 이 어찌어찌 해라……}

10813 # 이전 잇엇디. 그런 방법이 잇엇길래 해엇갓디. {이전에 있었지. 그런 방법이 있었기에 했겠지.}

10813 @ 옳습꾸마. {맞습니다.}

10813 # 그 집이서 처엄 한 게 애니란 말이오. 그게. 다른 데서두 그런 일이 잇엇갓디.

며. {그 집에서 처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오. 그것이. 다른 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겠지, 뭐.}

10813 # 혹시 [x말레게x] 붙들었는두 모르긴 하겠디만 들두는 못했소. {혹시 [x만약에x] 붙들었는지 모르기는 하겠지만 듣지는 못했소.}

10813 # 그래 고내방뒤라는 게 한내 잇었소. {그래 고내방뒤라는 것이 하나 있었소.}

10813 @ 그럼 방뒤라는 게 무시갸두? {그럼 '방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0813 # 방법이라는 방째갸디. 방뒤라는 거는 그, 뒤째는 모르갸소. 두우, 두우, 방두라구 해서두 말이 되는가? 두쨌르서. {'방법'이라는 '방'자갸지. 방뒤라는 것은 그, '뒤'자는 모르갸소. 두, 두, '방두'라고 해서도 말이 되는가?}

10813 @ 모르갸습꾸마. {모르갸습니다.}

10813 # 으음. {으음.}

10813 @ 아바니, 고내방뒤 얘기 잘 들었습꾸마. {할아버지. 고내방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10813 @ 야, 거, 이런 얘기는 처, 첫바, 처음인 것 갸습꾸마. {야, 그것, 이런 이야기는 처, 처음인 것 갸습니다.}

10813 # 음. 회룡보~에서느 우리 등렬들은 다 아오. 고내방뒤라구 하무. 뉘에네 뉘에네 고내방뒤르 했다구. {음. 회룡봉에서는 우리 또래들은 다 아오. 고내방뒤라고 하면. 누구네, 누구네 고내방뒤를 했다고.}

1.9. 특수 지역 생활

1.9.1. 채광

10901 @ 아바니, 이런 데 석탄갸은 거 캐는 이야기 암두? 석, 석탄 캬두? 도롱비 사람들도? {할아버지, 이런 데 석탄갸은 것 캐는 이야기 아십니까? 석, 석탄 캬니까? 도롱비 사람들도?}

10901 # 야, 탄과~에 간 사름이 잇디. 머. {예, 탄광에 간 사름이 있지, 뭐.}

10901 @ 음, 어드메 탄광…… {음, 어디 탄광……}

10901 # 데정때애 아우디 탄과~에 가서 한 사름덜두 잇구. 지금 이 더, 영간 탄과~에 가서 일하는 사름이 잇구, 어저는 뒤슈르 했소. 그 사름으느. {일제시대 때 아오지 탄광에 가서 한 사름들도 있고. 지금 이 저, 영간 탄광에 가서 일하는 사름이 있고. 이제는 정년퇴임을 했소. 그 사름은.}

10901 # 개구서 일반적으르 탄 캐는 거 그거 위험한 일르 생각하구서 아니 나섭니. 으음. {그러고서 일반적으로는 탄 캐는 것이 그것이 위험한 일로 생각하고서 안 나서지. 으음.}

10901 # 데정때 할 일이 없어서 바빠서 아우디 탄과~에랑 가서, 돈벌이르 해서 살기 위해서 뗏이 가서 해أت소. {일제시대 때 할 일이 없어서 힘들어서 아오지 탄광에랑

가서, 돈벌이를 해서 살기 위해서 몇이 가서 했소.}

10901 # 게 해바~이 나서 다 건네왔다. 데정때애 했소. 그 사름덜은. {그래 해방이 나서 다 건너왔지. 일제시대 때 했소. 그 사람들은.}

10902 @ 혹시 그 탄을 무스거 쟁기루 캐는지두 암두? {혹시 그 탄을 무슨 연장으로 캐는지도 아십니까?}

10902 # 나, 난 그거 내막은 잘 모르오. 굴으 뚫구서 들으가서 캔답디마느. {예, 나는 그 것 내막은 모르오. 굴을 뚫고서 들어가서 캔다고 합디다만.}

10902 # 거 가서 보두두 애니했거니와, 굴으느 딜이받아봤소. {그 가서 보지도 았았거니와, 굴은 들여다봤소.}

10902 # 이만:이 너르기 궁가아 쭉:: 깊우기 내려가구 거기다 자새르 이래 해앳더란 말이오. {이만큼 넓게 구멍을 쭉 깊게 내려가고 거기다가 도르래를 이렇게 했더란 말이오.}

10902 # 개 바아 늘이구 그 담아 올레오는 하구. 널르서 떡 찐 거. {기래 밧줄을 늘이고 그 담아 올려오는 것 하고. 널로 떡 찐 것을.}

10902 # 그 줄으 흔들흔들 이래네느 우에서 잣더라구 이렇기, 오래 잣습데. 깊우다나니 꺼더 기에 그 석탄담운 광재 쭉 올라오문 우에서 쭉 빼당게서 따~에서 놓구서 홀 쏘아놓습데. {그 줄을 흔들흔들 이렇게 위에서 잣더라고. 이렇게. 오래 잣습디다. 깊으니까 그래 그 석탄 담은 광주리 쭉 올라오면 위에서 쭉 빼 당겨서 땅에 놓고 홀 쏘아놓습디다.}

10902 # 게 안에느 못 들으가보구. {그래 안에느 못 들어가보고.}

1.9.2. 고기잡이

10904 @ 음. 그럼 넷날애 두만강에서 많이 잡히는 고기는 무시게 있었습두? {음. 그럼 옛날애 두만강에서 많이 잡히는 고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10904 # 화에는 웬 숫자 많구. 그저 한 근, 한 근 두 냥, 한 근 반, 그저 이 정도무 게 다 다 큰 계란 말이오. {황어는 가장 숫자 많고. 그저 한 근(500g), 한 근 두 냥(‘냥’은 ‘근’의 10분의 1인 50g임), 한 근 반, 그저 이 정도면 그것이 다, 다 큰 것 이란 말이오.}

10904 # 개구 작은 거느 그저 닐곱 냥, 야뚝 냥, 석 냥, 녀 냥 요거꺼지두 잇엇디. {그리고 작은 것은 그저 일곱 냥, 여덟 냥, 석 냥, 녀 냥 요것까지도 잇엇지.}

10904 # 겐데 그거느 그물이 코이 작다나니까 다 그물르서 빠데 나가구, 너른 데느 야, 개구 그저 한 근 이상짜리만 걸리래르 코오 맨들엇단 말이오. 그물코. {그런데 그것은 그물이 코가 작다보니까 다 그물로 빠져나가고, 넓은 데는 예, 그리고 그저 한 근 이상짜리만 걸리게 코를 만들엇단 말이오. 그물코.}

10904 # 어. 작은 거느 다 절르 그물에 들엇다두 빠데 나가구. {어. 작은 것은 다 절로 그물에 들엇다가도 빠져나가고.}

10904 # 겐데 화에는 맛이 년애나 쇼에보다두 못하길래서 거 값이 눅구, 게 년애가 쇼에

는 그거는 고급어종이란 말이오. 지금 말하는 거. {그런데 황어는 맛이 연어나 송어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그 값이 싸고, 그 연어와 송어는 그것은 고급어종이란 말이오. 지금 말하는 것이.}

10904 # 개서 그거 잡아서 어, 동네사람덜두 싸 가거니와 훈춘우 실어다사 팔구. {그래서 그것 잡아서 어, 동네사람들도 사 가거니와 훈춘을 실어다사 팔고.}

10904 # 반이('많이'의 잘못된 듯) 잡았던 말이오. 그 때. 한 그물에 한 오십 개씩. 야, 전에는 그렇게 잡았던 말이오. 우리 인자 우리 세상 차례에서느 스무 개르 잡은 거꺼지 봤소. {많이 잡았던 말이오. 그 때. 한 그물에 한 오십 마리씩. 예, 전에는 그렇게 잡았던 말이오. 우리 이제 우리 때는 스무 마리를 잡은 것까지 봤소.}

10904 # 나. 우리, 소학교, 이, 이학년때 해방 나구서 이학년 때애 야, 어 가슬에 거 회룡봉 동쪽에 그 못대비산이라는 금계에 후릿, 쓸이 좋았던 말이오. {예. 우리, 소학교, 이, 이학년 때 해방 나고서 이학년 때애 예, 어 가슬에 그 회룡봉 동쪽에 그 못대비산이라는 그 곳에 후릿, 어장(漁場)이 좋았던 말이오.}

10904 # 금계에 후리, 서너 채 와서 해엿다. {그 곳에 후릿그물, 서너 채를 와서 했지.}

10904 # 그래서 학생들으 천립우 시킨다구서 망주덜이 모다서 잡은 거 야, 학생덜 그 때느 그게 한 양백 명 밑이 거의 돼다나니 야, 야래 개르 잡아야 댜단 말이오. {그래서 학생들을 천립을 시킨다고서 망주(그물주인)들이 모여서 잡은 것을 예, 학생들 그 때는 그게 한 이백 명이 거의 되다보니 예, 여러 마리를 잡아야 댜단 말이오.}

10904 # 마을에서 가매르 거뒀내다서, 야래 끝애다 걸어놓구서, 밥으는 정심 너엇 뵈또애다 싸가지구 오너라. {마을에서 가마술을 거뒀내다가 여러 곳에 걸어놓고서, 밥은 점심 너희 도시락애다 싸가지고 오너라.}

10904 # 그래서 그 각 바안 별르서 이래 쪼로로룩 앓아서 고기르 거저 너 그저 맥기 싶은대루 먹으라디. 머. {그래서 그 각 반 별로 이렇게 쪼로로룩 앓아서 고기를 그저 너 그저 먹고 싶은대로 먹으라고 하지 뒀.}

10904 # 개 머 아아덜이 먹어리 머 얼마나 먹겠소. 이만:이 넘운 거, 이막씩 긴 거 두 덩씩 거저 먹우문 쫓, 잘 먹은 게디. {그래 뒀 아이들이 먹을 것 뒀 얼마나 먹겠소. 이만하게 넓은 것, 이만큼 긴 것 두 점씩 그저 먹으면 쫓, 잘 먹은 것이지.}

10904 # 야, 거 그 때애 그거 서~의 대단아더란 말이오, 야. 학생덜으게 관심이 좋았던 말이오, 그게. {야, 그것 그 때애 그것 성의 대단하더란 말이오. 예. 학생들에게 관심이 좋았던 말이오, 그게.}

10904 # 돈우 따데두 돈두 적두 애닌데, 그게. {돈을 따져도 돈도 적지 않은데, 그것이.}

10904 # 그때 돈이 그게 적디 았단 말이오. 그만히 [x칭이x]르 내자무. 그래 한 번으 아아때 먹어보온데 맛이 좋구. {그때 돈이 그것이 적지 았단 말이오. 그만큼 성의를 내자면. 그래 한 번을 아이 때 먹어봤는데 맛이 좋고.}

10904 #개서 후리질으 한다 하문 채레디문, 나가는데 후리르 하문 나가서 그것, 가매애다서 넣어서 끓에먹는단 말이오. {그래서 후릿그물질을 한다고 하면 차례가 지면, 나가는데 후릿그물을 하면 나가서 그것, 가마술애다 넣어서 끓여먹는단 말이오.}

10904 # 게 특산해엿소. 이전에. {그것이 특산물이었소. 이전에.}

10904 # 개구 또 회룡봉, 구역에서 잡는 년,쇼예가 맛이 데일이다. {그리고 또 회룡봉, 구역에서 잡는 연, 송어가 맛이 제일이지.}

10904 @ 음. 그 내놓구는 무슨 고기 없습두? {음. 그것 말고는 무슨 고기가 없습니까?}

10904 # 기래구 야리. 그 야리두 이렇게 크우. 그 다음에 송어. 흑시흑시 니멘쉬. {그리고 야리. 그 야리도 이렇게 크오. 그 다음에 송어. 흑시흑시 임연수어.}

10904 @ 아, 니멘쉬 올라옴두? {아, 임연수어가 올라옵니까?}

10904 # 야, 니멘쉬 흑시흑시 올, 드물, 드물디. 그물에 드문드문 나오오. 야, 덤이 뚝뚝 백인 게. {예, 임연수어 흑시흑시 올, 드물, 드물지. 그물에 드문드문 나오오. 예, 점이 뚝뚝 박힌 것이.}

10904 # 그 다음에 음, 어, 자래애. {그 다음에 음, 어, 자라.}

10904 @ 예, 자래. {예, 자라.}

10904 # 야. 자래 흑시, 나오구. {예. 자라 흑시, 나오고.}

10904 # 그 다음에 게. 게 많엿소. 아, 두만강게는 맛있소. {그 다음에 게. 게 많았소. 아, 두만강 게는 맛있소.}

10904 @ 그거이 얼마나 큼두? {그것이 얼마나 큼니까?}

10904 # 이만:이 크우. 큰 거느. {이만하게(손바닥 크기 정도) 크오. 큰 것은}

10904 # 바닷물게보다 원래 거 바닷물게르 먹어보무 게 트드드드 맛이 없습데. {바닷게보다 원래 그 바닷게를 먹어보면 게 트드드드 맛이 없습디다.}

10904 # 산 것, 가져다서 바닷물게두 산 게 이 훈춘두 오오. 어저느. {산 것, 가져다가 바닷게도 산 것이 이 훈춘도 오오. 이제는.}

10904 # 거 가져다서 먹어봐두 야, 이전에 두만강게터르 맛이 없소. 아안되우, 응. 맛이 없소. {그것을 가져다가 먹어봐도 예, 이전의 두만강 게처럼 맛이 없소. 안되오, 응. 맛이 없소.}

10904 # 두만강게는 등싸디 퍼어렁소. {두만강 게는 등이 퍼렁소.}

10904 # 어, 이 독발잇는데 터럭이 착착 난 게. {어, 이 집게발잇는 데 털이 착착 난 것이.}

10904 @ 예, 독발이라 했습두? {예, '독발'이라 하셨습니다?}

10904 # 응, 그 찌페발이. 이케. 거기에두, 털이 텍 나서 이래 [x부굴갈소x]. 이렇게. {응, 집게팔이, 이것이. 거기에두, 털이 텍 나서 이렇게 ****. 이렇게.}

10904 @ 그거 독, 독발이라 함두? {그것을 독, '독발'이라고 합니까?}

10904 # 그걸 독발이라구 하구, 야. {그것을 '독발'이라고 하고, 예.}

10904 @ 그렇습두? {그렇습니까?}

10904 # 음. {음.}

10904 # 그렇게, 그게 낫디. 머. {그렇게, 그게 낫지, 뭐.}

10904 # 개구 늪에서 부에. 꺾치네, 꺾지네. (꺾지네) 야, 버들개. 가~에서 모래미티꺼지 나구. 늪에두 모래미티 잇구. {그리고 늪에서 붕어, 꺾지(?), 꺾지(?). 예, 버들개. 강에서 모래무치까지 나고.}

10904 # 그래구 농지래. 농지래는 고기에 넣대애냈소. {그리고 미꾸라니. 미꾸라지는 고기에 넣지 않았소.}

10904 @ 아, 그렇습두? {아, 그렇습니까?}

10904 # 응. {응.}

10904 @ 그럼 어찌했습두?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10904 # 거 원래 아니 먹었으니까. {그 원래 안 먹었으니까.}

10904 @ 아, 용지래르. {아, 미꾸라지를.}

10904 # 응. {응.}

10904 # 직금은 그 미꾸리라구서 완을르 좋은 걸르 취급으 하압테, 야, {지금은 그 미꾸라지라고서 가장 좋은 것으로 취급을 합디다, 예.}

10904 @ 아우, 좋습꾸마. {아우, 좋습니다.}

10904 # 응, 갬테 그거 이전에는 우리 잇는 데서는 그거는 고기 축에 아니 넣었디, 머. {응, 그런데 그것 이전에는 우리 잇는 데에서는 그것은 고기 축에 안 넣었지 뭐.}

10904@ 그럼 먹대애냈습두? {그럼 먹지 않았습니까?}

10904 # 아니 먹었디. {안 먹었지.}

10904@ 아, 그렇습두? {아, 그렇습니까?}

10904 #응, 아니 먹었디. 고기. 이보오. 이 그것보다 썩 나슨 고기 가뜩한데 화에두 아니 먹었는데. 음. {응, 안 먹었지. 고기. 이보오, 이 그것보다 썩 나은 고기 많은데 황어도 안 먹었는데. 음.}

10904@ 아이, 화에두, 화에두 한국서는 지금 고급어종인데…… {아이, 황어도, 황어도 한국에서는 지금 고급어종인데……}

10904 #으응. {으응.}

10904 #허나 이게 두만강 화에 바닷물 화에보다 썩 낫디. 맛이 또. {하지만 이것이 두만강 황어 바닷물 황어보다 썩 낫지. 맛이 또.}

10904 #야리, 화에보다 더 낫소. {야리, 황어보다 더 낫소.}

10904@ 아, 그렇습두? {아, 그렇습니까?}

10904 #으응. {으응.}

10904@ 야리 어찌 생겼습두? {야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10904 # 야리 눈이 크다산게 야, 화에만:이 큰 게 잇소. {야리 눈이 커다란 것이 예, 황어만큼 큰 것이 잇소.}

10904 # 한 근 넘는 것두 잇구, 한 근 득, 돼는 그런 큰데, 비늘이 셋해얹구. 눈이 빠른 한게 크구. 입이 크구. 성질이 급한 게. {한 근 넘는 것도 있고, 한 근, 되는 그런 큰 것인데, 비늘이 새하얹고. 눈이 빠른 것이 크고. 입이 크고. 성질이 급한 것이.}

10904@ 아, 성질이 급함두? {아, 성질이 급합니까?}

10904 # 야. 그거는 야, [x납시지x]나 줄납시에다 메는데, 그게, 예, 칠월달에 가서, 음력, 육칠월에 가서 살이 고도루 지는 때란 말이오, 그게. {예, 그것은 예, 납시나 주낙에 걸리는데, 그것이, 예, 칠월달에 가서, 음력, 육칠월에 가서 살이 고도로 찌는

때란 말이오, 그것이.}

10904 # 개 그 때 잡으무 야, 맛있소. 속으 떡 때개래는 야, 슷히연 기 그저, 그 곱이, 기름이, 게 그저, 벨으 어간에 그, 떡 차오. {그래 그 때 잡으면 예, 맛있소. 속을 떡 쪼개보면 예, 새하얀 것이 그저, 그 기름이, 기름이, 그것이 그저, 창자 사이에 그 떡 차오.}

10904 # 그거 활 훑어내서 벨으 뿌레대무 벨으는 간다산데 그눔으 게 야, 큰 거 잡으내느 한 종지 거의 돼오, 그게. 알이가 그거 더 곱이. {그것을 활 훑어내서 창자를 발라내면 창자는 가느다란데 그눔의 것은 예, 큰 것을 잡으면 한 종지 거의 되오, 그것이. 알과 그것 저 기름이.}

10904 # 곱이. 알이 없는데는 애라는 게 또 잇는데 야, 셋해안게 야, {기름이. 알이 없는데는 애(精巢)라는 것이 또 잇는데 예, 새하얀 것이 예,}

10904 # 그 애가 또 곱우 한데 뜯우내느 또 금만, 암게거나 숭게나 다 비뜨름하오 그게. 내자~에서 나오는 게. {그 애가 또 곱을 한데 뜯어내면 또 그만큼, 암컷이거나 수컷이거나 다 비슷하오, 그것이. 내장에서 나오는 것이.}

10904 # 그거 한데 넣구 고기르 넣구, 가 호박이나 싸알아서 애호박으, 어린 호박으 야, 채호박같은 거 싸알아서 넣구서 자~아 맞참:이 푼다거나 자~아 아니 풀거나 거 소곰에다 끓인다거나, 야, 기름지구 맛있소. {그것을 한데 넣고 고기를 넣고, 그 호박이나 썰어서 애호박을, 어린 호박을 예, 채호박같은 것을 썰어서 넣고서 장을 알맞게 푼다거나 장을 안 풀거나 그 소곰에다 끓인다거나, 야, 기름지고 맛있소.}

10904 # 음. 그래 그게, 음:, 더:, 이 [x슈화에x] 내려가서, 그 처술, 처술이쫘 내려가서 그게 어디메 돼겠는가? {음. 그래 그것이, 음, 저, 이 [x수화x](지명?)에 내려가서, 그 처술, 처술이(지명?)쫘 내려가서 그것이 어디쫘 되겠는가?}

10904 # 두만강 막글이나 거의 돼는 궁게서, 더 야리도이, 잡아먹엇단 말이오, 야. 아무데두 강역에서느 다 잡아먹는데, {두만강 가장 끝이나 거의 되는 그 곳에서, 저 야리, 잡아먹엇단 말이오, 예. 아무데도 강역에서는 다 잡아먹는데,}

10904 # 서울에서 어떤, 그 조사르 하는 관원이 떡 와서 한 집에서 뉴하게 돼었는데, {서울에서 어떤 그 조사를 하는 관원이 떡 와서 한 집에 묵게 되었는데,}

10904 # 예, 그 집 췌엔이 밤에 나가서 줄남시르 놓앗단 말이오. 일할라 갔다서 지낙에 늦어 들어와서 지낙으 먹구서 가~에 나가서 줄남시르 놓구서. {예, 그 집 주인이 밤에 나가서 주낙을 놓앗단 말이오. 일하러 갔다가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지낙을 먹고서 강에 나가서 주낙을 놓고서.}

10904 # 그것두 해 뜨네는 야, 그게 절르 떨어데 달아난단 말이오. 요~오 쓰멘서 야. {그것도 해 뜨면 예, 그것이 절로 떨어져 달아난단 말이오. 용을 쓰면서 예.}

10904 # 개서 또 새벽에 나가서 그 줄남시르 걷어서 고기르 빼게 가지구 들어오구. {그래서 또 새벽에 나가서 그 주낙을 걷어서 고기를 벗겨가지고 들어오고.}

10904 # 즉금터르 씨료 애앤다나니꺼더 무삼 노~울르 파서 낚시르 해다나니꺼더 그게 벨에다서 낮에느 이래 꼬재애르 쫓구서 떡 말리와야 뚱다구. {지금처럼 화확섬유가 아니다보니까 무삼 노끈을 꼬아서 낚시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벨에다 낮에는

이렇게 꼬챙이를 쏴고서 떡 말려야 된다고.}

10904 # 개 밤에 나가서 그거 뺏게, 셋넌에 나가 뺏게 들여오구 그거 그물, 줄뉘시르 널 어놓구서 중턱에다서 야리르 이막씩 큰 거 닐야들개 잡아가지구서 떡 들으워서 반에 온 관원이 깨나기 전에 세제~에 해서 떡 끓엿단 말이오. {그래 밤에 나가서 그것을 벗겨, 새벽넌에 나가 벗겨 들여오고 그것을 그물, 주낙을 널어놓고 망태기에다 야리를 이만큼 큰 것을 일고여덟개 잡아가지고서 떡 들어와서 밤에 온 관원이 깨어나기 전에 세정(洗淨)을 해서 떡 끓엿단 말이오.}

10904 # 기에 사아 채레서 그거 떡, 잘 끓인 거 떡 들여다서 그 대접해엿는데 그놈이 탁 먹어보구서 정말 대단히 맛있거던. 바닷물고기르 먹던 놈이 그런 거 먹어보구 이게 무슨 고긴가구. {그래 상을 차려서 그것을 떡, 잘 끓인 것을 떡 들여다가 그 대접했는데 그놈이 탁 먹어보고서 정말 대단히 맛있거든. 바닷물고리를 먹던 놈이 그런 것을 먹어보고 이것이 무슨 고기인가하고.}

10904 # 모르겠단구, 우리두 이거 이름우 모르는데 맛이 잇는 고기돼서 내 이래 나아리 깨다서 쫓, 밤에 나가 잡아다서, 대접한다구. {모르겠단고, 우리도 이것 이름을 모르는데 맛이 잇는 고기가 되어서 내 이렇게 나리깨다 쫓, 밤에 나가 잡아다가 대접한다구.}

10904 # 개 이기 이름이 잇어야돼디 야, 이 좋은 고기 이름이 없이 돼겟나? {그래 이것이 이름이 있어야 되지 예, 이 좋은 고기 이름이 없어서야 되겟나?}

10904 # 이게 밤에만 메는가?, 아니 거더 우리는 거더 밤에만 나가 잡다나니꺼더 낮에는 못 잡아 잘 모른다구. {이것이 밤에만 걸리는가? 아니 그저 우리는 그저 밤에만 나가 잡다보니 낮에는 못 잡아 잘 모른다구.}

10904 # 그럼 쫓, 네 이거 이름으 야래라구 해라. 밤에 오는 고기라구서. {그럼 쫓, 너 이것 이름을 '야래'라고 해라. 밤에 오는 고기라고서.}

10904 # 그래 야래디 이게. 갠데 그놈의 야래가 차츰차츰 변해서 마감에 야리뻬단 말이오. 그놈이. {그래서 야래이지 이것이. 그런데 그놈의 야래가 차츰차츰 변해서 마지막에 야리가 되엿단 말이오. 그놈이.}

10904 # 야래, 야래, 야래라 그게 마감에 야리뻬다구. {야래, 야래, 야래라 그것이 마지막에 야리가 되엿다구.}

10904 # 게 그래서 그게 야리란 말이오. 바암 야짜에다서 오올 래째르 쓴 야렐르서 이름 저어줬디. {그것이 그래서 그것이 야리란 말이오. '밤 야'자에다가 '올 래'자를 쓴 야래로 이름을 지어주었지.}

10904@ 그 야리, 야리 살이 고드라진다 했슴두? {그 야리, 야리 살이 '고드라진다' 하섯 습니까?}

10904 # 응? {응?}

10904@ 고드라진다? {고드라진다?}

10904 # 무스그? {뭐라고?}

10904@ 살이 아주 통통하고…… {살이 아주 통통하고……}

10904 # 야. 포동포도~하구 두드러디기 뚝 모디라딘다구. 어. {예, 포동포동하고 두드러

지게 똑 모질어진다고. 어.}

10904 # 살이 잘 지디 머 그건 육칠월에. 음력 육칠월에. 직금부터 음력 칠월 그 어간에, 대단히 맛있소. 화에, 보다 썩 낫소. {살이 잘 찌지 뭐. 그것은 육칠월에. 음력 육칠월에. 지금부터 음력 칠월 사이에, 대단히 맛있소. 황어보다 썩 낫소.}

10904 # 개 이 년에가 쇼에보다사사 못하디, 머. {그래 이 연어와 송어보다야 못하지 뭐.}

10904@ 그 애라는 거르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두? {그 '애'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10904 # 애라는 거느 그게 야, 알하구 숭거게 애라는 게 잇구, 암케게 알이 잇는데. {'애'라는 것은 그것이 예, 알하고 수컷에게 애라는 것이 있고, 암컷에게 알이 있는데.}

10904 # 그게 더, 수케 알으, 암케 알으 낳으무 그 수정할 때 나오는 게란 말이오. 그게. 응. {그것이 저, 수컷이 알을, 암컷이 알을 낳으면 그 수정할 때 나오는 것이란 말이오. 그것이. 응.}

10904@ 아, 그렇습두? {아, 그렇습니까?}

10904 # 그렇단 말이오. {그렇단 말이오.}

10904@ 그거르 끓여서 먹습두? {그것을 끓여서 먹습니까?}

10904 # 거 끓여 먹소. 맛있소. 음. {그것을 끓여 먹소. 맛있소. 음.}

10904 # 그 야래가 정말 맛있소. {그 야리가 정말 맛있소.}

10904 # 직금은 두만가~에 그게 회수하오. 잇기는 잇는데. {지금은 두만강에 그것이 회귀하오. 잇기는 잇는데.}

10904@ 볼 수, 볼 수 없점두? {볼 수, 볼 수 없지 않습니까?}

10904 # 아, 보긴 보오. 줄낙시랑 놓오나 낙시질 하무 흑시흑시 메에 나오는데. {아, 보기는 보오. 주낙이랑 놓으나 낙시질 하면 흑시흑시 걸려 나오는데.}

10904 # 그렇기 이전터르 큰 거느 못 잡는다구. 음. {그렇게 이전처럼 큰 것은 못 잡는다고. 음.}

10904@ 저는 보구, 보깁아두…… {저는 보고, 보고 싶어도……}

10904 # 그래. {그래.}

10904@ 모두 보다 모지 못하다나니…… {보지도, 보지 못하다보니……}

10904 # 그 즘 썩차와이랑 하대니우? 회룡봉서 그거 딱 경해 아들이랑 이전에 할 때, 야리르 흑시 잡아 들여왔소. 저 눈여게 보대옹애 그렇디. 그, 무, 무슨 고킨가 문대옹애 그렇디. {그 지금 삼층망(三層罔)이랑 하디 앓소? 회룡봉에서 그것 딱 경해 아들이랑 이전에 할 때, 야리를 흑시 잡아 들여왔소. 당신이 눈여겨 보지않아 그렇지. 그, 무, 무슨 고기인가 묻지않아 그렇지.}

10904 # 그게 야리 잇다구. 작아 그렇디. {그게 야리 있다고. 작아서 그렇지.}

10904@ 아, 그렇습두? {아, 그렇습니까?}

10904 # 응. {응.}

10906@ 아바니 그럼 옛날에, 넷날에 고기, 잡으러 나갈 때 무스거 들구 무스거 타구 옹

드게 몇 명이서 모다서 가서 엇드게 잡았는지 얘기를 좀 쪽 해 주옵소. {할아버지 그럼 옛날에, 옛날에 고기 잡으러 나갈 때 무엇을 들고 무엇을 타고 어떻게 몇 명이서 모여서 가서 어떻게 잡았는지 이야기를 좀 쪽 해 주십시오.}

10906 # 응, 아아. 그거, 고기 잡는 방법이 두만가~에서만 하는 거인데 야, 늪에서 하는 거 따구, 두만가~에서 하는 거 판데. {응, 아아. 그것은, 고기 잡는 방법이 두만강에서는 하는 것인데 예, 늪에서 하는 것이 다르고, 두만강에서 하는 것이 다른 데.}

10906 # 두만가~에서 대홍적이르 하는 거는 그물이 예:, 한 양백 메다, 한 삼백 메다 이런 그물로 갖추구, {두만강에서 대형적으로 하는 것은 그물이 예, 한 이백 미터, 한 삼백 미터 이런 그물을 갖추고,}

10906 # 그 다음에 그 폭으는 야, 한 메다, 두 메, 두 메다, 한 메다 반. 좌우쪽 너파레 꺼는 폭이 좀 좁구, 복자~이라는 게 야, 웬 한판에 고기르 마감에 받는 데는 궁강 두 솔구 그 다음에 뿌리두 깊단 말ियो. 두 메다씩 그렇게 한단 말ियो. {그 다음에 그 폭은 예, 일 미터, 이 미, 이 미터, 일미터 반. 좌우쪽 옆의 것은 폭이 좀 좁고, '복장'이라는 것이 예, 가장 가운데 고기를 마지막에 받는 데는 구멍도 작고 그 다음에 뿌리도 깊단 말ियो. 이 미터씩 그렇게 한단 말ियो. }

10906 # 그래 그게 한, 한 양백 메다씩 하는데 그 너파레 꺼는 어깨넓이라구 하구 한판에 꺼는 복재~이라가구. {그래 그것이 한, 한 이백 미터씩 하는데 그 옆의 것은 '어깨넓'이라고 하고 가운데의 것은 '복장'이라고 하고.}

10906 # 개구 꼭대개 꺼는 바톨넓이라가구, 아래꺼는 주대넓이라가는데 야, {그리고 꼭대기의 것은 '바톨넓'이라고 하고, 아래 것은 '주대넓'이라고 하는데 예,}

10906@ (그림을 그리면서) 이래 생겼습두? {이렇게 생겼습니까?}

10906 # 아니, 미언:히. 그물이 이게 쪽이 다 잇단 말ियो, 이렇기. 한 넓: 한 넓 쪽이 다 잇단 말ियो. 이렇기. {아니, 밋밋하게. 그물이 이것이 쪽이 다 잇단 말ियो, 이렇게. 한옆 한옆 쪽이 잇단 말ियो, 이렇게.}

10906 # 여기다 이게, 이게 알두 메다나 얄 메다씩 알다숫 메다 초과르 아니 합니. 한 넓으. 이렇게. {여기다 이것이, 이것이 십이 미터나 십 미터씩 십오 미터 초과를 안 하지. 한 앞은. 이렇게.}

10906 # 이런 걸 여 자꾸 닛어서, 이래 닛어서 냥백 메다 하는데 야, 개 영게서부터는 이렇게 폭이 좀 깊, 너르기 한단 말ियो. 이렇기, 이러기 너르게 한단 말ियो. {이런 것을 자꾸 이어서, 이렇게 이어서 이백 미터 하는데 예, 그래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폭이 좀 깊, 넓게 한단 말ियो.}

10906 # 또 이거 이런 거 이거 너르기 하다서 용게 와서 쪼꼬막씩 또 쫄군단 말ियो. 요 고르. 이게 복자~이디. 이게. 이게 마감에 고기르 받는 데란 말ियो. 여기는 고기르 에우는 데디. {또 이것 이런 것 이것 넓게 하다가 요기 와서 조금씩 또 줄인단 말ियो. 요것을. 이것이 '복장'이지. 이것이. 이것이 마지막에 고기를 받는 데란 말ियो.}

10906 # 잔고기털으는 이거는, 이 그물코~이 이런데 야, 이게 너르오. 이게 너르오. 용게

서는 다 작은 거느 달아나라구서 이거 너르기 하우. 여기까지. {잔고기들은 이것은, 이 그물코가 이런데 예, 이것이 넓소. 요기서는 다 작은 것은 달아나라고 이것을 넓게 하오. 여기까지.}

10906 # 개 여기느 야, 솔게 한단 말시오. 요거느. 요, 요 솔게 한단 말시오. 이 복자~아는 요고, 요고. 요 솔게 한단 말시오. 이게. {그래 여기는 예, 좁게 한단 말시오. 요것은. 요, 요 좁게 한단 말시오. 이 복장은 요것, 요것. 요 좁게 한단 말시오. 이것이.}

10906 # 개문 여기는, 마감에 와서 작은 건 여기서 다 나가구 마감에 몰케서 큰 게 다 여기루 오는데 야. {그러면 여기는, 마지막에 와서 작은 것은 여기서 다 나가고 마지막에 몰려서 큰 것이 다 여기로 오는데 예.}

10906 # 게 여기서느 아무 놈두 못 깨구 나가래르. 여기루 오는 놈은 다 큰 게거던. 한근 이상 짜리구야 화에, 야리 다 큰 다이만 여게 받는단 말시오. 쇼에, 년에. {그래 여기서는 아무 놈도 못 뚫고 나가도록. 여기로 오는 놈은 다 큰 것이거든. 한근 이상 짜리고야 황어, 야리 다 큰 것만 여기에서 받는단 말시오. 송어, 연어.}

10906 # 개서 낭백 메다르 쭈욱 늘에서 이래 뚱그렇기 돌아싸우. 가에서 이렇기. {그래서 이백 미터를 쭈 늘여서 이렇게 둥그렇게 돌아 싸오. 가에서 이렇게.}

10906 # 개서 이거 [x달 하x], 천잔에서느 못 [x빠세느x], 끄서낸단 말시오. {그래서 이것 * *, **에서는 못 끌어낸단 말시오.}

10906 # 강물이 흐른단 말시오, 야. {강물이 흐른단 말시오. 예.}

10906 # 개다나니까 같이 내려가면서 끄서내디, 이래. {그러다보니까 같이 내려가면서 끌어내지. 이렇게.}

10906 # 아래우에서. 개 그게 가~이, 속도가, 같이 따라 내려가면서 그물으느 쭈욱 늘에서 쥘 데 오란데 어저느, 돌가싸서. {아래 위에서. 그래 그것이 강, 속도와, 같이 따라 내려가면서 그물은 죽 늘여서 쥘 지 오래인데 이제는, 돌려 싸서.}

10906 # 갠데 끄서내자네느 내려가면서 끄서내디. 차츰차츰차츰 내려가서. {그런데 끌어내자면 내려가면서 끌어내지. 차츰차츰차츰 내려가서.}

10906 # 기래 아래우에 사람이 한 알 메다쭈: 돼문 발써 다 나온 것가 한 가지라구. 그 다음에 궁게서 고기들이 왈왈왈왈 하우. 복자~에서. {그래 아래위에 사람이 한 십미터쭈 되면 벌써 다 나온 것과 같다고. 그 다음에 그 곳에서 고기들이 와글와글 하오. 복장에서.}

10906 # 개구 한 놈이 척 들으가서 게 뒤편에넘어오는 거 방지르 한다구서 쫓, 이렇:춤 들구 이래 그물이 턱 배우래르. {그리고 한 놈이 척 들어가서 그것이 뛰어 넘어오는 것을 방지를 한다고 쫓, 이만치 들고 이렇게 그물이 턱 보이게. }

10906 # 개무 팡팡 솟았다두 거더 툭툭 떨어디구. {그러면 팡팡 솟았다가도 그저 툭툭 떨어지고.}

10906 # 개 밑에 꺼 발르 꼭 두디구 나온단 말시오. 한 짝은 들구, 이렇기. 개 다아 짝에서느 당게구. {그래 밑의 것을 발로 꼭 디디고 나온단 말시오. 한 쪽은 들고, 이렇게. 그래 저 쪽에서는 당기고.}

10906 # 개 쪽: 끄서내무 그 그물 안에 거저 이리 큰 쇼에, 년에. {그래 쪽 끌어내면 그 그물 안에 그저 이렇게 큰 송어, 연어.}

10906 # 게는 게 야, 어징간한 궁갈루 못 나가압니. 다리각이 엉컨 기 이룽기 벌어딘 놈 이 돼서 야. {게는 그것이 예, 어지간한 구멍으로 못 나가지. 다리가 길게 빠져나 온 것이 이렇게 벌어딘 놈이 되어서 예.}

10906 # 개 물기와서, 개서 물기와서 안으르 들어오오. {그래 몰아서, 그래서 몰아서 안 으르 들어오오.}

10906 # 기래 그 한꺼번에 많이 나올 때느 한 이십 개씩 나오는데. {그래 그 한꺼번에 많이 나올 때는 한 이십 마리씩 나오는데.}

10906 # 개 거 겁, 걸뉘에서 야, 어깨 뉘에서두, [x귀일해서x] 두루 나가자구 이래다 다리각이랑 걸킨단 말ियो. {그래 그 걸, 걸뉘에서 예, '어깨뉘'에서도 **** 두루 나가자고 이러다가 다리랑 걸린단 말ियो.}

10906 # 개문 끄스구 내려오다서 툅 떼에서 쫓, 다리각 툅 떼디두 몸튀만 거르만에 쑥 넣디. {그러면 끌고 내려오다가 툅 떼서 쫓, 다리를 툅 떼 버리고 몸통만 주머니에 쑥 넣지.}

10906 # 기래 불으 피워놓구 굶어 먹는단 말ियो. 두어 개만 먹으문 다른 건 먹을 생각이 안 나오. 맛있소. {그래 불을 피워놓고 구워 먹는단 말ियो. 두 마리만 먹으면 다른 것은 먹을 생각이 안 나오. 맛있소.}

10906 # 불에다 굶으문 정말 더 맛있디, 머. 재르 훌훌 불어 데디멘서……야, 두만강 고기잡이 그게 그렇게 하구. {불에다 구우면 정말 더 맛있지, 뭐. 재를 훌훌 불어 버리면서……예, 두만강 고기잡이 그게 그렇게 하고.}

10906 # 그 다음에 낚그물이라는 게 잇는데, 고기 올라오는 무니 알긴단 말ियो. {그 다음에 '낚그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고기 올라오는 무늬를 보면 알 수 있단 말ियो.}

10906 # 쑥: 올라오네스 물이 요래 쪽: 갈가디멘서 고기 쑥: 가는 게 알긴다구. {쑥 올라오면 물이 요렇게 쪽 갈라지면서 고기 쑥 가는 것을 알 수 있다고.}

10906 # 그거 낚그물이라 하는데, 뉘르 보멘서 들으가 잡아내는 거 낚그물. {그것을 '낚그물'이라 하는데, '뉘'를 보면서 들어가 잡아내는 것을 '낚그물'.}

10906 @ 뉘르 본다구……{'뉘'를 본다고……}

10906 # 야. {예.}

10906 @ 공간 말함두? {공간을 말합니까?}

10906 # 아니. 고기 올라오는, 그 줄이. {아니. 고기 올라오는 그 줄.}

10906 # 게, 물이 갈가디땡구 어땡소? {그것이, 물이 갈라지지않고 어땡소?}

10906 # 소꼬락으 요래 물이 밑에다 넣구서 요래 해 보웁게. {손가락을 요렇게 물 밑에다 넣고서 요렇게 해 보시오.}

10906 # 물이 좌우쪽으로 갈가디멘서 소꼬락이 어디메까지 간 게 알기땡구 어땡소? {물이 좌우쪽으로 갈라지면서 손가락이 어디까지 간 것을 알 수 있지않고 어땡소?}

10906 # 그게 고기 뉘란 말ियो. 음. {그것이 고기 뉘란 말ियो.}

10906 # 그 뉘르 보고서 한 알 메다 앞에서 그 뉘르 보문 야, 여기서 그물 가지구서 다 들으간단 말ियो. 앞으 막는단 말ियो. {그 뉘르 보고서 한 십 미터 앞에서 그 뉘르 보면 예, 여기서 그물 가지고서 다 들어간단 말ियो. 앞을 막는단 말ियो.}

10906 # 게 그거에 고기 뉘가 이 그물에 부딪칠, 그이 뉘 때, 안으 들으가사래 빼익 돌아나오오. {그래 그것에 고기 뉘가 이 그물에 부딪힐, 거의 뉘 때, 안으로 들어가서 빙 돌아나오오.}

10906 # 기래서 겹에 사름, 그물가 떡 마주붙인다구. {그래서 겹의 사람 그물과 떡 마주붙인다고.}

10906 # 개 마주붙이문 두만강 물이 쭉: 내려가면서 그개 그물이 같이 붙어서 이래 붙어서 쭉: 내려가문 그물 안에서 와득, 와탁탁와탁탁, 찰라탁찰라탁하우. 기래무 걸긴 게구, 개두 그개 떡 마주붙에두 넉넉하문 놓틴 게구. {그래 마주 붙이면 두만강 물이 죽 내려가면서 그것이 그물이 같이 붙어서 이렇게 붙어서 죽 내려가면 그물 안에서 와득, 와탁탁와탁탁, 찰라탁찰라탁 하오. 그러면 걸린 것이고, 그래도 그것이 떡 마주 붙여도 밋밋하면 놓친 것이고.}

10906 # 개 쇼에가 년에르 그렇기 잡앗소. 낫그물르서. {그래 송어와 연어를 그렇게 잡앗소. 낫그물로.}

10906 # 쓸이 좋은 데문 야, 이전에 우리 우엿 집이 그 우연슈라는 아바니느 형데끼리 하라아침에 한 삼십 개 잡앗다구. {어장(漁場)이 좋은 곳이면 예, 이전에 우리 윗집의 그 우연수라는 할아버지는 형제끼리 하루아침에 한 삼십 마리 잡앗다고.}

10906 # 응, 고기 많을 때디, 머. 그러니까. {응, 고기 많을 때지 뭐. 그러니까.}

10906 # 그 때 갠데 값이 없엇단 말ियो. 한 근에 오십 전씩. 어. {그 때 그런데 값이 없엇단 말ियो. 한 근에 오십 전(현 환율로 한화 65원 정도)씩. 어.}

10906 @ 야, 그렇게 녹엇습두? {야, 그렇게 샀습니까?}

10906 # 응? 그렇게 녹엇디, 머. 갠데 어, 아아 생진집이랑 가는게 야, 너자털으느 이십 전, 남자털은 오십 전. 이룩이 가지구 가 생, 생진 먹을라 갓으니까 쇼에 한 근에 오십 전이문사 괜텨디. 한 번 생진으 먹는데. {응? 그렇게 샀지, 뭐. 그런데 어, 아이 생일집이랑 가는 것이 예, 여자들은 (축의금으로) 이십 전, 남자들은 오십 전. 이렇게 가지고 가 생, 생일잔치를 먹었으니까 송어 한 근에 오십 전이면야 괜찮지. 한 번 생일잔치를 먹는데.}

10906 # 개두 잘 받는 달에느 값이 좋다구 했디. {그래도 잘 받는 달에는 값이 좋다고 했지.}

10906 @ 야, 오십 전이문 먹을 만 하겠습꾸마. {야, 오십 전이면 먹을 만 하겠습니다.}

10906 # 야, 쇼에고기 먹을 만 하잖이구 그래. {예, 송어고기 먹을 만 하잖고 그래.}

10906 # 갠데 생산대에서 할 때에는 가을에 한나, 봄에 한나 거저 주우. 야. {그런데 생산대(20세기 후반, 개혁 개방 이전의 중국에서 마을을 조직하던 행정 조직 단위. 대개 한 개 촌이 하나의 생산대가 됨.)에서 할 때는 가을에 하나, 봄에 하나를 거저 주오. 예.}

10906 # 거저 먹으라구 준단 말ियो. 그거. 값이두 아니 내구. {거저 먹으라고 준단 말이

오. 그것을. 값도 안 내고.}

10906 # 웬 노인잇는 집부터, 할매에 그렇기 여라 개르 못 잡는단 말이오. 그 때느 고기 귀할 땐데 야. {가장 나이 많은 노인 있는 집부터, 한꺼번에 그렇게 여러 마리를 못 잡는단 말이오. 그 때는 고기 귀할 때인데 예.}

10906 # 개 웬 노인잇는 집부터 이래 네 개르 잡우무 네 집으, 웬 노인잇는 집부터 이래. 아매군 아바니구 세탱구. {그래 가장 나이 많은 노인 있는 집부터 이렇게 네 마리를 잡으면 네 집을, 가장 나이 많은 노인 있는 집부터 이렇게. 할머니건 할아버지건 상관없이.}

10906 # 그저 이래 네 집우 먼저 주구, 그 이튿날 잡은 거 떠 그 아래 년세에 따데서 이래 주구, 맨 아아덜 집으느 그저 웬 마감에 채레디구. {그저 이렇게 네 집을 먼저 주고, 그 이튿날 잡은 것을 또 그 아래 연세를 따져서 이렇게 주고, 맨 아이들 집은 그저 가장 마지막에 차례지고.}

10906 # 그래서 가을 봄을르서 두 개사 얻어먹디, 며. {그래서 가을 봄으로 두 마리아 얻어먹지, 뭐.}

10906 # 그 웬, 그 너마지르 맥젼은 거느 가서 싸 와야 돼디. {그 나머지를 먹고 싶은 것은 가서 사와야 하지.}

10906 # [x호르포x]에 나가서 고기잡는 데르 나가서 광지르 턱 니구 안깐덜이 나가오. {[x호르포x](지명인 듯함)에 나가서 고기잡는 데를 나가서 광주리를 턱 이고 아낙네들이 나가오.}

10906 # 두서너이 나간다문 오늘 우리 고기 쌀라 가래르, 가래르 하메 이래 마암 맞는 안깐덜이 광지르 니구 나간단 말이오. (두서넛이 나간다면 오늘 우리 고기 사라가자, 가자 하면서 이렇게 마암 맞는 아낙네들이 광주리를 이고 나간단 말이오.)

10906 # 개 나가 저울에 떠서 한 근에 오십 전 짜리는 무슨 알 근 짜리라두 오 원인테, 그 그 짜래에서 헨금 안 준단 말이오. {그래 나가 저울에 달아서 한 근에 오십 전 짜리는 무슨 열 근 짜리라도 오 원인테, 그 그 자리에서 헨금 안 준단 말이오.}

10906 # 개 생산대에서, 그거 아무개네 알 근짜리 고긴데 단가가 오 원이다, 한 근에 오십 전짜리 알 근에 오 원다 이래 기록해 놓는 더 잇단 말이오. 장부가. 야. {그래 생산대에서, 그것 아무개네 열 근 짜리 고기인데 단가가 오 원이다, 한 근에 오십 전 짜리 열 근에 오 원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는 저 잇단 말이오. 장부가. 예.}

10906 # 개 그거 생산대에서 일 년 총결에 결산할 때 너네 받아갈 게 얼마구 물어넣을 게 얼마구 할 때 그거 떼에내구서 내 탈 게 잇으문 수입이 얼마간에 잇구 식기가 많구 공수나 작게 별문 밀딘단 말이오, 야. 그 양식대 무슨 비요~에, 쇠고기 농가 주구, 돼지고기 농가 주구, 물고기 농가 주구, 물고기 싸 오구, 이거 다: 못 벌은단 말이오. {그래 그것 생산대에서 일 년 총결에 결산할 때 너희 받아갈 것이 얼마고 물어넣을 것이 얼마고 할 때 그것을 떼내고서 내가 탈 것이 있으면 수입이 얼마간에 있고 식구가 많고 분배금(?)을 적게 벌면 밀진단 말이오, 예. 그 양식대 금 무슨 비용에, 쇠고기 나눠 주고, 돼지고기 나눠 주고, 물고기 나눠 주고, 물고

기 사 오고, 이거 다 못 번단 말ियो.}

10906 # 기냥 마이사스, 마이냐스 돼디, 머. {그냥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지, 뭐.}

10906 @ 음, 읊습꾸마. {음, 맞습니다.}

10906 # 음. {음.}

10906 # 개 마이냐스 돼문 그제 또 엇디갇소? {그래서 마이너스 되면 그제 또 어찌갇소?}

10906 # 가 할 슈 없단 말ियो, 거. 일꾼이 작앗구 식기 많구 해에서 그런 거. {그 사람은 할 수 없단 말ियो, 그것. 일꾼이 작았고 식구 많고 해서 그런 것을.}

10906 # [x샌네자~x]에서 그제 저 양보르 해해주디. 넘어간단 말ियो. 이듬헬르. {***에서 그것 저 양보를 해 주지. 넘어간단 말ियो. 이듬해로.}

10906 # 개 한 사오년나 늑칠년 지나가문 자식이 저리 커서 또 다시 더쩍 집 것들은 다 큰 놈들 두루 빠테두 나가구 야, 세간두 나구 이래문 또 그 집이 또 빔으 지기 돼디. {그래 한 사오년이나 육칠년 지나가면 자식이 저리 커서 또 다시 저쪽 집 것들은 다 큰 놈들 두루 빠져도 나가고 예, 세간도 나고 이러면 또 그 집이 빔을 지게 되지.}

10906 # 이쪽 집으느 아아들 다 자라서 서너이 나가 별무 또 그 때 그 집이 또 우셰르 한단 말ियो. 이래 두루 살게끔 말썬이 없단 말ियो. 그제. {이쪽 집은 아이들 다 자라서 서넛이 나가 별면 또 그 때 그 집이 또 형편이 더 나아진단 말ियो. 이렇게 두루 살게끔, 말썬이 없단 말ियो.}

10906 # 개 낫그물으 쫓, 해에서 뭐 저 돈으 버는 게 잇나? {그래 낫그물을 쫓, 해서 뭐 저 돈을 버는 것이 잇나?}

10906 # 거, 저 집안끼리 형데간에 다 농가먹구 거 담과서 오분 동삼 그 사름털은 고저 좋은 일등 고기르 먹는단 말ियो. 오분 여름 먹는다구. {그, 자기 집안끼리 형제간에 다 나눠먹고 그것을 담가서 온 겨울 그 사람들은 그제 좋은 일등 고기를 먹는단 말ियो. 온 여름 먹는다고.}

10906 @ 고기르 담굽두? {고기를 담굽니까?}

10906 # 야, 소곰에다서. 그 큰 고네기에다서 한판 쩍 찌게서 찹기 해야 돼디. 그거. {예, 소곰에다가. 그 큰 장독에다가 (고기의) 가운데를 쩍 쪼개서 찹게 해야 되지. 그 것을.}

10906 # 개두 그제 척 꺼내서 물에다서 떡 담과 저, 소곰물으 쭉 뺀 다음에 감지나 줌 짜알아 넣구서 할때에 물으 맞잡해에서 탁 끓에 먹으문 또 그 맛이 좋단 말ियो. {그래도 그것을 척 꺼내서 물에다가 떡 담가 저, 소곰물을 쭉 뺀 다음에 감자나 줌 썰어 넣고서 한꺼번에 물을 알맞게 맞춰서 탁 끓여 먹으면 또 그 맛이 좋단 말ियो.}

10906 # 녀, 년에가 쇼에느. 예 그 슈에꺼지두. 송어꺼지두 어, 뉘르 보구서 잡소. {여, 연어와 송어는. 예 그 송어까지도. 송어까지도 어, 뉘를 보고서 잡소.}

10906 @ 어, 그렇습두? {어, 그렇습니까?}

10906 # 야, 개 년엔가 하구 들으가서 흘 돌가싸서 잡으문 어떤 때느 슈에 잡힌단 말이

오. 음. {예, 그래 연어인가 하고 들어가서 훔 돌려사서 잡으면 어떤 때는 송어 잡힌단 말이오. 음.}

10908 @ 아바니, 그러면 낚그물 말고 또 무스거 그물이나 뭐……{할아버지, 그러면 낚그물 말고 또 무슨 그물이나 뭐……}

10908 # 그 다음에 뒷구물이라는 게 또 잇디 머. {그 다음에 '뒷그물'이라는 것이 또 있지 뭐.}

10908 # 두만가~에서 하는 게 뒷그물이 야, 그거는 큰 그물에, 앞에서 끄서 내우 야, 이래 쪽: 끄서 내우. {두만강에서 하는 것이 뒷그물이 예, 그것은 큰 그물에, 앞에서 끌어 내오, 예. 이렇게 쪽 끌어내오.}

10908 # 사람이 들으가두 일 없을따 할 때, 이 [x긴노리x]꺼지 그물이 나왔을 때, 그 때, 그물우 야, 한 이십 메다 돼는 거 그 두에 뺑: 돌아가서 떡 막소. {사람이 들어가도 괜찮겠다 할 때, 이 ***까지 그물이 나왔을 때, 그 때, 그물을 예, 한 이십 메다 되는 것을 그 뒤에 빙 돌려서 떡 막소.}

10908 # 기라문 거, 우에서부터 몰케 내려오다서, 혹시 밑을르서 나가는 고기 잇다니. 거 화에같은 거는 야. {그러면 그것, 위에서부터 몰려 내려오다가, 혹시 밑으로 나가는 고기 있지. 그 황어 같은 것은 예.}

10908 # 그게 나가서 두에 가서 그 그물으 께디 못하구서 께께에 나온다구. 거 화에느. {그것이 나가서 뒤에 가서 그 그물을 뚫지 못하고서 끌려 나온다고. 그 황어는.}

10908 # 쇼에라는 거 그거 조매 안 나갑니. 년에란으. {송어라는 것은 그것은 좀처럼 안 나가지. 연어랑.}

10908 # 개 화에, 뒷그물으 바테서 한 잘기씩 잡소. 야. {그래 황어, 뒷그물을 받쳐서 한 자루씩 잡소. 예.}

10908 # 그 화에 많이 드네는 게 나가라구 어떤 사람들이 야, 발으 이래 떡 넣어서 밑에 베리 이룽기 쫘이 나래르 맨드우. {그 황어 많이 들어있으면 그것 나가라고 어떤 사람들이 예, 발을 이렇게 떡 넣어서 밑의 버리를 이렇게 틸이 나도록 만드오.}

10908 # 쇼에 못 나갈 정도루 이래, 끄서내기 자심아구 [x천칠해기x] 자심아다구서. 데 비 내보내우, 막. 화에르. {송어 못 나갈 정도로 이렇게, 끌어내기 힘들고 **** 힘들다구서. 도로 내보내오, 막. 황어를.}

10908 # 그래니까 한 잘기씩 잡디. 많이 나올 때. {그러니까 한 자루씩 잡지. 많이 나올 때.}

10908 # 그러기 후하기 인심 좋앗디. {그렇게 후하게 인심 좋았지.}

10908 # 직금으느 요만한 것두 거저 안 주구. {지금은 요만한 것도 거저 안 주고.}

10908 @ 뒷구무, 또 뭐 무스그 그물 있습두, 아바니? {뒷그물, 또 무슨 그물 있습니까, 할아버지?}

10908 # 게 두만가~에서는 거저 그 후에 예, 개별적으르 잡는 게 야, 띄움그물이라구, 끼워가지구 땡기는 띄움, 띄움그물, 띄움그물이라는 게 잇는데, 그거 직금 돼놈들이 한다구 해사 썬청와~이 땡소. 세 거풀이라구. {그것이 두만강에서는 그거 그 후에 예, 개별적으로 잡는 것이 예, 띄움그물이라고, 끼워가지고 다니는 띄움, 띄움그

물, 띄웁그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되놈들이 한다고 해서 '삼층망'이 됐소. 세 꺼풀이라고.}

10908 # 웬 밑에다서 걸기는 거 하구 그 걸기는, 밖에다서 이막씩 칸이 큰 거 앞뒤에다 붙인단 말이오. {가장 밑에다 걸리는 것 하고 그 걸리는, 밖에다 이만큼 칸이 큰 것을 앞뒤에다 붙인단 말이오.}

10908 # 고기 축 디르구 들어가네는 게 실이 약한 게 찢애딜 위험서~이 있거던. {고기 축 지르고 들어가면 그 실이 약한 것이 찢어질 위험성이 있거든.}

10908 # 갠데 너른 칸으루 쑥 들으간다구, 이게 또. 그 그물으 안으내르. {그런데 넓은 칸으로 쑥 들어간다고, 이것이 또. 그 그물의 안쪽으로.}

10908 # 보드라운 그물으 안으래는 너른 칸으 쪽 께에서, 발은 데서 제 맥으 쓰는가? {보드라운 그물의 안쪽으로는 넓은 칸으로 쪽 께어서, 좁은 데서 제가 맥을 쓰는가?}

10908 # 요렇게 딱 발은 데서 딱 갠기는데, 움헤 딱 지는데. {요렇게 딱 좁은 데서 딱 갠히는데, 딱 움히는데.}

10908 # 기래 꼼작 못하구 나오래르. 기게 삼, 삼층그물이라는 게오. {그래 꼼작 못하고 나오도록. 그것이 삼, 삼층그물이라는 것이오.}

10908 # 참 잘 땀든 게라구, 그게. {참 잘 만든 것이라고, 그것이.}

10908 # 한죽말르 썬청왕, 쌍청왕 하는데, 사, 세층그물이지 머. 거기다서 직금 화에랑 잡소. 슈에두 잡구. {중국어로 '썬청왕('三層罔'의 중국어 발음), 쌍청왕' 하는데, 사, 세 층 그물이지 뭐. 거기에다 지금 황어랑 잡소. 송어도 잡고.}

10908 # 두만가~에서 그거 그게 띄웁그물우 하는 게, 기게 잇구, 두만가~에서 잔고기르 잡거나 조끔 큰 고기르 잡더네는 야, 예, 거, 막 걸기 위해서 잡는 거 야. {두만강에서 그것 그것이 띄웁그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있고, 두만강에서 잔고기를 잡거나 조금 큰 고기를 잡으려면 예, 예, 그, 막 걸기 위해서 잡는 것은 예.}

10908 # 실이 차근차근 한 걸르서 그거, 코~이 손 거느 농골이라가구. {실이 차근차근 한 것으로 그것, 코가 좁은 것은 '농골이'라고 하고.}

10908 # 코~이 너른 거느 사지그물, 오지그물 이룽기 부르는데 야, 걸개그물이지. {코가 넓은 것은 '사지그물', '오지그물' 이렇게 부르는데 예, 걸개그물이지.}

10908 # [x적x] 그물코에 채워서 잡는 게 그거꺼지 그저 잇디, 머. {즉 그물코에 채워서 잡는 것이 그것까지 그저 있지.}

10908 @ 아바니, 그 그물들이 그, 궁강 크기에 따라서두 다 따재임두? {할아버지, 그 그물들이 그, 구멍 크기에 따라서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10908 # 냐. {예.}

10908 @ 어떤 게 제일 그물, 구멍이, 궁강이 크구 어떤 게……? {어떤 것이 제일 그물, 구멍이, 구멍이 크고 어떤 것이……?}

10908 # 웬 큰 거 야, 쇼에잡이르 할 때, 그더, 스, 사지, 오지, 이룽기 크디 머. 이, 다섯 개 손꾸락이 들으가문 오지구. {가장 큰 것은 예, 송어잡이를 할 때, 그저 사지(四指), 오지(五指), 이렇게 크지 뭐. 이, 다섯 개 손가락이 들어가면 '오지'고.}

- 10908 # 야, 네 개 들으가문 사지구, 두 개 들으가문 이지구, 일지문 한 개 들으갈 만 한……요게 코솔이라는 게 일지가. 요게 작은 고기꺼지 다 잡는 게디, 머. {예, 네 개 들어가면 '사지'고, 두 개 들어가면 '이지'고, '일지'면 한 개 들어갈 만 한……요것이 '코솔이'라는 것이, 일지가. 요것이 작은 고기까지 다 잡는 것이지 뭐.}
- 10908 # 금물으 그, 척촌으느 이 지르 가지구 한단 말이오. 가락지, 소꾸락 지째르 가지 구서. {그물을 그, 척촌(尺寸, 촌을 잼)은 이 '지'를 가지고 한단 말이오. 가락지, '손가락 지'자를 가지고서.}
- 10908 # 다섯 개 들으가는 게 오지, 이래 여섯 개무 늑지, 닐곱 개무 칠지, 이렇게 했디. {다섯 개 들어가는 것이 오지, 이래 여섯 개면 육지, 일곱 개면 칠지, 이렇게 했 지.}
- 10907 @ 그러면은:, 아바니 그러믄, 그 두만강 말구 늑에서는 무스거 들구 가 고기르 잡 습두? {그러면은, 할아버지 그러면, 그 두만강 말고 늑에서는 무엇을 들고 가서 고기를 잡습니까?}
- 10907 # 늑에서 소형적을르 하는 거는 역새래에서 반뒤라는 게 잇구, 그 다음에 통발이 잇구, 발딕이 잇구. {늑에서 소형적으로 하는 것은 가장자리에서 '반뒤'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통발'이 있고, '발딕'이 있고.}
- 10907 # 그 다음에 조앙그물이라는 게 잇구. {그 다음에 '조앙그물'이라는 것이 있고. 뿌 리는 것이, 음.}
- 10907 # 그 다음에 투망~이라는 게 잇구. 뿌리는 게. 음. {그 다음에 '투망'이라는 것이 있고. 뿌리는 것이. 음.}
- 10907 @ 반뒤라는 거 무스검두? {'반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10907 # 반뒤라는 거는 거, 두 발이나 발판나 해에서 사람이 좌우쪽에서 쥐구서 이래 풀 뿌리 같은 거 툭 에워싸구 발루 툭툭우 차구……쪼꼬만 거 잡디 머. {'반뒤'라는 것은 그, 두 발이나 발판이나 해서 사람이 좌우쪽에서 쥐고서 이렇게 풀뿌리 같 은 것을 툭 에워싸고 발로 툭툭 차고……조그마한 것을 잡지 뭐.}
- 10907 # 부에랑 손바닥같은 거 혹시 잡긴 잡디 머. {붕어랑 손바닥같은 것을 혹시 잡긴 잡지 뭐.}
- 10907 @ 뭐, 통발이나 발뛰기, 조앙그물, 투망 이런 거는 다 무스거르 잡습두? {뭐, '통 발'이나 '발뛰기', '조앙그물', '투망' 이런 것은 다 무엇을 잡습니까?}
- 10907 # 예, 조앙그물이라는 게 기게 걸개그물인데, 아까 말하던 야. {예, 조앙그물이라 는 것이 그것이 걸개그물인데, 아까 말하던 예.}
- 10907 # 웬 코솔이느 거 농골이구 세천에 잡는 게구, 조앙그물에서 농골이라는 거는 특 히 야, 다 조앙그물에 드는데, 거, 농골이는 웬 코솔이란 말이오. 쉼천에 잡는 게 구. {가장 코가 작은 것은 '농골이'고 자잘한 민물고기를 잡는 것이고, 조앙그물 에서 '농골이'는 가장 코가 작은 것이란 말이오. 자잘한 민물고기를 잡는 것이 고.}
- 10907 # 그거 다음에 조앙그물 사지짜리, 오지짜리 이런 데는 부에, 잉어 이렇기 큰 거

잡는 게란 말이오. 코~오, 코~오 너르게 하디. {그것 다음에 조앙그물 사지 짜리, 오지 짜리 이런 데에는 붕어, 잉어 이렇게 큰 것을 잡는 것이란 말이오. 코를, 코를 넓게 하지.}

10907 # 거 늠에놓소, 거저. 늠에 더 환 타구 들으가서 쪽: 늠에놓소. {그것을 늠여놓소, 그저. 늠에 저 배를 타고 들어가서 쪽 늠여놓소.}

10907 # 그라구서 두만강 후리터르 환으 타구 더 에워싸서 뺑: 돌가 에워싸서 하는 게 잇는데, 폭이 두만강 후리마다 따단 말이오. {그리고 두만강 후릿그물처럼 배를 타고 저 에워싸서 빙 돌려 에워싸서 하는 것이 잇는데, 폭이 두만강 후릿그물마다 다르단 말이오.}

10907 # 두만강 후리느 밀게 내려가는 게다니꺼더 야, 그 각도르 물 속도에다 맞좌사 하디마느 이 늠에 꺼느 그저 떡 서서 나오다나니까더 아래우 베리 그, 이 똥구래미, 밑에 게 조끔 앞세문 돼구 우에 게 좀 떨어디구. {두만강 후릿그물은 밀려 내려가는 것이다보니까 아래위 베리 그, 이 둥그렇게, 밑의 것이 조금 앞서면 되고 위의 것은 좀 떨어지고.}

10907 # 요러래르 딱 그, 아래우 베리르 재에서 맨든단 말이오. {요렇게 딱 그, 아래위 베리를 재서 만든단 말이오.}

10907 # 응, 그래서 그저 좌우쪽에서 췌 당게문 거저 딱 곱만한 간격으르 나오문 똥단 말이오. {응, 그래서 그저 좌우쪽에서 쥐어 당기면 그저 딱 곱만한 간격으로 나오면 똥단 말이오.}

10907 # 게 큰 기술이 없디. 두만강 후리느 이 물 속도에 맞좌서 늘컸다 쫓꼈다 하는 게 잇소. {그것이 큰 기술이 없지. 두만강 후릿그물은 이 물 속도에 맞추어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이 잇소.}

10907 # 아래 그 마듭이르 떡 해에서 쪽 께에서 쫓구는 게 잇소. 아래우 베리르 다 쫓군다구. {아래 그 매듭을 떡 해서 쪽 께어서 줄이는 것이 잇소. 아래위 베리를 다 줄인다고.}

10907 # 게 영 기술이디. {그것이 영 기술이지.}

10907 # 물 류속하구 야, 물 폭하구 거 다 맞좌 떨구디. {물 유속하고 예, 물 폭하고 그 것을 다 맞추어 떨구지.}

10907 # 쪽: 나을 때 늠에서 하는 그물터르 아래 위, 간격이 맞게끔 그거 조절해 나오는데 그게 다, 저 뗏 번 해나문 알기긴 알김니, 그것두. {쪽 나을 때 늠에서 하는 그물처럼 아래 위, 간격이 맞게끔 그것을 조절해 나오는데 그것이 다, 저 뗏 번 해 보면 알게 되긴 알게 되지. 그것도.}

10907 @ 발뛰기라는 것은 어떤 거를 말함두? {'발뛰기'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 입니까?}

10907 # 야, 발딕이라는 거느 늠도라~이 잇단 말이오 야. {예, '발딕'이라는 것은 늠도랑이 잇단 말이오 예.}

10907 # 그 도라~이 늠이 좀 맑아 둥소, 야. 물이 흐르는 데르, 떡 막아놓우무 물 수위 높아디우. {그 도랑이 늠이 좀 맑아 좋소, 예. 물이 흐르는 데를, 떡 막아놓으면

물 수위 높아지오.}

10907 # 개 물 수위 높아디는 데다서 물이 흐르래르 요령만:히 넓기 널이나 딱 대구 고정시기구서 궁게다 즈, 채그물으, 궤짝으 떡 짜서 이래, 턱 바테 놓는단 말이오. {그래 물 수위 높아지는 데다가 물이 흐르도록 요만하게 넓게 널빤지나 딱 대고 고정시키고서 그 곳에다 즈, '채그물'을, 궤짝을 떡 짜서 이렇게, 턱 받쳐 놓는단 말이오.}

10907 # 개문 고기 경겔르 내레오다서는 야, 그 채뿌리에 턱 갸힌단 말이오. 그게 발딕 이디. {그러면 고기 거기로 내려오다가서는 예, 그 채뿌리에 턱 갸힌단 말이오. 그게 '발딕'이지.}

10907 @ 글든 그 널이랑 그 궤짝이랑 다 해서 발딕이라 함두? {그러면 그 널빤지랑 그 궤짝이랑 다 해서 '발딕이'라 합니까?}

10907 # 나. 그 발딕이라가디. {예. 그 '발딕'이라고 하지.}

10907 # 발으 놓는다구 하구. {'발을 놓는다'고 하고.}

10907 @ 발으 놓는다.....{발을 놓는다.....}

10907 # 어, 디근, 덕째르 빼구서 발으 놓았다가문 그더 발딕으 놓은 것가 한가지디. {어, 디근, '딕'자를 빼고서 발을 놓았다고 하면 그저 발딕을 놓은 것과 같은 말 이지.}

10907 # 발으 놓을 자리 잇습데? 이래는 사름이 많소. {'발을 놓을 자리 잇습디까?' 이러는 사람이 많소.}

10907 # 발딕으 났소? 이래구. {'발딕을 놓았소?' 이려고.}

10907 @ 그럼 통발은..... {그럼 통발은.....}

10907 # 으응? {으응?}

10907 @ 통발..... {통발.....}

10907 # 통발으느 버들이나 즈, 전에는 재료 없어서 버들으 가지구 해엿는데 야, 가는 버들으. {통발은 버들이나 즈, 전에는 재료 없어서 버들을 가지고 했는데 예, 가는 버들을.}

10907 # 이룽기[이르기] 똥:그랴게 결른단 말이오. {이렇게 둥그렇게 찼단 말이오.}

10907 # 개구 고기 들으가는 데르 이룽기 또 맨들구 요만히 궁가 내에서 용겔루 고기 들으간단 말이오. {그리고 고기 들어가는 데를 이렇게 또 만들고 요만하게 구멍을 내서 요기로 고기 들어간단 말이오.}

10907 # 갠데 이게 이룽기 쑥 들으가서 안에 들으가두 요런 궁게 잇는데 고기느 모르구서 쑥: 들으가는데 안을 훔 들으가놓오니꺼더 이 밑이 형:하단 말이오 야. {기런데 이것이 이렇게 쑥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도 요런 구멍이 있는데 고기는 모르고 쑥 들어가는데 안을 훔 들어가놓으니까 이 밑이 행하단 말이오, 예.}

10907 # 개 그 안에서 빙빙빙빙 돌자구서, 이래 나오자구서 굽우 츠디, 용게 와서 요고르 안 조매 온단 말이오. 밑으르서 나오자구 뿌디린단 말이오. {기래 그 안에서 빙빙빙빙 돌자고서,이렇게 나오자고서 몸부림을 치지. 요기 와서 요기를 웬만해서 안 온단 말이오. 밑으로 나오자고 두드린단 말이오.}

10907 # 개 게 통발에 갇기디, 기계. {그래 그것이 통발에 갇히지, 그것이.}

10907 # 기래 통발에, 잡는단 말이오. {그래 통발에, 잡는단 말이오.}

10907 # 늪에다두 통발으 놓소. {늪에다가도 통발을 놓소.}

10907 # 이래 좌우작으루 이렇기 날개르 탁 막아놓디. {이렇게 좌우쪽으로 이렇게 날개를 탁 막아놓지.}

10907 # 이래 막아놓구서 여기다 통발으 떡 놓구, 그 쭉이나 깔으 가지구 엮어서, 날개르 쭉: 먼 데르 이래, 막는단 말이오. {이렇게 막아놓고서 여기다 통발을 떡 놓고, 그 쭉이나 갈대를 가지고 엮어서, 날개를 쭉 먼 데를 이렇게, 막는단 말이오.}

10907 # 그 날개애 턱 부딪혀서 아무래두 이쪽으로 온단 말이오 야. 물이 깊은 쪽으르 빙 모다든단 말이오, 이렇기. {그 날개애 턱 부딪혀서 아무래도 이쪽으로 온단 말이오, 예. 물 깊은 쪽으로 빙 모여든단 말이오, 이렇게.}

10907 # 기래 모다들어서 이 통발이 잇으니까 이 안으르 숙 드가디. {그래 모여들어서 이 통발이 잇으니까 이 안으로 쭉 들어가지.}

10907 # 그두 잘 메우. {그것도 잘 걸리요.}

10907 @ 쭉이나 깔루 날개르 또 걸슴두? {쭉이나 갈대로 날개를 또 잡니까?}

10907 # 야, 야. 걸날개르 요래 붙인단 말이오. {예, 예. 걸날개를 요렇게 붙인단 말이오.}

10907 # 통발 잇는 데르 고기 모다들게끔. {통발 잇는 데로 고기 모여들게끔.}

10907 @ 그 늪에서는 무슨 고기를 잡슴두? {그 늪에서는 무슨 고기를 잡습니까?}

10907 # 부에, 꺾지네, 버들개. {붕어, 꺾지(?), 버들개.}

10907 @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다……}

10907 # 야. {예.}

10907 # 갠데 지금 양어자~아 하는 데서느 그런 거 안 넣소. {그런데 지금 양어장 하는 데에서는 그런 것을 안 넣소.}

10907 # 못 넣기 하디. {못 넣게 하지.}

10909 @ 그 조개두 있슴두? {그 조개도 있습니까?}

10909 # 으음? {으음?}

10909 @ 조개두 있…… {조개도 있……}

10909 # 야, 늪에 조개 잇소. 두만가~에느, 흐르는 데느 없구. {예, 늪에 조개 잇소. 두만강에는. 흐르는 데는 없고.}

10909 # 이렇기[이러기] 쭉: 많이 저서 들어온 데, 밑에 [x까이x] 가라앉구, 늪 비뜨러 뗏단 말이오. {이렇게 쭉 많이 안으로 들어온 데, 밑에 [x갈대가x] 가라앉고, 늪 비슷하게 뗏단 말이오.}

10909 # 녀새르 그 기습으르느 물이 흘러나가디마느 이게 이전에 웅덩자리 쿤 게 저서 깊은 데 잇습니. {옆으로 그 기습으로는 물이 흘러나가지만 이것이 이전에 웅덩이 큰 것이 생겨서 깊은 데가 있지.}

10909 # 그런데 조개 쭉, [x치완다구x]. {그런데 조개 ****}

10909 @ 무신, 무슨 조개류가 있슴두? {무슨, 무슨 조개류가 있습니까?}

10909 # 그 여기서 말썽조개, 말썽조개 하는데 야, 이 거면거면 기 이만:이 큰 게, 이런 게. {그 여기서 '말썽조개', '말썽조개' 하는데 예, 이 거뭇거뭇한 것이 이만하게 (어른 손 만 한 크기. 길이가 대략 15cm 정도 됨.) 큰 것이, 이런 것이.}

10909 # 크우, 귀게. {크오, 그것이.}

10909 @ 말썽조개라 함두? {'말썽조개'라고 합니까?}

10909 # 음. 그 쌍말이디 머. 응. {음. 그 상스러운 말이지 뭐. 응.}

10909 # 말이 그게터르 생겼다구서르 그렇기 부른단 말이오. 그거. {말의 그것(암컷의 생식기)처럼 생겼다고서. 그렇게 부른단 말이오. 그것을.}

10909 @ 또 뭐 다른 것두 있재임두? {또 뭐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10909 # 골배애 잇구. {골뱅이 있고.}

10909 # 골배애두 거 먹는다구. 구거. 지금으느. 전에는 원래 아니 먹는 걸르 셋는데. {골뱅이도 그것을 먹는다고. 그것. 지금은. 전에는 원래 안 먹는 것으로 쳤는데.}

10909 @ 골배두 여라가지 있재임두? {골뱅이도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10909 # 여기는, 더, 늪에 꺼느 한 가지. {여기는, 저, 늪의 것은 한 가지.}

10909 # 더 늪지에, 거 더, 야르르한 풀이 서~한 데. {저 육지에, 그 저, 야르르한 풀이성한 데.}

10909 # 거 무슨 달패~이라던두 무시기라던두 야, 꺼풀이 연한 게. 노루꾸레~한 게. 그런 기 있는데, 그거 아니 먹습니. {그 무슨 달팽이라던지 무엇이라던지 예, 껍질이 연한 것이. 노르끄레한 것이.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안 먹지.}

10909 # 먹기느 먹는답데꺼너 여기 사름덜으느 그거 아니 먹소. {먹기는 먹는다고 합디 다만 여기 사람들은 그것을 안 먹소.}

10909 @ 저희두 아니 먹습꾸마. {저희도 안 먹습니다.}

10909 # 응, 저네두 안 먹소? {응, 당신네도 안 먹소?}

10909 @ 저거는 먹는 게 따루, 딸리 잇단 말입꾸마. {저것은 먹는 것이 따로, 따로 잇단 말입니다.}

10909 # 어어. {어어.}

10909 @ 요, 요런 요 안에 무스그 먹을 낫이 있겠습두? {요, 요런 요 안에 무슨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10909 # 어, 그래. 먹을 낫이[나시] 없다. {어, 그래. 먹을 것이 없지.}

10909 @ 이 저기 어디야, 유럽에 가무 프랑스라구 있대님두? 거기 이렇게 크게 잇단 말입꾸마. 이 실한 게. 그러면 골배보다 크단 말입꾸마. 그런 거 삶아서 파서 먹는단 말입꾸마. 골배 먹는 것터르. {이 저기 어디야, 유럽에 가면 프랑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렇게 큰 것이 잇단 말입니다. 이 실한 것이. 그러면 골뱅이보다 크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삶아서 파서 먹는단 말입니다. 골뱅이 먹는 것처럼.}

10909 # 응. 골배애느 여기 사름두 먹소. 이전에는 아니 먹었는데, 어저느. {응. 골뱅이는 여기 사람도 먹소. 이전에는 안 먹었는데, 이제는.}

10909 # 떡 먹어봤소. 일 없습데. 맛이 관태님데. 응. {떡 먹어봤소. 괜찮습디다. 맛이 괜찮습디다. 응.}

10909 # 개 그 조깅 야 이전에 먹는 게 쪼끔해엿소. {그래 그 조개를 예, 이전에 먹는 것이 적었소.}

10909 # 갠데 다른 데 나가 돌아댕기구 들어온 사름덜이 먹는 게 야, 데디는 게 많덜더란 말이오. 다 먹더란 말이오. {그런데 다른 데 나가 돌아다니고 들어온 사람들이 먹는 것이 예, 버리는 것이 많지 았더란 말이오. 다 먹더란 말이오.}

10909 # 개니까 조애 이만:이 큰 거 하나 잡으문 이렇기 돼우. 먹으리. {그러니까 조개 이만하게 큰 것을 하나 잡으면 이렇게 되오. 먹을 것이.}

10909 # 데디는 게 없더라구. {버리는 것이 없더라고.}

10909 # 개 먹으리꺼더 또, 무슨, 이전에 우리 먹는 건 간나사게 쪼:끔하게 요런 거 먹었는데, 질긴 거. {그래 먹을 것이 또, 무슨, 이전에 우리 먹는 것은 가늘고(?) 조그마하게 요런 것을 먹었는데, 질긴 것.}

10909 # 맛이두 벨루 없단 말이오. 그 이전에 먹던 거느. 갠데 그거 한테 이만한 거 먹는데 거 한테 먹으니까 더 맛있더구만. {맛도 별로 없단 말이오. 그 이전에 먹던 것은. 그런데 그것을 한테 이만한 것을 먹는데 한테 먹으니까 더 맛있더구만.}

10909 # 먹을 줄 몰랐단 말이오. {먹을 줄 몰랐단 말이오.}

10910 @ 아바니, 그 바람 이름두 여라가지 애님두? {할아버지, 그 바람 이름도 여러가지 아닙니까?}

10910 # 야. {예.}

10910 @ 예, 그 어디서 부는 것은 무슨 바람이구 이런 것 좀…… {예, 그 어디서 부는 것은 무슨 바람이고 이런 것을 좀……}

10910 # 여기서 서풍, 동풍, 남풍, 북풍, 이래는데 야. {여기서 서풍, 동풍, 남풍, 북풍, 이러는데 예.}

10910 # 그 다음에 서남풍~이요, 동남풍~이요, 이거 잇구. {그 다음에 서남풍이요, 동남풍이요, 이것이 있고.}

10910 # 갠데 그게 민간말르서느 야, 서풍~우 하느바람이라가구[kʰagu], 동풍~우 아랫바람이라가구, 북풍~우 마우재바람이라가구. {그런데 그것이 민간말로는 예, 서풍을 '하느바람'이이라고 하고, 동풍을 '아랫바람'이라고 하고, 북풍을 '마우재바람'이라고 하고.}

10910 @ 마우재앰두? {'마우재'입니까?}

10910 # 야, [x어글르x] 쏘런따~을르서, 쏘런따~이 북에 잇으니까 북에서부터 나온다구서 마우재바람이라가구. {예, *** 소련땅으로부터, 소련땅이 북에 잇으니까 북에서부터 나온다고서 마우재바람이라고 하고.}

10910 # 개 거더 남풍~우느 거저 남풍, 남풍 하디. {그래 그저 남풍은 그저 남풍, 남풍 하지.}

10910 @ 그 어간에서 부는 것은 무스거라 함두? 남쪽 거하구 뭐, 동쪽으…… {그 사이에서 부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남쪽 것하고 뭐, 동쪽을……}

10910 # 그 사이에서 부는 거 서남풍, 동남풍, 뒤북풍 무스거 이렇기 잇단 말이오. {그 사이에서 부는 것은 서남풍, 동남풍, 뒤북풍 무슨 이렇게 잇단 말이오.}

10910 # 그 다음에 돌개바람이 잇구. {그 다음에 돌개바람이 있고.}

10910 @ 어, 돌개바람…… {어, 돌개바람……}

10910 # 어, 돌개바람이라는 게 선풍~이라는 게 잇디, 머. 빙빙빙빙빙빙 돌면서 하늘루
 꼰꼰이 올라가는 거. 그거 돌개바람이라디. 여기서. {어, 돌개바람이라는 것이 선풍
 풍이라는 것이 있지 뭐. 빙빙빙빙빙빙 돌면서 하늘로 꼰꼰이 올라가는 것. 그것을
 돌개바람이라고 하지. 여기서.}

10910 @ 돌개바람이 선풍……뒤, {돌개바람이 선풍……뒤,}

10910 # 뒤북풍. {뒤북풍.}

10910 @ 뒤북풍이…… {뒤북풍이……}

10910 # 야, 뒤북풍 막, 마우재바람우, 뒤북풍. 두에서 부는 북, 부는 거 뒤북풍~이라디.
 {예, 뒤북풍 막, 마우재바람을, 뒤북풍. 뒤에서 부는 북, 부는 것을 뒤북풍이라고
 하지.}

10910 @ 뒤북풍이 두에서 부는 검두? {뒤북풍이 뒤에서 부는 것입니까?}

10910 # 음. {음.}

10910 # 돌개바람으 저네 무시개라구 부르오? {돌개바람을 당신네는 무엇이라고 부르
 오.}

10910 @ 돌개바람, 돌개바람입꾸마. {돌개바람, 돌개바람입니다.}

10910 # 돌개바람 부르디 야. {돌개바람 부르지 예.}

10910 @ 옹습구마. 요즘 아이들은 이런 말으 모른단 말입꾸마. {옹습니다. 요즘 아이들
 은 이런 말을 모른단 말입니다.}

1.9.3. 약초 캐기

10917 @ 아바니, 퍼숫, 퍼숫 야라가지 있재임두? 퍼숫, 이름 좀 알려주웁소. {할아버지,
 버섯, 버섯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버섯, 이름 좀 알려주십시오.}

10917 # 여기:서 먹는 퍼숫이, 두만강역에 두 가지 있소. {여기에서 먹는 버섯이, 두만강
 가에 두 가지 있소.}

10917 # 버들퍼숫이 잇구, 똥퍼숫이 잇구. {'버들버섯'이 있고, '똥버섯'이 있고.}

10917 # 그 다음에 산에서 가독낭게 자라는, 흔히 나오는 게, 예, 중국사름덜으느 무얼,
 무얼 하는데 야, 귀버섯이라구. 귀, 귀띠터르 생겿다구 귀버섯이. 검딩귀버섯이라
 구 하구, 여기서느. {그 다음에 산에서 참나무에 자라는, 흔히 나오는 것이, 예,
 중국사람들은 '무얼'('木耳'의 중국어 발음), '무얼' 하는데 예, 귀버섯이라고. 귀,
 귀처럼 생겼다고 귀버섯. 검정귀버섯이라고 하고, 여기서느.}

10917 # 기래구 또 한 무데에 무룩:이 줄을 켜 나오는 거 군뎃버섯이라는 게 잇구. {그
 리고 또 한 무더기에 무룩이(?) 줄을 지어 나오는 것이 군대버섯이라는 것이 있
 고.}

10917 # 개구 다른 버섯으 이름으느, 머 먹는 이름이 많은데 거 더 우리 잇는 데느 그게
 많댕다나니까 요게 딱 잇단 말이오 야. {그리고 다른 버섯의 이름은, 뭐 먹는 이

름이 많은데 그 저 우리 있는 데는 그게 많지 않다보니까 요것이 딱 있단 말이
오, 예.}

10917 # 그 다음에 거 여기서 나오는 거 더 개암나무 늑득실이라던가 야, 개암나무 버섯
이 야, 늑득실이라던가 잇기는 잇는데 드무디 그게. 회룡보~에느. 늑득실이두 잇긴 잇
소. {그 다음에 그 여기서 나오는 것이 저 개암나무 '늑득실'이라던가 예, 개암나
무 버섯 예, '늑득실'이라던가 잇기는 잇는데 드물지, 그것이. 회룡봉에는. '늑득실'
도 잇기는 잇소.}

10917 @ 늑득실이가 껌, 개암..... {'늑득실'가 개암, 개암.....}

10917 # 개암낭게서 나오디. 개암나무퍼섯이디 머. 기계. {개암나무에서 나오지. 개암나
무버섯이지 뭐. 그것이.}

10917 @ 모, 못 먹는 버섯도 있재임두? {모, 못 먹는 버섯도 있지 않습니까?}

10917 # 야, 못 먹는 퍼섯이, 많디 머. {예, 못 먹는 버섯이, 많지 뭐.}

10917 # 거, 두엄무데에서랑 나오는 똥퍼섯이라는 게 야, [x하늘으x] 회구하디, 이렇게
착 먹음직한 게, 이르르르한 게. {그 두엄무더기에서랑 나오는 똥버섯이라는 것이
예, *** 회구하지, 이렇게 착 먹음직한 것이, 이르르르한 것이.}

10917 @ 똥퍼섯이..... {똥버섯이.....}

10917 # 야, 못 먹, 못 먹는 퍼섯이 함박만하다구서 야, 그 속담이 있단 말이오. 못 먹는
퍼섯일수록 참 잘 생겼단 말이오. 먹음직스럽게 모양새두 곱단 말이오. {예, 못
먹, 못 먹는 버섯이 함박만하다고서 예, 그 속담이 있단 말이오. 못 먹는 버섯일
수록 참 잘 생겼단 말이오. 먹음직스럽게 모양새도 곱단 말이오.}

10917 # 개 사람두 잘 생기기는 해었는데 스, 세, 성질이 고약하거나 그 양심이 나쁘구,
행실이 어지러운 놈은 못 먹는 퍼섯이 함박만하다더니마는 그 네엔이 그 놈이 데
러운 놈이라구 이러메 욕한단 말이오. {그래 사람도 잘 생기기는 했는데 성질이
고약하거나 그 양심이 나쁘고, 행실이 어지러운 놈은 못 먹는 버섯이 함박만하다
더니만 그 년이, 그 놈이 더러운 놈이라고 이러면서 욕한단 말이오.}

10917 @ 못 먹는 퍼섯이, 함박만 하다? {못 먹는 버섯이, 함박만 하다?}

10917 # 야. {예.}

10917 @ 혹시 여기 도롱비서 데일 많이 나구 많이 먹는 퍼섯은 무스겔두, 아바니? {혹
시 여기 도롱비에서 제일 많이 나고 많이 먹는 버섯은 무엇입니까, 할아버지?}

10917 # 데일, 군대퍼섯이, 그 다음, 검정귀퍼섯이, 그 다음에 버들나무퍼섯이 두 가지.
{제일, 군대버섯, 그 다음, 검정귀버섯, 그 다음에 버드나무버섯 두 가지.}

10917 # 게 뻔, 개암낭그퍼섯이라는 거 귀하단 말이오. {그것, 개암나무버섯이라는 것이
귀하단 말이오.}

10917 # 이 앞우루 뗏 해 후이문 회룡봉두 숲이 많이 우거디구 고목이 썩어서 자빠디구
하문 퍼섯덜이 여러가지 종류가 생길 수 잇디. {이 앞으로 몇 해 후면 회룡봉도
숲이 많이 우거지고 고목이 썩어서 자빠지고 하면 버섯들이 여러가지 종류가 생
길 수 잇지.}

10917 # 갠데 버덱에서 살앗디, 회룡봉 산이 무성하디 못하디 하다나니 야, 퍼섯에 대해

서, 회룡봉, 벌등 사름덜 잘 모른단 말이오. 으음. {그런데 물가(?)에서 살았지, 회룡봉 산이 무성하지 못하지 하다보니 예, 버섯에 대해서, 회룡봉, 벌등 사람들은 잘 모른단 말이오. 으음.}

10917 # 개구 또 머슴('퍼슴'의 잘못된 듯)에 대해서 그리 관심이 없구. 이때까지 없었으니까. 직금부터 이 가지, 더 가지 나온단 말이오. {그리고 또 버섯에 대해서 그리 관심이 없고. 이때까지 없었으니까. 지금부터 이 가지, 저 가지 나온단 말이오.}

10917 # 군대퍼슴일르, 깨앰낭그퍼슴일르 나온단 말이오. 이전에는 두만강 퍼, 퍼슴에 그 버들낭그퍼슴이밖에 없었다. {군대버섯이며, 개암나무버섯이며 나온단 말이오. 이전에는 두만강 버, 버섯에 그 버드나무버섯밖에 없었지.}

10917 # 기앰, 그 검덩귀퍼슴으느, 가주낭게 어저느 많으니까 몇 해 전부터 나왔소, 그거느. {그럼(?), 그 검정귀버섯은, 참나무 이제는 많으니까 몇 해 전부터 나왔소.}

10917 # 인공채배 또 해앰디. {인공채배를 또 했지.}

10917 @ 집에서 기르는 거 말구 있대님두, 아바니? 그, 그 산이나 두루에서 절르 나는 여르매 여름은 무시게 있습두? 낭그에 달기는 거. {집에서 기르는 것 말고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그, 그 산이나 들에서 저절로 나는 열매, 열매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무에 달리는 것.}

10917 # 야, 산에 가서 뜯어먹는 여르멜르서느 아그배라는 게 있구, 딜그배라는 게 있구, 그 다음에 산딸기 있구, 머루 있구, 다래 있구, 이거느 회룡보~에 잇는 계란 말이오. {예, 산에 가서 뜯어먹는 열매로는 아그배라는 것이 있고, 산사자(山査子)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산딸기 있고, 머루 있고, 다래 있고, 이것은 회룡봉에 있는 것이란 말이오.}

10917 @ 멀귀…… {‘멀귀’……}

10917 # 멀귀, 다래. 이거느 회룡보~에 잇는 게우. {머루, 다래. 이것은 회룡봉에 있는 것이오.}

10917 @ 아바니, 인제 다 표준말으 씌두? {할아버지, 이제 다 표준말을 쓰십니까?}

10917 # 말으 어느 그렇게 해앰는가? {말을 어느 그렇게 했는가?}

10917 @ 표준말으 많이…… {표준말을 많이……}

10917 @ 딜그배, 아그배, 뭐 이런 내애놓구는 또 무시기 없습두? {산사자, 아그배, 뭐 이런 것 말고는 또 무엇이 없습니까?}

10917 # 그 웨 치르느, 오미, 오, 오, 오모지. {그 외 치로는, 오미, 오, 오, 오미자.}

10917 @ 아, 오모지. {아, 오미자.}

10917 # 야. {예.}

10917 # 거 바윗돌덜에 가문 그게 있구. {그 바윗돌들에 가면 그것이 있고.}

10917 @ 오무재 색깔이 어떻습두? {오미자 색깔이 어떻습니까?}

10917 # 구게 곱만 열엇을 때에느 헤스그레:하구 노르꾸레:하다가서 다 닉우무 빨강소. {그게 막 열렸을 때는 희끄무레 하고 노르스레 하다가 다 익으면 빨강소.}

10917 @ 아, 그렇습두? {아, 그렇습니까?}

10917 # 어. {어.}

10917 # 다래는 거저 열 게서부터 닉은 거꺼지 그저 스퍼렁구. {다래는 그저 열린 것에서부터 익은 것까지 그저 시퍼렁고.}

10917 # 음. 멀귀는 처암에 퍼:렁구 하다서 마감에 꺼:땡기 돼구. {음. 머루는 처음에 퍼렁고 하다가 마지막에 꺼땡게 되고.}

10917 # 알그배두 처암에느 파아라다서 마감에 가서 까:땡기 돼우. 음. {아그배도 처음에는 파랑다가 마지막에 가서 까땡게 되오. 음.}

10917 # 들그배는 퍼:러다서 마감에 잿빨강게 돼구, 텀이 뽀볼볼볼 백이구. {산사자는 퍼렁다가 마지막에 새빨강게 되고, 짐이 뽀볼볼볼 박히고.}

10917 # 그 웨 치느 회룡봉 산에 여는 게 없소. 산 열매. {그 외 치는 회룡봉 산에 열리는 것이 없소. 산 열매.}

10917 @ 오모지. {오미자.}

10917 # 응. {응.}

1.9.4. 사냥

10919 @ 아바니, 넷날에느 산에 가서 산짐승들두 재빌루 잡구 이랬습두? {할아버지, 옛날에는 산에 가서 산짐승들도 스스로 잡고 이랬습니까?}

10919 # 잡대앵구 구래. 회룡보~에서 범꺼지 잡앗는데. {잡지않고 그래. 회룡봉에서 범까지 잡았는데.}

10919 @ 아, 그렇습두? {아, 그렇습니까?}

10919 # 어. {어.}

10919 @ 오, 뉘기 범우 잡앗습두? {오, 누가 잡았습니까?}

10919 # 그 김인문이라는 아바니 청년 때 포수르 해엿단 말ियो. {그 김인문이라는 할아버지 청년 때 포수를 했단 말ियो.}

10919 # 우리: 나기, 아, 우리 그저 대여섯살 때겿소. {우리 태어나기, 아, 우리 그저 대여섯살 때겿소.}

10919 # 그래니까 내 동뉘 기보~이라구 잇는데 그 냥반이 한 야라무 살 때 범우 잡아서 그 범우 타앗단 말ियो. {그러니까 내 동무 기봉이라고 잇는데 그 양반(포수를 말함)이 (기봉이가) 한 여남은 살 때 범을 잡아서 (기봉이가) 그 범을 탔단 말ियो.}

10919 # 범우 탁 잡은 범이디마느 아아들 태우디 기게. 기래네느 야, 엇디 머 좋다오. {범은 탁 잡은 범이지만 아이들 태우지 그것이. 그러면 예, 어찌 뭐 좋다오.}

10919 @ 아, 그렇습두? {아, 그렇습니까?}

10919 # 개서, 제 아들들 데리구가서 범우 태운다구서 범우 잡우무 그더 와르르르르 쏘어 모다와서 어기:여기 돌가서 탁 예본단 말ियो. 그 타구 앓앗다 내리우구 또 다른 놈이 타구. {그래서, 제 아들들 데리고 가서 범을 태운다고서 범을 잡으면 그저 와르르르르 쏘어 모아와서 어기어기 돌려서 탁 예운단 말ियो. 그 타고 앓았

다 내리게하고 또 다른 놈이 타고.}

10919 # 기래서 그 범이 개무 우리 골 안에서 잡았는데 야, 우리 골 안에 평풍바위라고 있소. {그래서 그 범이 그러면 우리 골 안에서 잡았는데 예, 우리 골 안에 병풍바위라고 있소.}

10919 # 그 평풍바위에서 그 인문이라는 포수, 잡았는데, 잡아서 혼자서 운반 못 해서 우리 동네 가깝우니까 '야, 더 더 평풍바위에다서 내 무스그 잡았는데 무시겐두 모르겠다. 아마래 큰 짐스~이 같더라'. {그 병풍바위에서 그 인문이라는 포수, 잡았는데, 잡아서 혼자서 운반 못 해서 우리 동네 가깝우니까 '야, 저, 저 병풍바위에서 내 무엇을 잡았는데 무엇인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큰 짐승 같더라'}

10919 # 기래서 사람덜이 올라가서 보니꺼더 범이란 말이오. 구부러 떨어뎃는데 그, 아래 웅덩개르 떨어뎃더라구, 구 때 벌써.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보니까 범이란 말이오. 굴러 떨어졌는데 그, 아래 웅덩이로 떨어졌더라고, 그 때 벌써.}

10919 @ 그 초~올르 쏜 겜두? {그 총으로 쏜 것입니까?}

10919 # 초~올르, 초~올르 쏘았다. {총으로, 총으로 쏘지.}

10919 # 그래 그 동네사람덜이 가서 운반해 내려다서 즉금 기와집이 잇대니우? {그래 그 동네사람들이 가서 운반해 내려다가 지금 기와집이 있지않소?}

10919 # 으, 그 기와집우 앞에다서 턱 놓구서 앞두 골안에 아아덜이 와서 탕단 말이오. {응, 그 기와집 앞에다 턱 놓고서 앞뒤 골 안에 아이들이 와서 탕단 말이오.}

10919 # 개 기와집[기와짓] 둘째가 내가 동뎡데 고 때 고거 고저 대여섯살 고저 고런데 우리느 세상 몰랐는데 야, 그 집 형님이 열 살 이상 돼았디, 머. 개 그 형님이 타봤단 말이오. {그래 기와집 둘째와 내가 동무인데 그 때 그것 그저 대여섯살 그저 그런데 우리는 세상 몰랐는데 예, 그 집 형님이 열 살 이상 되었지, 뭐. 그래 그 형님이 타봤단 말이오.}

10919 # 개구 앞 고래애 사름덜두 그 낫 등렬이나 그보다 더, 더 나아 먹은 것덜이 한 알대엿살씩 뉘 것들두 타보구. {그리고 앞 골의 사람들도 그 나이 또래나 그보다 더, 더 나이 먹은 것들이 한 열댓살씩 된 것들도 타보고.}

10919 @ 그 산이 깊수, 깊었습꾸마? {그 산이 깊습, 깊었습니다?}

10919 # 깊대애닌데, {깊지 않은데.....}

10919 @ 아아, 깊대애닌데..... {아아, 깊지 않은데.....}

10919 # 야, 깊대애닌데 개 어드기 돼 조선에서 건네오나 이 삼각산에서 간 놈인데 이 더 다두촌이라 소판령 그 섬설에서 간 놈인데 거기까지 가 놓으니 그때느 낭기라는 게 무성하디 못했단 말이오, 거. 사름이 걸어뎡게두 다 이거 드러내애놓구 알기는데. {예, 깊지 않은데 그래 어떻게 되어 조선에서 건너온 것이거나 이 삼각산에서 간 놈인데 이 저 다두촌이랑 소판령 그 언저리에서 간 놈인데 거기까지 가 놓으니 그때는 나무라는 것이 무성하지 못했단 말이오, 그것이. 사람이 걸어다녀도 다 이것 드러내놓고 알 수 있는데.}

10919 # 그 바윗들이 평풍바위 게 바위 섬서리가 좋다구, 게. 으습하다구, 그게. {그 바위뎡이 병풍바위 그 바위 언저리가 좋다고, 그것이. 으습하다고, 그것이.}

10919 # 기래 거게에 으쓱한데라고자 들으가 늑어 잣는데 사름으게 그만에 발견돼엿소.
 {그래 거기에 으쓱한 데라고서 들어가 누워 잣는데 사람에게 그만 발견됐소.}

10919 # 기래 그거 알아볼 수, 초~오 놓을 수 잇는 데르 살살살살 가만가만 게에 가서,
 등사디에서 바름에 이래 터레기 폴렁폴렁폴렁 하는데 조끔 더 들으가야 깊으기
 쏹갯는데 잘못하다사 터력이 톱 쏘오무 거 안똥단 말이오 야. {그래 그것을 알아
 볼 수, 총을 쏴 수 잇는 데로 살살살살 가만가만 기어 가서, 등에서 바름에 이렇
 게 털이 폴렁폴렁폴렁 하는데 조금 더 들어가야 깊게 쏴갯는데 잘못하다가 털을
 톱 쏘면 그것은 안똥단 말이오, 예.}

10919 # 기래서 차츰차츰차츰 가다나니까 이만~히 드러내 놓엿단 말이오. 등사디 빼왔단
 말이오. {그래서 차츰차츰차츰 가나보니까 이만하게 드러내 놓엿단 말이오. 등이
 보엿단 말이오.}

10919 # 기래서 거 무슨 그러다 거리 가깝아땃디 머. {그래서 그 무슨 그러다 거리 가까
 워졌지 뭐.}

10919 # 범은 잠이 들엇디. {범은 잠이 들엇지.}

10919 # 그 패애댕기다서 그 으쓱한 데르 만났으니까 어땃던 들어엿덴 쟈데 잠이 든 거
 탁 쏴 쟈데 거저 등빼 탁 부러땃단 말이오. {그 피해다니다가서 그 으쓱한 데를
 만났으니까 어땃든 들어엿드린 것인데 잠이 든 것을 탁 쏴 것인데 그저 등빼 탁
 부러졌단 말이오.}

10919 # 꿈쩍못하디 머. 그저. 음음. {꿈쩍 못하지 뭐. 그저. 음음.}

10919 # 기래 거저 척 그 자래에서 구부러서 웅덩개에 그게 한 알 메다 넘는 웅덩개에
 내려와 탁 떨어땃소. 그거느. {그래 그저 척 그 자리에서 굴러서 웅덩이에 그것이
 한 십 미터 넘는 웅덩이에 내려와 탁 떨어졌소. 그것은.}

10919 # 개구서 이 사름으느 큰 즘스~인 거 알구서 개 만약세에 잘못 맞은 놈이문 범이
 맞으문 선불으 맞으문 사름으 덮친다느 말으 듣다니니꺼더 야, 그새 쟁:둥 달아
 내려왔단 말이오. {그러고서 이 사람은 큰 짐승인 것을 알고서 그래 만약에 잘못
 맞은 놈이면 범이 맞으면 선불을 맞으면 사람을 덮친다는 말을 듣다보니까 예,
 그새 쟁충 달려 내려왔단 말이오.}

10919 # 그래 내려와서 '내 야,무스그 한나 늑혔는데 그게 아무래 큰 짐승 같더라.' {그
 래 내려와서 '내 야, 무엇을 하나 늑혔는데 그것이 아무래도 큰 짐승 같더라.'}

10919 # '게 그게 그럼 범이란 말이오?' {'그것이 그것이 그럼 범이란 말이오?'}

10919 # '글쎄, 모르갯다. 아무래 그게 큰 즘스~으느 옴더라.' {글쎄, 모르갯다. 아무래도
 그것이 큰 짐승은 맞더라.}

10919 # 기래 따라 올라갔는데 겹이 나 주춤주춤주춤 하멘서 초 ~오 쏴 자리르 보니 없
 단 말이오. {그래 따라 올라갔는데 겹이 나 주춤주춤주춤 하멘서 총을 쏴 자리를
 보니 없단 말이오.}

10919 # 이게 살아 가대애넛나 하구서 야, 기랜데 초~오 쏴 사름으느 그 자신이 알게서
 그 자리르 아니 보구 그 웅덩개만 보메 갓단 말이오 야. {이게 살아서 가지 았았
 나 하고서 예, 그런데 총을 쏴 사람은 그 자신이 알아서 그 자리를 안 보고 그

웅덩이만 보면서 왔단 말이오, 예.}

10919 # 개 다른 놈들은 아무데서 잡았다니 그거 평풍바위 그 돌쭈 사이르 본단 말이오. 이래메 올라가디. {그래 다른 놈들은 아무데서 잡았다니 그것 병풍바위 그 돌툼 사이를 본단 말이오. 이러면서 올라가지.}

10919 # 기랜테 이 초~오 쏜 사름우느 궁게서 맞아서 착 꺼꾸루 백에 내려오는 거꺼지 봤거든. {그런데 이 총을 쏜 사람은 그 곳에서 맞아서 착 거꾸로 박혀 내려오는 것까지 봤거든.}

10919 # 개네 아래르 보니까 안가서 그 자리에 탁 내배데 잇었다. {그런데 아래를 보니까 안 가서 그 자리에 탁 나자빠져 있었지.}

10919 # 개 '너 다른데 보디 마라. 더 웅덩개르 봐라.' {그래 '너 다른데 보지 마라. 저 웅덩이를 봐라.'}

10919 # '자! 더게 범이구레.' {'앗! 저것이 범이구려.'}

10919 # 개 죽은 범이라두 겹이 나서 운쭈운쭈운쭈하더라란 말이오 거. 그래서 아래애 가다나니 거더 개두 혹시 이 몰라서 야, 포수느 초~오 게와들구 두우 따라서 아래애 바이랑 가지구 들으갓단 말이오. {그래 죽은 범이라도 겹이 나서 움쭈움쭈움쭈하더라란 말이오, 그것이. 그래서 아래 가다보니 그저 기래도 혹시 이 몰라서 예, 포수는 총을 겨누어들고 뒤를 따라서 여럿이 밧줄이랑 가지고 들어갓단 말이오.}

10919 # 개 가 보니 죽엇드라우 발썌. {그래 가 보니 죽엇더라오, 벌썌.}

10919 # 숨이 조끔 잇더라우. {숨이 조금 있더라오.}

10919 @ 죽은 거르 탕습두? {죽은 것을 탕습니까?}

10919 # 그거 거저 가지구 내려오다나니까 다 숨이 넘어갓디, 머. {그것을 그저 가지고 내려오다보니까 다 숨이 넘어갓지, 뭘.}

10919 # 기 다 빠테나간 게 사오? {기(氣) 다 빠져나간 것이 사오?}

10919 # 기래 그거 이래 재비에 턱 해애놓구서 인저 떡 옆해놓구서 등사디에 올라 앉으라구. {그래 그것을 이렇게 스스로(?) 턱 해놓고서 이제 떡 옆드리게 해 놓고서 등에 올라 앉으라고.}

10919 # 응. 그라문 그거 이전에 말으느 야, 범우 탕다나문 어저느 모든 운시가 다 뺏어 데 나가구, 운액이 뺏어 데 나가구, 그래 좋다우. {응. 그러면 그것 이전의 말은 예, 범을 탕다고 하면 이제는 모든 운이 다 벗어나고, 액운이 벗어나고, 그래 좋다오.}

10919 # [x마네x] 그렇게나 한디 모른 게라우. {** 그렇게나 한 지 모르는 것이라오.}

10919 @ 그 범은 그러문 그 포수가 가졌습두? {그 범은 그러면 그 포수가 가졌습니까?}

10919 # 야, 그 포수 가지탱구 그래. 그때애사 머 벌금 하는가 무슨……그게 넘재디. {예, 그 포수 가지지않고 그래. 그때야 뭘 벌금을 내는가 무슨……그것이 임자지.}

10919 @ 그럼 아바니느 무스그 나가서 산짐승을 줌 잡아 보셨습두? {그럼 할아버지께서는 무엇을 나가서 산짐승을 줌 잡아 보셨습니까?}

10919 # 산짐스~으, 오소리, 토끼, 여끼, 그래 잡아봤소. {산짐승을, 오소리, 토끼, 여우, 그렇게 잡아봤소.}

10919 @ 그런 거 어찌 잡슴두? {그런 것을 어떻게 잡습니까?}

10919 # 오소리는 그 고기르 먹자구. 그 그 기와집 우엿 집이 우리 박쨌데 야, 내바다 나이 어린 켄데 같이 가자구 하디 머. {오소리는 그 고기를 먹자고. 그 그 기와집 위의 집이 우리 박씨인데 예, 나보다 나이 어린 것인데 같이 가자고 하지 뭐.}

10919 # '형님, 같이 가시오. 동뮈르 하래르.' {'형님, 같이 잡시다. 동무를 하게.'}

10919 # 기래 따라가서 그 찰으 농을 자리르 파두 주구, 동삼같은 데느 꼭펠르써 야, 드 디개찰으 농자문 좀 파야 댜단 말ियो. {그래 따라가서 그 텃을 농을 자리를 파도 주고, 겨울같은 때는 곡괭이로써 예, 디딤텃을 농자면 좀 파야 댜단 말ियो.}

10919 @ 무스그 찰으? {무슨 텃을?}

10919 # 드디개 찰으. {디딤텃을.}

10919 @ 아아. {아아.}

10919 # 개 그 사름이 그 텃을 모새르 날가다주구, 놓는 어간에. 거 찰으 채워서 그 웅더~에다서 반듯이 농구 조애르 딱 댜는단 말ियो, 고거. 드딜 데르. {그래 그 사름이 그 텃을 모래를 날라다주고, 놓는 사이에. 그 텃을 채워서 그 구덩이에다 반듯이 놓고 종이를 딱 댜는단 말ियो, 고것. 디딜 데를.}

10919 # 그래 조애꺼지 딱 댜은 다음에 그 녀파리르 모샐르서 살살살살 텃구 그 조아우에다서 야, 거부제기 같은 거 대수간 농구서 또 그 모새르 슬슬스스슬슬 채놓는단 말ियो. 조애, 아니 알기래르. {그래 종이까지 딱 댜은 다음에 그 가장자리를 모래로 살살살살 텃고 그 종이 위에다 예, 검불 같은 것을 약간 놓고서 또 그 모래를 슬슬스스슬스르 쳐놓는단 말ियो. 종이를 알 수 없도록.}

10919 # 개무 그더, 딱 길에다 놓다나니꺼더 고거 풀썩 드디무 [x뚝울바사x] 딱 쫘디, 거저. {그러면 그저, 딱 길에다 놓다보니까 고것 풀썩 디디면 텃이 딱 채워지지. 그저.}

10919 # 게 드디개찰이 그런데, 그 시쥬~우 같이 땡기몐서 잡아봤는데 야, 멧 개, 잡앗디, 머. {그것이 디딤텃이 그런데, 그 시중을 같이 다님몐서 잡아봤는데 예, 멧 마리, 잡았지, 뭐.}

10919 # 켄데 그놈 고기 맛있소. {그런데 그놈 고기 맛있소.}

10919 @ 그럼 오소리는 찰으, 찰으 개다 잡슴두? {그럼 오소리는 텃을, 텃을 가져다 잡습니까?}

10919 # 야, 개구 또 굴우 뚜데 잡는데 회룡봉 굴우느 바윗석이 돼서 안 돼더란 말ियो. 우리 한번으 해해보자구서 갓디 머. 한 대여섯이서 갓단 말ियो. {예, 그리고 또 굴을 뒤져서 잡는데 회룡봉 굴은 바윗돌이 돼서 안 되더란 말ियो. 우리 한번을 해보자고서 갓지 뭐. 한 대여섯이서 갓단 말ियो.}

10919 # 개 안에 오소리 잇는 데느 많은데 그 돌으 번디는 쉬 없단 말ियो. 그 크, 큰 돌으들이 [x무라성x]같은 게 푹푹푹 푹 잇는 쫘으르 들으간 데느 방법이 없어서 안 돼갓다. 집으르 돌이 내려왔다. {그래 안에 오소리 잇는 데느 많은데 그 돌을

뒤집는 수가 없단 말이오. 그 크, 큰 돌들이 ***같은 것이 딱딱딱딱 있는 틈으로 들어간 데는 방법이 없어서 안 되겠다. 집으로 돌이 내려왔지.)

10919 # 갠데 어느 아바니 '그거 쫓, 내굴으, 거 썰와 디레 보내애 봐라.' 이라더란 말이 오 야. {그런데 어느 할아버지께서 '그거 쫓, 연기를, 그 피워 들여보내봐라.' 이라더란 말이오, 예.}

10919 # 개서, 그 씌낭그, 불 썰와서 이렇기 잘게다 넣어가지구 갓소. {그래서, 그 씌나무(?) 불 피워서 이렇게 자루에다 넣어가지고 갓소.}

10919 # 개 불으 피우구, 그 내굴으 안으르 들으가게 하자구서 농약으란 뿌리는 분무기 잇대니우? 분무기르 이래 딱 각도르 맞춰놓구서 이래 막 갓아서 그 내굴이 구냐~으르 다 들으가더라구. {그래 불을 피우고, 그 연기를 안으로 들어가게 하자고 농약이랑 뿌리는 분무기 있지않소? 분무기를 이렇게 딱 각도를 맞춰서 이래 막 갓아서 그 연기가 구멍으로 다 들어가더라고.}

10919 # 기래 들으가는데 돌쫓이 야, 궁개애, 이런 게 사바~에 잇단 말이오 그저. {그래 들어가는데 돌틈이 예, 구멍이, 이런 것이 사방에 잇단 말이오, 그저.}

10919 # 다 그저 사바을르 [x꾸두x] 내굴이 화아 나가다나니 그게 무슨 오소리 잇는 데 꺼지 언제 미치겟소? {다 그저 사방으로 ** 연기가 활 나가가보니 그것이 무슨 오소리 잇는 데까지 언제 미치겟소?}

10919 # 개 뚜 그것두 [x패재애x] 헛단 말이오. 못 잡았소, 그저. {그래 또 그것도 [x실패x]를 헛단 말이오. 못 잡았소, 그것을.}

10919 @ 그러문 뭐 찰으 내애놓구는 방법이 없습꾸마느. {그러면 뭐 텃을 빼고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10919 # 기래 그 부분에다서 그, 내 아께 말하던 그 사람이 목노코~오 놓앗디 머 야, 올코~오. {그래 그 부분에다 그, 내 아께 말하던 그 사람이 올무코를 놓았지 뭐 예, 올무.}

10919 # 올코~오 낚는데, 아니 메더라구 그게. {올무를 낚는데, 안 걸리더라고 그것이.}

10919 # 어디에두 피해 땡깁니. {어디에도 피해 다니지.}

10919 # 썩 굴 밖에 나와서 그게 땡기는 통로에다 놓아서느 잡디마느 그 굴 어구지에다 놓아서느 천상 못 잡소. {썩 굴 밖에 나와서 그게 다니는 통로에다 놓아서느 잡지만 그 굴 어귀에다 놓아서느 천상 못 잡소.}

10919 # 이상스럽더란 말이오. 그게. {이상스럽더란 말이오. 그것이.}

10919 # 거게서 때까닥 메엠즉한데, 이 올코에 안 들으간단 말이오. {거기에서 재깍 걸림즉한데, 이 올무에 안 들어간단 말이오.}

10919 # 찰에느 메는데. {텃에는 걸리는데.}

10919 # 굴역에다 찰으 놓아서느, 거기다 한 번만 기래서 놀래우네느 야, 나갓다 들으왔다 하는 거 지장 줄께바서 굴문역에다 찰으느 안 낚소. {굴 옆에다 텃을 놓아서느, 거기에다 한 번만 그래서 놀라게 하면 예, 나갓다 들어왔다 하는 것 지장 줄까봐 굴문 옆에다 텃을 안 낚소.}

10919 # 어, 그게 궁게서 그래 놀라나무 다른 데루 이도~오 한단 말이오 야. {어, 그래

그 곳에서 그래 놀라게 되면 다른 데로 이동을 한단 말ियो, 예.)

10919 # 물역에서 한내 상측이 나무 그늘덜두 야, 이게 몯쓸 데라구서 다 나와서 도망테 다른 데 가서 거처르 정하무 안돼댕구 어떻겐소? {물가에서 하나 초상이 나면 그 놈들도 야, 이것이 몯쓸 데라고서 다 나와서 도망쳐 다른 데 가서 거처를 정하면 안되지 않고 어떻겐소?}

10919 # 개 먼 디다서 그것들 땡기느 그느다서 좇으 놔서 그 해 동삼에 아무래 대여섯 개 잡았소. {그래 먼 데다가 그것들 다니는 그늘에다가 덮땡을 놓아서 그 해 겨울에 대여섯 마리 잡았소.}

10919 # 개두 그 안에 이듬해 보니까더 야, 그 청겨얼으 하느라구서 안에서 끄서넛대는 게 동삼에 묵으면서 어즈럽혀 놓은 거 끄서 내애간 게 잇더라구. 기래 거, 많앳디, 머. 거기. {그래도 그 안에 이듬해 보니까 예, 그 청겨을 하느라고 안에서 끌어냈다는 것이 겨울에 묵으면서 어지럽혀 놓은 것을 끌어 내간 것이 있더라고. 그래 그, 많앳지, 뭐. 거기.}

10919 # 다 못 잡소. 그런 굴이 가스, 곧에 여라 곧이 잇엇소. {다 못 잡소. 그런 굴이 ** 곳에 여러 곳이 잇엇소.}

10919 # 개 회룡보~에 오소리 많앳디. {그래 회룡봉에 오소리 많앳지.}

10919 @ 여끄 엇데 잡습두? {여우는 어떻게 잡습니까?}

10919 # 여끄느 그 잡자구 해 잡은 게 아니라 쩍, 토끼 목노오 낫는데, 토끼 목노오 놓은 게 이눔이 여끼란 게 대가리 끄스구사 살살살살 땡기다나니 그 여끄 목노에 대가리 쑥 들으가서 이눔이 토끼보다 힘이 썩 쉼 기 애니구 무시게오. {여우는 그 잡자고 해서 잡은 것이 아니라 쩍, 토끼 올무를 놓았는데, 토끼 올무를 놓은 것이 이눔 여우란 것이 대가리 끌고서 살살살살 다니다보니 그 여우 올무에 대가리 쑥 들어가서 이눔이 토끼보다 힘이 썩 쉼 것이 아니고 무엇이오.}

10919 # 탈! 채엿단 말ियो. 그거. {탁! 채엿단 말ियो.}

10919 # 목노코~오 탁 쉼 게 그 새줄이 톱 끊어뎛거든? {올무코를 탁 쉼 것이 그 쇠줄이 톱 끊어졌거든?}

10919 # 새줄이 또 끊어디면서 끊어딘 마뽯이가 여 땡, 까풀아붙엿단 말ियो. 이썩 걸르 착 끊이면서 나가다나니까더 딱 까풀아붙어서 새줄으 췌와딜 만이 다 췌와디구고 올코~에서 뻗어 안 뎛단 말ियो. {쇠줄이 또 끊어지면서 끊어진 매듭이 여기 딱, 말려들어붙엿단 말ियो. 이썩 것을 착 끊으면서 나가다니까 딱 말려들어붙어서 쇠줄은 조여질 만큼 다 조여지고 고 올무코에서 안 벗어진단 말ियो.}

10919 # 개 거 목아지르 떡 췌와놓우내르 고게 뻗어 안 디는데 제 맥을르서 뭐 엇디게, 터럭 속에 들으가서 떡 그게 뷌엿는데. {그래 그 모가지를 떡 조여놓으니까 고것이 안 벗어지는데 제 힘으로 뭐 어떻게, 털 속에 들어가서 떡 그것이 되었는데.}

10919 # 개서 매삼이 티다서 그 웅덩게, 흥 내려가서 야, 톱 죽엿더라란 말ियो. {그래서 발버둥 치다가 그 웅덩이, 내려가서 예, 톱 죽엿더라란 말ियो.}

10919 # 그거 토끼 잡자구 놓은 코~인데 아 거 묘하게 뷌더라란 말ियो. 거. {그것을 토끼 잡자고 놓은 코인데 아 그것이 묘하게 뷌더라란 말ियो, 그것이.}

10919 # 개 거 쇠줄으 그거, 얻어봤단 말이오. {그래 그 쇠줄을 그것, 찾아봤단 말이오.}

10919 # 그 이기 어똥기 돼 죽었겠는가? {그 이것이 어떻게 되어 죽었겠는가?}

10919 # 갠데 그 코~이 없어봣으니까 끊어대 나갔으니까 이게 내 큰 게 끼웠겠다. {그런데 그 코가 없어졌으니까 끊어져 나갔으니까 이것이 내 큰 것이 끼웠겠다.}

10919 # 개 목아지르 얻어봤단 말이오. 소톱우 넣어서 소꾸락으 넣어서 이래 거저 쇠줄으 딱 [x배우르x] 걸키더란 말이오. {그래 모가지를 찾아봤단 말이오. 손톱을 넣어서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그저 쇠줄을 딱 *** 걸리더란 말이오.}

10919 # 개 거 살살살살 뚜데 보니까더 끊어던 데가 요령기 낚시 민지터르, 크두두 앵기 고령기 딱 민지만:이 고령기 딱 오구래디구 새줄 떡 걸겟단 말이오. 코~이. {그래 그 살살살살 뒤집어 보니까 끊어진 데가 요렇게 낚시 바늘끝(정확히는 낚시바늘의 뾰족한 끝에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살짝 빠져나온 부분)처럼, 크지도 앵게 고령기 딱 낚시바늘끝만큼 고령기 딱 오그라지고 쇠줄 떡 걸렸단 말이오. 코가.}

10919 # 고래서, 토끼 목노에다서 여끄 잡았디. {그래서, 토끼 올무에다 여우를 잡았지.}

10919 @ 아, 그렇습두? {아, 그렇습니까?}

10919 # 음. {음.}

10919 # 기래구서 우리 동쪽 집이, 그, 산기슭에 잇는 집이 그, 쥐르 잡자구서 야, 전기 고냐이라는 게 잇소. {그리고서 우리 동쪽 집이, 그, 산기슭에 잇는 집이 그, 쥐를 잡자고서 예, '전기고양이'(주로 닭장이나 집 주위에 몇 개의 짧은 꼬챙이를 박아 기둥을 삼고, 여기에 긴 철사를 지상에서 2~5cm 높이가 되도록 이어놓은 다음 철사에 전기를 통하게 한 장치임. 쥐를 잡기 위한 것임.)라는 것이 잇소.}

10919 # 그거 떡 낚는데, 여끼 와서 탁 드뎃단 말이오. {그것을 떡 놓았는데, 여우가 와서 탁 디뎃단 말이오.}

10919 # 개서 여끼 한내 쪽 번데서 잡구. {그래서 여우 하나 쪽 쓰러져서 잡고.}

10919 # 기래 두, 둘으. 재네니 잡자구 놓은 갠데 그래 우연간에 두 개 잡았디. {그래 두, 둘을. 가만히 잡자고 놓은 것인데 우연히 두 마리 잡았지.}

10919 @ 아바니, 그문 하늘에 날아댕기는 날짐승은 어똥게 잡았습두? {할아버지, 그러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날짐승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10919 # 날짐승, 기레기가 오리, 꿩, 이게 화룡보~에 많다나니꺼더 탄으 놓는데, 기레기느. {날짐승, 기러기와 오리, 꿩, 이것이 화룡봉에 많다보니까 '탄'(기러기, 오리 등을 잡는 올가미)을 놓는데, 기러기느.}

10919 # 기레기르 하느바람이 불 때, 서풍~이 불 때 야, 동풍~이 불 때나 그 바람이 오는 방햐~에다서 대가리 향한단 말이오. 거 기러기란 거느. {기러기를 하늬바람이 불 때, 서풍이 불 때 예, 동풍이 불 때나 그 바람이 오는 방향에다 대가리를 향한단 말이오. 그 기러기라는 것은.}

10919 # 바람이 오는 쪽에다서 궁디 돌아대무 터력이 이렇기 가르닐러나서 야, 앞으루 전진할 때무 그 좋대았디, 머. 불편하다. {바람이 오는 쪽에다 궁둥이를 돌려대면 털이 이렇게 가로일어나서 예, 앞으로 전진할 때면 그 좋지않지, 뭐. 불편하지.}

10919 # 개서 이래 바람 향해 았으른 터력이 제 깃대르 바람에 쫓어 나가다나니꺼 불편

감이 없단 말ियो. {그래서 이렇게 바람 향해 앉으면 털이 제 깃대로 바람에 췌겨나가다보니까 불편감이 없단 말ियो.}

10919 # 개서 탄으 바람 방향 앞에다서 이래 떡 놓구 기레기 맞은쪽을르 향해에서 바람 쪽에다 탄으 떡 놓는단 말ियो. 이래 쪽:코~오 요막씩 크게 한 거 줄으 해에서 요만:한 어간에 코~오 한나씩 하오. {그래서 탄을 바람 방향 앞에다 이렇게 떡 놓고 기러기 맞은편으로 향해서 바람쪽에다 탄을 떡 놓는단 말ियो. 이렇게 쪽 코를 요만큼 크게 한 것 줄을 해서 요만한 사이에 코를 하나씩 하오.}

10919 # 개 더 이렇기두 한나 코~오 놓구 또 이렇기두 한나 코~오 놓구. {그래 저 이렇게도 하나 코를 놓고 또 이렇게도 하나 코를 놓고.}

10919 # 기레기 왔다갔다 이래 물 저서 들으가는 거느 나가는 거느 이러다나니꺼더 다 막는 코~오 아니 하구. {기러기 왔다갔다 하나 코를 놓고 또 이렇게도 하나 코를 놓고.}

10919 # 가름콩두 놓구 이래 선콩두 놓구, 기레구서 그 한 삼십 메다 돼는 코~이 한 사십 콩씩 댜단 말ियो. 거 삼십 메다 줄으 늘이차네느 콩 수 코~오느 한 사십, 사십 콩씩 돼디. {'가름코'(밭이나 벌판에서 주변보다 약간 높게 솟은 땅에 놓는 올가미)도 놓고, '선코'(밭의 골이나 도랑처럼 주변보다 들어간 땅에 놓는 올가미)도 놓고, 그러고서 그 한 삼십 미터 되는 코가 한 사십 코씩 댜단 말ियो. 그 삼십 미터 줄을 늘이려하면 코 수 코는 한 사십, 사십 코씩 되지.}

10919 # 기레구서 쉼르 빙: 돌아가서 탄으 놓을 때꺼지느 쉼르 따래 댜기멘서 탄으 놓소. 쉼 으지게에서. {그러고서 소를 빙 돌려서 탄을 놓을 때까지느 소를 따라 다니면서 탄을 놓소. 소 ***('우죽'의 뜻인가?)에서.}

10919 # 개구서 그 쉼르 떡 뺨 돌과서 거, 기레기 두우르 간다구 야, 탄으 놓은 방햐~으르 에운다구. {그러고서 그 소를 떡 빙 돌려서 그, 그러기 뒤로 간다고 예, 탄을 놓은 방향으로 에운다고.}

10919 # 게 기레기 이쪽으로 빠디문 쉼르 끄스구서 더쨍으 가서 막아서구. 기레문 또 안으르 들으가오. 탄으 논 안으르. {그것이 기러기 이쪽으로 빠지면 소를 끌고서 저쪽으로 가서 막아서고. 그러면 도 안으르 들어가오. 탄을 놓은 안으르.}

10919 # 개 또 기내 더쨍으르 보내문 탄쨍으르 나 안 가구서 더쨍으 가문 또 두울르서 바빠 가서 게 막 두드레가지구 거 더쨍에 가 막소. {그래 또 너무 저쪽으로 보내면 탄쪽으로 안 나가고서 저쪽으로 가면 또 뒤로 얼른 가서 그것을 막 두드레가지고 그 저쪽에 가 막소.}

10919 # 개문 또 안으르 들으가오. 기에 맞참:이 들으왔다 할 때, 정면 두에 가서 [x기서:x] 멀리서 이래 떡 서구 있소. {그러면 또 안으르 들어가오. 그래 알맞게 들어왔다 할 때, 정면 뒤에 가서 ** 멀리서 이렇게 떡 서 있소.}

10919 # 게 쉼 다리 어간을르 이래 내받아보멘서, 어느쨍 가는가 하구. {그래 소 다리 사이로 이래 내다보면서, 어느 쪽 가는가 하고.}

10919 # 갠데 이래 대가리 우, 쉼, 쉼 사디 울르서 골으 드네느 기레기덜두 같이 골으 든단 말ियो 야. 기레기 물에 보초베이 있소 게. {그런데 이렇게 대가리 위, 소,

소 사등 위로 머리를 들면 기러기들도 같이 머리를 든단 말이오 예. 기러기 무리에 보초병이 있소, 그것이.}

10919 # 둘이나 한나느 야, 전문 먹대엿구서 살피우. 동저~어. {둘이나 하나는 예, 전문 먹지않고서 살피오. 동정을.}

10919 # 개다 위험하다 할 때무 무슨 소리르 껍 툰다구. 개무 다른 기레기털이 다 같이 골으 착 드우. {그러다 위험하다 할 때면 무슨 소리를 껍 친다고. 그러면 다른 기러기들이 다 같이 머리를 착 드오.}

10919 # [x게딩x] 행적으 안 내구 까딱 안해문서 이래, 쉼 으지게르 이래 앓아잇소. {** 행적을 안 내고 까딱 안하면서 이렇게, 소 ***를 이렇게 앓아잇소.}

10919 # 개다 그놈으 게 또 한 놈이 야, 안전하다구 그더 신호르 하걸래 그렇디 한나 둘 골으 후리페리구서 얻어먹으메 달아나구 이래우. {그러다 그놈의 것이 또 한 놈이 예, 안전하다고 그저 신호를 하니까 그렇지 하나 둘 머리를 숙이고 찾아먹으면서 달아나고 이러오.}

10919 # 기레기털이 그렇소. 더게. 조직이, 잇단 말이오. {기러기들이 그렇소. 저게. 조직이, 잇단 말이오.}

10919 # 개 탄으 코~이 잇는 데 다 갓다 할 때 불췌르 췌르 떡 들이민단 말이오. 가깝이 나사선단 말이오 이래. 기러기췌예. {그래 탄의 코가 잇는 데 다 갓다 할 때 갑자기 소를 떡 들이민단 말이오. 가깝게 나선단 말이오, 이렇게.}

10919 # 기라무 그게 뻗 발췌으 급히 달아나가다 코~에 탁 걸기디. {그러면 그것이 몇 발자국을 급히 달아나다가 코에 탁 걸리지.}

10919 # 기레 두 개, 세 개 이래 걸깁니. {그래 두 개, 세 개 이렇게 걸리지.}

10919 # 개구 경계다서 기레기탄으 췌 들구 갈까바서 야, 췌, 좌우췌에다서 바아 이리 모딘 거, 한 야라문 발췌 할, 돼는 거, 떡 달아놓온단 말이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러기탄을 췌 들고 갈까바서 예, 췌, 좌우췌에다 밧줄을 이리 굵은 것, 한 여남은 발췌 되는 것, 덕 달아놓는단 말이오.}

10919 # 거게다 꼬재애르 탁 췌아놓오무 활 날아날 때 그 힘에 그 코오 툰 꿇에에 가지구 간다구. {거기다 꼬챙이를 탁 췌아놓으면 활 날아갈 때 그 힘에 그 코를 툰 꿇어 가지고 간다고.}

10919 # 개구 녀파레 게 서서히 무거운 게 달게 올라가문 올라가다 떨어디디. {그리고 옆에 그것이 서서히 무거운 것이 달려 올라가면 올라가다 떨어지지.}

10919 # 그래대니문 그 힘에 게 툰 꿇어딜까바서. {그렇지 않으면 그 힘에 그것이 툰 꿇어질까바서.}

10919 # 기레 그 들췌바이라는 거 달아서 탄에다, 그래 잡는다구. {그래 그 '들췌밧줄'이라는 것을 달아서 탄에다, 그렇게 잡는다고.}

10919 # 기레잡이느. {기러기잡이느.}

10919 @ 코오 무시게 무시게 잇다구 그랬습두? 녀파레 놓는 게 있구, 우에 놓는 게 있구…… {코는 무엇 무엇이 있다고 그러셨습니까? 옆에 놓는 것이 있고, 위에 놓는 것이 있고……}

10919 # 야. {예.}

10919 # 이게 대부분이 이게 벳글기란 한던발으느 일 없소. {이것이 대부분이 이것이 벳 그루터기랑 발은 팬찮소.}

10919 # 이 골따~이 이렇기 딱딱 잇대니우, 이게? {이 고랑이 이렇게 딱딱 있지않소?}

10919 # 이 골따~에서다서 이거 코~오 이렇기 대래르 이래 딱딱 놓디 야. {이 고랑에다가 이것 코를 이렇게 되게 이렇게 딱딱 놓지 예.}

10919 # 개구서 요쪽에다서 이래 둥, 골따~에 가다서 이거 쪽 넘어가는 [x지폐x] 잇단 말이오. 다른 골안의 넘어가서 다른 거 먹자구서. {그러고서 요쪽에다가 이렇게 중, 고랑에 가다가 이거 쪽 넘어가는 ** 잇단 말이오. 다른 고랑 안으로 넘어가서 다른 것 먹자고서.}

10919 # 개 이거 방지르 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거느 이래 놓구 이쪽 코오느 또 이래 놓 온단 말이오. {그래 이것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것과 이것은 이렇게 놓고 이쪽 코는 또 이렇게 놓는단 말이오.}

10919 # 드문드문 이거느 많이 아니 하디. 이거. 드문드문 하디 며. 골땅마다 이래 놓구서 고 가름코~오 드문드문 놓온단 말이오. {드문드문 이것은 많이 안 하지. 이것. 드문드문 하지 뭐. 고랑에다 이렇게 놓고서 고 가름코를 드문드문 놓는단 말이오.}

10919 # 개구 기나갓다서 넘어가는 놈우 등가릴르 갓다가 넘어가는 놈우느 이 가름코~에 걸기라구서, 게 한 메다나 이렇기 새애 딱 잡혀나가서, 가름코~오 놓는다구. {그리고 지나갓다가 넘어가는 놈은 발이랑의 높은 곳을 갓다가 넘어오는 놈은 그 가름코에 걸리라고서, 그것이 일 미터나 이렇게 사이를 딱 잡혀나가서, 가름코를 놓는다고.}

10919 @ 음, 가름코, 선코. {음, 가름코, 선코.}

10919 # 그래. 굵으 잡아놓는 게 선코~이 왜구, 디거지르 잡아놓는 게 가름코~이 왜디. {그래. 골을 잡아놓는 것이 선코가 되고, 높은 곳을 잡아놓는 것이 가름코가 되지.}

10919 @ 아바니, 탄으 놓는다는게 그게 무슨 말임두? {할아버지, 탄을 놓는다는 것이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10919 # 요래 탄코~이 잇소 야. {요렇게 탄코가 잇소, 예.}

10919 # 옥노 코~오 맨드는데, 그 거게다서 말뚜구지르 참대르 깎아서 이만:이 길기 하오. 젓가티 같은 게나 싸릿가지르 깎아서. {울무 코를 만드는데, 그 거기에다 말뚝을 참대로 깎아서 이만하게 길게 하오. 젓가락 같은 것이나 싸릿가지를 깎아서.}

10919 # 기래 코~오 고거, 맨드는 데 공역이 드우. {그래 코를 고것, 만드는 데 노력이 드오.}

10919 # 직금은 씨료 좋은 게 있어서 일없디만 전에는 그거 더 [x뛰~엇대위x]라는 게 잇는데. {지금은 화학섬유 좋은 것이 있어서 팬찮지만 전에는 그것 저 *****라는 것이 잇는데.}

10919 # 꿩꼬라지. {꿩꼬리.}

10919 # 꿩꼬래애. {꿩꼬리.}

10919 # 까치꼬래가 꿩꼬래르 쓰는데 야, 그 녀파래 그거 쪽: 훑어테디무 속에 판판한 게 잇닿구 어떻소? 글에 게느 가늘구 뵙 빠딘 데느 좀 모딜구. {까치꼬리와 꿩꼬리를 쓰는데 예, 그 옆에 그것 쪽 훑어 버리면 속에 단단한 것이 있지않고 어떻소? 끝의 것은 가늘고 뵙 빠진 데느 좀 모질고.}

10919 # 경계다서 배르 하구서 보드랍운 배르 하구서 나머지 으애르 어, 그 실, 무시개라 하던가, 거? 톱이. {거기에다 베를 하고서 나머지 잉아를 어, 그 실, 무엇이라고 하던가, 그것? 톱.}

10919 # 톱, 배톱이라는 게 잇소. {톱, 배톱이라는 것이 잇소.}

10919 # 마감에 이만:이 짜디 못 해에서 이래 바디질 할 낫이 없어서 야, 이만:이 내애 놓오는 게 잇소. 그 실이. {마지막에 이만하게 짜지 못해서 이렇게 바디질 할 거리가 못 되어서 예, 이만하게 내놓는 것이 잇소. 그 실.}

10919 # 그거 가지구서 고 꿩터르으느 [x등끼다x] 까치터럭에다가 딱 올매 감는다구. {그거 가지고 고 꿩털은 *** 까치털에다 딱 올매 감는다고. }

10919 # 기래구서 경계다 밀으 딱 맥에서, 꿀에서 나오는 밀이 잇대니우? {그리고서 거기에다 밀랍을 딱 먹여서, 꿀에서 나오는 밀랍이 있지 않소?}

10919 # 그 밀으 발라서 반질반질하구 훑어 안 들구, 쯔 그 탄서~어느 꿩 꼬래애가 까치꼬래애 거 탄서~어 주구, 그렇게 꺾~어탄이나 오리탄으 맨든다구. {그 밀랍을 발라서 반질반질하고 안으로 굽어들지 않고, 쯔 그 탄성은 꿩 꼬리와 까치 꼬리의 것이 탄성을 주고, 그렇게 꿩탄이나 오리탄을 만든다고.}

10919 # 꺾~어꼬랄르 없으무 못하오, 탄으. 이전에. {꿩꼬리가 없으면 못하오, 탄을. 이전에.}

10919 # 까치꼬래애. 까치꼬래애는 오리탄으 맨들구, 꺾~어꼬래애는 기래기탄으 맨들구. {까치꼬리. 까치꼬리는 오리탄을 만들고, 꿩꼬리는 기래기탄을 만들고.}

10919 # 꺾~어꼬래애 썩 기닿구 어떻소. {꿩꼬리 썩 길지않고 어떻소.}

10919 # 까치꼬래애 쯔 따르다나니 오리탄으 만드는데 오리느 쯔 작닿구 어떻소. 응. {까치꼬리 쯔 짧다보니 오리탄을 만드는데 오리느 쯔 작지않고 어떻소. 응.}

10919 @ 까치꼬래, 꿩꼬래. {까치꼬리, 꿩꼬리.}

10919 # 그래. {그래.}

10919 @ 오. {오.}

10919 # 그래 맨들어 탄으 맨들어 잡아먹었디. 공역이 드우. 탄으 맨드는 데. {그렇게 만들어 탄을 만들어 잡아먹었지. 노력이 드오. 탄을 만드는데.}

10919 @ 옹겟습꾸마. {맞겟습니다.}

10919 # 응. {응.}

10919 # 한 코오 맨드는 데만해두 공역이 든단 말이오. {한 코를 만드는데만 해도 노력이 든단 말이오.}

10919 # 그 말뚜구지두 잘 깎아서 마뽀이르 뭇 개르 해에서 그거 동지는 데두 뵙 그거

어엄우 내구, 거 실으 감은, 데르 멍심해 [x도~에에대x] 똥단 말이오. 게 어디우. {그 말뚝도 잘 깎아서 매듭을 몇 개를 해서 그것을 동이는 데도 딱 그것 실이 감길 흠을 내고, 그 실을 감은 데를 조심해서 동여야 똥단 말이오. 그것이 어디요.}

10919 # [x지뚝해애x] 풀게두 안 돼디. 어느 한 고리가 이룽기 [x뚜꼭떼래x] 잇스무 마 감에 그게 들기면서 다 꼭대게에꺼지 오래 그만:히 그게 늘어나마, 안 돼우. {[x대충 동여서x] 풀려도 안 되지. 어느 한 고리가 이렇게 ***** 있으면 마지막에 그것이 들리면서 다 꼭대기에가지 오래 그만하게 그것이 늘어나면, 안 되오.}

10919 # 개 거 짹 훑어서 거 말뚝구지에다서 딱 개텅 붙이구서 세 볼우 떡 동지우. {그래 그 짹 훑어서 그 말뚝에다 딱 가져다 붙이고서 세 번을 떡 동여매오.}

10919 # 개구서 이게 쭉 펴는데 웬 글에게다서 쪼꼬만 구냐~아 홀팀코~이라는 게 잇는데, 그 홀팀코~오 하구서 코 홀팀콩 궁가알르서 윈, 줄으 쭉: 빼아서 떡 놓우무 이래 뚱구란 코~이 떡 돼디. {그러고서 이것이 쭉 펴는데 가장 끝에다 조그마한 구멍, '홀팀코'라는 것이 있는데, 그 홀팀코를 하고서 코 홀팀코 구멍으로 윈줄을 쭉 빼서 덕 놓으면 이렇게 둥그런 코가 떡 되지.}

10919 @ 홀팀코. {홀팀코}

10919 # 야. 홀티운 코~이더너 홀팀코~이디. {홀친(폴리지 않게 단단히 동여 맨) 코이다 보니 홀침코지.}

10919 # 그래 거 보관할 때애느 거 이래 뚝: 걸어서 이 뚱구래미 보존돼게끔 하기 위해서 이만:이 모딘 낭그, 낭게다서 이래 떡 걸어서 게 이 뚱구래미 보존돼인단 말이오. {그래 그것을 보관할 때는 그것을 이렇게 뚝 걸어서 이 둥둥그래미 보존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만하게(지름 10cm 가량) 굵은 나무, 나무에다 이렇게 떡 걸어서 그래서 이 둥그래미 보존된단 말이오.}

10919 # 야, 기래서 이래 떡 걸어놓, 낭기채르. {예, 그래서 이렇게 떡 걸어놓, 나무채로.}

10919 # 개무 이게 쭉 펴디나 이래 쭉 펴 안딘단 말이오. {기러면 이것이 쭉 펴지나 이렇게 쭉 안 펴진단 말이오.}

10919 # 이래 뚱구래네르 다암에 가서 뿔뿔뿔 빼애 내두 뚱구래네르 잇단 말이오. {이렇게 둥그란 것을 다음에 가서 뿔뿔뿔 빼내도 둥그란 채로 잇단 말이오.}

10919 # 보관할 때느 그렇기 보관하디. {보관할 때는 그렇게 보관하지.}

10919 @ 매는 실은 배툽을르…… {매는 실은 배툽으로……}

10919 # 으음? {으음?}

10919 @ 그, 예, 잡아 매는 실은 배툽을르…… {그, 예, 잡아 매는 실은 배툽으로……}

10919 # 야. 그, 배, 톱실이라가디. {예. 그, 배, 톱실이라고 하지.}

10919 # 더 찢 수 없는 때애 끊어데디는 켜데, 게 오릿수 많소. {더 찢 수 없는 때에 끊어버리는 것인데, 그것이 오릿수가 많소.}

10919 # 그거두 굵은 거느 안 돼우. {그것도 굵은 것은 안되오.}

10919 # 칠승, 팔승짜리 톱이 있어야디. 톱실이. {칠승, 팔승 짜리 톱이 있어야 되지. 톱실.}

10919 @ 아, 톱실이? {아, 톱실?}

10919 # 음. {음.}

10919 @ 배툽임두, 배툽임두? {[배툽]입니까, [배툽]입니까?}

10919 # 배툽실이다. {[배툽썰]이지.}

10920 @ 아바니, 그러면은 그, 그물 같은 거로는 짐승 안 잡앗습두? {할아버지, 그러면 그, 그물 같은 것으로 짐승 안 잡았습니까?}

10920 # **. {**.}

10920 @ 그물, 그물루…… {그물, 그물로……}

10920 # 그물루? {그물로?}

10920 @ 예. {예.}

10920 # 야, 썩잡이르. {예, 썩잡이르.}

10920 # 꺾~어끄스레라는 게 있는데 야, 그 썩끄스레르 한 면이 네 메다, 다숫 메다 하오. {‘썩끄스레’라는 것이 있는데 예, 그 썩끄스레를 한 면이 사 미터, 오 미터씩 하오.}

10920 # 기래 사면으 다 네 메다, 다숫 메다 하디. {그래 사면을 다 사 미터, 오 미터 하지.}

10920 # 큰 거느 다숫 메다, 작은 거느 네 메다. {큰 것은 오 미터, 작은 것은 사 미터.}

10920 # 이렇기 그물으 게 꺾~이 팍 날아두 그물코~올르 나가디 못하래르 요렇기 맞참: 이 코~오 한단 말이오. 요렇기. {이렇게 그물을 그것이 썩이 팍 날아도 그물코로 나가지 못하도록 요렇게 알맞게 코를 한단 말이오.}

10920 # 개서 사면에다서 바아 떡 베리르 께에구 그 사면에서 그 베릿긴으 쥘 수 잇는 긴으 또 이만:이 내애놓소. {그래서 사면에다가 밧줄을 떡 버리를 꺾고 그 사면에서 그 버리끈을 쥘 수 잇는 끈을 또 이만하게 내놓소.}

10920 # 기래서 사름이 너이서 앞에 둘이 그 바아 탁 이게 어깨애 미우 야. {그래서 사람이 넷이서 앞에 둘이 그 밧줄을 탁 이것이 어깨애 메오, 예.}

10920 # 두에 꺼느 이래 손에 감아쥐구서 두에 거느 늦쳐 끄슨단 말이오. {뒤의 것은 이렇게 손에 감아쥐고서 뒤의 것은 늦추어 끈단 말이오.}

10920 # 따~에 대이구 앞에 거느 이렇기 높이 든단 말이오. {땅에 닿게 하고 앞의 것은 이렇게 높이 든단 말이오.}

10920 # 맥이 드우. 캄캄한 밤에 하는데 그거. 야. {힘이 드오. 캄캄한 밤에 하는데 그것을. 예.}

10920 # 갠데 그게 초가슬에 얼음이 얼 님시에[님세에] 그 사툽에서 발으 얼군단 말이오. 동, 월동하기 위해서 단련으 시킨다구서. {그런데 그것이 초가슬에 얼음이 얼 무렵에 그 사툽(물기가 있고 풀이 무성한 들판)에서 발을 얼린단 말이오. 동, 월동하기 위해서 단련을 시킨다고서.}

10920 # 그 물역에 나와서 물에 발으 부루구서, 그래 그 사툽에 테딤니. {그 물가에 나와서 물에 발을 불리고서, 그래 그 사툽에 버리지.}

10920 # 갠데 사름으느 그 때애 게 얼음이 얼랑말랑 할 때애 신발으 신으래르 그 사툽

에서 이만이 제치면서 똬에애 똬단 말이오. {그런데 사람은 그 때에 그것이 얼음
이 얼까말까 할 때에 신발을 신도록 그 사들에서 이만큼 젓히면서 뛰어야 똬단
말이오.}

10920 # 어. 개 똬에서 가다서느 야, 고게 빠르흐! 하구 놀라서 날아나문 짝 누루구 앞
엿 갯두 짝 누루구 두엿 거느 머 이미 쫓게에가지구 나가다다니꺼더 그더 그대르
그더 떡 받티우무 돼는데, {어. 그래 뛰어서 가다가 예, 고것이 빠르흐! 하고 놀라
서 날아가면 짝 누르고 앞엿 것도 짝 누르고 뒤엿 것도 뭐 이미 끌려가지고 나가
다보니까 그저 그대로 그저 떡 받치면 되는데,}

10920 # 그 다암에 짝 누루구두 안 해두 꺾~이 퍼턴턴퍼턴턴 하문 녀과래서 그물 깔구
서 탁 들으가서 그거 탁 쥐구. 개 똬에서느 그 언제 빠탈아, 그물 속에서 탈구두
못하대니우? 노이랑 막 끊히면서. {그 다음에 짝 누르고도 안 해도 꿩이 푸드덕
푸드덕 하면 가장자리에서 그물 깔고서 탁 들어가서 그것을 탁 쥐고. 그래 쥐어
서는 그 언제 비틀어, 그물 속에서 틀지도 못하지 않소? 노끈이랑 막 끊히면서.}

10920 # 기래서 대가리르 얻어바서 널르 떡 무우. 대가리르. {그래서 대가리를 찾아봐서
이로 떡 무오. 대가리르.}

10920 # 개 대가리르 떡 물러서 대가리 쭉 우구러 들으가무 게 사는 쉬 잇소, 그게? {그
래 대가리를 떡 물어서 대가리 쭉 우구러 들어가면 그것이 사는 수 잇소, 그
것이?}

10920 # 게 그저 까딱 행적이 못 내구 홀 죽인단 말이오. {그래 그저 까딱 행적 못 내고
홀 죽인단 말이오.}

10920 @ 아이구. {아이고.}

10920 @ 으쉴하압꾸마. {섬뜩합니다.}

10920 # 야, 기래서 그거, 니빨르 물어죽인다구 그거. {예, 그래서 그것, 이빨로 물어죽인
다고, 그것을.}

10920 @ 꿩, 꿩대님두? {꿩, 꿩지 않습니까?}

10920 # 아니, 그저 더 니빨르서 식 물아다 니빨 그 대가리 안을르 그 뇌에꺼지 쭉 백이
래르 떡 문다구. {아니, 그저 저 이빨로 씹 물어다 이빨 그 대가리 안으로 그 뇌
에까지 쭉 박히게 떡 문다고.}

10920 # 그래서 여기다 [x떡낀x]에다 떡 차오. {그래서 여기다 **에다 떡 차오.}

10920 # 대가리 떡 걸케에서 안 나간단 말이오 야. {대가리 떡 걸려서 안 나간단 말
이오.}

10920 # 개 닳르라 궁데에서 꺾~이 탈라다탈라다탈라다탈라다 하디. {그래 달리느라 궁
둥이에서 꿩이 탈라다탈라다탈라다탈라다 하지.}

10920 # 개두 피두 막 그더 흘러서 발리우구. {그래도 피도 막 그저 흘러서 발라지고.}

10920 # 그래 더 현 거 님구 하디. 갠데 그게 한 번 꼬스레 나갔다 오문 그 답싸리라는
게 묻는 게 잇대니우, 이래? {그래 저 현 것 입고 하지. 그런데 그것이 한 번 꼬
스레 나갔다 오면 그 땀싸리라는 것이 묻는 것이 있지 않소, 이렇게?}

10920 # 기계 거저 불 오분 일신에 그저 덕 다 들게불디 머. {그것이 그저 * 온 전신에

그저 딱 다 들러붙지 뭐.}

10920 # 깨다나니 무슨 그 피 묻개시문 묻구 대술바 아니하우 거디. 꺾~어 잡우무 돼디며, 거저. 바디사 어똥기 돼던디 간에. {그러다보니 무슨 그 피 묻겠으면 묻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소 그저. 핑을 잡으면 되지 뭐, 그저. 바지야 어떻게 되더닛 간에.}

10920 # 그렇기 역새질 해에서……{그렇게 힘든 일을 해서……}

10920 @ 아, 핑끄스래. {아, 핑끄스래.}

10920 # 야, 끄스래 그게 힘드우. {예, 끄스래 그것이 힘드오.}

10920 # 직금터르 재료 그게 야, 니룬실이나 씨료실이 많으무 얼마나 좋겠소? {지금처럼 재료 그것이 예, 나일론실이나 화학섬유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소?}

10920 # 그 때애는 그 그물실으는 값이 비싸서 못 싸구, 귀해에서, 그 무삼을르서 노~오 파서 그래 해엿다구. {그 때는 그 그물실은 값이 비싸서 못 사고, 귀해서, 그 무삼으로 노끈을 파서 그렇게 했다고.}

10920 # 야, 거, 우리 한 채르 내는 데 그거 우리 동쪽 집 아바니 그 그물우 뜨구, 핑, 핑끄스레르 뜨구, 뜨는 사름으는 놀멘 한단 말이오. {야, 그것, 우리 한 채를 내는 데 그것 우리 동쪽 집 할아버지 그 그물을 뜨고, 핑, 핑끄스레를 뜨고, 뜨는 사름은 쉬엄쉬엄 한단 말이오.}

10920 # 노~오 꼬는 사름으는 정말 쥼싸기 그저 손놀림이 빨라야 돼디. {노끈을 꼬는 사름은 정말 쥼싸게 그저 손놀림이 빨라야 되지.}

10920 # 그엔데 그 노~오 내 다 파아뎡소. {그런데 그 노끈을 내가 다 꼬아서 뎡소.}

10920 # 야, 노~오 정말 잘 쥼소. 내 이 한 손을르 쏼단 말이오, 이래. 이래 딱 달아 매애놓구 여기다 [x니케x]르 할 것두 이게다 쏼, 달아 맨단 말이오. {예, 노끈을 정말 잘 꼬았소, 이렇게. 이렇게 딱 달아 매놓고 여기다 **를 할 것도 이것에다 쏼, 달아 맨단 말이오.}

10920 # 이라구 딱 앉아서 이쥼 손을르 착 이래 이쥼 거 툅 빼에서 요기다 놓구서 또 이래서 드룩드룩드룩 들러내라구 쥼 빼애 당게서 거저 이거 그더 언너~어 거저, 이막씩 거저 언너어 거저 이래 그저 쏼단 말이오. {이러고 딱 앉아서 이쥼 손으로 이렇게 이쥼 것 툅 빼서 요기에다 놓고서 또 이래서 드룩드룩드룩 들러내라고 쥼 빼 당게서 그저 이것 그저 얼른 그저, 이만큼 그저 얼른 이래 그저 쏼단 말이오.}

10920 # 노~오 본때잇기 쥼소. {노끈을 본때있게 꼬았소.}

10920 # 또, 매출야기 꼬구. {또, 매끈하게 꼬고.}

10920 @ 아바니, 샷으 꼬는 거는 그거는 무스걸르 샷을 쏼두? {할아버지, 새끼를 꼬는 것은 그것은 무엇으로 새끼를 쏼니까?}

10920 # 샷으는, 바알, 종뉴에 다라 샷이 종뉴에 다라서 니어~어 네거나 이 산재르 엮을 때 쓰는 거는 풀르서, 새칠르서. {새끼는, **, 종류에 따라 새끼가 종류에 따라서 이엉을 엮거나 이 산재를 엮을 때 쓰는 것은 풀로, '새취'로.}

10920 # 세모쥼이던디, 쥼쥼이던디, 노랑자부대던디, 이건 초료구. {'세모쥼이'든지, '쥼쥼

이'든지, '노랑자부대'든지, 이걸 초료고.}

10920 # 그 다음에 무삼, 그 다음에 삼덩, 요래서 바아 딜이는 데 여라가지 용돌르서 꼬디. {그 다음에 무삼, 그 다음에 '삼덩', 요렇게 해서 밧줄을 들이는 데 여러가지 용도로 꼬지.}

10919 @ 그럼 이게 다 샷임두? {그럼 이게 다 새끼입니까?}

10920 # 으음? 야. 게 무삼이랑 파서느 바~아 딜인단 말이, 삼덩~어 파서두 바~아 딜이구. {으음? 예. 그것이 무삼이랑 꼬아서는 밧줄을 꼰단 말이, 삼덩을 꼬아서도 밧줄을 꼬고.}

10920 # 샷이두 이거 저, 샷바두 야, 거 노랑자부대라는 게 올라초느 거, 귀한 데서느 암쉐랑 매에서 기르오. 견딘다구, 그것두. {새끼도 이것 저, 샷바도 예, 그 '노랑자부대'라는 것이 '올라초'는 그것, 귀한 데서는 암소랑 매서 기르오. 견딘다고, 그것도.}

10920 @ 아바니, 그 짐승두 많이 잡아보셨습꾸마? {할아버지, 그 짐승도 많이 잡아보셨습니까?}

10920 # 집에서 재비르 할 때, 쫓, 나는 거 덤, 그런데 대에서 재미 없었구. 개구 또, 쏠즈~이 난단 말오. 손에다서 그 피르 묻히디, 그 가죽이르 빠르디, 내자아 들어 내구 무스그 엇딘데 야, 거, 일이 바뿌댕구 어땡소? {집에서 스스로 할 때, 쫓, 나는 그것 좀, 그런데 대해서 재미없었고. 그리고 또 쏠증이 난단 말이오. 손에다 그 피를 묻히지, 그 가죽을 발라내지, 내장을 들어 내고 무슨 어찌는데 예, 그, 일이 힘들지 않고 어땡소?}

10920 # 허리두 아프구 담배두 못 피우구 그더 손이 쫓빨개에서 거더 칩운 때라 손이 스리디. {허리도 아프고 담배도 못 피우고 그저 손이 시빨개서 그저 추운 때라 손이 시리지.}

10920 # 그래서 점 피하디 며, 그거. {그래서 좀 피하지 뭐, 그것을.}

10920 # 개구 그거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잇단 말이오, 그거. {그리고 그것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잇단 말이오, 그것을.}

10920 # 자기 애니무 못하는 거터르 야, 개 '야, 니 애니무 그거 못 한다. 그 [x흔거야x] 그게 네 숨씨구야 하디. 그 다른 사람이 붙어서 어느 천년에 하겠나? 네 해라, 네 해라'하문 좋아하는 그놈이 대애든단 말오. {자기 아니면 못하는 것처럼 예, 그래 '야, 너 아니면 그것 못 한다. 그 *** 그것이 네 숨씨이고야 하지. 그 다른 사람이 붙어서 어느 천년에 하겠나? 네가 해라, 네가 해라' 하면 좋아하는 그놈이 대든단 말이오.}

10920 # 기래무 그놈이 고정 돼디. 거저. 마알에서느 그놈이 잼이 돼디, 거저. {그러면 그놈이 고정 되지, 그저. 마을에서는 그놈이 '잡이' 되지, 그저.}

10920 # 개 거더 거 구겨~이사 하디 며. 가서. {그래 그저 그 구경이야 하지 뭐. 가서.}

10921 @ 메에느 여기서 잼이르 아이 함두? {매는 여기서 잡이를 안 함니까?}

10921 # 응. 뭐? {응. 뭐?}

10921 @ 메. {매.}

10921 # 매. {매.}

10921 @ 예. {예.}

10921 # 매사냥 하는 그 사람으는 없소. {매사냥 하는 그 사람은 없소.}

10921 # 전에는 매르 기르느 [x년서x] 그거 하자무 해엿다는데 우리, 뭐, 선대 클아바니 어느게 매자~이라구서 잇었는데 야, 매르 길거서 꿩잡이르 해에서 매자~이란 거 더, 벨며~어 가졌단 말이오. {전에는 매를 기르는 ** 그것 하자면 했다는데 우리, 뭐, 선대 할아버지 어느 분이 '매장이'라고 잇었는데 예, 매를 길러서 꿩잡이를 해서 '매장이'라는 그 저, 별명을 가졌단 말이오.}

10921 # 매자~이, 매자~이 해엿디. {매장이, 매장이 했지.}

10921 # 농깁물집 매자~이, 이랬답데. 전에. {농깁 물집 매장이, 이랬다고 합디다.}

10921 # 예, 즉금두, 그 매자~이 클아바니, 산소르, 일년에 한 번씩은 가는데, 여기르 올라와서 한 번 못 갔다왔소. 한 해르. {예, 지금도, 그 매장이 할아버지, 산소를, 일년에 한 번씩은 가는데, 여기를 올라와서 한 번 못 갔다왔소. 한 해를.}

10921 # 작년에 못 갔다왔소. {작년에 못 갔다왔소.}

10921 @ 그 매느 엇, 엇디 잡는지, 아바니, 아암두? {그 매는 어, 어떻게 잡는지, 할아버지, 아십니까?}

10921 # 매르 잡는 거? {매를 잡는 것?}

10921 # 몰라. 그 어똥기 잡는두. {몰라. 그 어떻게 잡는지.}

10921 # 거 잡자무 헐태닐 기오. 생매느. {그 잡자면 쉽지 않을 것이오. 살아있는 매는.}

10921 @ 옹습꾸마. 생매……{맞습니다. '생매'……}

10921 @ 이, 새느 엇디 잡슴두? {이, 새는 어떻게 잡습니까?}

10921 # 그 쪼꾸만 새? {그 조그마한 새?}

10921 @ 예. {예.}

10921 # 고오는, 참새는 그 니영기슭에다서 둥지르 촌단 말이오, 그게. {고것은, 참새는 그 이영기슭에다 둥지를 튼단 말이오, 그것이지.}

10921 # 개다나니 그거, 밤에 그 둥지르 들추문, 동삼에는. 그래 잡구 여름에 새끼치기르 할 때애두 그 둥지에다서 새끼르 치는데 그 참새느 곡석으 해틴다구서 새끼, 알으 다 낳구서 깔 넘시무 야, 벳짚이나 무서 형겅꾸레밀 해에서 굴으 탁 막아놓습니. 안에서 거더. {그러다보니 그것, 밤에 그 둥지를 들추면, 겨울에는, 그렇게 잡고 여름에 새끼치기를 할 때도 그 둥지에다 새끼를 치는데 그 참새는 곡식을 해친다고 새끼, 알을 다 낳고서 부화할 무렵이면 예, 벳짚이나 무슨 형겅꾸레미를 해서 굴을 탁 막아놓지.}

10921 # 개 큰 새끼지 그저 그 안에서 나오디 못하구 다 죽어테딘다구. {그래 큰 새까지 그저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다 죽어버린다고.}

10919 @ 아아. {아아.}

10921 # 그 참새느 기래 고약한 놈우 그래 죽어테디우, 거. 가만히 놔 두우. 처암에는. {그 참새는 그래 고약한 놈을 그래 죽여버리오, 그것. 가만히 놓아 두오. 처음에는.}

10919 @ 먹디 애님두? {먹지 않습니까?}

10921 # 동삼에 먹디 여름에느 안 먹소. {겨울에 먹지 여름에는 안 먹소.}

10919 @ 아, 그렇습두? {아, 그렇습니까?}

10921 # 어. {어.}

10921 # 동삼에느 참새르 굴우 들쳐서 잡아서 굵어 먹는데, 맛있소. {겨울에는 참새를 굴을 들춰서 잡아서 구워 먹는데, 맛있소.}

10919 @ 예, 군참새 맛이 좋습꾸마. {예, 군참새 맛이 좋습니다.}

10921 # 맛이 좋대웁구, 그래. {맛이 좋지않고, 그래.}

10921 # 갠데 녀름에느 벌거지르 먹은 게라구서 야, 동삼에느 벌거지 없다나니꺼더 저 난알으 먹거나 풀씨르 먹구서 깨끗하디. 기게. {그런데 여름에는 벌레를 먹은 것이라고서 예, 겨울에는 벌레 없다보니까 저 난알을 먹거나 풀씨를 먹고서 깨끗하지. 그것이.}

10921 # 게 동삼에느 참새고기르 먹는데 여름에 참새 잡긴 더 험은데 아니 먹소. {그래 겨울에는 참새고기를 먹는데 여름에 참새 잡기는 더 쉬운데 안 먹소.}

10919 @ 아, 그렇습두? {아, 그렇습니까?}

10921 # 음. {음.}

10921 # 갠데 상해에서 온 아아덜은 여름, 겨울이 없이 참새고기르 다 먹더라구, 거. 벌거지르 먹구 무시게구. {그런데 상해에서 온 아이들은 여름, 겨울이 없이 참새고기를 먹더라고, 그것. 벌레를 먹고 무엇이고.}

10921 # 개구 레이, 벌거지르 먹은 거 엇데 먹는가? {그리고 '에잇, 벌레를 먹은 것을 어떻게 먹는가?'} }

10921 # 너네 개, 또오 먹는 거느 엇데 먹는가구, 그래더란 말이오. {'너희는 개, 똥을 먹는 것을 어떻게 먹는가'라고 그러더란 말이오.}

10919 @ 음, 뭐 도리는 없다 못하겠습꾸마. {음, 뭐 도리는 없다고 못하겠습니다.}

10921 # (웃음)

제2편 어휘

2.1. 농경

2.1.1. 경작

20101 벼	20101 베
20102 이삭	20102 베이삭
20103 벼씨	20103 종재, 베종재, 베쫌재르(+대격형)
20104 못자리	20104 모짜리, 모짜리르(+대격형)
20105 모판	20105 모판, 뽕모판(+뽕모판)
20106 쟁기	20106 가대기(+밭에서 사용), 호리(+논에서 사용)
20107 보습	20107 보서피, 보서픈, 보서피우, 호린날{호릿날}
20108 벼	20108 벼시디{벼이지}, 벼시
20108-0-1 -이	20108-0-1 벼시 달게따구{벼이 달렸다고}
20109 극쟁이	20109 *
20110 씨레	20110 씨그레(+노, +구), 씨레(+유, +신)
20111 번지	20111 번디(+노, +신), 널번디(+노), 번지(+유, +구)
20112 모내기	20112 모내기락{모내기라고}
20113 흙덩어리	20113 흑평지, 흑평지르
20114 고무래	20114 =2국떠시글루 헐는데 바투게 해쏘(‘국디’식으로 했는데 밭게 했소)
20114-1 고무래(곡식)	20114-1 =2국떠디(+마당에서 눈을 밀거나 곡식을 밀거 나 논밭에 나가 땅을 고르는 데 사용하는 것을 다 ‘국디’라 한다고 함)
20114-2 고무래(재)	20114-2 구들홀깨(+국디보다 더 작게 함), 구들홀깨르
20114-3 고무래(흙)	20114-3 =2국떠
20114-4 고무래(미는 것)	20114-4 *
20114-5 고무래(당기는 것)	20114-5 *
20115 쇠스랑	20115 쉼스랭이(+단독형, 주격형), 쉼스라~아(+대격 형)(+다), 쉼스래르(+대격형)(+소)
20116 곡괭이	20116 꼭깨, 꼭깨르(+대격형)
20117 괭이	20117 꼭찌, 꼭지르(+대격형)
20118 삽	20118 사비{삽이}, 흑싸비구{흙삽이고}, 모사비구{모삽

이고}, 탄싸비구{탄삼이고}

20119 호미

20119 호밀르 캐오{호미로 캐오}

20120 농기구

20120 쟁기락 하디{쟁기라고 하지}

20121 김

20121 잡초드리, 잡초디 (+자연발화에서는 ‘기슴’이라 함.)

20122 김매다

20122 기슴맨다, 기슴매기두 바뿌구

20123 애벌매다

20123 아시기슴, 아시기슴 맨다, 아시르 헤빈다, 아시르 잘 헤베쏘?(+‘한 이틀이문 다 헤빌게오’라고 대답)

20123-1 두벌매다

20123-1 두볼끼슴, 두볼끼스미사 허리 헤비게띠{두벌김

이야 쉽게 매겠지}

20123-2 마지막(세벌) 김매기

20123-2 막뽕끼슴(+다), 마감한다고 막뽕끼스미라 하디, 세볼기스미라고도 하디(+소)

20124 논둑

20124 논뚜러기라 하디

20124-1 논두렁

20124-1 드럼, 드러물루 땡기면서{논두렁으로 다니면서}

20125 밭둑

20125 디게~이락 하디, 받띠게:디, 받띠겨~어 맨드러라,

디겨어 마사테딘다

20126 밭두둑

20126 고래애디

20127 밭고랑

20127 이래애구

20128 밭이랑

20128 한 사례, 사례 긴 바티라

20128-1 (밭이랑을) 타다/갈다/썰다/파다

20128-1 이라~야 진는다

20128-2 이랑밟기

20128-2 *

20129 보리

20129 보리, 보리르(+대격형)

20129-1 가을보리

20129-1 *

20129-2 봄보리

20129-2 선보리(+맨 먼저 가는 보리)

20130 보리쌀

20130 보리쌀, 보리싸르(+대격형)

20131 가을갈이

20131 가을가리

20132 감부기

20132 감부기 드러따, 감부기 생깁거 뽞바라, 감부게(+처격형)

20133 두엄

20133 뒤엄이, 뒤어무(+대격형)

20134 거름

20134 거름, 거름 느레라, 도움 느레사 걸그미 대디{두엄 늘여야 거름이 되지}, 거름 줘서 걸거라, 걸그미 대디, 거름(+‘거름’은 ‘비료’와 동일하다고 함), 걸금(+‘비료가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땅이 걸어지는 것’을 ‘걸금’이라고 함)

2.1.2. 타작

20201 추수하다

20201 가스란다, 무슨 가스라오? 베가스르 하디

20202 벳단

20202 베따니 돼디, 베따니구, 베따느 무꺼라, 베따니

만타

20202-1 벋단(벼 한 줌정도 묶은 것)	20202-1 한 주미 한 단, 베편
20202-2 벋단(벼 타작할 정도로 묶은 것)	20202-2 베편나디, 베편따니구
20203 가리(積)	20203 가리, 나까리드리, 쿡까리, 베편까리, 옥썴땅까리
20204 가리다(積)	20204 가리르 가린다, 가리르 가레 낵:라, 가리르 가레 라
20205 벋가리	20205 베편까리
20206 낵가리	20206 나까리
20207 타작	20207 마썰{맞질}, 마썰리라{맞질이라}, 벼마썰{벼 맞 질}, 마썰랄라 가자{맞질하러 가자}, 나다르 뵤다{낵알을 뵤다}, 나다르 툰다{낵알을 툰다}
20208 벼훑이	20208 * (+이 지역은 벼농사 지역이 아님)
20208-1 그네	20208-1 *
20209 개상	20209 *
20209-1 자리개	20209-1 *
20209-2 자리개질	20209-2 *
20210 도리깨	20210 도리깨, 도리깨람 마리오, 도리깨르(+대격형)
20210-1 도리깨장부	20210-1 도리깨덕, 도리깨띠기, 도리깨디그(+대격형)
20210-2 도리깨열이	20210-2 도리깨아들, 도리깨아드르 뎀드라라
20210-3 도리깨꼭지	20210-3 도리깨마구리, 도리깨마굴 뎀드라라
20211 벋썰	20211 베편피(+단독형, 주격형)
20211-0-1 -을	20211-0-1 베편피
20211-0-2 -에	20211-0-2 베편페
20212 새 패기 속때	20212 베편때(+정확히 대응되는 말은 아닌 듯함), 대라디,
20213 썩정이	20213 썩뚜레기, 썩뚜레기르(+대격형)
20214 티	20214 문지디, 벼문지{벼 먼지}, 티끄리, 티그리(+‘곡식 에 섞여 있는 것, 곡식이 부서져 들어간 것’은 ‘티그리’라 하고, ‘눈에 들어가는 것’은 ‘티’라고 함)
20215 까끄라기 레, 밀꺼스레	20215 거스레, 거스레르(+대격형), 보리꺼스레, 베편꺼스 레
20216 풍구	20216 풍석, 풍셔그(+대격형)(+애장간(대장간)에서 쓰던 것(풀무)은 ‘풍기(주격형)’, ‘풍구(대격형)’라고 함)
20217 원두막	20217 다라기라{다락이라}
20218 허수아비	20218 저애
20219 흥년	20219 흥너니(+반대는 ‘풍너니’)
20220 머슴	20220 머슴, 머스무(+대격형)
20221 낵	20221 썩꾸니디
20221-0-1 -을	20221-0-1 썩꾼 데레와라
20222 품앗이	20222 푸마시

20223 품삯
마니 주우{삯을 많이 주오}
20223-0-1 -으로

20223 싸기, 싸그 바꾸 이란다{삯을 받고 일한다}, 싸그
20223-0-1 싸글르

2.1.3. 방아 찧기

20301 방아	20301 바이, 바아르 떠:라{방아를 찧어라}
20302 디딜방아 빠이, 드딜빠아 떠:라	20302 발바이, 발바아르 떠어라, 발바아르 띠는다, 드딜
20303 방앗공이	20303 더귀(+‘절구(총칭)’도 ‘더귀’이고 ‘방앗공이, 절굿공이’도 ‘더귀’임), 바아떠귀, 바아떠귀 다슨다, 바아떠귀르 고테라, 바아떠그 고테라, 손떠귀(+마늘이나 깨 빵는 데 씀), 큰떠귀, 가르떠귀
20304 방아확	20304 더귀호박
20305 물레방아	20305 물배애, 물바아 고테라{물방아를 고쳐라}
20306 연자방아	20306 성매
20307 절구	20307 더귀(+총칭), 돌떠귀, 나무떠귀
20308 절구통 기	20308 호바기구, 호바그(+대격형), 바아호바기, 더귀호바
20309 절굿공이	20309 더귀, 더귀르(+대격형)
20310 절구질	20310 더귀지란다{절구질한다}
20311 겨	20311 게, 게르(+대격형)
20312 보릿겨	20312 보리께
20313 왕겨	20313 아시게
20314 등겨	20314 나백:께
20315 검불	20315 거부재기(+바람에 막 날려와서 쌓이는 것), 거부재그 개:다 데데라{검불을 가져다 버려라}, 검부리 썩었다{검불이 썩었다}, 검부른{검불은}(+‘검불’은 잎이랑 통대랑 한데 섞여서 거친 것을 가리킴)
20316 껌질	20316 껌찌(+‘껌지’는 ‘굳은(딱딱한) 것’), 껌찌리(+‘껌질’은 ‘알맹이와 밀착된 것’), 껌찌르(+대격형), 껌풀으 발가라{껌풀을 발라라}(+‘껌풀’은 ‘딱 떨어지는(분리되는) 것’), 옥썬꾸꺼풀, 굴꺼풀, 사과껌찌, 감지껌찌, 달걀껌찌, 조개껌찌, 돼지껌찌, 개껌찌

2.1.4. 곡물

20401 곡식	20401 곡씨기
20402 찹쌀	20402 찹쌀(+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통용되는 의미가 달라짐. 조이찹쌀, 베찹쌀 등), 찹싸르(+대격형)
20403 맷쌀	20403 메쌀, 메싸르(+대격형)
20404 쌀보리	20404 *

20405 조	20405 조이, 조이르(+대격형)
20406 차조	20406 차조이라능게, 차조이
20407 메조	20407 메조이
20408 좁쌀	20408 좁쌀(+‘메좁쌀’을 의미함. 총칭이 아님), 조참쌀, 조참싸리입꾸마
20409 작다	20409 자우, 잘디, 잘더라, 아리 잘다{알이 잘다}, 그 지 아들 잘더라{그 집 애들 잘더라}, 잔 아드리 만터라{잔 애들이 많더라}(+대상이 ‘여럿’일 때는 ‘잘다’를 쓰고, 대상이 ‘하나’일 때는 ‘작다’를 씀)
20410 조이삭	20410 이삭, 이사기디, 조이사기디
20411 수수	20411 수수, 풀량(+한족말(중국어)), 밥쭈수, 밥쭈꾸(+대 격형), 밥쭈보다{밥수수보다}, 밥쭈바테 가 바라{밥수수밭에 가 봐라}, 밥쭈끼에(+처격형), 밥쭈 께:두(+처격형), 밥쭈끼라 해띠{밥수수라 했지}, 밥쭈우밥뽀다 모타다{밥수수밥보다 못하다}, 밥 쭈우바비라{밥수수밥이라}, 밥쭈두 비구{밥수수도 베고}
20411-1 붉은색수수	20411-1 불굼밥쭈:{붉은 밥수수}, 불굼밥쭈끼(+주격형)
20411-2 장목수수	20411-2 힘밥쭈{흰 밥수수}, 힘밥쭈끼(+주격형)
20411-3 찰수수	20411-3 찰밥쭈끼 이따구{찰밥수수가 있다고}
20411-4 메수수	20411-4 메밥쭈끼(+주격형)
20412 수수깡	20412 밥쭈때, 밥쭈때애 기:다{밥숯당(수수깡)이 길다}, 밥쭈따아(+대격형)
20413 옥수수	20413 옥쭈끼, 옥쭈꾸(+대격형), 옥쭈: 뜨들라 가자{옥수 수 뜯으러 가자}, 옥쭈이삭뚜{옥수수이삭도}, 옥쭈:보다{옥수수보다}, 옥쭈따~이{옥수숯대가}, 옥 쭈따~아{옥수숯대를}
20413-1 찰옥수수	20413-1 차룩쭈끼
20413-2 메옥수수	20413-2 메옥쭈끼
20414 귀리	20414 귀미리, 귀미르(+대격형)
20415 메밀	20415 모미리, 모미르(+대격형)
20416 콩	20416 콩, 코~오(+대격형), 코이나{콩이나}
20417 콩깍지	20417 콩꺼꾸리, 콩깍찌, 콩깍찌르(+대격형)
20418 메주	20418 메지, 메지르(+대격형), 메쥐디
20419 매달다	20419 메쥐췌애기르 다라맨다(+메주를 걸 수 있도록 두 개씩 묶은 것을 ‘메쥐췌애기’라고 함)
20420 띄우다	20420 피운다, 메쥐르 피운다, 메지르 피왔다
20421 곰팡이	20421 옷으 잘리버따{옷을 잘 입었다}, 오시라 하오{옷 이라 하오}(+원래 ‘곰팡이’의 여깃말은 ‘곰태기, 곰태’. 메주에 피는 곰팡이는 ‘옷’이라고 함)
20422 강낭콩	20422 열코이, 열코 뜯어오너라(+대격형)
20423 콩기름	20423 콩기르미, 콩기름 개 오나라{콩기름 가져 오너라}
20424 깨	20424 깨, 깨르(+대격형)
20424-1 참깨	20424 깨, 참깨(+‘깨, 참깨’는 ‘식물’도 가리키고 ‘깨알(씨

앗)’도 가리킴), 참깨알, 참깨씨(+‘참깨알, 참깨씨’는 ‘씨앗’만을 가리킴), 참깨 기름
 20424-2 들깨 20424 깨(+달맞이꽃에 여는 것을 여기서는 ‘들깨’라고 함)
 20425 고소하다 20425 고:사다가구{고소하다 하고}, 고:사더라, 고:사다, 고:새서{고소해서}

2.1.5. 채소

20501 채소 20501 터바테 나무새 잘대:쏘{텃밭에 채소 잘 났소}, 나무새, 나무새르(+대격형)(+집에서 기른 채소는 ‘나무새’, 산에 나는 채소는 ‘나물’이라고 함)
 20502 나물 20502 나무리구, 나물 캐 오나라, 사네 나무리 만쏘{산에 나물이 많소}
 20502-1 나물(밭 재료) 20502-1 나물, 나무르(+대격형), 나물바트 맨다, 나물 싱굴때 대:쏘{나물 심을 때 났소}(+이때 ‘나물’은 ‘무꾸(무)’를 말하며, ‘나물밭’은 ‘무밭’을 의미)
 20502-2 나물(밭 반찬) 20502-2 *(+이 지역에는 종류가 많지 않음)
 20502-3 나물(들 재료) 20502-3 들라물
 20502-4 나물(들 반찬) 20502-4 들라무리
 20502-5 나물(산 재료) 20502-5 산나물
 20502-6 나물(산 반찬) 20502-6 산나무르(+대격형)
 20503 푸성귀 20503 푸성귀라구, 푸성귀채르
 20504 다듬다 20504 세저~어한다, 세저:해라, 다듬는다
 20505 반찬 20505 해애미, 해애미라, 해애미 가자서{반찬이 갖추어져 있어서}
 20506 무 20506 무끼, 무수가(+공동격형), 무순니피라{무잎이라}, 노베(+한족말(중국어))
 20507 썰다 20507 무꾸 싸아라라{무를 썰어라}
 20508 무청 20508 *
 20509 시래기 20509 시래기라구, 시래기르(+대격형)
 20510 무말랭이 20510 생기리, 생기르 맨들자{무말랭이를 만들자}, 무수 생기리
 20511 장다리무 20511 장다리, 장다리르 개: 오나라{장다리무를 가져 오나라}
 20512 배추 20512 배채, 배채르(+대격형)
 20513 고갱이 20513 고애, 고야:(+대격형), 배채꼬애, 배채꼬야(+대격형)
 20514 오이 20514 왜, 왜르(+대격형), 조서넹{토종 오이}
 20515 오이지 20515 왜르 영게서 당군다 하오{오이를 여기서 담군다 하오}, 장미테 해:미{장 밑의 반찬}

20516 오이소박이	20516 * =2왜김치구(+국물을 먹을 수 있도록 물에 담근 오이 김치} =2왜혜{오이무침} =2왜빼뚜리(+오이에 고추를 넣고 무친 것에 물을 넣고 끓인 반찬)
20517 가지(茄子)	20517 까지, 까지 뜯어 오나라
20518 호박	20518 호바기, 떡뚜애(+‘참호박’을 일컬음), 조선평바기, 메호바기라, 채호박(+‘애호박’을 일컬음), 호바기 너출채 구부러드러와따{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왔다}
20519 고구마	20519 고구마, 고구마르(+대격형)
20520 감자	20520 감지
20521 우엉	20521 우버이, 우버어(+대격형)
20522 파	20522 파이, 파아(+대격형)
20523 고추	20523 고치, 고치르(+대격형)
20524 시금치	20524 시금치
20525 미나리	20525 미나리, 미날(+대격형), 미나레(+처격형), 짐미나리{집미나리}, 사등미나리, 사들미나리{사들미나리}
20526 부추	20526 염:지, 염지꼬지{부추꽃}
20527 상추	20527 불기, 불구(+대격형), 부루가 배채{상추와 배추}, 배채가 불기{배추와 상추}, 부루생치{상추쌈}
20528 마늘	20528 마늘, 마느르(+대격형)
20529 생강	20529 생가이, 생가아(+대격형)
20530 냉이	20530 나시, 나시꼬지디{냉이꽃이지}
20531 달래	20531 달리, 달리르(+대격형)
20532 도라지	20532 도라지, 도라즈(+대격형), 도라제(+처격형)
20533 더덕	20533 더덜기, 더덜기우{더덕이오}, 더더그(+대격형), 더덕빠틀{더덕밭을}, 더덕 켈라 간다{더덕 캐러 간다}

2.2. 음식

2.2.1. 주식과 부식

20601 쌀밥	20601 니팝, 베밥(+구), 쌀밥(+신), 차니팝{참쌀밥}, 차니파부(+대격형), 메니파부{멥쌀밥을}
20602 찬밥	20602 무곰밥(+‘한 시격(때)이 지난 밥, 어제 한 밥, 때를 지난 밥’을 가리킴), 참밥우 주우{찬 밥을 주오}(+‘햇밥이더라도 식은 것이면 찬밥’이라고 함)
20602-1 더운밥	20602-1 해뺨(+새로 한 밥)

20603 조밥	20603 조팍, 조파비디마는, 조이바비, 멘자시, 멘자시바부{조밥을}, 멘자시 조반이디마는, 조이 멘자시바비디, 멘자시조이바부, 얼미판(+한족말(중국어))
20604 누룽지 {마른 가매티}	20604 가매티, 가매티르(+대격형), 개매티, 마룽가매티
20605 눌은밥	20605 가매티, 증개매티, 증가매티
20606 승능	20606 싱뉴이, 형뉴우(+대격형)
20607 뜨물	20607 쌀뜸물, 싸뚜물, 싸뜨무리
20608 김(蒸氣)	20608 기미라디
20609 갱죽(羹粥)	20609 시락쥬기라 해띠
20610 싱겁다	20610 승겁다, 승거바서
20611 국수	20611 국씨, 국씨르(+대격형)
20612 칼국수	20612 칼텐, 칼메느(+대격형)
20612-1 기계국수/틀국수	20612-1 * 짜메니(+한족말(중국어))
20613 건더기	20613 경지라(+고기 건더기), 시락쥬지, 감지쥬지
20613-1 국물	20613-1 장물(+노), 장물만, 궁물(+유)
20614 고명	20614 취미(+고명과 꾸미를 합친 의미), 취미라 하우,
국씨취미	
20615 꾸미	20615 *
20616 미역	20616 메:기, 메:그(+대격형)
20617 김(海苔)	20617 기미, 기미라능게
20618 수제비	20618 뜨텍꼭(+참쌀로 만든 것과 밀가루로 만든 것 구별 없음. ‘참쌀갈글루 한 뜨텍국’, ‘밀갈글루 한 뜨텍국’이라 함), 뜨텍꾸기(+단독형, 주격형), 뜨텍꾸구 해 먹짜{수제비를 해 먹자}
20619 끼니	20619 시격 굶는다
20620 미음	20620 미음, 미으미나 바쏘?(미음이나 받소)(+모지게 앓는 사람에게 으레 묻는 말)
20620-1 (미음을) 끓이다/쭈다/삶다	20620-1 미음 쓴다, 미음 썬 오나라, 미음 대린다(+정성스럽게 오래 끓이는 것을 말함), 미음 대레 오나라
20621 엿기름	20621 보리쌍누루기디, 보리쌍누룩
20622 식혜(食醪)	20622 청가미라, 청가무(+대격형)
20623 식해(食?)	20623 *
20624 달다(甘)	20624 달다, 다라서
20625 가루	20625 갈기 데디
20625-0-1 -에	20625-0-1 갈게
20625-0-2 -을	20625-0-2 갈그 내따
20625-0-3 -도	20625-0-3 가르도 만쏘
20626 밀가루	20626 밀갈기, 밀까르

20627 밀기울
(+대격형)
20628 미숫가루

20627 밀께(+단독형, 주격형), 미껴우리, 민께, 민껴우르
20628 미시깔기, 미시깔그(+대격형), 미시까르하구

2.2.2. 반찬과 별식

20701 간장
20702 된장
20703 고춧가루
업따{고춧가루만 없다}
20704 고추장
20705 소금
20706 김치
20707 김장
고 함)
20708 깍두기
20709 나박김치
20710 담그다
20710-0-1 -고
20710-0-2 -어라
20711 양념
김치소오 년다{김치 속을 넣는다}
20712 버무리다
20713 버섯
20713-0-1 -이
20714 콩나물
20714-1 콩나물
해무(+대격형)
20714-2 숙주(나물)
뛰길금해:미라구
20715 두부
20716 비지
20716-1 비지떡
20717 달걀
20718 가래떡
20719 시루떡

20701 간자: 아디, 간재: 짹다{간장이 짜다}, 간자:(+대격형), 간재:구{간장이고}, 간재:(+주격형)
20702 자이 되구, 자아(+대격형)
20703 고치깔기 만타, 고치깔그 버무리디, 고치까르마~
20704 고치자~이
20705 소곰, 소고미(+주격형)
20706 배채김치구만, 김치라디
20707 * (+‘김장’이라 하지 않고, 그냥 ‘김치를 절군다’
20708 깍뚜기, 김치깍뚜기
20709 김치구기(+단독형, 주격형), 김치구그(+대격형)
20710 절군다
20710-0-1 절구구 이따
20710-0-2 절귀라
20711 양녀미라, 김치즈브 낸다(+김치 양념을 만드는 것), 김치소오 년다{김치 속을 넣는다}
20712 버무린다, 버무레라
20713 퍼스시
20713-0-1 퍼스시
20714 콩길구미
20714-1 길금해:미(+반찬), 콩길금해:미(+반찬), 콩길금
20714-2 녹띠길그미디(+재료), 녹띠길금해:미(+반찬), 녹
20715 드비, 드비르(+대격형)
20716 드리
20716-1 * 드리쟝(+비지찌개)
20717 달개:리구마, 달개르 달라
20718 떡꼭때, 떡꼭때르(+대격형)
20719 시르떠기라

20720 송편
 20721 빗다
 다}, 만드미는 빈는다 하구, 비저라
 20722 흰떡
 20723 고물
 {콩고물}
 20724 팔죽
 20725 새알심
 20726 백설기
 20727 튀밥
 20728 술
 20729 막걸리
 20730 소주
 20731 부침개

20720 *
 20721 뱀세르 썬다, 뱀세르 싸구 이따{만두를 빗고 있
 다}
 20722 *
 20723 곰물, 곰모르(+대격형), 팍곰물{팍고물}, 콩곰물
 {콩고물}
 20724 오구랑쥬기디
 20725 오구래디, 오구래르(+대격형)
 20726 썰기(+이 지역에서는 고물을 넣기도 함)
 20727 다깨, 옥썬수다깨, 콩다깨, 티우개, 옥썬수튀개
 20728 수우리, 수우르(+대격형)
 20729 막걸레
 20730 토쥬, 토쥬, 토쥬르 곤는다{토주를 곤다}
 20731 산저기라, 드비산저기라, 달꺄산적, 쌀산적

2.2.3. 부엌과 그릇

20801 부뚜막
 20802 가마솥
 20802-0-1 -을
 20802-0-2 -에
 20803 아궁이
 20803-0-1 -이
 20804 그을음
 사함. 재도 아니고, 연기에 습기가 달라붙은 데에 미세한 보드라운 게 붙어서 주루룩 내려오다
 가 붙을 때면 마르는 것이라고 함)
 20805 불쏘시개
 20806 연기
 20806-1 내(煙氣)
 20807 그을리다
 20808 부지깥이
 20809 부삽
 20810 냅다
 20811 냄비
 20812 그릇
 20812-0-1 -을
 20813 뚜껑

20801 가매편, 가매찌니
 20802 가매
 20802-0-1 가매르
 20802-0-2 가매에다 바:배라{가매에다 밥해라}
 20803 부수깨아가리
 20803-0-1 부수깨아가리 너르다, 부수깨아가리 놓따
 20804 끄스레미라, 끄스러무(+대격형), 지레(+‘거멍’과 유
 사함)
 20805 불쏘시개, 불쏘시개르(+대격형)
 20806 내구리, 내구르 피운다
 20806-1 내구러서, 내구르 마타서
 20807 끄스러따, 끄스러서 가아마케 돼따
 20808 부수때기, 부수때그(+대격형)
 20809 부사비랑개, 부사비
 20810 내굴다, 내구라서, 내굴 썰와서
 20811 재테리, 재터르(+대격형)
 20812 그르시, 글시, 그을시
 20812-0-1 그르스
 20813 더패, 가매떠패, 재털더패, 밥통떠패

20814	주발 뚜껑	20814	드배
20815	사발 뚜껑	20815	*
20816	술뚜껑	20816	가매떠꽤, 가매떠꽤르 더퍼라
20817	밥주걱	20817	밥쥬기, 밥쥬구(+대격형)
20818	숟가락	20818	수리구
20819	젓가락	20819	저리구
20820	종지	20820	간장쥬지, 간장쥬지르(+대격형)
20821	보시기	20821	보시기, 보시기르(+대격형)
20822	뚝배기	20822	뚝빼기, 뚝빼그(+대격형)
20823	접시	20823	텝씨
20824	조리	20824	췌리, 췌리르(+대격형)
20825	이남박	20825	이남바그(+대격형)
20826	바가지	20826	바가지, 바가지르(+대격형)
20827	행주	20827	췌앵지, 췌앵지르(+대격형)
20828	행구다	20828	휘운다, 휘위라
20829	설거지	20829	설거지
20830	개숫물	20830	개심무리라, 개심물
20831	찌꺼기	20831	쯔께기, 쯔께그(+대격형)
20832	화로	20832	화리, 화리르(+대격형)
20833	화롯불	20833	화리뿔
20834	부젓가락	20834	부절, 부저르(+대격형)
20834-0-1	-이	20834-0-1	부저리
20834-1	불숟가락	20834-1	* =2부수리, 부수르(+대격형)
20835	다리쇠	20835	부저리라
20836	석쇠	20836	*
20837	도시락	20837	* 정심그르시라, 정심바비라고
20838	바구니	20838	우쿠리, 다라치구, 다래끼
20839	뒤주	20839	두지, 두지르(+대격형), 곡썩뚜지, 쌀뚜지, 널뚜지
르			
20840	찬합	20840	*
20841	강판	20841	*
20842	개다리소반	20842	도리반

2.3. 가옥

2.3.1. 방과 가구

20901	안방	20901	알빠이, 알빠이디, 알빠에(+처격형)
-------	----	-------	----------------------

20902 벽	20902 버기, 간벽(+방과 방 사이를 막은 벽), 두름뻥, 두름뻥기, 바름뻥(+‘두름벽’을 흔히 ‘바름벽’이라고 함)
20903 다락	20903 *
20904 벽장	20904 *
20905 감추다	20905 꿈치와둔다, 꿈취와라, 꿈취우구 있다
20906 흙	20906 허무리
20907 돌쩌귀	20907 문떠귀, 문떠귀디, 더괘지, 문떠괘지, 문텃시
20907-1 암작	20907-1 더귀, 더꺄 바짜라
20907-2 수작	20907-2 더괘지, 더괘지르 바짜라
20908 미단이	20908 미다디구
20909 여단이	20909 무니라
20910 덧문	20910 덤무니라, 덤무니, 덤무느(+대격형)
20911 열다	20911 여러따, 여러라, 열구 이따, 연다
20912 문고리	20912 문꺄썰, 꺄썰, 문꺄썰
20913 자물쇠	20913 열썰, 자물통, 자물토~우(+대격형)
20914 갸히다	20914 개꺄서, 개끼무, 개끼워따
20915 열쇠	20915 열썰, 열썰, 열썰르 채와라, 채와테따
20916 잠그다	20916 잠군다, 잠과따, 잠꺄따
20917 구멍	20917 궁개 크다, 궁개: 만타, 궁가:내는데, 궁가아(+대격형)
20917-1 쥐구멍	20917-1 쥐궁기, 쥐궁개(+땅으로 파 들어간 것), 쥐궁구(+대격형), 쥐구리디, 쥐구내(+벽과 벽 사이를 뚫은 것), 쥐구나아(+대격형), 쥐구냥
20918 찢다	20918 쫌는다, 쫌저 나:라
20919 구들	20919 구두리
20920 흙받기	20920 흑쏘니
20921 흙손	20921 왜소니구, 왜솜판, 왜솜파느(+대격형)
20922 흙꺄	20922 왜소니구
20922-1 흙꺄(나무)	20922-1 *
20922-2 흙꺄(쇠)	20922-2 *
20923 바르다	20923 바른다, 바르더라, 발라라, 부턴다
20924 장판	20924 장꺄, 장꺄지, 장꺄지르(+대격형)
20925 종이	20925 죠애
20926 도배	20926 도벼기, 도벼간다
20927 구석	20927 구세기, 구세그(+대격형), 구베기, 구베기르(+대격형)
20928 굽도리	20928 *
20929 깨끗하다	20929 꺄꺄자다, 꺄꺄재서, 꺄꺄자더라
20930 문지방	20930 문투기

20930-0-1 -에	20930-0-1 문투게
20931 틈	20931 쓰미
20932 가장자리	20932 * 역새리(+방에는 ‘역새리’ 없음. 상 가장자리, 강 가장자리를 ‘역새리’라고 함), 상녁새리, 강역새리
20933 가운데	20933 함파니디, 함파나라
20934 시렁	20934 가달덩때
20935 살강	20935 덩때(+살강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쓰이고, 시렁, 살강, 선반 등을 아루른 의미로도 쓰임), 널덩때
20936 선반	20936 당덩때, 니불덩때
20937 서랍	20937 뽀비, 뽀비르(+대격형)
20938 경대	20938 경대
20939 거울	20939 거우리디, 테경{체경, 전신거울}, 섹경{면경}
20940 걸다	20940 거는거뚜, 거러라, 건다, 걸더라, 거러떠라
20941 호룽	20941 *

2.3.2. 건물

21001 지붕	21001 지부~이, 지부~우(+대격형)
21001-0-1 -에	21001-0-1 지부에
21002 기와	21002 귀애디
21003 기와집	21003 귀왜지비라, 팔각끼왜지비라
21004 수키와	21004 수키애, 수키애구
21005 암키와	21005 암키애구
21006 대들보	21006 둥두리
21007 서까래	21007 세까리디(+‘전체’를 가리킬 때), 세까다리(+‘날개’를 가리킬 때), 세까다리라
21008 추녀	21008 츄네, 츄네구
21009 처마	21009 낭가니
21010 오두막	21010 오두마기라디, 오두맥, 오두매기라
21011 초가집	21011 초개지비
21012 이엉	21012 니에(+주격형), 이집 니정보다 저집 니에 나따, {이 집 이정보다 저 집 이엉이 낫다}, 니어: 네구{이엉을 이고}, 니어: 낸다
21012-0-1 -에서	21012-0-1 니어에서
21013 용마름	21013 말기(+단독형, 주격형), 말기보다, 농말기, 용마르보다, 용말기
21014 기스락	21014 낭강끄티, 낭강기슬기
21015 낙숫물	21015 낙썰물
21015-1 기스락물	21015-1 *
21016 사닥다리	21016 새닥따리, 새닥따리르(+대격형), 사다리르(+대격

형)

21017 용마루
보다, 용말기

21018 토방

21019 댕돌

21020 마루

21020-0-1 -에

21021 텃마루

21022 기둥

21023 주춧돌

21023-0-1 -을

21024 굴뚝

형)

21017 말기(+단독형, 주격형), 말기보다, 농말기, 용마르

21018 *

21019 *

21020 마루, 마루르(+대격형)

21020-0-1 마루에

21021 텀마루디, 텀마레(+처격형)

21022 기두~이우, 기두: 세와라

21023 쥐치, 쥐치톨

21023-0-1 쥐치또르

21024 구새(+주격형), 구새르(+대격형), 구셀르다(+구격

2.3.3. 마당

21101 뜰

21101 터우레, 터바틴데, 압뚜우레, 아부레, 뒤우레

21102 마당

21102 마당, 마다아(+대격형)

21103 넓다

21103 너르구, 너르다

21103-0-1 -어서

21103-0-1 널거서

21104 넓히다

21104-0-1 널군다(+‘동쪽이나 서쪽과 같이 어느 한쪽을 더 확장하는 것’이라 함), 널귀라, 널핀다(+‘앞뒤, 동서남북을 더 확장하는 것’이라 함), 널페라

21105 곳간

21105 샤라~이라, 샤라~까니라

21106 외양간

21106 아래칸, 오양까니, 오양칸에다

21107 마구간

21107 마구칸

21108 광

21108 어간칸

21109 헛간

21109 허덕칸, 두지칸, 허덕칸, 두지칸

21110 쓰레기

21110 쓰레기

21111 장독대

21111 *

21112 장독 뚜껑

21112 *

21113 변소

21113 측칸, 똥쭈칸, 변소칸, 변소

21113-1 똥장군

21113-1 똥토~이디

21114 울타리

21114 우타리, 장재(+널로 만든 것)

21115 담

21115 토담

21115-0-1 -에

21115-0-1 토다메

21115-0-2 -도

21115-0-2 토담두

21116 사립문

21116 서리문

21117 뒤곶
 21117-0-1 -에
 21118 바깥
 21118-0-1 -에
 21119 모퉁이
 21120 모서리

21117 뒤마대:라디
 21117-0-1 뒤마다에, 뒤마당서
 21118 바그티라, 바그트르
 21118-0-1 바그테, 바께, 한테
 21119 모투~이, 모튀~이르 돌아라
 21120 모세리

2.3.4. 마을과 가게

21201 마을
 은)(+표준어에 가깝다고 함)
 21202 윗마을
 21203 이웃
 21203-0-1 -이
 21203-0-2 -에
 21204 마을가다
 21205 우물
 21206 두레박
 21207 샘(泉)
 깨
 21208 가(邊)
 21208-0-1 -을
 21208-0-2 -에
 21209 물지게
 21210 가게
 21211 싸다
 21212 비싸다
 21213 흥정
 21214 중매인(거간꾼)
 21215 잔돈
 잔도느(+대격형)
 21216 에누리
 누리업쏘
 21217 거스름돈
 21218 거스르다
 21219 꾸다(借)
 꺾워꺾따{돈 꾸러 온 사람 많이 못 꺾 줬다}
 21219-0-1 -어야
 21220 구두쇠

21201 동네, 마으리라고도, 마아리람 마른{마을이란 말
 은)
 21202 우뚝네, 움마을
 21203 우찌싸르미오, 아래찌싸르미오, 처찻싸름
 21203-0-1 이우지라고
 21203-0-2 *
 21204 마스도리 땡긴다
 21205 구렁께(+구), 움물(+신)
 21206 드레르(+대격형)
 21207 삼침무리라, 웅달쌔애미, 바가지움물, 바가지구렁
 깨
 21208 역쌔리
 21208-0-1 역쌔리르 나서디 마라라
 21208-0-2 구렁께 역쌔레 나서디 마라라
 21209 물찌게, 물찌게르(+대격형)
 21210 상더미디, 상덤루(+대격형)
 21211 눅따, 눅끼 싸따
 21212 비싸다, 비싸기 싸따
 21213 흥저~:하디
 21214 거간꾼, 거간꾸누(+대격형)
 21215 보캐르 해 주오{잔돈으로 바꿔 주오}, 잔도니디,
 잔도느
 21216 에누리, 나차주우{낫취주오, 꺾아주오}, 한나투 에
 누리업쏘
 21217 승천, 승쳐~이디, 승쳐느 잔도늘르 주우
 21218 거슬러준다, 거슬러 줄또니{거슬러 줄 돈이}
 21219 꺾 와야, 꺾 와따, 꾸더라, 동꿀라 웅 거 마니 모
 꺾워꺾따{돈 꾸러 온 사람 많이 못 꺾 줬다}
 21219-0-1 꺾 와야
 21220 딱꼴쌔(+노), 딱꼴쌔르(+대격형), 깍쌔(+유)

21221	말기다	21221	마티구, 매끼구
21222	나머지	21222	나마지돈, 나머지, 나머지승쳐니디
21223	덤	21223	더두리, 더두리르(+대격형)
21224	몫	21224	내 모기다
21224-0-1	-을	21224-0-1	내 모구
21225	빚	21225	비디(+주격형)
21225-0-1	-을	21225-0-1	비드
21225-0-2	-에	21225-0-2	비테
21226	이자(利子)	21226	벼니라, 벼누(+대격형), 니자
21227	심부름	21227	심바람
21228	두름	21228	드럽, 한 드러부 주우
21228-1	축	21228-1	*
21228-2	쾌	21228-2	한 드럽, 한 드림
21228-3	접	21228-3	*
21228-4	쌈	21228-4	싸물루
21228-5	두름(고사리)	21228-5	단, 무꿈
21228-6	단/몫(장작)	21228-6	단
21228-7	단/몫(무)	21228-7	다니라
21228-8	툇	21228-8	쌈
21228-9	모습	21228-9	한 우쿠미디, 한 우콥 두 우콥
21229	컬레	21229	항 커리
21230	마지기	21230	지미, 짐(+구), 무(+신)
21230-1	한 마지기	21230-1	침퍼~이라구
21231	꾸러미	21231	무꾸미라
21232	그루	21232	대, 한 대, 두 대, 델르(+넘어진 나무도 ‘대’로 셈)
21233	포기	21233	한 통 두 통
21234	저울	21234	저울, 저우루(+대격형)
21235	자루(包袋)	21235	잘기
21235-0-1	-을	21235-0-1	잘그
21235-0-2	-에	21235-0-2	잘게
21236	하나	21236	한나
21236-1	하나-개	21236-1	항개
21236-2	하나-되	21236-2	한돼
21236-3	하나-말	21236-3	함말
21237	둘	21237	두:리, 두울
21237-1	둘-개	21237-1	두개
21237-2	둘-되	21237-2	두돼
21237-3	둘-말	21237-3	두말

21238 셋
 21238-1 셋-개
 21238-2 셋-되
 21238-3 셋-말
 21239 넷
 21239-1 넷-개
 21239-2 넷-되
 21239-3 넷-말
 21240 다섯
 21240-1 다섯-개
 21240-2 다섯-되
 21240-3 다섯-말
 21241 여섯
 21241-1 여섯-개
 21241-2 여섯-되
 21241-3 여섯-말
 21242 일곱
 21242-1 일곱-개
 21242-2 일곱-되
 21242-3 일곱-말
 21243 여덟
 21243-1 여덟-개
 21243-2 여덟-되
 21243-3 여덟-말
 21244 아홉
 21244-1 아홉-개
 21244-2 아홉-되
 21244-3 아홉-말
 21245 열
 21245-1 열 개
 21245-2 열 되
 21245-3 열 말
 21246 스물
 21246-1 스물-개
 21246-2 스물-되
 21246-3 스물-말
 21247 서른
 21247-1 서른-개

21238 서이, 서
 21238-1 세개
 21238-2 서돼
 21238-3 서말
 21239 너이, 너
 21239-1 네개
 21239-2 너돼
 21239-3 너말
 21240 다스시, 다스
 21240-1 다스개
 21240-2 다스돼
 21240-3 다슴말
 21241 여스시, 여스
 21241-1 여스개
 21241-2 여스돼
 21241-3 여슴말
 21242 닐구비, 닐굽
 21242-1 닐굽개
 21242-2 닐굽돼
 21242-3 닐굽말
 21243 야들비, 야드
 21243-1 야듬개
 21243-2 야듬돼
 21243-3 야듬말
 21244 아우비, 아웁
 21244-1 아웁개
 21244-2 아웁돼
 21244-3 아웁말
 21245 야리, 알
 21245-1 알개
 21245-2 알돼
 21245-3 알말
 21246 스물
 21246-1 스무개
 21246-2 스무돼
 21246-3 스무말
 21247 서른
 21247-1 서룽개

21247-2 서른-되
 21247-3 서른-말
 21248 마흔
 21248-1 마흔-개
 21248-2 마흔-되
 21248-3 마흔-말
 21249 쉰
 21249-1 쉰-개
 21249-2 쉰-되
 21249-3 쉰-말
 21250 예순
 21250-1 예순-개
 21250-2 예순-되
 21250-3 예순-말
 21251 일흔
 21251-1 일흔-개
 21251-2 일흔-되
 21251-3 일흔-말
 21252 여든
 21252-1 여든-개
 21252-2 여든-되
 21252-3 여든-말
 21253 아흔
 21253-1 아흔-개
 21253-2 아흔-되
 21253-3 아흔-말
 21254 백
 21254-1 백-개
 21254-2 백-되
 21254-3 백-말
 21255 이백
 21256 한둘
 21256-1 한두 개
 21256-2 한두 되
 21256-3 한두 말
 21257 두셋
 21257-1 두세-개
 21257-2 두세-되

21247-2 서른돼
 21247-3 서름말
 21248 마운
 21248-1 마웅개
 21248-2 마운돼
 21248-3 마움말
 21249 쉼
 21249-1 쉼개
 21249-2 쉼돼
 21249-3 쉼말
 21250 예쉼
 21250-1 예쉼개
 21250-2 예쉼돼
 21250-3 예쉼말
 21251 니른
 21251-1 니릉개
 21251-2 니른돼
 21251-3 니름말
 21252 야든
 21252-1 야등개
 21252-2 야든돼
 21252-3 야듬말
 21253 아은
 21253-1 아웅개
 21253-2 아은돼
 21253-3 아음말
 21254 백
 21254-1 백깨
 21254-2 백뻬
 21254-3 뱅말
 21255 냥백
 21256 한두리
 21256-1 한두개
 21256-2 한두돼
 21256-3 한두말
 21257 두서이
 21257-1 두세개
 21257-2 두서돼

21257-3 두세-말	21257-3 두서말, 두세말
21258 두서넛	21258 두서네, 두서너
21258-1 두서넛-개	21258-1 두서너개
21258-2 두서넛-되	21258-2 두서너돼
21258-3 두서넛-말	21258-3 두서너말
21259 서넛	21259 서너
21259-1 서넛-개	21259-1 서너개
21259-2 서넛-되	21259-2 서너돼
21259-3 서넛-말	21259-3 서너말
21260 네댓	21260 네다스시
21260-1 네댓-개	21260-1 너덜때:개
21260-2 네댓-되	21260-2 너덜때:꽤
21260-3 네댓-말	21260-3 네땸:말, 너덜땸말
21261 대여섯	21261 대:여섯
21261-1 대여섯-개	21261-1 대애여스개
21261-2 대여섯-되	21261-2 대애여스꽤
21261-3 대여섯-말	21261-3 대애여스땸말
21262 예닐곱	21262 예닐구비
21262-1 예닐곱-개	21262-1 예닐곱개
21262-2 예닐곱-되	21262-2 예닐곱꽤
21262-3 예닐곱-말	21262-3 예닐곱말
21263 일여덟	21263 니라듬, 니라드비
21263-1 일여덟-개	21263-1 니라드개
21263-2 일여덟-되	21263-2 니라듬꽤
21263-3 일여덟-말	21263-3 니라듬말
21264 여덟아홉	21264 *
21264-1 여덟아홉-개	21264-1 *
21264-2 여덟아홉-되	21264-2 *
21264-3 여덟아홉-말	21264-3 *
21265 여남은	21265 야라무, 야라무시 이따
21265-1 여남은-개	21265-1 야라무개
21265-2 여남은-되	21265-2 야라무돼, 야람:돼
21265-3 여남은-말	21265-3 야라무말, 야람:말

2.4. 의복

2.4.1. 복식과 장식

21301 치마	21301 치매
21302 길이	21302 기대:, 기당, 기다~이라
21303 저고리	21303 저구리, 저구르(+대격형)
21304 색동저고리	21304 색똥저구리
21305 두령이	21305 *
21306 무늬	21306 무니
21307 고쟁이	21307 가비, 가비라 한다, 가비르(+대격형)
21308 바지	21308 바디
21309 두루마기	21309 재매기
21310 의복	21310 오시라, 오시, 우티
21311 구겨지다	21311 꾸구제레딩 거, 꾸구제레딩 게
21312 옷고름	21312 고름, 고름
21313 단추	21313 단취, 단취르 거리라
21314 동정	21314 동저~이, 동저~어(+대격형)
21315 겹	21315 거치라
21315-0-1 -에	21315-0-1 거체
21315-0-2 -을	21315-0-2 거츠
21316 홀옷	21316 합뿌티, 하찌구리, 합빠디
21317 겹옷	21317 겹뿌티, 겹찌구리, 겹빠디
21318 잠방이	21318 잠배, 잠배르(+대격형), 베잠배
21319 누더기	21319 누데기, 누데기오시라
21320 거지	21320 비렁구레, 비렁배~:
21321 구걸	21321 비라리, 비라리르(+대격형), 밥빨라 땡긴다
21322 조끼	21322 쫘끼, 쫘끼르(+대격형)
21323 내의	21323 *
21324 껌입다	21324 껌넘는다
21325 소매	21325 사매
21326 주머니	21326 줘머니, 줘머느(+대격형)
21327 호주머니	21327 거르마니, 거리마니, 거르마느(+대격형)
21328 허리띠	21328 띠, 가비띠구, 둥디띠(+중간에다 매는 것), 가죽띠
라(+가죽으로 만든 것), 형겅띠(+천으로 만든 것)	
21329 땡기	21329 땡기, 땡기르(+대격형)
21330 도포	21330 도포라
21331 샷갓	21331 사까디
21331-0-1 -에	21331-0-1 사까데
21332 고깔	21332 *
21333 사모	21333 사모, 사모관대

21334 유건	21334 풍건(+완전히 동일한 대상은 아님)
21335 대님 미라	21335 바딤마겐데, 내 바딤매개르 치쳐서 대레라, 대니
21336 감발	21336 감발, 감바리라
21337 쥘신	21337 초신, 딤썬
21338 미투리	21338 메커리, 메커르(+대격형)
21338-1 (쥘신을) 삼는다/만든다/튼다)	21338-1 메커르 드딘다
21339 나막신	21339 나박썬, 모케{목혜}
21340 설피	21340 *

2.4.2. 바느질과 세탁

21401 명주	21401 멩디, 멩디르(+대격형), 멩디
21401-1 명주실	21401-1 멩디실
21402 목화 열매)	21402 모콰라(+식물), 모콰르(+대격형), 모콰이사기디(+
21402-1 목화다래	21402-1 무명, 토모기, 미영, 토목
21403 무명	21403 무메이라고도
21403-1 무명실	21403-1 무명실, 미여~:
21404 씨아	21404 *
21405 자새	21405 돌겨디, 돌겨드(+대격형)
21406 물레	21406 물레
21407 베	21407 베르 째다, 무며으 째다
21408 길쌈	21408 길쌈한다
21409 골무	21409 골미, 골무, 소꾸락꼴미
21410 반질고리	21410 귀띠, 귀띠팡지
21411 가위	21411 가새, 가셀르{가위로}
21411-0-1 -을	21411-0-1 가새르
21411-0-2 -에	21411-0-2 가새에
21412 마르다(裁)	21412 마른다
21412-0-1 -고	21412-0-1 마르구 이따
21412-0-2 -어라	21412-0-2 말가라
21413 형겅 하는 말은 ‘형겅조배기’)	21413 형거치 (+‘형겅’은 ‘천’을 뜻하는 말임. 21413과 통
21413-0-1 -을	21413-0-1 형거츠
21413-0-2 -에	21413-0-2 형거체
21414 바늘	21414 바늘, 바느르(+대격형), 바느레(+처격형)
21415 꿰다	21415 켄다

21415-0-1 -고	21415-0-1 시르 께구 이따
21415-0-2 -어라	21415-0-2 께에라
21416 바느질	21416 바느질(+바늘을 사용하여 옷을 만드는 일), 바느
지리, 기벽질(+구멍이 나거나 해진 데에 천 조각을 대고 깎는 일)	
21417 재봉틀	21417 마션, 마셔느(+대격형), 발마션, 솜마션
21418 끈	21418 긴, 끼니라고도, 매끼라고도
21419 노끈	21419 노끼니, 노이, 노오(+대격형)
21420 참바	21420 바이, 바아 디레라
21421 매듭	21421 마드비, 마들비, 실마드비르 해애라, 농마드비르
해애라	
21421-1 (매듭을) 맺는다/짓는다/엮는다	21421-1 매:라, 매구이따
21422 보자기	21422 보이라
21423 이불	21423 니부리, 니부루(+대격형)
21424 솜	21424 소캐디
21425 포근하다	21425 포구:나다, 포구:나더라, 포구:나구나
21426 홉이불	21426 하불리불, 하불리부리라디
21427 겹이불	21427 한니불(+솜을 두지 않고 안과 바깥이 있는 이불),
한니부르(+대격형)	
21427-1 솜이불	21427-1 겹니불
21428 누비이불	21428 느윈니불, 느빈니부리 느윈니불로
21429 베개	21429 베개, 베개르(+대격형)
21430 베갯잇	21430 이시, 베개이시, 이스(+대격형)
21430-0-1 -에	21430-0-1 이세
21431 목침	21431 목또기, 목또그(+대격형)
21432 퇴침	21432 *
21433 방석	21433 방석, 방셔그(+대격형)
21434 담요	21434 탄재, 털탄재
21435 빨래하다	21435 셔답찌르 한다, 셔답찜는다
21436 빨랫방망이	21436 방치, 셔답빵치
21437 빨래터	21437 셔답터
21438 빨랫줄	21438 셔답빠줄, 셔답쭈르(+대격형), 바주르(+대격형)
21439 다리미	21439 대레니(+숯불을 담아서 쓰는 것), 대레느(+대격
형), 덩기대레니(+전기로 쓰는 것)	
21439-1 다림질	21439-1 대린다, 대렌지르 한다
21440 인두	21440 윤디
21441 다듬잇방망이	21441 다드미빵치
21442 다듬잇돌	21442 방치뜰
21443 다듬이질	21443 다드미, 다드미질

2.5. 민속

2.5.1. 세시 풍속

21501 설날	21501 설라리디{설날이지}
21502 설	21502 서르{설을}
21503 선달그믐날	21503 서떨{선달} 그믐날
21504 묵은세배	21504 *
21505 올해	21505 올해애
21505-0-1 -는	21505-0-1 올해느
21505-1 재작년	21505-1 장년
21505-2 작년	21505-2 재장년
21505-3 내년	21505-3 명년
21505-4 후년	21505-4 후년
21505-5 내후년	21505-5 *
21506 작은설	21506 *
21507 옷	21507
21507-0-1 -을	21507-0-1 누꾸 툃다{옷을 친다}
21507-0-2 -에	21507-0-3 누께
21507-1 옷놀이	21507-1 누수티기
21508 옷가락	21508 *(+이 지역은 강낭콩으로 옷을 만듦)
21508-1 도	21508-1 또로
21508-2 개	21508-2 캐애
21508-3 걸	21508-3 켄
21508-4 옷	21508-4 쑹
21508-5 모	21508-5 모/몽하!{모야!}
21509 단동	21509 한 동, 한 도~이
21509-1 외동무니	21509-1 왜동매
21509-2 두동무니	21509-2 두동매구
21509-3 석동무니	21509-3 석똥매구
21509-4 녁동무니	21509-4 녁똥매
21509-5 막동	21509-5 막또~이더라
21509-6 단동무니	21509-6 패도~이, 완도~이구
21510 보름	21510 보름
21510-1 삭망	21510-1 상망(+제사의 일종)
21511 추석	21511 향가위, 가위

21512	망월	21512	*
21513	쥐불놀이	21513	쥐뿔노리
21514	자치기	21514	뿔때티기
21514-1	작은막대	21514-1	*
21514-2	긴막대 형입)	21514-2	*(+‘뿔때채’가 나타나지만 이는 제보자의 추정
21515	수수께끼	21515	수수꺼끼르 내애라
21516	호미씻이	21516	*
21517	팽과리	21517	쟁쟁기
21518	장구	21518	새댁귀
21519	결두리	21519	*
21520	무당	21520	*
21520-1	박수	21520-1	복슈리
21521	고수레	21521	고수레
21521-1	고수레!	21521-1	*
21522	점쟁이	21522	덤재애/점재애
21523	상여(喪輿)	21523	향뒤
21524	굴건	21524	상거니, 소거니
21525	제사	21525	제새르 기낸다
21526	제기	21526	제기
21527	귀신 후손이 없는 귀신)	21527	귀신 (참) 더귀(충각, 처녀귀신), 해애니(돌보는
21528	도깨비	21528	도깨비

2.5.2. 농경용품

21601	고빼	21601	곶찌
21602	굴레	21602	굴레
21603	명예	21603	머~이(+수레용), 뉴황재(+호리용)/가닥명지(+노)
21604	길마	21604	기르매
21605	부리망	21605	꺼러기, 꺼러그 개:오너라.{부리망을 가져오너라}
21606	구유	21606	구시에다
21607	작두	21607	작뛰르
21608	꼴	21608	쉐까르{소 깔을}, 까르(+대격형)
21609	여물	21609	여무리, 여무르(+대격형)
21610	쇠죽	21610	모리
21611	쇠죽바가지	21611	*
21612	수레	21612	술기
21613	끝다	21613	

21613-0-1 -고	21613-0-1 꼬스구이따
21614 바퀴	21614 바퀴
21615 새끼(繩)	21615 사치, 사츠(+대격형)
21615-1 새끼(집승의)	21615-1 새끼르(+대격형)
21616 망태기	21616 중태
21617 먹둥구미	21617 우쿠리
21618 거적	21618 거적
21619 가마니	21619 가마니, 가마느 짚다{가마니를 짚다}
21619-1 가마니틀	21619-1 가마니틀
21620 돛자리	21620 도짜리
21621 자리틀	21621 *
21621-1 (자리틀) 짚다/찢다/만든다/결다	21621-1 도짜리르 짚다
21622 왕골	21622 꼴
21623 삼태기	21623 버치
21623-1 쥘삼태기	21623-1 버치
21623-2 짜리삼태기	21623-2 소보치
21624 명석	21624 명석
21625 어레미	21625-2 얼거미
21625-1 고운채	21625-1 채, 총채(+말총을 재료로 만든 것)
21625-2 굵은채	21625-2 쌀채
21626 대장장이	21626 애재애
21627 대장간	21627 애장간
21628 풀무	21628 풍기, 풍구(+대격형), 풀무두
21629 모루	21629 몰기, 몰구(+대격형), 모루만
21630 모루채	21630 메, 자그메
21631 갈퀴	21631 살각채
21632 집게	21632 지폐
21633 장도리	21633 망치, 모뻘기망치
21633-1 노루발	21633-1 모뻘기
21634 툽	21634 토비
21634-0-1 -에	21634-0-1 토베
21635 도끼	21635 도끼, 도끼르
21636 자루(柄)	21636 잘기
21636-0-1 -을	21636-0-1 잘그
21636-0-2 -에	21636-0-2 잘게
21637 갈고리	21637 까꾸래
21638 췌기	21638 쇠애기

21639 송곳
 21639-0-1 -에
 21640 뽕죽하다
 21641 솟돌
 21641-0-1 -에
 21642 맷돌
 21642-1 수쇠
 21642-2 암쇠
 21643 지게
 21644 밭채
 21645 지게 작대기
 21646 막대기
 21647 몽둥이

21639 송고즈(+대격형)
 21639-0-1 송고제 덜키우라{송곳에 찔릴라}
 21640 뽕:주가다
 21641 쉬뜰
 21641-0-2 쉬뚜레
 21642 매토리, 매프(+대격형), 매표해애라
 21642-1 매표찌지{맷돌젓-이}
 21642-2 거깨구냥, 매표라리
 21643 쪽찌게
 21644 소코리
 21645 디페에
 21646 막때기
 21647 몽뒤

2.5.3. 생활용품

21701 빗자루
 21702 광주리
 21703 소쿠리
 21704 함지
 21705 풀비
 21705-1 귀얄
 21706 독
 21706-0-1 -에
 21707 물독
 (+대격형), 디두무만
 21708 향아리
 21709 단지
 21710 물동이
 21711 빠리
 21712 옹기
 21713 표주박
 21714 키(箕)
 21715 떡살
 21716 다식판
 21717 시루
 21717-0-1 -을
 21717-0-2 -에

21701 비
 21702 광지
 21703 소코리
 21704 함지
 21705 소리{술이}
 21705-1 소리{술이}
 21706 오지고네기, 디고네기{질그릇독}
 21706-0-1 고네계에
 21707 동기, 오지동기, 쇠동기{쇠물독}, 디동기, 디동구
 21708 향아리, 향아르 개:오너라{향아리를 가져오너라}
 21709 단디
 21710 도예, 옹조리(+동이보다 작음)
 21711 따바리, 따바르 개:오너라{빠리를 가져오너라}
 21712 도기라디{독이라 하지}
 21713 호로바가지
 21714 키
 21715 *
 21716 *
 21717 실기
 21717-0-1 실그, 떡시르만
 21717-0-2 실게다{시루에다}

21718 시루밑
 21718-0-1 -에
 21719 시룻번
 21720 부싯돌
 21720-0-1 -을
 21721 부시
 21722 부싯깃
 21723 담배
 21724 담뱃대
 21725 담배설대
 21726 담배통
 21727 물부리
 21728 담배쌈지
 21729 부채
 21730 토시
 21731 벼루
 21732 가락지
 21733 비녀
 21734 참빗
 21734-0-1 -을
 21734-0-2 -에
 21735 열레빗
 21736 세숫대야
 21737 비누
 21738 도투마리
 21739 활대
 21740 잉앗대
 21741 부티
 21742 도롱이

21718 시르밑
 21718-0-1 시르미테
 21719 시르띠
 21720 부쉬톨
 21720-0-1 부쉬또르
 21721 부쉬
 21722 부쉬끼즈{부싯깃을}
 21723 담배
 21724 당뚜기, 땅뚜구(+대격형)
 21725 대쌈애
 21726 대통, 대토~이{담배통이}, 대토~오{담배통을}
 21727 물쭈리
 21728 담배쌈지
 21729 부채
 21730 토시
 21731 벼루, 벼르또리{벼룻돌이}
 21732 가락찌
 21733 비네
 21734 챔비시{참빗이}
 21734-0-1 챔비스
 21734-0-2 챔비세
 21735 열게비시{열레빗이}
 21736 쉼쉬소래
 21737 비느리{비누가}
 21738 도투마리, 도투마르(+대격형)
 21739 쉼초리
 21740 이애, 으애
 21741 *
 21742 우장

2.6. 인체

2.6.1. 얼굴과 머리

21801 이마
 21802 이마빼기
 21803 눈자위

21801 니매
 21802 니맨대기
 21803 *

21804 검은자위
 21805 흰자위
 21806 눈꺼풀
 21807 거적눈
 21808 눈썹
 21808-0-1 -이
 21809 속눈썹
 21809-0-1 -이
 21810 눈두덩
 21811 안경
 21812 안경집
 21813 돋보기
 21814 주름살
 21814-0-1 -이
 21815 앳되다
 21816 수염
 21817 구레나룻
 21817-0-1 -을
 21818 코
 21818-0-1 -이
 21819 콧수염
 21820 코딱지
 21821 콧구멍
 21821-0-1 -을
 21821-0-2 -에서
 21822 콧물
 21823 입술
 (脣)을}
 21823-0-1 -에
 21824 다물다
 21825 어금니
 21826 덧니
 21827 휘파람
 21828 침
 21829 삼키다
 21830 가래(痰)
 21831 뱀다
 21832 혀

21804 눈짜시
 21805 흰자시
 21806 눈뜨베
 21807-0-1 거정눈
 21808 눈썹
 21808-0-1 눈썹비
 21809 송눈썹
 21809-0-1 송눈썹비
 21810 눈뜨베
 21811 양겨~어 개:오너라{안경을 가져오너라}
 21812 양경쩍
 21813 돋보기, 돋보구 개:오너라{돋보기를 가져오너라}
 21814 쭈룩짜리디
 21815 쭈룩짜리
 21815 애티다
 21816 췌에미, 췌에무, 여미{髭이, ‘수염’의 높임말}
 21817 구리췌에미
 21817-0-1 구리췌에무
 21818 코
 21818-0-1 코이
 21819 윤췌에미
 21820 코깨애지르 우베에라{코딱지를 후벼라}
 21821 코꾸냥
 21821-0-1 코꾸냐아
 21821-0-2 코꾸냐에서
 21822 콤무르{콧물을}
 21823 입쭈리디, 운넙쭈리, 아래입쭈리구/입수누{입순
 21823-0-1 입쭈레/입수네{입순(脣)에}
 21824 다문다, 다무러라
 21825 거엄니
 21826 넌니
 21827 뺨빠름
 21828 춤우(+대격형)
 21829 삼킨다
 21830 가래르(+대격형)
 21831 가래르 바다라, 바꾸 이따
 21832 세띠

21833	헛바늘	21833	쓰리 나따{쓸(헛바늘)이 났다}
21834	꿇불	21834	귀저즈(+대격형)
21835	귀고리	21835	귀걸개
21835-1	귀걸이	21835-1	귀거리, 귀거르{귀걸이를}
21836	귀지	21836	귀채애르(+대격형)
21837	귀이개	21837	귀우비개르(+대격형)
21838	소리	21838	소리르(+대격형)
21839	엮든다	21839	여뜯는다
21840	귀청	21840	귀체에
21841	귀밑	21841	귀싸미
21841-0-1	-에	21841-0-1	귀싸메
21842	관자놀이	21842	대매기, 대매그(+대격형)
21843	기미	21843	재미
21844	주근깨	21844	주궁깨
21845	턱	21845	태기
21846	턱수염	21846	택췌에미
21847	뺨	21847	볼테기
21847-1	볼	21847-1	볼테기
21848	가름하다	21848	갈쿰:해애서{가름해서}
21849	보조개	21849	보조개르
21850	머리카락	21850	머리끼
21851	비듬	21851	비느르, 머리빼느르(+대격형)
21852	기계총	21852	니발추~우(+대격형)
21853	정수리	21853	수궁기, 수궁구(+대격형)/덩수리르(+대격형)
21854	대머리	21854	번대머리르(+대격형)
21855	고수머리	21855	양머리
21856	가르마	21856	가르매
21856-1	가르마 탄다/가른다/한다.	21856-1	가르매르 내라
21857	가마(머리)	21857	가'매, 쌍가매
21857-1	가마(鼎)의 성조·음장	21857-1	가매'르
21857-2	가마(轎)의 성조·음장	21857-2	가'매
21857-3	가마(질그릇)의 성조·음장	21857-3	도까매'라구/동마기{독막이}
21857-4	가마(가마니)의 성조·음장	21857-4	항 가마'니
21858	뒤통수	21858	뒤띠
21859	뒷덜미	21859	뒤떨미르(+대격형)
21860	목	21860	모가지르/모구(+대격형), 모게(+처격)
21861	먹살	21861	먹팔개르(+대격형)

2.6.2. 상체

21901	어깨	21901	어깨르 주물러라{어깨를 주물러라}
21902	밀치다	21902	밀티디{밀치지}
21903	겨드랑	21903	자개애미
21904	등	21904	등싸다이르(+대격형)
21905	가슴	21905	가스무(+대격형)
21906	걸리다	21906	사다이 싸워서{등이 걸려서}
21907	갈비뼈	21907	갈빈때/갈비뼈
21908	허파	21908	푸숨개
21909	쓸개	21909	여르 떼에라{쓸개를 떼라}
21910	콩팥	21910	콩파치
21910-0-1	-에	21910-0-1	콩파체
21910-0-2	-을	21910-0-2	콩파츠
21911	팔	21911	파르(+대격형)
21912	팔꿈치	21912	팔꾸부(+대격형)
21913	팔짱끼다	21913	파르 건다{팔을 건다}
21914	손톱	21914	손토비
21915	오른손	21915	오른소니
21916	왼손	21916	웬소니
21917	다르다	21917	따다
21917-0-1	-아서	21917-0-1	따서
21917-1	틀리다	21917-1	틀레따{틀렸다}, 틀린다
21918	원손잡이	21918	웬손재애르(+대격형)
21919	엄지손가락	21919	엄지송꾸락
21920	집게손가락	21920	식찌
21921	가운뎃손가락	21921	한판송꾸락, 당송꾸락, 덩가락
21922	약손가락	21922	*
21923	새끼손가락	21923	새끼송꾸락
21924	생인손	21924	생손아리르{생손얌이를}
21925	사마귀	21925	사마기, 사마구(+대격형)
21926	손아귀	21926	장시미{掌心이}, 손짱시메{손掌心에}
21927	손목	21927	손모구(+대격형)
21928	뺨	21928	뽀무 똬다
21929	허리	21929	허리르(+대격형)
21930	지팡이	21930	디페에
21931	옆구리	21931	너꾸리르(+대격형)
21932	간지럽다	21932	간지랍따, 간지라바{간지러워}
21933	간지럼	21933	가지랍 피운다

21934 잔허리
21935 근육
21936 배꼽
21937 목물

21934 잔허린데{잔허리인데.}
21935 근뉴기
21936 뺨뿌기
21937 *

2.6.3. 하체

22001 복사뼈
22002 발가락
22003 발바닥
22004 발톱
22005 냄새
22006 고린내
22007 굳은살
22008 정강이
22009 종아리
22010 장딴지
22011 회초리
22012 무릎팍
22012-0-1 -을
22012-0-2 -에
22013 오금
22014 엉덩이
22015 궁둥이
22016 볼기
22017 멍
22018 멍울
22019 가랑이
22020 사이
22021 살
22021-0-1 -이
22021-0-2 -을
22022 사타구니
22023 가래뚝
22023-0-1 -을
22024 허벅다리
22025 넓적다리
22026 가부좌(跏趺坐)

22001 고돌뼈, 앙꼬돌뼈/거꼬돌뼈{안복사뼈/바깥복사뼈}
22002 발꾸라구(+대격형)
22003 발빠대기
22004 발토부(+대격형)
22005 내르(+대격형)
22006 발꼬린내
22007 자~아르{장알을}
22008 덩개르(+대격형)
22009 조~아리
22010 장딴디
22011 회초릴르서{회초리로}
22012 덩쟁마디구
22012-0-1 덩쟁마디르
22012-0-2 덩쟁마대애
22013 오모가리, 오모가르(+대격형)
22014 엉치
22015 께애리, 께애르(+대격형), 께엘짜기
22016 볼기
22017 머~이, 이무러따{이물었다, 멍이 들다}
22018 어리, 어르(+대격형)
22019 가달썩르{가랑이 사이를}
22020 니썩애{잇새}
22021 새채기
22021-0-1 새채기
22021-0-2 새채그
22022 도래애{여자의 사타구니}
22023 *
22023-0-1 *
22024 허벅따리르(+대격형)
22025 허벅따리르
22026 토시구 안자이따, 올방재르 틀구 안는다

2.6.4. 질병과 생리

22101 감기 행불{아이들의 감기}	22101 능감{눈감, 웃어른의 감기}, 고빨{동년배의 감기},
22102 기침	22102 기츠무 긴는다, 기츠무 기처라
22103 채채기	22103 자채애기르(+대격형)
22104 사례	22104 무레 개긴다{물에 사례들다}
22104-1 (사례) 들렀다/만났다/걸렀다)	22104 *
22105 딸꼭질	22105 패애기, 패애그(+대격형)
22106 트립	22106 트름
22107 곰보	22107 얼그망태, 마아재
22108 천연두	22108 마마빠~이, 대가무 모세따{대감을 모셨다}
22109 여드름	22109 뽀두라지(單), 두두레기(群)
22110 학질	22110 학찌르 해애타
22110-1 하루거리 포함됨}	22110-1 하르거뤼르{하루거리를, 학질은 물론 열병도
22110-2 이틀거리	22110-2 이틀거뤼르
22110-3 매일(학질)	22110-3 당거뤼르
22111 홍역	22111 돼애기르 해애쏘, 홍진.
22112 볼거리	22112 도투베~이
22113 땀띠	22113 땀때르(+대격형)
22114 두드러기 인은 고려하지 않음)	22114 두두레기(+피부에 돋는 것 자체를 말함, 발병 원
22115 버짐	22115 버주미
22115-1 마른버짐	22115-1 마른버주미
22115-2 진버짐	22115-2 즌버주미
22115-3 도장버짐	22115-3 돈넵빠춤{돈넛버춤}, 돔빠춤{돈버춤}
22116 문둥이 내라}	22116 주벽소느 톨가 데데라{주벽손(문둥이)를 쫓아 보
22116-1 문둥병	22116-1 문둥빠~이, 주벽소니빠~이
22117 부스럼	22117 부수레미, 그니{근이}
22117-1 종기	22117-1 종기
22118 고름	22118 고름
22119 곰기다 라}	22119 곱는다구, 골마서, 골민다{곱긴다}, 골매애라{곱겨
22120 난쟁이	22120 난재애구{난장이고}, 난재애르(+대격형)
22121 사팔뜨기	22121 가르보기
22122 언청이	22122 입때개, 언처~이, 언처~어(+대격형)
22123 소경	22123 쉼겨~어{소경을}

22123-1 당달봉사	22123-1 뜯췌겨~어{뜯소경을}
22124 애꾸	22124 왜눈보기르(+대격형)
22125 눈곱	22125 능뽕째그(+대격형)
22126 다래끼	22126 다라치
22126-1 다래끼(눈위)	22126-1 다라치구(-구)
22126-2 다래끼(눈아래)	22126-2 깨애지구(-구)
22127 절름발이	22127 찢꾸대르(+대격형)
22128 곱사등이	22128 곱췌르(+대격형)
22129 귀머거리	22129 귀먹따아(+대격형)
22130 말더듬이	22130 맘버버리{반병어리}, 말머깨{말먹개}
22131 병어리	22131 버버리, 버버르(+대격형)
22132 잠꾸러기	22132 잠스~으{잠승을}, 잠꾸데그(+대격형)
22133 줄리다	22133 자분다, 자불더라, 자부랍다, 자부라바서
22134 하품	22134 하페미
22135 졸음	22135 자부레미
22135-0-1 -을	22135-0-1 자부레무
22135-0-2 -에	22135-0-2 자부레메
22138 잠꼬대	22136 잠쏘리, 잠쏘래 툃다

2.7. 육아

22201 입덧	22201-0-1 입쓰리
22201-0-1 -을	22201-0-2 입쓰리르
22202 갓난아이	22202 가즈난아아르
22203 어린아이	22203 조무래기
22204 경기(驚氣)하다	22204 험똥다, 험뚜더라, 험떠따
22205 눅히다	22205 느핀다, 느페라
22206 계집아이	22206 새애가르
22207 예쁘다	22207 곱떠라
22208 사내아이	22208 선서나, 스나아, 스나르(+대격형)
22209 아우타다	22209 *
22209-1 아우보다	22209-1 아끄 본다
22210 야위다	22210 예빈다, 예베에따{야위었다}
22211 쌍둥이	22211 쌍두~이, 쌍두~우(+대격형)
22212 오줌	22212 오조무 싸따, 눈다
22213 똥	22213 똥꺼지{똥까지}, 또~오 눈다
22214 기저귀	22214 차개르(+대격형)
22215 뉘다(排便)	22215 뉘운다

22216	방귀	22216	방귀르
22216-1	뀐다	22216-1	또오 켜다
22217	구린내	22217	쿠린내
22218	구리다	22218	쿠리다, 쿠레서
22219	포대기	22219	아싸개
22220	기지개	22220	기지개
22220-1	기지개를 켜다/한다/쓴다/편다	22220-1	기지개르 켜다
22221	거짓말	22221	거증뿌레
22222	남부끄럽다	22222	*
22223	겹쟁이	22223	헤재비, 헤재부(+대격형)
22224	불쌍하다	22224	불쌍하다
22225	죄암죄암	22225	첼첼
22226	곤지곤지	22226	송고송고
22227	따로따로	22227	거르마 거르마
22228	도리도리	22228	도리도리 도리도리
22229	짹짹	22229	짹짹귀 짹짹귀
22230	부라부라	22230	드디장 켜리장 대켜리(+풍구)르 드디쟈/미쟈 당
	기쟈(+앞뒤로 혼드는 것)		
22231	걸음마	22231	발떼무{발땨을}
22232	아장아장	22232	앙기쟈거린다
22233	넘어지다	22233	너머떼따
22234	곤두박질	22234	곤두박질, 어푸러떼따
22235	안기다	22235	앵긴다
22236	바람개비	22236	빨랑개미, 빨랑개무(+대격형)
22237	호드기	22237	버들빨레르(+대격형)
22238	숨바꼭질	22238	꿈치울래기
22239	소꿉놀이	22239	바꿈재노름, 바꿈재노로무 논다
22240	사금파리	22240	바꿈재르(+대격형)
22241	연	22241	여느 떠운다
22241-1	방패연	22241-1	*
22241-2	가오리연	22241-2	*
22242	걸리다	22242	걸게따
22243	고누	22243	꼬닐론다{고누를 논다}
22244	땅뺨기	22244	따아{땅을} 떼머끼르{떼먹기를} 논다
22245	팽이	22245	빼애르{빼앨(팽이)을}
22246	딱지	22246	땅찌티기르 논다
22247	구슬	22247	다마르(+대격형)
22248	그네	22248	구뤄

22248-1 그네를 뿔다/탄다/구른다	22248-1 구뿔르 뿔다
22249 뿔신개	22249 셸기
22250 굴렁쇠	22250 구부레르(+대격형)
22251 굴리다	22251 구부리다
22251-0-1 -고	22251-0-1 구부리구 이따
22251-0-2 -어	22251-0-2 빨리 구부레라
22252 차전거	22252 재앵고르(+대격형)
22253 목말	22253 몽매르(+대격형)
22254 말타기	22254 말타기르(+대격형), 말타기노롬우(+대격형)
22255 달음박질	22255 다름박절
22256 썰매	22256 쪽발귀르, 쪽빠귀
22256-1 얼음을(썰매를) 지친다/탄다	22256-1 탄다
22256-2 송곳(설매)	22256-2 차~이, 차~아(+대격형)
22257 엮살	22257-0-1 엮살
22257-1 (엮살) 부린다/피운다/뻐다	22257-1 엮사르 쓴다
22258 부아	22258 배애리 난다{부아가 난다}

2.8 친족

2.8 친족

22301 아버지	22301 아바지르(+대격형), 아버님
22301-1 아버지(호칭)	22301-1 아바지, 아바제, 아빠(+3~4세 전)
22302 어머니	22302 어마니, 어머니
22302-1 어머니(호칭)	22302-1 어마네, 엄마(+3~4세 전)
22303 할아버지	22303 크라바니
22303-1 할아버지(호칭)	22303-1 크라바네
22304 할머니	22304 크라매
22304-1 할머니(호칭)	22304-1 클매
22305 남편	22305 우리 나그네, 켄에니(+아이가 있을 때), 바칸늘그
니(나이가 들었을 때)	
22305-1 남편(호칭)	22305-1 여보, 이보웁소, 이보웁쇼
22306 아내	22306 땡내오{댁내(宅內)요, 동무나 연하에게}, 안싸라미
오{안사람이오, 연상에게}, 안깁이다/에미네다(편한 사이에게)	

22306-1 아내(호칭)	22306-1 여보, 이거 보오, 이보오
22307 형	22307 혀~입꾸마/헤~입꾸마{형입니다, 젊을 때}, 형님이
구(나이 들어서)	
22307-1 형(호칭)	22307-1 형, 형님
22308 아우	22308 애끼입꾸마{아우입니다, 젊을 때}, 동새~애(나이
들어서)	
22308-1 아우(호칭)	22308-1 동성
22309 누나	22309 느베(젊을 때), 누님(나이 들어서)
22309-1 누나(호칭)	22309-1 느베, 누이니메
22310 누이	22310 너동새~애(젊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같음)
22310-1 누이(호칭)	22310-1 동성(나이 들어서)
22311 자식	22311 자식떨이라{자식들이라}
22312 맏아들	22312 크나아{큰아이}, 크나드리라구{큰아들이라고}
22313 맏딸	22313 큰따리우{큰딸이오}
22314 막내	22314 절머가들{절먹아들}, 절먹딸
22315 오빠	22315 오래비입꾸마{오라비입니다, 젊을 때}, 오라버님
입꾸마/오라바닙꾸마{오라버님입니다/오라버니입니다, 나이 먹어서}	
22315-1 오빠(호칭)	22315-1 오래배애, 오라바네
22316 언니	22316 혀~왜
22316-1 언니(호칭)	22316-1 *
22317 아버지	22316-1 제 남편니, 아 애비느{아이 애비는}, 큰절무니
{큰젊은이, 결혼한 맏아들인데 아이가 없을 때}	
22317-1 아버지(호칭)	22317-1 절무니, 둘째야, 막똥아
22318 어미	22318 메느리느{며느리는}, 아 에미느{아이 어미는}
22318-1 어미(호칭)	22317-1 이 사라마, 아 에미야
22319 손자	22319 손재오{손자요}, 송귀니{손자, 손녀를 통칭}
22320 손녀	22320 손네오{손녀요}
22321 사위	22321 사위우{사위요}
22321-1 사위(호칭)	22321-1 사위
22322 외손자	22322 왜손재오{외손자요}
22323 외손녀	22323 왜손네오{외손녀요}
22324 꾸짖다	22324 니른다{이른다}, 니르더라{이르더라}, 닐귀노텐
구{일러놓지않고}	
22324-0-1 -고	22324-0-1 니르구
22324-1 나무라다	22324-1 *
22325 충각	22325 충가구{충각을}
22326 처녀	22326 새애기, 처네

22327 결혼	22327 혼새르{혼사를}
22327-1 결혼식 형)	22327-1 혼새르 기낸다{혼사를 치른다}, 혼새애(+처격 형)
22328 결혼잔치	22328 혼새잔치
22329 장가가다	22329 서바~아 가라{서방을 가라}
22329-1 시집가다	22329-1 스집가라
22330 혼숫감	22330 츠르매르{혼숫감을}
22331 함	22331 대장하미{대장함이}, 하미라{함이라}
22332 겹사돈	22332 겹사두느 매자따{겹사돈을 맺었다}
22333 새색시	22333 새새애기, 새각씨
22333-1 새색시(호칭)	22333-1 새새애게, 새애게, 새애기네
22334 시아버지	22334 스아버님
22334-1 시아버지(호칭)	22334-1 아반님
22335 시어머니	22335 스어마님
22334-1 시아버지(호칭)	22334-1 어머니님
22336 비위	22336 비위르(+대격형)
22337 아주버니	22337 스혀~입꾸마{시형(媿兄)입니다}
22337-1 아주버니(호칭)	22337-1 아주버님
22338 서방님	22338 스애깍꾸마{시동생입니다}
22338-1 서방님(호칭)	22338-1 새와네에
22339 도련님	22339 스애끼
22339-1 도련님(호칭)	22339-1 새와네에
22340 형님	22340 형니미
22340-1 형님(호칭)	22340-1 형니메
22341 시누이	22341 스느비
22341-1 시누이(호칭)	22341-1 형니메(+손위)
22341-2 아가씨	22341-2 스느비
22341-3 아가씨(호칭)	22341-3 *
22342 올케	22342 올찌세미
22342-1 올케(호칭)	22342-1 올찌세메
22343 매형	22343 매혀~입꾸마{매형입니다}
22343-1 매형(호칭)	22343 자형님, 형님
22344 매제	22344 매부
22344-1 매제(호칭)	22344-1 매부
22345 큰아버지	22345 마다바님꾸마{맏아버지(큰아버지)입니다}, 백뿌니
밋꾸마{백부님입니다}	
22345-1 큰아버지(호칭)	22345-1 마다바네
22345-2 둘째큰아버지(호칭)	22345-2 마다바네

22345-3 셋째큰아버지(호칭)
 22346 큰어머니
 22346-1 큰어머니(호칭)
 22346-2 둘째큰어머니(호칭)
 22346-3 세째큰어머니(호칭)
 22347 큰집
 22348 작은아버지
 주버님입니다}
 22348-1 작은아버지(호칭)
 22349 작은어머니
 22349-1 작은어머니(호칭)
 22350 삼촌
 주버님입니다}
 22350-1 삼촌(호칭)
 22351 아저씨
 22351-1 아저씨(호칭)
 22352 아주머니
 22352-1 아주머니(호칭)
 22353 조카
 22354 조카딸
 22355 고모
 22355-1 고모(호칭)
 22356 고모부
 22356-1 고모부(호칭)
 22357 고종
 22358 이모
 22358-1 이모(호칭)
 22359 이모부
 22359-1 이모부(호칭)
 22360 이종
 22361 외삼촌
 22361-1 외삼촌(호칭)
 22362 외숙모
 22362-1 외숙모(호칭)
 22363 외종
 22364 외할아버지
 22364-1 외할아버지(호칭)
 22365 외할머니

22345-3 마다바네
 22346 마다매, 뱅모니땡꾸마{백모님입니다}
 22346-1 마다매
 22346-2 마다매
 22346-3 마다매
 22347 큰지'비디{큰집이지}
 22348 삼추넙꾸마{삼촌입니다}, 숙뿌, 아즈바넙꾸마{아
 주버님입니다}
 22348-1 아즈바네
 22349 아재, 아주머님, 숭모님
 22349-1 아재, 숭모님이디{숙모님이지}
 22350 삼추넙꾸마{삼촌입니다}, 숙뿌, 아즈바넙꾸마{아
 주버님입니다}
 22350-1 아즈바네
 22351 마다바니(+손위), 아즈바니(+손아래)
 22351-1 마다바네, 아즈바네
 22352 마다매(+손위), 아재(+손아래)
 22352-1 마다매, 아재
 22353 조캐르(+대격형)
 22354 녀조캐르(+대격형)
 22355 마다매(+손위), 아재(+손아래)
 22355-1 마다매, 아재
 22356 마다바니(+손위), 아즈바니(+손아래)
 22356-1 마다바네, 아즈바네
 22357 고모사춘
 22358 마다매(+손위), 왜애재{외아재, 손아래}
 22358-1 마다매, 아재
 22359 마다바니(+손위), 아즈바니(+손아래)
 22359-1 마다바네, 아즈바네
 22360 이성사춘
 22361 왜마다바니(+손위), 왜삼춘(+손아래)
 22361-1 마다바네, 아즈바네
 22362 왜마다매(+손위), 왜삼춘땡(+손아래)
 22362-1 마다매, 아재
 22363 왜사춘
 22364 왜크라바니
 22364-1 왜크라바네
 22365 왜클매

22365-1 외할머니(호칭)	22365-1 왜클매
22366 장인 존칭}	22366 가스아바지(+평칭), 빙장니뭇꾸마{빙장님입니다,
22366-1 장인(호칭)	22366-1 아바제(+평칭), 빙장님(+존칭)
22367 장모 존칭}	22367 가스어마니(+평칭), 장모니뭇꾸마{장모님입니다,
22367-1 장모(호칭)	22367-1 어마네(+평칭), 장모님(+존칭)
22368 처남	22368 처나미우{처남이오}
22368-1 처남(호칭)	22368-0-1 형님(+손위), 동성(+손아래)
22369 처남댁	22369 처남대기{처남댁이}
22369-1 처남댁(호칭)	22369-1 아주머님(+손위), 처남댁(+손아래)
22370 홀아비	22370 하부래비르(+대격형)
22371 홀어미	22371 하부래미르(+대격형)
22372 계모	22372 계모, 이에미
22372-1 계부	22372-1 계부, 이에비
22373 아저씨	22373 *
22373-1 아저씨(호칭)	22373-1 *
22374 아주머니	22374 아즈마니
22374-1 아주머니(호칭) 칭), 아즈머님, 아즈머니(+존칭)	22374-1 애기네느{애기네는, 손아래}, 아즘마, 아재(+평
22375 사나이	22375 스나(+열 살에서 서른 살 사이), 남덩더리라{남정
들이라}, 남대애(+서른 살에서 쉰 살 정도)	
22376 영감	22376 녕가미라구{영감이라고}
22376-1 저 늙은 할망구	22376-1 *, 노친(늙은 부인을 일컫는 지칭어)
22377 나이	22377 나이, 나두{나이도}
22377-0-1 -를	22377-0-1 나아
22378 환갑	22378 황가비
22378-1 환갑잔치	22378-1 황갑잔치, 화갑잔치, 화갑잔치
22379 사투리	22379 사투리말, 토배기말, 사투리르(+대격형)

2.9 동물

2.9.1. 물에 사는 동물

22401 물고기	22401 물꼬기르(+대격형)
22402 민물고기	22402 밍물꼬기르
22403 피라미	22403 모꼬기우{목고기요}, 모꼬그(+대격형)
22404 지느러미	22404 지느레미, 지느러무(+대격형)
22405 아가미	22405 아개미, 아가무(+대격형)
22406 창자	22406 배애리, 배애르(+대격형)
22407 송사리	22407 *
22408 헤엄	22408 헤에무(+대격형), 헤에가다
22409 메기	22409 메사귀르(+대격형)
22410 자라	22410 자래르(+대격형)
22411 거북	22411 거부구{거북을}
22412 미꾸라지	22412 농디레, 농지레
22413 개구리	22413 머구락찌, 머구래기르(+대격형)
22414 올챙이	22414 올챙애
22415 두꺼비	22415 두테비, 두터부(+대격형)
22416 거머리	22416 거매르(+대격형)
22417 다슬기	22417 *
22418 우렁이	22418 골배애르/골바~아(+대격형), 골방자비르{우렁이잡 이를}
22419 고둥	22419 *
22420 달팽이	22420 달패애, 달파~아(+대격형)
22421 새우	22421 새비르(+대격형)
22421-1 새우(민물 대)	22421-1 *
22421-2 새우(민물 소)	22421-2 *
22421-3 새우(바다 대)	22421-3 *
22421-4 새우(바다 소)	22422-4 *
22422 새우젓	22422 새비저시디{새우젓이지}, 새브저스(+대격형)
22422-0-1 -이	22422-0-1 새비저시
22423 가재	22423 가재
22424 갈치	22424 칼티르(+대격형)
22425 고등어	22425 고두에르(+대격형)
22426 가오리	22426 *
22427 가자미	22427 가재미, 가재무(+대격형)
22428 멸치	22428 이루꾸
22429 명태	22429 명태르, 멩태르(+대격형)
22429-1 동태	22429-1 *
22429-2 황태	22429-2 부게르{북어를}
22429-3 노가리	22429-3 *

22429-4 북어	22429-4 마름멧태디{마름명태지}
22429-5 생태	22429-5 *
22430 조기	22430 조기르(+대격형)
22431 도미	22431 *
22432 뱀장어	22432 배앰장어르(+대격형)
22433 낚시	22433 낚씨르(+대격형)
22434 미끼	22434 미끄(+대격형)
22435 낚싯대	22435 낚싯때르(+대격형)
22436 얼레	22436 자새르(+대격형)
22437 조개	22437 조개르(+대격형)
22438 소라	22438 소라르(+대격형)

2.9.2. 곤충과 벌레

22501 벌레	22501 벌거지르/벌그(+대격형)
22502 날벌레	22502 날빨거지, 날빨그(+대격형)
22503 파리	22503 파리, 파르(+대격형)
22503-1 쉬파리	22503-1 쉬파리
22504 쉬슬다	22504 쉬르 쓴다, 쓸른다, 쓸더라, 쓸구
22505 가시	22505 구데기
22506 진딧물	22506 두미, 두무(+대격형)
22506-1(진딧물이) 끼었다/얹었다/생졌다	22506-1 두미 쓰러따, 두미 쓸더라
22507 잠자리	22507 소곰채르(+대격형)
22508 방아깨비	22508 *
22508-1 암컷	22508-1 *
22508-2 수컷	22508-2 *
22509 메뚜기	22509 메뚜기, 메뚜구(+대격형)
22510 여치	22510 짚개르(+대격형)
22511 사마귀	22511 사마귀
22512 벌	22512 버리, 버르(+대격형)
22512-1 (벌을) 친다/기른다/키운다	22512-1 버르 친다
22513 땅벌	22513 따빠르(+대격형), 토버리
22514 나비	22514 나비르(+대격형)
22515 하루살이	22515 각때귀, 하르사리
22516 풍뎡이	22516 봉피르, 보배(+무당벌레)
22517 모기	22517 모기, 모구(+대격형)
22518 장구벌레	22518 곤디벌그(+대격형)

22519	매미	22519	매미르(+대격형)
22520	개똥벌레	22520	개똥벌기, 개똥벌그(+대격형)
22521	반딧불	22521	개똥부리{반딧불이}
22522	거미	22522	거미르(+대격형)
22523	굼벵이	22523	굼베에, 굼버~어(+대격형)
22524	구더기	22524	구데기, 구더그(+대격형)
22525	노래기	22525	구레에
22526	그리마	22526	*
22527	지네	22527	지네르(+대격형)
22528	개미	22528	배깨애미, 배깨애무(+대격형)
22529	바구미	22529	쌀빠거지, 쌀빠거즈(+대격형)
22530	진드기	22530	어애르(+대격형)
22531	벼룩	22531	베르기, 베르그(+대격형)
22532	이	22532	니르(+대격형)
22532-1	서캐	22532-1	썬개르(+대격형)
22532-2	빈대	22532-2	빈대르(+대격형)
22533	송충이	22533	송추~이라구서, 송추~우(+지시대상 다름)
22534	귀뚜라미	22534	뀌또래미, 끼또래무(+대격형)
22535	누에	22535	느베르(+대격형)
22536	고치	22536	고티르, 느베꼬티르(+대격형)
22537	번데기	22537	번데기, 번더그(+대격형)
22538	지렁이	22538	디래르/지래르(+대격형)
22539	회충(蛔蟲)	22539	거시르(+대격형)
22540	소금쟁이	22540	물꺼미, 물꺼무(+대격형)
22541	방개	22541	딱째애, 딱째르(+대격형)

2.9.3. 가축

22601	가축	22601	집썰승
22602	암소	22602	암쉐
22603	송아지	22603	쉐에지르(+대격형)
22604	송아지 부르는 소리	22604	미엄, 땀, 땀, 며엄
22605	황소	22605	둥굴쉐, 둥구리르(+대격형)
22605	길들이다	22606	기르 디른다구
22606-1	소 모는 소리 ‘앞으로 가라’	22606-1	이라
22606-2	소 모는 소리 ‘그자리에 서라’		

22606-2 오

22606-3 소 모는 소리 ‘오른쪽으로 돌아

22606-3 오른짜그루

22606-4 소 모는 소리 ‘왼쪽으로 돌아’

22606-4 왼짜그루

22606-5 소 모는 소리 ‘뒤로 물러나라’

22606-5 드차 드차

22607 쇠고기

22607 쉼고기르(+대격형)

22608 고기(肉)

22608 고기디{고기지}

22609 둘치

22609 둘췌(※둘개(犬), 둘말(馬)이, 둘또티(猪))

22610 꼬리

22610 꼬리르(+대격형)

22611 망아지

22611 매편지르(+대격형)

22612 당나귀

22612 나구채르(+대격형)

22613 갈기

22613 모려그(+대격형)

22614 돼지

22614 도티디{돼지지}, 도투(+대격형)

22614-1 멧돼지

22614-1 매편애지, 매편티, 매편투(+대격형)

22615 주둥이

22615 주디일르{주둥이로}

22616 돼지 머리

22616 도투대가르(+대격형)

22617 돼지우리

22617 도투구루 져어라{돼지굴(우리)를 지어라}

22617-1 오래오래(돼지)

22617-1 졸, 졸, 졸

22618 개(犬)

22618 개

22618-1 수캐

22618-1 수캐

22618-2 암캐

22618-2 암캐, 암괘

22619 강아지

22619 개애지

22620 염소

22620 염췌르(+대격형)

22621 고양이

22621 고내애르(+대격형)

22621-1 수고양이

22621-1 수코내애

22621-2 암고양이

22621-2 암코내애

22622 토끼

22622 토끼, 토끼르(+대격형)

22623 거위(鵞)

22623 게사니, 게사느(+대격형)

22624 암탉

22624 암탈기, 암타그(+대격형)

22625 병아리

22625 배우리, 배우르(+대격형)

22626 모으다

22626 불리 모둔다, 모두더라

22627 수탉

22627 수타그(+대격형)

22627-0-1 -이

22627-0-1 수탈기/수타기

22628 벃(鷄冠)

22628 달그 베시{닭의 벃이}

22629 부리

22629 부리, 부리르(+대격형)

22630 모이

22630 뇨리

22630-0-1 -을
 22630-1 모이다
 22631 닭털
 22632 닭똥
 22633 어리
 22634 닭장
 22635 둥우리
 22636 날개
 22637 깃
 22637-0-1 -을

22630-0-1 뇨르
 22630-1 모둔다, 모다따
 22631 닥터르(+대격형)
 22632 달그 또~오
 22633 달그 우쿠리
 22634 달그구리{닭의굴이}
 22635 달그둥지르(+대격형)
 22636 날개르(+대격형)
 22637 기스(+대격형)
 22637-0-1 꿩어지슬, 달거지슬 뽀버라, 달거지시지

2.9.4. 들짐승과 날짐승

22701 호랑이
 22702 살쾡이
 22703 여우
 22704 원숭이
 22705 사슴
 22706 노루
 22706-0-1 -이
 22706-0-2 -를

22701 버미, 버무(+대격형)
 22702 슬기, 슬그(+대격형), 슬기두
 22703 여끼, 여끄, 여스두
 22704 켄내비, 잔나부
 22705 사스무(+대격형)
 22706 놀가지, 노루두
 22706-0-1 놀기
 22706-0-2 놀구

22708 고슴도치
 22708 두더지
 22709 족제비
 22710 뱀
 22711 도마뱀
 22712 구렁이
 22713 살모사
 22714 생쥐
 22715 박쥐
 22716 거꾸로
 22717 다람쥐
 22718 새(鳥)
 22719 꿩지
 22720 솔개

22708 고슴도티, 고슴도투(+대격형)
 22708 두더지, 두더즈(+대격형)
 22709 쪽제피라구, 쪽제푸(+대격형)
 22710 배애미, 배애무(+대격형)
 22711 도마배무(+대격형)
 22712 구레에, 구레르(+대격형)
 22713 살모사르(+대격형)
 22714 새앵쥐르(+대격형)
 22715 빨쥐
 22716 까꾸루
 22717 대래미, 다래무(+대격형)
 22718 새르(+대격형)
 22719 새꼬리, 새초리
 22720 수리개르(+대격형)

22721 독수리
 22722 제비(燕)
 22723 두루미
 한새(+잣빛)
 22724 소쩍새
 22725 꿩
 22726 장끼
 22727 까투리
 22727-1 꺼병이
 22728 종달새
 22729 빠꾸기
 22730 기러기
 22731 뜸부기
 22732 올빼미
 어(+대격형)
 22733 까치
 22734 딱따구리
 22735 텃
 22735-0-1 -을
 22736 올가미

22721 덕쭈리르(+대격형)
 22722 제비르
 22723 하기{학이} cf. 두루미(+흰색), 두루무(+대격형),
 22724 소쩍새디{소쩍새지}
 22725 꿩~이, 꿩~어(+대격형)
 22726 당끼
 22727 까투리
 22727-1 꿩~어배우리, 꿩~어배우르{꿩의병아리를}
 22728 노지리, 노지르(+대격형)
 22729 빠꾸기, 빠꾸구(+대격형)
 22730 기레기, 기러그(+대격형)
 22731 물딸기{물닭이}
 22732 올빼미, 올빼무(+대격형) cf. 부에{부엉이}, 부어~
 22733 까치, 까츠(+대격형)
 22734 딱따구리, 딱따구르(+대격형)
 22735 차께 만는다{차끼(텃)에 맞는다}
 22735-0-1 차끄(+대격형)
 22736 몽노이{목노이}, 몽노오(+대격형)

2.10. 식물

2.10.1. 꽃과 풀

22801 진달래꽃
 22802 철쭉꽃
 22803 민들레
 22804 맨드라미
 22805 봉선화
 22806 파리
 22807 해바라기
 22808 꽃봉오리
 22809 시들다
 22810 질경이
 22810-1 질경이(식물이름)
 22810-2 질경이(식용반찬이름)

22801 텐디꼬지, 텐지꼬지
 22802 늘꼬지, 늘꼬즈(+대격형)
 22803 무순들레르(+대격형)
 22804 주먹꼬즈(+대격형)
 22805 복쭈애꼬즈(+대격형)
 22806 파리르(+대격형)
 22807 해개부리, 해가부르(+대격형)
 22808 꼬뿌두그(+대격형)?
 22809 시든다, 시드러따, 시드디{시들지}
 22810 차전자, 배짜개꾸레{질경이구려}
 22810-1 배짜개르(+대격형)
 22810-2 *

22811	빨기	22811	*
22812	비름	22812	도투비느리디{비름이지}, 도투비느르(+대격형)
22813	쇠비름	22813	*
22814	썸바귀	22814	쉐투리라구, 쉐투르(+대격형)
22815	고들빼기	22815	*
22815-1	고들빼기(식물 이름)		
22815-2	고들빼기(식용 반찬이름)		
22816	고사리	22816	고사리르(+대격형)
22817	고비	22817	고비르(+대격형)
22818	도깨비바늘	22818	닥싸리, 닥싸르(+대격형)
22819	도꼬마리	22819	때꼬리, 때꼬르(+대격형)
22820	억새	22820	황새르(+대격형)
22821	갈대	22821	카리{칼이}
22822	이끼	22822	이끼라가디{이끼라고 하지}, 이끄 떼라{이끼를 떼라}
22823	아주까리	22823	피마채구{피마자고}, 아즈까리, 아즈까르(+대격형)
22824	담쟁이	22824	*
22825	수세미	22825	*
22826	덩굴	22826	너추리라디{너출이라 하지}
22827	덤불	22827	서푸리
22827-1	가시덤불	22827-1	가시덩구리
22828	잔디	22828	잔디르 올레라, 잔디르 떼라

1.10.2. 나무

22901	소나무	22901	소르{솔을}, 솔랑기, 솔랑그{소나무를}, 소나무두, 소나무터르{소나무처럼}
22902	솔방울	22902	솔빠~우리, 솔빠~우르(+대격형)
22903	관솔	22903	솔까~아(+대격형)
22904	솔가리	22904	솔써피라구 하오
22905	그러모으다	22905	솔써푸 글거모둔다
22906	뽕나무	22906	뽕낭그(+대격형)
22907	오디	22907	오디르(+대격형)
22908	도토리	22908	가랍토시, 가랍토스(+대격형)
22909	떡갈나무	22909	재래:지
22910	상수리	22910	터픽까주기낭기
22911	옷	22911	온낭기라구, 오시라디{옷이라 하지}
22911-0-1	-으로	22911-0-1	오슬르

22912 버드나무	22912 버드리, 꼬빠드리{꽃버들이}, 쉬양빠드리{수양버 들이}, 채양버드리, 능수버드리(+대격형), 개버드리라구
22913 느티나무	22913 느름낭기
22914 그림자	22914 그림지르(+대격형)
22914-1 그늘	22914-1 그느리라
22915 숲	22915 수피라 하오
22915-0-1 -을	22915-0-1 수푸
22915-0-2 -에	22915-0-2 수페
22916 시원하다	22916 시원:하오
22917 짚레	22917 *
22918 칩	22918 칠그(+대격형)
22918-0-1 -에	22918-0-1 칠게
22919 가지(枝)	22919 아지, 아지르(+대격형)
22920 끝	22920 꼬티
22920-0-1 -이	22920-0-1 꼬티
22920-0-2 -을	22920-0-2 꼬트
22920-0-3 -에	22920-0-3 꼬테
22921 삭정이	22921 싹따리, 싹따라치, 싹따라지, 썩따리, 썩따라치, 썩따라지(+‘썩-, 썩-’은 썩은 정도에 따라 붙음)
22921-1 삭정이를 탄다/꺾는다/한다.	22921-0-1 썩따라지르 꺾는다
22922 나무	22922 낭기
22922-0-1 -을	22922-0-1 낭그
22922-0-2 -에	22922-0-2 낭게 cf. 나무두{나무도}
22923 나무하다	22923 낭그해애온다, 낭그한다
22924 그루터기	22924 글기, 글게(+처격형), 글그(+대격형), 그르터르, 글 거리(작은 것)
22924-1 그루터기(벼, 수수)	22924-1 베글거리, 베글기
22925 등걸	22925 등거리, 등거르(+대격형)
22926 장작	22926 사셔느(+대격형), 단낭기
22927 패다	22927 낭그 팬다(옆으로 자르는 것), 낭그 켄다(짜개는 것)
22928 부스러기	22928 부스레기, 부스러그(+대격형)
22929 숯	22929 숯/술
22929-0-1 -이	22929-0-1 수치/수티
22929-0-2 -을	22929-0-2 수추/수투
22929-0-3 -에	22929-0-3 수체/수테
22930 불잉걸	22930 수뿔땡어리, 수뿔떠~이
22931 싹	22931 싸기(發芽), 우미(+가지에서 난 것)

22932 잎
 22932-0-1 -을
 22932-1 잎사귀
 22933 가랑잎
 22934 뿌리

22932 니피
 22932-0-1 니푸
 22932-1 님싸귀라구, 님싸구(+대격형), 님짱니피
 22933 가람니피{가랴뇨이}
 22934 뿌리르 빼애라, 뿌리두

2.10.3. 과일과 열매

23001 능금
 23002 돌배
 23003 복숭아
 23004 꽃감
 23005 홍시
 23006 고욤
 23007 살구
 23008 앵두
 23009 자두
 23010 오얏
 23010-0-1 -을
 23011 석류
 23012 모과
 23013 과일
 23014 꼭지
 23015 밤
 23015-1 밤송이
 23015-2 풋밤
 23015-3 알밤
 23015-4 쌍동밤
 23016 보늬
 23017 호두
 23018 가래(楸子)
 23019 개암
 23020 머루
 23021 다래
 23022 청미래덩굴
 23023 으름
 23024 참외
 23025 딸기

23001 찢그배애, 덜그배애
 23002 툔빼르(+대격형)
 23003 복슈애르(+대격형)
 23005 꼬까무(+대격형)
 23005 * cf. 생가미
 23006 *
 23007 살귀르(+대격형)
 23008 앵도르(+대격형)
 23009 *
 23010 왜:지
 23010 왜:지르
 23011 *
 23012 *
 23013 과시리라가디{과실이라고 하지}
 23014 쪽찌르(+대격형)
 23015 바미
 23015-1 밤소~이라, 밤소~오(+대격형)
 23015-2 생바미 cf) 날바미
 23015-3 바미라 하오
 23015-4 쌍둥바무(+대격형)
 23016 속껍찌르(+대격형)
 23017 *
 23018 가래토시, 가래토스 / 가래'(楸子) : 가'래(痰)
 23019 깨애무(+대격형)
 23020 멀귀르(+대격형)
 23021 다래르, 쉼절따래랑 게오{쇠젓다래라는 거요}
 23022 *
 23023 *
 23024 차매
 23025 땅딸귀

23025-1 딸기(밭 재배)
 23025-2 딸기(밭 야생)
 23025-3 딸기(들 재배)
 23025-4 딸기(들 야생)
 23025-5 딸기(산 재배)
 23025-6 딸기(산 야생)
 23026 뱀딸기
 23027 마름(菱)

23025-1 땅딸귀
 23025-2 *
 23025-3 *
 23025-4 *
 23025-5 *
 23025-6 산땅딸귀
 23026 *
 23027 말배라 하오

2.11. 자연

2.11.1. 산과 들

23101 산꼭대기
 23102 기슭
 23102-0-1 -에
 23103 골짜기
 23104 메아리
 23105 고함
 23015-1 (고함) 치다/지르다/하다
 23106 묘
 23107 뿔자리
 23107-1 광중
 23108 구덩이
 23109 비탈
 23110 가파르다
 23111 언덕
 23112 낭떠러지
 23113 들(野)
 23113-0-1 -에
 23114 벌
 23115 갈림길
 23116 헤어지다
 23117 바위
 23117-0-1 -을
 23117-0-2 -에

23101 상꼭때기, 상꼭때게(+처격형)
 23102 기슬기
 23102-0-1 기슬게
 23103 상꼬란이디{산골안이디}
 23104 사눌림
 23105 어부채기
 23105-1 어부채기 툄다
 23106 산소르, 모이, 모오(+대격형)
 23107 산짜리르(+대격형)
 23107-1 조미터, 조미르 해애타
 23108 구데에, 구더어 판다
 23109 삼빼타리구
 23110-0-1 거하다
 23111 언더기디{언덕이지}
 23112 낭떠러디, 낭채, 낭차~에(+처격형)
 23113 두루이
 23113-0-2 두루에
 23114 벌파니, 버리 넘따
 23115 기러부르미
 23116 기러부르미에서 헤에디자{갈림길에서 헤어지자}
 23117 바위
 23117-0-1 바위르
 23117-0-2 바웨에

23118 돌(石)
 23118-0-1 -을
 23118-0-2 -에
 23119 자갈
 23120 모래
 23120-0-1 -를
 23121 진흙
 23121-1 찰흙

23118 돌, 돌메에
 23118-0-1 도르
 23118-0-2 도레
 23119 매앰톨
 23120 모새디{모래지}
 23120-0-1 모새애르
 23121 존흘기
 23121-1 개흘기, 꽤흘기

2.11.2. 강과 바다

23201 물
 23202 거품
 23203 개운하다
 23204 도랑
 23204-1 붓도랑
 23205 둑
 따위로 인해 갑자기 불어나 내려오는 물을 막기 위한 둑)
 23206 잠기다
 23207 개울
 23208 내(川)
 23209 미역 감다
 23210 발가숭이
 23211 목욕하다
 23212 수채
 23213 개굴창
 하오(물이 잘 빠지지 않아 발이 빠지는 길)
 23214 시궁창
 23215 웅덩이
 23216 수렁
 23217 늪
 23217-0-1 -에
 23218 배(船)
 23219 나루터
 23220 돛
 23220-0-1 -에
 23221 돛대

23201 무루(+대격형)
 23202 더푸미
 23203 거뿐하다, 씨원:하다
 23204 돌씨, 돌쓰(+대격형)
 23204-1 *
 23205 데방뚜기디{제방둑이지} cf. 보뚝(산에서 소나기
 23206 쟁개따, 쟁기구 이따
 23207 함무리라 하오
 23208 내라가디{‘내’라고 하지}
 23209 메에그 감는다
 23210 알몸뚜~이, 꼴딱버깨
 23211 모까~아 한다
 23212 호미라가디{‘흙’이라고 하지}
 23213 도래디{도랑이지} cf. 개굴창끼리라, 개굴채애라
 23214 존채애{진창}
 23215 웅데에
 23216 수캐꾸데에
 23217 느피
 23217-0-1 느페
 23218 배르(+대격형), 최니{漕(船)이}
 23219 찰파이라 하오
 23220 도트 다라라
 23220-0-2 도테
 23221 도때

23222 돛배
 23223 돛 줄
 23224 닛 줄
 23225 거루
 23226 상앗대
 23227 개(펼)
 23228 물
 23228-0-1 -으로
 23229 밀물
 23230 썰물
 23231 가라앉다
 23232 그물
 23233 해너

23222 돍뻬
 23223 다쭈리
 23224 다쭈리
 23225 *, 좃니디{촘이지}
 23226 사뻬르(+대격형)
 23227 개뻬
 23228 무티
 23228-0-1 무트르
 23229 밀물
 23230 썰물
 23231 가라안는다, 가라안자따
 23232 그무루(+대격형)
 23233 해너라디{해너라 하지}

2.11.3. 시후

23301 새벽
 23302 새벽밥
 23303 아침
 23304 아침밥
 23305 점심
 23306 저녁
 23307 설빏하다
 23308 노을
 23308-0-1 -을
 23309 불그레하다
 23310 해거름
 23311 땅거미
 23312 봄
 23313 여름
 23314 더위
 23315 추위
 23316 가을
 23316-0-1 -에
 23317 겨울
 23317-0-1 -에
 23318 얼음
 23319 오늘
 23320 내일

23301 새바기디{새벽이지}, 새바게(+처격형)
 23302 조바니라 하오
 23303 아츠미우{아침이오},
 23304 아츰빠비디{아침밥이지}
 23305 정심 먹짜{점심 먹자}
 23306 지낙, 지낙뻬, 지나기{저녁이}, 저녁 먹짜
 23307 *
 23308 느부리
 23308-0-1 느부르
 23309 버얼거타, 빠알가타
 23310 *
 23311 *
 23312 봄
 23313 여름, 념름
 23314 더비
 23315 치비
 23316 가슬
 23316-0-1 가스레
 23317 겨울, 동삼
 23317-0-1 동사뻬
 23318 어르미
 23319 오느리
 23320 내일

23321	모레	23321	모레
23322	글피	23322	그피
23323	그글피	23323	그그피, 그그핀날
23324	어제	23324	어제
23325	그저께	23325	그저께
23326	그그저께	23326	그그저께
23327	훗날	23327	훈나레(+처격형)
23328	하룻날	23328	초하르날
23329	이튿날	23329	초이튿날
23330	사흘날	23330	초사흘날
23331	나흘날	23331	초나흘날
23332	닷셋날	23332	초다쨌날
23333	엿셋날	23333	초여쨌날
23334	이렛날	23334	초이렌날
23335	여드렛날	23335	초여드렌날
23336	아흐렛날	23336	초아흐렌날
23337	열흘날	23337	여른날
23338	하루	23338	하르, 할를에(+처격형)
23339	이틀	23339	이틀
23340	사흘	23340	사흘
23341	나흘	23341	나흘
23342	닷새	23342	다쨌
23343	엿새	23343	여쨌
23344	이레	23344	니레
23345	여드레	23345	야드레
23346	아흐레	23346	아으레
23347	열흘	23347	여를
23348	한나절	23348	반나래르
23348-1	반나절	23348-1	바네반나래
23349	그믐	23349	그무미, 그믐나리
23349-1	그믐께	23349-1	그믐께
23350	지금	23350	지굼, 지금
23351	아직	23351	안주구{아직은}
23352	이제	23352	이제, 어저느
23353	이미	23353	발써
23354	요즈음	23354	인썸애{요즘에}
23355	금방	23355	곰방

2.11.4. 날씨와 방향

23401 별

23401-0-1 -이

23401-0-2 -을

23402 따스하다

23403 아지랑이

23404 응달

23405 양달

23406 비(雨)

23407 가랑비

23408 이슬비

23409 안개

23410 는개

23411 무지개

23412 소나기

23413 갑자기

23414 홍수

23415 번개

23416 천둥

23417 벼락

23418 무섭다

23419 함박눈

23420 싸락눈

22021 발자국

23422 진눈깨비

23423 우박

23424 고드름

23425 햇무리

23426 달무리

23427 등글다

23428 은하수

23429 금성

23430 가뭄

23431 마르다

23431-0-1 -니까

23432 위

23433 아래

23434 왼쪽

23401-0-1 베티

23401-0-2 벼트

23402 따따:사다, 다:사다

23403 아지래애, 아지라~아(+대격형)

23404 능다리{응달이}

23405 양디{양지}

23406 비 온다

23407 덩뻘

23408 보슬비, 보슬베에(+처격형)

23409 양개 께따

23410 즌새구{즌새(는개)이고}

23411 무지개

23412 소내기, 소나구 마자따{소나기를 맞았다}

23413 불썰애르

23414 무리 데따{물이 졌다}, 큰무리(어형 제시)

23415 병개

23416 소낙소리

23417 벼라기라구

23418 거비 난다, 무세에바서, 무세엠표

23419 함방누니

23420 싸랑눈, 싸라기

23421 발짜귀, 눈짜귀(눈에 난 발자국)

23422 증개비르(+대격형)

23423 박째

23424 고조르(+대격형)

23425 햄머리

23426 달머리

23427 똥:구라타

23428 으내쉬르(+대격형)

23429 새뻘리

23430 가무리 드러따

23431 마르더라

23431 말라서

23432 우에(+처격형), 우우(+대격형)

23433 아래르(+대격형)

23434 웬짜기

23435 오른쪽
23436 곁
23436-0-1 -에
23437 회오리바람
23438 북풍
23439 남풍
23440 동풍
23441 서풍

23435 오른쪽
23436 겨트루{곁으로}
23436-0-1 겨테
23437 돌개바르미
23438 마우재바르미, 뒤북푸~이
23439 남푸~이디
23440 아래빠르미
23441 하느바르미

제3편 음운

3.1. 음운 체계

3.1.1 단모음

31001-0-1	테(輪)-이/가	31001-0-1	테(+단독형), 테(+주격형)
31001-0-2	테(輪)-보다	31001-0-2	테보다
31002-0-1	태(胎)-이/가	31002-0-1	태
31002-0-2	태(胎)-보다	31002-0-2	태보다
31003-0-1	떼(群)-이/가	31003-0-1	떼
31003-0-2	떼(群)-보다	31003-0-2	떼보다
31004-0-1	때(時)-이/가	31004-0-1	때
31004-0-2	때(時)-보다	31004-0-2	때보다
31005-0-1	틀(機)-이/가	31005-0-1	트리
31005-0-2	틀(機)-보다	31005-0-2	틀보다
31006-0-1	털(毛)-이/가	31006-0-1	터리
31006-0-2	털(毛)-보다	31006-0-2	털보다
31007-0-1	글(文)-이/가	31007-0-1	그리
31007-0-2	글(文)-보다	31007-0-2	글보다
31008-0-1	걸(옷)-이/가	31008-0-1	커리
31008-0-2	걸(옷)-보다	31008-0-2	컬보다
31009-0-1	기(旗)-이/가	31009-0-1	기
31009-0-2	기(旗)-보다	31009-0-2	기보다
31010-0-1	귀(耳)-이/가	31010-0-1	귀(+이중모음)
31010-0-2	귀(耳)-보다	31010-0-2	귀보다(+이중모음)
31011-0-1	시(生時)-이/가	31011-0-1	시
31011-0-2	시(生時)-보다	31011-0-2	시보다
31012-0-1	쉬(蠅卵)-이/가	31012-0-1	쉬(+이중모음)
31012-0-2	쉬(蠅卵)-보다	31012-0-2	쉬보다
31013-0-1	쇠(鐵)-이/가	31013-0-1	쇄
31013-0-2	쇠(鐵)-보다	31013-0-2	쇄보다

31014-0-1	외:국(外國)-이/가	31014-0-1	왜구기
31014-0-2	외:국(外國)-보다	31014-0-2	왜국뿐다
31015-0-1	왜국(倭國)-이/가	31015-0-1	왜구기
31015-0-2	왜국(倭國)-보다	31015-0-2	왜국뿐다
31016	쉬:다(休)	31016	쉴다, 쉴애라
31017	쇠:다(설을~)	31017	췌다, 췌애라
31018-0-1	베(布)-이/가	31018-0-1	베
31018-0-2	베(布)-보다	31018-0-2	베보다
31019-0-1	배(船)-이/가	31019-0-1	배
31019-0-2	배(船)-보다	31019-0-2	배보다
31020-0-1	배(腹)-이/가	31020-0-1	배
31020-0-2	배(腹)-보다	31020-0-2	배보다
31021-0-1	(떡)메-이/가	31021-0-1	떡멜르(+구격형)
31021-0-2	(떡)메-보다	31021-0-2	메보다
31022-0-1	매(鞭)-이/가	31022-0-1	매르(+대격형)
31022-0-2	매(鞭)-보다	31022-0-2	매보다
31023	메:다(擔)	31023	메:라, 메구 이따
31024	매:다(繫)	31024	매:라, 매구 이따
31025	떼:다(分離)	31025	떼에라, 떼구 이따
31026	때:다(炊)	31026	때앤다, 때구 이따
31027	베:다(切斷)	31027	베앤다, 베에구 이따
31028	밴:다(孕胎)	31028	밴:다, 밴애따, 밴구 이따
31029	세:다(算)	31029	췌다, 세구 이따
31030	새:다(漏泄)	31030	췌다, 새구 이따
31031-0-1	뒤(後)-이/가	31031-0-1	두이(+주격형), 두우(+대격형)
31031-0-2	뒤(後)-보다	31031-0-2	뒤보다(+이중모음)
31032-0-1	되(升)-이/가	31032-0-1	돼
31032-0-2	되(升)-보다	31032-0-2	돼보다
31033-0-1	게:(蟹)-이/가	31033-0-1	게
31033-0-2	게:(蟹)-보다	31033-0-2	게보다
31034-0-1	개:(犬)-이/가	31034-0-1	개
31034-0-2	개:(犬)-보다	31034-0-2	개보다

3.1.2 이중모음

31035-0-1	여럿(多)-이/가	31035-0-1	야래:다
31035-0-2	여럿(多)-보다	31035-0-2	야라뿐다
31035-0-3	여럿(多)-을/를	31035-0-3	야라:스

31036-0-1	물결(波)-이/가	31036-0-1 물꺼리
31036-0-2	물결(波)-보다	31036-0-2 물결보다
31036-0-3	물결(波)-을/를	31036-0-3 물꺼르
31037-0-1	예:의(禮儀)-이/가	31037-0-1 네이
31037-0-2	예:의(禮儀)-보다	31037-0-2 네이보다
31037-0-3	예:의(禮儀)-을/를	31037-0-3 네이르
31038-0-1	계:획(計劃)-이/가	31038-0-1 게왜기
31038-0-2	계:획(計劃)-보다	31038-0-2 게웁다
31038-0-3	계:획(計劃)-을/를	31038-0-3 게왜그
31039-0-1	규칙(規則) -이/가	31039-0-1 귀치기(+이중모음)
31039-0-2	규칙(規則) -보다	31039-0-2 귀측뿐다
31039-0-3	규칙(規則) -을/를	31039-0-3 귀측뿐다
31040-0-1	휴일(休日)-이/가	31040-0-1 휴시기(+‘휴식’으로 조사)
31040-0-2	휴일(休日)-보다	31040-0-2 휴식뿐다
31040-0-3	휴일(休日)-을/를	31040-0-3 휴식 하오
31041-0-1	교통(交通)-이/가	31041-0-1 교토~이
31041-0-2	교통(交通)-보다	31041-0-2 교통보다
31041-0-3	교통(交通)-을/를	31041-0-3 교토오
31042-0-1	효:자(孝子) -이/가	31042-0-1 효자
31042-0-2	효:자(孝子) -보다	31042-0-2 효자보다
31042-0-3	효:자(孝子) -을/를	31042-0-3 효자르
31043-0-1	웬일(何事)-이/가	31043-0-1 웬니리냐, 웬떠기냐
31043-0-2	웬일(何事)-보다	
31043-0-3	웬일(何事)-을/를	
31044-0-1	궤:(작)(櫃)-이/가	31044-0-1 궤
31044-0-2	궤:(작)(櫃)-보다	31044-0-2 궤르
31044-0-3	궤:(작)(櫃)-을/를	31044-0-3 궤보다
31045-0-1	왜란(倭亂)-이/가	31045-0-1 왜노미라(+‘왜놈’으로 조사)
31045-0-2	왜란(倭亂)-보다	31045-0-2 왜놈보다
31045-0-3	왜란(倭亂)-을/를	31045-0-3 왜노무
31046-0-1	햇대(鷄架)-이/가	31046-0-1 해
31046-0-2	햇대(鷄架)-보다	31046-0-2 해보다
31046-0-3	햇대(鷄架)-을/를	31046-0-3 해르
31047-0-1	원망(怨望)-이/가	31047-0-1 원매: 만타
31047-0-2	원망(怨望)-보다	31047-0-2 원망보다
31047-0-3	원망(怨望)-을/를	31047-0-3 원마~으
31048-0-1	권:투(拳鬪)-이/가	31048-0-1 권투
31048-0-2	권:투(拳鬪)-보다	31048-0-2 권투보다

31048-0-3 권:투(拳鬪)-을/를
 31049-0-1 의논(議論)-이/가
 31049-0-2 의논(議論)-보다
 31049-0-3 의논(議論)-을/를
 31050-0-1 무늬(紋)-이/가
 31050-0-2 무늬(紋)-보다
 31050-0-3 무늬(紋)-을/를
 31051-0-1 왕(王)-이/가
 31051-0-2 왕(王)-보다
 31051-0-3 왕(王)-을/를
 31052-0-1 과자(菓子)-이/가
 31052-0-2 과자(菓子)-보다
 31052-0-3 과자(菓子)-을/를

31048-0-3 권투르
 31049-0-1 이논
 31049-0-2 이논보다
 31049-0-3 이논느
 31050-0-1 무늬, 무늬, 무늬(+단모음)
 31050-0-2 무늬보다
 31050-0-3 무늬르
 31051-0-1 와~이
 31051-0-2 왕보다
 31051-0-3 와아
 31052-0-1 과재
 31052-0-2 과재보다
 31052-0-3 과자르

3.1.3 장모음 · 성조

31053-0-1 일(一)-이/가
 31053-0-2 일(一)-보다
 31054-0-1 일:(事)-이/가
 31054-0-2 일:(事)-보다
 31055-0-1 매(鞭)-이/가
 31055-0-2 매(鞭)-보다
 31056-0-1 매:(驚)-이/가
 31056-0-2 매:(驚)-보다
 31057-0-1 밤(夜)-이/가
 31057-0-2 밤(夜)-보다
 31058-0-1 밤:(栗)-이/가
 31058-0-2 밤:(栗)-보다
 31059-0-1 눈(眼)-이/가
 31059-0-2 눈(眼)-보다
 31060-0-1 눈:(雪)-이/가
 31060-0-2 눈:(雪)-보다
 31061-0-1 말(馬)-이/가
 31061-0-2 말(馬)-보다
 31062-0-1 말(斗)-이/가
 31062-0-2 말(斗)-보다
 31063-0-1 말:(言)-이/가
 31063-0-2 말:(言)-보다
 31064-0-1 손(客)-이/가

31053-0-1 이'리(+고조 놓인 음절 뒤에 ‘ 표시)
 31053-0-2 일'보다
 31054-0-1 이':리
 31054-0-2 일'보다
 31055-0-1 매'
 31055-0-2 매'보다
 31056-0-1 매'
 31056-0-2 매'보다
 31057-0-1 바'미
 31057-0-2 밤'보다
 31058-0-1 바'미
 31058-0-2 밤'보다
 31059-0-1 누'니
 31059-0-2 눈'보다
 31060-0-1 누'니
 31060-0-2 눈':보다
 31061-0-1 마리'
 31061-0-2 말보'다
 31062-0-1 마'리
 31062-0-2 말'보다
 31063-0-1 마'리
 31063-0-2 말'보다
 31064-0-1 소니'

31064-0-2	손(客)-보다	31064-0-2 숨보'다
31065-0-1	손(手)-이/가	31065-0-1 소'니
31065-0-2	손(手)-보다	31065-0-2 숨'보다
31066-0-1	손:(孫)-이/가	31066-0-1 소니'
31066-0-2	손:(孫)-보다	31066-0-2 숨보'다
31067-0-1	배(梨)-이/가	31067-0-1 배'
31067-0-2	배(梨)-보다	31067-0-2 배보'다
31068-0-1	배:(倍)-이/가	31068-0-1 배'
31068-0-2	배:(倍)-보다	31068-0-2 배보'다
31069-0-1	벌(罰)-이/가	31069-0-1 버'르(+대격형)
31069-0-2	벌(罰)-보다	31069-0-2 벌'보다
31070-0-1	벌:(蜂)-이/가	31070-0-1 버'리
31070-0-2	벌:(蜂)-보다	31070-0-2 벌'보다
31071-0-1	솔(松)-이/가	31071-0-1 소'리
31071-0-2	솔(松)-보다	31071-0-2 솔'보다
31072-0-1	솔:(刷)-이/가	31072-0-1 소'리
31072-0-2	솔:(刷)-보다	31072-0-2 솔'보다
31073-0-1	줄(鉉)-이/가	31073-0-1 주'리
31073-0-2	줄(鉉)-보다	31073-0-2 줄'보다
31074-0-1	줄:(연장)-이/가	31074-0-1 주'리
31074-0-2	줄:(연장)-보다	31074-0-2 줄'보다
31075-0-1	돌:(石)-이/가	31075-0-1 도'리
31075-0-2	돌:(石)-보다	31075-0-2 돌'보다
31076-0-1	담(牆)-이/가	31076-0-1 다'미
31076-0-2	담(牆)-보다	31076-0-2 담'보다
31077-0-1	담:(膽)-이/가	31077-0-1 다'미
31077-0-2	담:(膽)-보다	31077-0-2 담'보다
31078-0-1	들:(野)-이/가	31078-0-1 두루'이
31078-0-2	들:(野)-보다	31078-0-2 두루'보다
31079-0-1	달-(懸)-고	31079-0-1 달'구
31079-0-2	달-(懸)-더라	31079-0-2 단'다, 달'더라
31080-0-1	달-(甘)-고	
31080-0-2	달-(甘)-더라	31080-0-2 달더'라
31081-0-1	달:-(熱)-고	
31081-0-2	달:-(熱)-더라	31081-0-2 달'더라
31082-0-1	갈(換)-고	31082-0-1 갈구' 이따, 가라'라
31082-0-2	갈-(換)-더라	31082-0-2 갈더'라, 가더'라
31083-0-1	갈-(磨)-고	31083-0-1 갈'구 이따, 간'다

31083-0-2	갈-(磨)-더라	31083-0-2 갈'더라, 가'더라
31084-0-1	갈:-(耕)-고	31084-0-1 갈'구, 간'다
31084-0-2	갈:-(耕)-더라	31084-0-2 가'더라
31085-0-1	걷-(收)-고	31085-0-1 거두'구 이따, 거둔'다, 거더'라
31085-0-2	걷-(收)-더라	
31086-0-1	걸:-(步)-고	31086-0-1 걸'꾸 이따, 걸'른다
31086-0-2	걸:-(步)-더라	31086-0-2 거'떠라
31087-0-1	적-(書)-고	31087-0-1 더꾸' 이따, 덩는다'
31087-0-2	적-(書)-더라	
31088-0-1	적:-(少)-고	
31088-0-2	적:-(少)-더라	31088-0-2 작'떠라

3.2. 음운과정

3.2.1 활용

32001-0-1	막-(防)[ㄱ]-지	32001-0-1 막떠
32001-0-2	막-(防)[ㄱ]-고	32001-0-2 막꾸
32001-0-3	막-(防)[ㄱ]-더라	32001-0-3 막뜨라
32001-0-4	막-(防)[ㄱ]-으니까	32001-0-4 마그니
32001-0-5	막-(防)[ㄱ]-아/어(-왔/었다)	32001-0-5 마가라
32002-0-1	흐르-(流)[ㅡ]-지	32002-0-1 흐르디
32002-0-2	흐르-(流)[ㅡ]-고	32002-0-2 흐르구
32002-0-3	흐르-(流)[ㅡ]-더라	32002-0-3 흐르더라
32002-0-4	흐르-(流)[ㅡ]-으니까	32002-0-4 흐르니
32002-0-5	흐르-(流)[ㅡ]-아/어(-왔/었다)	32002-0-5 흘러따
32003-0-1	오-(來)[ㅓ]-지	32003-0-1 오디
32003-0-2	오-(來)[ㅓ]-고	32003-0-2 오구 이따
32003-0-3	오-(來)[ㅓ]-더라	32003-0-3 오더라
32003-0-4	오-(來)[ㅓ]-으니까	32003-0-4 오니
32003-0-5	오-(來)[ㅓ]-아/어(-왔/었다)	32003-0-5 와따
32004-0-1	듣-(聞)[ㄷ 변]-지	32004-0-1 드떠 마라
32004-0-2	듣-(聞)[ㄷ 변]-고	32004-0-2 드꾸 이따
32004-0-3	듣-(聞)[ㄷ 변]-더라	32004-0-3 드떠라
32004-0-4	듣-(聞)[ㄷ 변]-으니까	32004-0-4 드르니
32004-0-5	듣-(聞)[ㄷ 변]-아/어(-왔/었다)	32004-0-5 드러따
32005-0-1	많:-(多)[ㅁ] -지	32005-0-1 만티앵쿠

32005-0-2	많:-(多)[ㄴᄃ] -고	32005-0-2 만쿠
32005-0-3	많:-(多)[ㄴᄃ] -더라	32005-0-3 만터라
32005-0-4	많:-(多)[ㄴᄃ] -으니까	32005-0-4 마느니
32005-0-5	많:-(多)[ㄴᄃ] -아/어(-왔/엿다)	32005-0-5 마내
32006-0-1	말-(任)[ㅌ] -지	32006-0-1 마떠
32006-0-2	말-(任)[ㅌ] -고	32006-0-2 마꾸
32006-0-3	말-(任)[ㅌ] -더라	32006-0-3 마떠라
32006-0-4	말-(任)[ㅌ] -으니까	32006-0-4 마트니
32006-0-5	말-(任)[ㅌ] -아/어(-왔/엿다)	32006-0-5 마타따
32007-0-1	알:-(知)[ㄹ] -지	32007-0-1 알디
32007-0-2	알:-(知)[ㄹ] -고	32007-0-2 알구
32007-0-3	알:-(知)[ㄹ] -더라	32007-0-3 알터라
32007-0-4	알:-(知)[ㄹ] -으니까	32007-0-4 아니
32007-0-5	알:-(知)[ㄹ] -아/어(-왔/엿다)	32007-0-5 아란는데
32008-0-1	감:-(閉眼)[ㄱ] -지	32008-0-1 감떠
32008-0-2	감:-(閉眼)[ㄱ] -고	32008-0-2 감꾸 이따
32008-0-3	감:-(閉眼)[ㄱ] -더라	32008-0-3 감터라(+경음화 안 됨)
32008-0-4	감:-(閉眼)[ㄱ] -으니까	32008-0-4 가무니
32008-0-5	감:-(閉眼)[ㄱ] -아/어(-왔/엿다)	32008-0-5 가마따
32009-0-1	벗-(脫)[ㅍ] -지	32009-0-1 베틀
32009-0-2	벗-(脫)[ㅍ] -고	32009-0-2 베틀 이따
32009-0-3	벗-(脫)[ㅍ] -더라	32009-0-3 베틀라
32009-0-4	벗-(脫)[ㅍ] -으니까	32009-0-4 베틀스니
32009-0-5	벗-(脫)[ㅍ] -아/어(-왔/엿다)	32009-0-5 베틀따
32010-0-1	옴-(可)[ㅇ] -지	32010-0-1 올태애타
32010-0-2	옴-(可)[ㅇ] -고	32010-0-2 올쿠
32010-0-3	옴-(可)[ㅇ] -더라	32010-0-3 올터라
32010-0-4	옴-(可)[ㅇ] -으니까	32010-0-4 오루니
32010-0-5	옴-(可)[ㅇ] -아/어(-왔/엿다)	32010-0-5 오래애타
32011-0-1	입-(着衣)[ㅍ] -지	32011-0-1 님떠
32011-0-2	입-(着衣)[ㅍ] -고	32011-0-2 님꾸
32011-0-3	입-(着衣)[ㅍ] -더라	32011-0-3 님떠라
32011-0-4	입-(着衣)[ㅍ] -으니까	32011-0-4 니부니
32011-0-5	입-(着衣)[ㅍ] -아/어(-왔/엿다)	32011-0-5 니버따
32012-0-1	바꾸-(換)[ㅍ] -지	32012-0-1 바꾸디
32012-0-2	바꾸-(換)[ㅍ] -고	32012-0-2 바꾸구
32012-0-3	바꾸-(換)[ㅍ] -더라	32012-0-3 바꾸터라
32012-0-4	바꾸-(換)[ㅍ] -으니까	32012-0-4 바꾸니

32012-0-5	바꾸-(換)[ㄸ]-아/어(-았/었다)	32012-0-5	바짜따
32013-0-1	덮-(覆)[ㅍ]-지	32013-0-1	덥떠
32013-0-2	덮-(覆)[ㅍ]-고	32013-0-2	덥꾸
32013-0-3	덮-(覆)[ㅍ]-더라	32013-0-3	덥떠라
32013-0-4	덮-(覆)[ㅍ]-으니까	32013-0-4	더꾸니
32013-0-5	덮-(覆)[ㅍ]-아/어(-았/었다)	32013-0-5	더퍼따
32014-0-1	묻:-(問)[ㄷ 변]-지	32014-0-1	무떠 말라
32014-0-2	묻:-(問)[ㄷ 변]-고	32014-0-2	무꾸 이따
32014-0-3	묻:-(問)[ㄷ 변]-더라	32014-0-3	무:떠라
32014-0-4	묻:-(問)[ㄷ 변]-으니까	32014-0-4	무루니
32014-0-5	묻:-(問)[ㄷ 변]-아/어(-았/었다)	32014-0-5	무러라
32015-0-1	낫:-(癒)[ㅅ 변]-지	32015-0-1	나때애타
32015-0-2	낫:-(癒)[ㅅ 변]-고	32015-0-2	나꾸
32015-0-3	낫:-(癒)[ㅅ 변]-더라	32015-0-3	나떠라
32015-0-4	낫:-(癒)[ㅅ 변]-으니까	32015-0-4	나스니
32015-0-5	낫:-(癒)[ㅅ 변]-아/어(-았/었다)	32015-0-5	나사따
32016-0-1	닫-(閉)[ㄷ]-지	32016-0-1	다떠
32016-0-2	닫-(閉)[ㄷ]-고	32016-0-2	다꾸 이따
32016-0-3	닫-(閉)[ㄷ]-더라	32016-0-3	다떠라
32016-0-4	닫-(閉)[ㄷ]-으니까	32016-0-4	다드니
32016-0-5	닫-(閉)[ㄷ]-아/어(-았/었다)	32016-0-5	다다라
32017-0-1	쫓-(追)[ㅈ]-지	32017-0-1	쫓떠(+소), 쫓추디(+다)
32017-0-2	쫓-(追)[ㅈ]-고	32017-0-2	쫓꾸 이따(+소), 쫓추구 이따(+다)
32017-0-3	쫓-(追)[ㅈ]-더라	32017-0-3	쫓떠라(+소), 쫓추더라(+다)
32017-0-4	쫓-(追)[ㅈ]-으니까	32017-0-4	쫓추니
32017-0-5	쫓-(追)[ㅈ]-아/어(-았/었다)	32017-0-5	쫓차따, 쫓차간다
32018-0-1	베:-(枕)[베]-지	32018-0-1	베디
32018-0-2	베:-(枕)[베]-고	32018-0-2	베구 이따
32018-0-3	베:-(枕)[베]-더라	32018-0-3	베:더라
32018-0-4	베:-(枕)[베]-으니까	32018-0-4	베니
32018-0-5	베:-(枕)[베]-아/어(-았/었다)	32018-0-5	베에따
32019-0-1	깨:-(破)[깨]-지	32019-0-1	깨디
32019-0-2	깨:-(破)[깨]-고	32019-0-2	깨구 이따
32019-0-3	깨:-(破)[깨]-더라	32019-0-3	깨더라
32019-0-4	깨:-(破)[깨]-으니까	32019-0-4	깨니
32019-0-5	깨:-(破)[깨]-아/어(-았/었다)	32019-0-5	깨애타
32020-0-1	펴-(伸)[ㅍ]-지	32020-0-1	페디
32020-0-2	펴-(伸)[ㅍ]-고	32020-0-2	페구 이따

32020-0-3	펴-(伸)[ㄱ]-더라	32020-0-3 페더라
32020-0-4	펴-(伸)[ㄱ]-으니까	32020-0-4 페니
32020-0-5	펴-(伸)[ㄱ]-아/어(-았/었다)	32020-0-5 페라
32021-0-1	밖-(明)[ㄹ]-지	32021-0-1 박때애내따
32021-0-2	밖-(明)[ㄹ]-고	32021-0-2 박꾸 이따
32021-0-3	밖-(明)[ㄹ]-더라	32021-0-3 박떠라
32021-0-4	밖-(明)[ㄹ]-으니까	32021-0-4 발그니
32021-0-5	밖-(明)[ㄹ]-아/어(-았/었다)	32021-0-5 발가따
32022-0-1	삶:-(烹)[ㅍ]-지	32022-0-1 삼떠
32022-0-2	삶:-(烹)[ㅍ]-고	32022-0-2 삼꾸 이따
32022-0-3	삶:-(烹)[ㅍ]-더라	32022-0-3 삼떠라
32022-0-4	삶:-(烹)[ㅍ]-으니까	32022-0-4 살무니
32022-0-5	삶:-(烹)[ㅍ]-아/어(-았/었다)	32022-0-5 살마따
32023-0-1	음-(吟)[ㅇ]-지	32023-0-1 읊떠
32023-0-2	음-(吟)[ㅇ]-고	32023-0-2 읊꾸
32023-0-3	음-(吟)[ㅇ]-더라	32023-0-3 읊떠라
32023-0-4	음-(吟)[ㅇ]-으니까	32023-0-4 읊푸니
32023-0-5	음-(吟)[ㅇ]-아/어(-았/었다)	32023-0-5 읊퍼따
32024-0-1	밟:-(踏)[ㅂ]-지	32024-0-1 밟떠
32024-0-2	밟:-(踏)[ㅂ]-고	32024-0-2 밟꾸
32024-0-3	밟:-(踏)[ㅂ]-더라	32024-0-3 밟떠라
32024-0-4	밟:-(踏)[ㅂ]-으니까	32024-0-4 밟부니
32024-0-5	밟:-(踏)[ㅂ]-아/어(-았/었다)	32024-0-5 밟바따
32025-0-1	하-(爲)[ㅏ 변]-지	32025-0-1 하디
32025-0-2	하-(爲)[ㅏ 변]-고	32025-0-2 하구 이따
32025-0-3	하-(爲)[ㅏ 변]-더라	32025-0-3 하더라
32025-0-4	하-(爲)[ㅏ 변]-으니까	32025-0-4 하니
32025-0-5	하-(爲)[ㅏ 변]-아/어(-았/었다)	32025-0-5 해애라
32026-0-1	맺-(結)[ㅈ]-지	32026-0-1 매떠
32026-0-2	맺-(結)[ㅈ]-고	32026-0-2 매꾸 이따
32026-0-3	맺-(結)[ㅈ]-더라	32026-0-3 매떠라
32026-0-4	맺-(結)[ㅈ]-으니까	32026-0-4 매즈니
32026-0-5	맺-(結)[ㅈ]-아/어(-았/었다)	32026-0-5 매자따
32027-0-1	없:-(無)[ㅂ]-지	32027-0-1 업떠
32027-0-2	없:-(無)[ㅂ]-고	32027-0-2 업꾸
32027-0-3	없:-(無)[ㅂ]-더라	32027-0-3 업떠라
32027-0-4	없:-(無)[ㅂ]-으니까	32027-0-4 업쓰니
32027-0-5	없:-(無)[ㅂ]-아/어(-았/었다)	32027-0-5 업써서

32028-0-1	앉-(坐)[ㅅ] -지	32028-0-1 안떠 말라
32028-0-2	앉-(坐)[ㅅ] -고	32028-0-2 앙꾸 이따
32028-0-3	앉-(坐)[ㅅ] -더라	32028-0-3 안떠라
32028-0-4	앉-(坐)[ㅅ] -으니까	32028-0-4 안즈니
32028-0-5	앉-(坐)[ㅅ] -아/어(-왔/었다)	32028-0-5 안자라
32029-0-1	비비-(刮)[ㅣ] -지	32029-0-1 부비디
32029-0-2	비비-(刮)[ㅣ] -고	32029-0-2 부비구
32029-0-3	비비-(刮)[ㅣ] -더라	32029-0-3 부비더라
32029-0-4	비비-(刮)[ㅣ] -으니까	32029-0-4 부비니
32029-0-5	비비-(刮)[ㅣ] -아/어(-왔/었다)	32029-0-5 부베에따
32030-0-1	끄-(消)[ㅡ] -지	32030-0-1 끄디
32030-0-2	끄-(消)[ㅡ] -고	32030-0-2 끄구 이따
32030-0-3	끄-(消)[ㅡ] -더라	32030-0-3 끄더라
32030-0-4	끄-(消)[ㅡ] -으니까	32030-0-4 끄니
32030-0-5	끄-(消)[ㅡ] -아/어(-왔/었다)	32030-0-5 꺼라
32031-0-1	꺾-(折)[ㄱ] -지	32031-0-1 꺾떠
32031-0-2	꺾-(折)[ㄱ] -고	32031-0-2 꺾꾸 이따
32031-0-3	꺾-(折)[ㄱ] -더라	32031-0-3 꺾떠라
32031-0-4	꺾-(折)[ㄱ] -으니까	32031-0-4 꺾끄니
32031-0-5	꺾-(折)[ㄱ] -아/어(-왔/었다)	32031-0-5 꺾꺼라
32032-0-1	신:-(履)[ㄴ] -지	32032-0-1 신떠 마라
32032-0-2	신:-(履)[ㄴ] -고	32032-0-2 싱꾸 이따
32032-0-3	신:-(履)[ㄴ] -더라	32032-0-3 신떠라
32032-0-4	신:-(履)[ㄴ] -으니까	32032-0-4 시느니
32032-0-5	신:-(履)[ㄴ] -아/어(-왔/었다)	32032-0-5 시너라
32033-0-1	보-(視)[ㅇ] -지	32033-0-1 보디
32033-0-2	보-(視)[ㅇ] -고	32033-0-2 보구
32033-0-3	보-(視)[ㅇ] -더라	32033-0-3 보더라
32033-0-4	보-(視)[ㅇ] -으니까	32033-0-4 보니
32033-0-5	보-(視)[ㅇ] -아/어(-왔/었다)	32033-0-5 봐따, 바따
32034-0-1	추-(舞)[ㅈ] -지	32034-0-1 추디
32034-0-2	추-(舞)[ㅈ] -고	32034-0-2 추구
32034-0-3	추-(舞)[ㅈ] -더라	32034-0-3 추더라
32034-0-4	추-(舞)[ㅈ] -으니까	32034-0-4 추니
32034-0-5	추-(舞)[ㅈ] -아/어(-왔/었다)	32034-0-5 취따, 처따
32035-0-1	피우-(吸煙)[ㅈ] -지	32035-0-1 피우디
32035-0-2	피우-(吸煙)[ㅈ] -고	32035-0-2 피우구
32035-0-3	피우-(吸煙)[ㅈ] -더라	32035-0-3 피우더라

32035-0-4	피우-(吸煙)[ㅌ]-으니까	32035-0-4 피우니
32035-0-5	피우-(吸煙)[ㅌ]-아/어(-왔/였)	32035-0-5 피워따
32036-0-1	셔-(立)[ㅅ]-지	32036-0-1 셔디
32036-0-2	셔-(立)[ㅅ]-고	32036-0-2 셔구
32036-0-3	셔-(立)[ㅅ]-더라	32036-0-3 셔더라
32036-0-4	셔-(立)[ㅅ]-으니까	32036-0-4 셔니
32036-0-5	셔-(立)[ㅅ]-아/어(-왔/였다)	32036-0-5 셔따
32037-0-1	기-(匍腹)[ㅣ]-지	32037-0-1 기다
32037-0-2	기-(匍腹)[ㅣ]-고	32037-0-2 기구 이따
32037-0-3	기-(匍腹)[ㅣ]-더라	32037-0-3 기다라
32037-0-4	기-(匍腹)[ㅣ]-으니까	32037-0-4 기니
32037-0-5	기-(匍腹)[ㅣ]-아/어(-왔/였다)	32037-0-5 게에라
32038-0-1	이-(戴)[ㅣ]-지	32038-0-1 니디
32038-0-2	이-(戴)[ㅣ]-고	32038-0-2 니구
32038-0-3	이-(戴)[ㅣ]-더라	32038-0-3 니더라
32038-0-4	이-(戴)[ㅣ]-으니까	32038-0-4 니니
32038-0-5	이-(戴)[ㅣ]-아/어(-왔/였다)	32038-0-5 네에라
32039-0-1	아니-(否)[ㅣ]-지	32039-0-1 애니디
32039-0-2	아니-(否)[ㅣ]-고	32039-0-2 애니구
32039-0-3	아니-(否)[ㅣ]-더라	32039-0-3 애니더라
32039-0-4	아니-(否)[ㅣ]-으니까	32039-0-4 애니니
32039-0-5	아니-(否)[ㅣ]-아/어(-왔/였다)	32039-0-5 애네서{아니어서}
32040-0-1	되-(升)[ㅍ]-지	32040-0-1 돼디
32040-0-2	되-(升)[ㅍ]-고	32040-0-2 돼구 이따
32040-0-3	되-(升)[ㅍ]-더라	32040-0-3 돼더라
32040-0-4	되-(升)[ㅍ]-으니까	32040-0-4 돼니
32040-0-5	되-(升)[ㅍ]-아/어(-왔/였다)	32040-0-5 돼애라
32041-0-1	있-(有)[ㅍ]-지	32041-0-1 이띠
32041-0-2	있-(有)[ㅍ]-고	32041-0-2 이꾸
32041-0-3	있-(有)[ㅍ]-더라	32041-0-3 이띠라
32041-0-4	있-(有)[ㅍ]-으니까	32041-0-4 이스니
32041-0-5	있-(有)[ㅍ]-아/어(-왔/였다)	32041-0-5 이서서, 이서띠
32042-0-1	놓-(放)[ㅎ]-지	32042-0-1 노티
32042-0-2	놓-(放)[ㅎ]-고	32042-0-2 노쿠 이따
32042-0-3	놓-(放)[ㅎ]-더라	32042-0-3 노터라
32042-0-4	놓-(放)[ㅎ]-으니까	32042-0-4 노우니
32042-0-5	놓-(放)[ㅎ]-아/어(-왔/였다)	32042-0-5 놔아따
32043-0-1	훑-(扱)[ㅍ]-지	32043-0-1 흘띠 말라

32043-0-2	훔-(掇)[ㅈ] -고	32043-0-2	훔꾸 이따
32043-0-3	훔-(掇)[ㅈ] -더라	32043-0-3	훔떠라
32043-0-4	훔-(掇)[ㅈ] -으니까	32043-0-4	훔트니
32043-0-5	훔-(掇)[ㅈ] -아/어(-왔/었다)	32043-0-5	훔터라
32044-0-1	곰:-(麗)[ㅂ 변]-지	32044-0-1	곰떠
32044-0-2	곰:-(麗)[ㅂ 변]-고	32044-0-2	고꾸
32044-0-3	곰:-(麗)[ㅂ 변]-더라	32044-0-3	곰떠라
32044-0-4	곰:-(麗)[ㅂ 변]-으니까	32044-0-4	고부니
32044-0-5	곰:-(麗)[ㅂ 변]-아/어(-왔/었다)	32044-0-5	고바서
32045-0-1	쥐:-(握)[ㄱ]-지	32045-0-1	쥐디(+이중모음)
32045-0-2	쥐:-(握)[ㄱ]-고	32045-0-2	쥐구 이따(+이중모음)
32045-0-3	쥐:-(握)[ㄱ]-더라	32045-0-3	쥐더라(+이중모음)
32045-0-4	쥐:-(握)[ㄱ]-으니까	32045-0-4	쥐니(+이중모음)
32045-0-5	쥐:-(握)[ㄱ]-아/어(-왔/었다)	32045-0-5	채애라
32046-0-1	가-(去)[ㄱ]-지	32046-0-1	가디
32046-0-2	가-(去)[ㄱ]-고	32046-0-2	가구
32046-0-3	가-(去)[ㄱ]-더라	32046-0-3	가더라
32046-0-4	가-(去)[ㄱ]-으니까	32046-0-4	가니
32046-0-5	가-(去)[ㄱ]-아/어(-왔/었다)	32046-0-5	가따
32047-0-1	"먹-(食)"	32047-0-1	머꾸 이따
32047-0-2	"먹-(食)"	32047-0-2	머거라
32048-0-1	"뜯-(摘)"	32048-0-1	뜨꾸 이따, 뜯는다
32048-0-2	"뜯-(摘)-"	32048-0-2	뜨더라
32049-0-1	"같-(如)"	32049-0-1	가떠라, 가따
32049-0-2	"같-(如)-"	32049-0-2	가태서
32050-0-1	"얕-(淺)"	32050-0-1	야떠라, 야따
32050-0-2	"얕-(淺)-"	32050-0-2	야타서
32051-0-1	"흩-(散)"	32051-0-1	헤티구 이따
32051-0-2	"흩-(散)-"	32051-0-2	헤테라, 헤테데따
32052-0-1	"날:-(飛)"	32052-0-1	날구 이따, 난다
32052-0-2	"날:-(飛)-"	32052-0-2	나라라
32053-0-1	"울:-(泣)"	32053-0-1	울구 이따, 운다
32053-0-2	"울:-(泣)-"	32053-0-2	우러라
32054-0-1	"일:-(淘)"	32054-0-1	일구, 인다
32054-0-2	"일:-(淘)-"	32054-0-2	이러라
32055-0-1	"얼:-(凍)"	32055-0-1	얼구 이따, 언다
32055-0-2	"얼:-(凍)-"	32055-0-2	어러따
32056-0-1	"넘:-(越)"	32056-0-1	넘꾸

32056-0-2	"넘:-(越)-"	32056-0-2	너머라
32057-0-1	"숨:-(隱)"	32057-0-1	숨떠라, 숨눈다
32057-0-2	"숨:-(隱)-"	32057-0-2	수머라
32058-0-1	"쉽:-(易)"	32058-0-1	헐터라, 쉽따, 쉽떠라
32058-0-2	"쉽:-(易)-"	32058-0-2	허래서, 쉬바두, 쉬바서, 쉬와서
32059-0-1	"눅:-(臥)"	32059-0-1	눅떠라
32059-0-2	"눅:-(臥)-"	32059-0-2	느버라
32060-0-1	"깁:-(縫)"	32060-0-1	깁떠라
32060-0-2	"깁:-(縫)-"	32060-0-2	기버라
32061-0-1	"밋:-(憎)"	32061-0-1	밋떠라
32061-0-2	"밋:-(憎)-"	32061-0-2	미버서
32062-0-1	"높:-(高)"	32062-0-1	놉떠라
32062-0-2	"높:-(高)-"	32062-0-2	노과서
32063-0-1	"짓:-(作)"	32063-0-1	지터라, 진는다(+‘집을 짓다’일 때), 지떠라(+‘글을 짓다’일 때)
32063-0-2	"짓:-(作)-"	32063-0-2	저어라
32064-0-1	"붓:-(腫)"	32064-0-1	부떠라
32064-0-2	"붓:-(腫)-"	32064-0-2	부서따
32065-0-1	"웃:-(笑)"	32065-0-1	우꾸 이따, 운눈다
32065-0-2	"웃:-(笑)-"	32065-0-2	우서라
32066-0-1	"짖:-(吠)"	32066-0-1	즈떠라
32066-0-2	"짖:-(吠)-"	32066-0-2	즈저서
32067-0-1	"꽃:-(插)"	32067-0-1	꼬떠라
32067-0-2	"꽃:-(插)-"	32067-0-2	꼬자라
32068-0-1	"낱:-(産)"	32068-0-1	나터라, 난는다
32068-0-2	"낱:-(産)-"	32068-0-2	나아따
32069-0-1	"땅:-(辯)"	32069-0-1	따떠라, 탄는다
32069-0-2	"땅:-(辯)-"	32069-0-2	따아라
32070-0-1	"끊:-(切)"	32070-0-1	끈꾸 이따, 끄니구 이따, 끄닌다
32070-0-2	"끊:-(切)-"	32070-0-2	끄네에라
32071-0-1	"괜찮:-(無妨)"	32071-0-1	괜:채쏘, 관:태니우
32071-0-2	"괜찮:-(無妨)-"	32071-0-2	관 태내서
32072-0-1	"읽:-(讀)"	32072-0-1	니르구 이따
32072-0-2	"읽:-(讀)-"	32072-0-2	닐거라
32073-0-1	"툇:-(澁)"	32073-0-1	툇꾸, 툇따
32073-0-2	"툇:-(澁)-"	32073-0-2	털바서
32074-0-1	"옮:-(遷)"	32074-0-1	옴떠라
32074-0-2	"옮:-(遷)-"	32074-0-2	올마따

32075-0-1	"똥:- (貫)"	32075-0-1	듭꾸 이따, 땀는다
32075-0-2	"똥:- (貫)-"	32075-0-2	들버라, 덜버라
32076-0-1	"꿍-(跪)"	32076-0-1	꼴디, 꼴구
32076-0-2	"꿍-(跪)-"	32076-0-2	꾸러서, 꾸러
32077-0-1	"닿-(跪, 연필심이)"	32077-0-1	다슬더라
32077-0-2	"닿-(跪, 연필심이)-"	32077-0-2	다스려따
32078-0-1	"닿:- (煎, 술에서장이)"	32078-0-1	자딸구 이따
32078-0-2	"닿:- (煎, 술에서장이)"	32078-0-2	자따라서
32079-0-1	"짜-(鹽)"	32079-0-1	잡떠라, 잡다
32079-0-2	"짜-(鹽)-"	32079-0-2	짜바서
32080-0-1	"말-(捲)"	32080-0-1	말더라
32080-0-2	"말-(捲)-"	32080-0-2	마라따
32081-0-1	"쓰-(書)"	32081-0-1	쓰구, 쓴다
32081-0-2	"쓰-(書)-"	32081-0-2	써라
32082-0-1	"오르-(登)"	32082-0-1	오루더라, 오룬다
32082-0-2	"오르-(登)-"	32082-0-2	올라따
32083-0-1	"바쁘-(忙)"	32083-0-1	바뿌다(+이 지역에서는 ‘힘들다’의 의미로 주로 쓰임)
32083-0-2	"바쁘-(忙)-"	32083-0-2	바빠서
32084-0-1	"고프-(餓)"	32084-0-1	고푸디, 고푸더라
32084-0-2	"고프-(餓)-"	32084-0-2	고파따
32085-0-1	"쏘-(射)"	32085-0-1	쏘구 이따, 쏘구 이따, 쏜다, 쏘온다
32085-0-2	"쏘-(射)-"	32085-0-2	쏘아라
32086-0-1	"꾸-(夢)"	32086-0-1	뀌디, 꺼다
32086-0-2	"꾸-(夢)-"	32086-0-2	꽤애라
32087-0-1	"머무르-(留)"	32087-0-1	머물디
32087-0-2	"머무르-(留)-"	32087-0-2	머물러 이서라
32088-0-1	"다듬-(整)"	32088-0-1	다슬구구, 다듬구 이따
32088-0-2	"다듬-(整)-"	32088-0-2	다슬귀라, 다드머라
32089-0-1	"견디-(忍)"	32089-0-1	견디더라
32089-0-2	"견디-(忍)-"	32089-0-2	견데에라
32090-0-1	"말리-(裁)"	32090-0-1	마르더라, 마른다
32090-0-2	"말리-(裁)-"	32090-0-2	말가라
32091-0-1	"끼-(烟鎖, 안개가)"	32091-0-1	끼구 이따
32091-0-2	"끼-(烟鎖, 안개가)-"	32091-0-2	께에따
32092-0-1	"마시-(飲)"	32092-0-1	마시구, 마신다
32092-0-2	"마시-(飲)-"	32092-0-2	마세라
32093-0-1	"세:- (强)"	32093-0-1	썰더라

32093-0-2	"세:-(强)-"	32093-0-2 세에서, 쎄에따
32094-0-1	"포개-(重疊)"	32094-0-1 겹쥬친다, 던논는다
32094-0-2	"포개-(重疊)-"	32094-0-2 겹쥬체라
32095-0-1	"두드리-(敲)"	32095-0-1 두두리구, 두두린다
32095-0-2	"두드리-(敲)-"	32095-0-2 두두레라
32096-0-1	"켜-(點燈)"	32096-0-1 켜구 이따
32096-0-2	"켜-(點燈)-"	32096-0-2 켜라
32097-0-1	"썰:-(바람을)"	32097-0-1 썰우구
32097-0-2	"썰:-(바람을)-"	32097-0-2 썰와따
32098-0-1	"쇠-(老)"	32098-0-1 쇠더라, 쉼:다
32098-0-2	"쇠-(老)-"	32098-0-2 쇠에서, 쇠애따
32099-0-1	"쉬:-(饅)"	32099-0-1 쉬더라
32099-0-2	"쉬:-(饅)-"	32099-0-2 쇠에서
32100-0-1	"희-(白)"	32100-0-1 히다, 흰 색
32100-0-2	"희-(白)-"	32100-0-2 헤에서
32101-0-1	"볶-(炒)"	32101-0-1 다큐 이따(+‘보꾸 이따’는 ‘무치고 있 다, 버무리고 있다’를 의미), 당는다
32101-0-2	"볶-(炒)-"	32101-0-2 다큐라(+‘보까라’는 ‘무쳐라, 버무리 라’를 의미)
32102-0-1	"안:-(抱)"	32102-0-1 양꾸
32102-0-2	"안:-(抱)-"	32102-0-2 아나라
32103-0-1	"묻-(埋)"	32103-0-1 무꾸, 묻는다
32103-0-2	"묻-(埋)-"	32103-0-2 무더따
32104-0-1	"불:-(吹)"	32104-0-1 부더라, 분다
32104-0-2	"불:-(吹)-"	32104-0-2 부러따
32105-0-1	"빨:-(洗濯)"	32105-0-1 빠더라, 빨다, 신는다, 시꾸 이따
32105-0-2	"빨:-(洗濯)-"	32105-0-2 빠라라, 시처라
32106-0-1	"죽-(死)"	32106-0-1 죽떠라, 중는다
32106-0-2	"죽-(死)-"	32106-0-2 주거따
32107-0-1	"걸:-(步)"	32107-0-1 거꾸 이따
32107-0-2	"걸:-(步)-"	32107-0-2 거러 가라
32108-0-1	"가물-(旱)"	32108-0-1 가물더라, 가물다
32108-0-2	"가물-(旱)-"	32108-0-2 가무리서
32109-0-1	"졸:-(睡)"	32109-0-1 자불구 이따, 자분다
32109-0-2	"졸:-(睡)-"	32109-0-2 자부러라
32110-0-1	"쓸:-(掃)"	32110-0-1 쓸구
32110-0-2	"쓸:-(掃)-"	32110-0-2 쓰러라
32111-0-1	"감:-(捲)"	32111-0-1 감구 이따(+구), 감꾸 이따(+신)

32111-0-2	"감:- (捲) -"	32111-0-2 가마따
32112-0-1	"더듬-(摸)"	32112-0-1 더듬꾸, 더듬는다
32112-0-2	"더듬-(摸) -"	32112-0-2 더드머라
32113-0-1	"굽:- (炙)"	32113-0-1 굽꾸
32113-0-2	"굽:- (炙) -"	32113-0-2 구버 멍는다
32114-0-1	"무겁-(重)"	32114-0-1 무겁따
32114-0-2	"무겁-(重) -"	32114-0-2 무거바서
32115-0-1	"잇:- (連)"	32115-0-1 니꾸 이따, 닌는다
32115-0-2	"잇:- (連) -"	32115-0-2 니서서
32116-0-1	"빗-(梳)"	32116-0-1 비꾸
32116-0-2	"빗-(梳) -"	32116-0-2 비서라
32117-0-1	"까맣-(黑)"	32117-0-1 까:마타, 꺼:머타
32117-0-2	"까맣-(黑) -"	32117-0-2 까:매서, 꺼어매서
32118-0-1	"넙-(入)"	32118-0-1 녀터라, 녀는다
32118-0-2	"넙-(入) -"	32118-0-2 녀어라
32119-0-1	"고:- (煮)"	32119-0-1 고꾸, 곧눈다
32119-0-2	"고:- (煮) -"	32119-0-2 고아라
32120-0-1	"엎-(載)"	32120-0-1 언떠 말라
32120-0-2	"엎-(載) -"	32120-0-2 언저라
32121-0-1	"귀찮-(囁)"	32121-0-1 귀텐:타
32121-0-2	"귀찮-(囁) -"	32121-0-2 귀태내서
32122-0-1	"바르-(剔, 생선 뼈를)"	32122-0-1 바르꾸
32122-0-2	"바르-(剔, 생선 뼈를)"	32122-0-2 발가라
32123-0-1	"맑-(淸)"	32123-0-1 막떠라
32123-0-2	"맑-(淸) -"	32123-0-2 말가서
32124-0-1	"끓:- (膿)"	32124-0-1 곰떠라, 곰눈다
32124-0-2	"끓:- (膿) -"	32124-0-2 골마
32125-0-1	"굵:- (太)"	32125-0-1 시라다, 모디다, 모딜터라
32125-0-2	"굵:- (太) -"	32125-0-2 시래서, 모디러서
32126-0-1	"얇:- (薄)"	32126-0-1 무르다, 히미:하다, 어슴푸레:하다
32126-0-2	"얇:- (薄) -"	32126-0-2 물거서
32127-0-1	"쑤-(春)"	32127-0-1 쑤꾸 이따
32127-0-2	"쑤-(春) -"	32127-0-2 쓰러라
32128-0-1	"잃-(失)"	32128-0-1 일꾸 와따
32128-0-2	"잃-(失) -"	32128-0-2 이러따, 이러뿌레따
32129-0-1	"핥-(舐)"	32129-0-1 핥터라, 핥른다
32129-0-2	"핥-(舐) -"	32129-0-2 하라라
32130-0-1	"짧-(短)"	32130-0-1 따르더라, 따르다

32130-0-2	"짧-(短)-"	32130-0-2 딸가서
32131-0-1	"놀라-(驚)"	32131-0-1 놀라더라, 놀란다
32131-0-2	"놀라-(驚)-"	32131-0-2 놀라서
32132-0-1	"자-(宿)"	32132-0-1 자구, 잔다
32132-0-2	"자-(宿)-"	32132-0-2 자따
32133-0-1	"못:하-(不爲)"	32133-0-1 모타구
32133-0-2	"못:하-(不爲)-"	32133-0-2 모태따
32134-0-1	"모르-(不知)"	32134-0-1 모루더라
32134-0-2	"모르-(不知)-"	32134-0-2 몰라서
32135-0-1	"아프-(痛)"	32135-0-1 아프다, 아프더라
32135-0-2	"아프-(痛)-"	32135-0-2 아파서
32136-0-1	"크-(大)"	32136-0-1 크다
32136-0-2	"크-(大)-"	32136-0-2 커서
32137-0-1	"꼬-(索, 새끼를)"	32137-0-1 꼬구, 끈다
32137-0-2	"꼬-(索, 새끼를)-"	32137-0-2 파라
32138-0-1	"쭈-(造粥)"	32138-0-1 쓰구, 쓴다
32138-0-2	"쭈-(造粥)-"	32138-0-2 써라
32139-0-1	"맞추-(組合)"	32139-0-1 맞추구
32139-0-2	"맞추-(組合)-"	32139-0-2 마차본다
32140-0-1	"데우-(燂)"	32140-0-1 데끼구
32140-0-2	"데우-(燂)-"	32140-0-2 데껴라
32141-0-1	"이:-(盖, 지붕을)"	32141-0-1 네구, 낸다
32141-0-2	"이:-(盖, 지붕을)-"	32141-0-2 네에라
32142-0-1	"갈기-(打)"	32142-0-1 갈기구, 갈긴다
32142-0-2	"갈기-(打)-"	32142-0-2 갈게따
32143-0-1	"기다리-(待)"	32143-0-1 기들구구, 기들군다
32143-0-2	"기다리-(待)-"	32143-0-2 기들귀라
32144-0-1	"세:-(算)"	32144-0-1 세구, 셴다
32144-0-2	"세:-(算)-"	32144-0-2 세에 바라
32145-0-1	"빼-(拔)"	32145-0-1 빼구
32145-0-2	"빼-(拔)-"	32145-0-2 빼애라
32146-0-1	"켜-(톱을)"	32146-0-1 켜구 이따
32146-0-2	"켜-(톱을)-"	32146-0-2 켜라
32147-0-1	"되:-(硬)"	32147-0-1 돼더라, 똬다
32147-0-2	"되:-(硬)-"	32147-0-2 돼에서
32148-0-1	"쉬:-(休)"	32148-0-1 쉬구, 쉰다
32148-0-2	"쉬:-(休)-"	32148-0-2 쉼:라
32149-0-1	"할퀴-(搔)"	32149-0-1 헤비디, 헤빈다

32149-0-2	"할퀴-(搔)-"	32149-0-2 헤베에서
32150-0-1	"늪:-(焦)"	32150-0-1 팔더라
32150-0-2	"늪:-(焦)-"	32150-0-2 과라서, 과라따, 따라따
32151-0-1	"깨달-(覺)"	32151-0-1 깨달꾸, 깨달티, 깨달터라
32151-0-2	"깨달-(覺)-"	32151-0-2 깨다라따
32152-0-1	"마렵-(오줌이)"	32152-0-1 마렵떠라
32152-0-2	"마렵-(오줌이)-"	32152-0-2 마라바서
32153-0-1	"부끄럽-(恥)"	32153-0-1 부꾸럽따
32153-0-2	"부끄럽-(恥)-"	32153-0-2 부꾸러바서
32154-0-1	"가깝-(近)"	32154-0-1 가참떠라, 가참따
32154-0-2	"가깝-(近)-"	32154-0-2 가차바서
32155-0-1	"깊-(深)"	32155-0-1 깊떠라
32155-0-2	"깊-(深)-"	32155-0-2 기퍼서
32156-0-1	"긋:-(劃)"	32156-0-1 끄꾸 이따, 끈는다
32156-0-2	"긋:-(劃)-"	32156-0-2 끄서라
32157-0-1	"씻-(洗)"	32157-0-1 시꾸, 신는다
32157-0-2	"씻-(洗)-"	32157-0-2 시쳐라
32158-0-1	"쫓-(搗)"	32158-0-1 떠꾸, 떤는다
32158-0-2	"쫓-(搗)-"	32158-0-2 떤어라
32159-0-1	"잡-(搔)"	32159-0-1 썩언다
32159-0-2	"잡-(搔)-"	32159-0-2 쏘라 멍는다
32160-0-1	"굶:-(飢)"	32160-0-1 굶떠라
32160-0-2	"굶:-(飢)-"	32160-0-2 굴머서
32161-0-1	"닮:-(似)"	32161-0-1 담떠라, 담는다
32161-0-2	"닮:-(似)-"	32161-0-2 달마서
32162-0-1	"싫-(厭)"	32162-0-1 슬쏘, 슬터라
32162-0-2	"싫-(厭)-"	32162-0-2 스레서
32163-0-1	"끓-(𩪖)"	32163-0-1 골더라, 골대내따
32163-0-2	"끓-(𩪖)-"	32163-0-2 고라따, 고라쏘
32164-0-1	"붓:-(注)"	32164-0-1 부띠, 분눈다
32164-0-2	"붓:-(注)-"	32164-0-2 부서라
32165-0-1	"타-(乘)"	32165-0-1 타구
32165-0-2	"타-(乘)-"	32165-0-2 타라
32166-0-1	"마르-(乾)"	32166-0-1 마르구, 마른다
32166-0-2	"마르-(乾)-"	32166-0-2 말랐다
32167-0-1	"쓰-(苦)"	32167-0-1 쓸떠라, 쓸따
32167-0-2	"쓰-(苦)-"	32167-0-2 쓰바서
32168-0-1	"슬프-(哀)"	32168-0-1 슬푸다

32168-0-2	"슬프-(哀)-"	32168-0-2 슬퍼서
32169-0-1	"기쁘-(喜)"	32169-0-1 기쁘더라
32169-0-2	"기쁘-(喜)-"	32169-0-2 기뻐서
32170-0-1	"쏘-(蝨, 벌이)"	32170-0-1 쏘더라
32170-0-2	"쏘-(蝨, 벌이)-"	32170-0-2 쏘아따
32171-0-1	"주-(與)"	32171-0-1 주구, 준다
32171-0-2	"주-(與)-"	32171-0-2 줘라
32172-0-1	"키우-(飼育)"	32172-0-1 기른다, 자래운다
32172-0-2	"키우-(飼育)-"	32172-0-2 길거따, 자래와따
32173-0-1	"가두-(囚)"	32173-0-1 가두구, 가둔다
32173-0-2	"가두-(囚)-"	32173-0-2 가다따
32174-0-1	"부수-(碎)"	32174-0-1 마수구, 혈구, 마순다구
32174-0-2	"부수-(碎)-"	32174-0-2 마사라, 허러라
32175-0-1	"나누-(分)"	32175-0-1 농구더라
32175-0-2	"나누-(分)-"	32175-0-2 농과 머거라
32176-0-1	"속이-(欺)"	32176-0-1 얼리디, 그시디 말라, 소기디 말라, 그신다, 얼리무
32176-0-2	"속이-(欺)-"	32176-0-2 얼레서는, 그세라, 소게라
32177-0-1	"끼-(插)"	32177-0-1 끼구
32177-0-2	"끼-(插)-"	32177-0-2 께에따
32178-0-1	"튀-(跳)"	32178-0-1 뛰구
32178-0-2	"튀-(跳)-"	32178-0-2 뵤애따
32179-0-1	"괴:-(滄)"	32179-0-1 개핀다
32179-0-2	"괴:-(滄)-"	32179-0-2 개페따
32180-0-1	"여위-(癰)"	32180-0-1 예비더라
32180-0-2	"여위-(癰)-"	32180-0-2 예베에따
32181-0-1	"맵-(辛)"	32181-0-1 맵따
32181-0-2	"맵-(辛)-"	32181-0-2 매바서
32182-0-1	"뀌:-(屁)"	32182-0-1 궤더라
32182-0-2	"뀌:-(屁)-"	32182-0-2 궤애라
32183-0-1	"고치-(改)"	32183-0-1 고티구
32183-0-2	"고치-(改)-"	32183-0-2 고테라
32184-0-1	"싣:-(載)"	32184-0-1 시꾸 이따, 실꾸 이따, 실른다
32184-0-2	"싣:-(載)-"	32184-0-2 시러라
32185-0-1	"얻:-(得)"	32185-0-1 어띠
32185-0-2	"얻:-(得)-"	32185-0-2 어더따
32186-0-1	"뺑-(粉碎)"	32186-0-1 즈띠꾸 이따, 쫄는다, 띠는다, 즈띤 다

32186-0-2	"뺱-(粉碎)-"	32186-0-2	즈뚱:서
32187-0-1	"파랑-(碧)"	32187-0-1	파아라타
32187-0-2	"파랑-(碧)-"	32187-0-2	파아래서
32188-0-1	"다르-(異)"	32188-0-1	따더라
32188-0-2	"다르-(異)-"	32188-0-2	따서
32189-0-1	"푸-(汲)"	32189-0-1	푸구
32189-0-2	"푸-(汲)-"	32189-0-2	퍼라, 퍼다가
32190-0-1	"누-(尿)"	32190-0-1	누구
32190-0-2	"누-(尿)-"	32190-0-2	뉘라
32191-0-1	"더:럽-(汚)"	32191-0-1	더럽떠라, 더럽따
32191-0-2	"더:럽-(汚)-"	32191-0-2	더러바서
32192-0-1	"거두-(收)"	32192-0-1	거두구
32192-0-2	"거두-(收)-"	32192-0-2	거더
32193-0-1	"끓-(沸)"	32193-0-1	끓쿠
32193-0-2	"끓-(沸)-"	32193-0-2	끄러따
32194-0-1	"이기-(勝)"	32194-0-1	이기구
32194-0-2	"이기-(勝)-"	32194-0-2	이게야
32195-0-1	"부시-(照)"	32195-0-1	시구다
32195-0-2	"부시-(照)-"	32195-0-2	시구러서
32196-0-1	"자빠지-(後倒)"	32196-0-1	자빠디더라
32196-0-2	"자빠지-(後倒)-"	32196-0-2	자빠데따
32197-0-1	"일으키-(使起)"	32197-0-1	닐구구
32197-0-2	"일으키-(使起)-"	32197-0-2	닐귀라
32198-0-1	"당기-(引)"	32198-0-1	당게구
32198-0-2	"당기-(引)-" "	32198-0-2	당게에라
32199-0-1	"버리-(捨)"	32199-0-1	데디구
32199-0-2	"버리-(捨)-"	32199-0-2	데데라
32200-0-1	"훔치-(盜)"	32200-0-1	훔치구, 훔친다
32200-0-2	"훔치-(盜)-"	32200-0-2	훔체따
32201-0-1	"지-(負)"	32201-0-1	지구, 진다
32201-0-2	"지-(負)-"	32201-0-2	제에라
32202-0-1	"외:-(暗誦)"	32202-0-1	왜우구 이따
32202-0-2	"외:-(暗誦)-"	32202-0-2	왜와라
32203-0-1	"사귀-(交際)"	32203-0-1	사귀더라(+이중모음), 사귄다(+이중모음), 니킨다
32203-0-2	"사귀-(交際)-"	32203-0-2	사괘라
32204-0-1	"썩-(腐)"	32204-0-1	썩는다
32204-0-2	"썩-(腐)-"	32204-0-2	썩거따

32205-0-1	"질-(泥)"	32205-0-1 즐더라
32205-0-2	"질-(泥)-"	32205-0-2 즈러서
32206-0-1	"까불-(箕)"	32206-0-1 딘다, 디는, 다듬는다
32206-0-2	"까불-(箕)-"	32206-0-2 데에라
32207-0-1	"드물-(稀)"	32207-0-1 드물더라
32207-0-2	"드물-(稀)-"	32207-0-2 드무러따, 귀애따, 자가따
32208-0-1	"줄:-(縮)"	32208-0-1 쫄구, 쫘다
32208-0-2	"줄:-(縮)-"	32208-0-2 쪼라따
32209-0-1	"심:-(植)"	32209-0-1 심구(+경음화 안 됨), 심는다
32209-0-2	"심:-(植)-"	32209-0-2 시머따
32210-0-1	"쓰다듬-(撫)"	32210-0-1 쓰다듬구(+경음화 안 됨), 쓰다듬는다
32210-0-2	"쓰다듬-(撫)-"	32210-0-2 쓰다드머따
32211-0-1	"사:납-(猛)"	32211-0-1 사납따
32211-0-2	"사:납-(猛)-"	32211-0-2 사나바서
32212-0-1	"가볍-(輕)"	32212-0-1 헤깅따
32212-0-2	"가볍-(輕)-"	32212-0-2 헤까바서
32213-0-1	"젓:-(撈)"	32213-0-1 노루 저띠, 저꾸
32213-0-2	"젓:-(撈)-"	32213-0-2 저어라
32214-0-1	"두껍-(厚)"	32214-0-1 두껍따
32214-0-2	"두껍-(厚)-"	32214-0-2 두꺼바서
32215-0-1	"무르-(軟)"	32215-0-1 물:디, 물:대내따
32215-0-2	"무르-(軟)-"	32215-0-2 무러따
32216-0-1	"분지르-(折)"	32216-0-1 끈꾸 이따
32216-0-2	"분지르-(折)-"	32216-0-2 끄네에 노아라
32217-0-1	"배우-(學)"	32217-0-1 배우더라, 배운다, 배우우, 배우구
32217-0-2	"배우-(學)-"	32217-0-2 배와따
32218-0-1	"다리-(屣)"	32218-0-1 대리구
32218-0-2	"다리-(屣)-"	32218-0-2 대레라
32219-0-1	"후비-(窵, 귀를)"	32219-0-1 우비구
32219-0-2	"후비-(窵, 귀를)"	32219-0-2 우베에라
32220-0-1	"아리-(痛)"	32220-0-1 아리디, 아리더라
32220-0-2	"아리-(痛)-" -"	32220-0-2 아레서
32221-0-1	"그리-(畵)"	32221-0-1 그린다
32221-0-2	"그리-(畵)-"	32221-0-2 그레라
32222-0-1	"저리-(癡)"	32222-0-1 저리다
32222-0-2	"저리-(癡)-"	32222-0-2 저레서
32223-0-1	"불리-(增)"	32223-0-1 뿔군다, 퍼부린다

32223-0-2	"불리-(增)-"	32223-0-2 뿔귀따, 퍼부레라
32224-0-1	"뜨시-(溫)"	32224-0-1 따따:사디, 다:사다
32224-0-2	"뜨시-(溫)-"	32224-0-2 다:새에서
32225-0-1	"끓이-(使沸)"	32225-0-1 끄리구
32225-0-2	"끓이-(使沸)-"	32225-0-2 끄레라
32226-0-1	"누비-(縫)"	32226-0-1 느빈다
32226-0-2	"누비-(縫)-"	32226-0-2 느베
32227-0-1	"구기-(皺)"	32227-0-1 꾸질구 이따
32227-0-2	"구기-(皺)-"	32227-0-2 꾸질거라, 꾸질게딘다
32228-0-1	"비:-(空)"	32228-0-1 비대내따
32228-0-2	"비:-(空)-"	32228-0-2 베에따
32229-0-1	"식히-(使冷)"	32229-0-1 시기구
32229-0-2	"식히-(使冷)-"	32229-0-2 시게, 시게라
32230-0-1	"매-(除草)"	32230-0-1 맨다
32230-0-2	"매-(除草)-"	32230-0-2 매애따
32231-0-1	"매:-(結)"	32231-0-1 맨다
32231-0-2	"매:-(結)-"	32231-0-2 매: 노쿠
32232-0-1	"뛰-(走)"	32232-0-1 뛰더라
32232-0-2	"뛰-(走)-"	32232-0-2 땀: 너머라
32233-0-1	"담:-(盛)"	32233-0-1 담꾸
32233-0-2	"담:-(盛)-"	32233-0-2 다마라
32234-0-1	"가렵-(癢)"	32234-0-1 가랍따
32234-0-2	"가렵-(癢)-"	32234-0-2 가라바서
32235-0-1	"때리-(打)"	32235-0-1 때린다
32235-0-2	"때리-(打)-"	32235-0-2 때레라
32236-0-1	"어둡-(暗)"	32236-0-1 어듭따
32236-0-2	"어둡-(暗)-"	32236-0-2 어드바서
32237-0-1	"잡-(執)"	32237-0-1 잡꾸, 잠는다
32237-0-2	"잡-(執)-"	32237-0-2 자바사
32238-0-1	"차-(蹴)"	32238-0-1 차더라, 찬다
32238-0-2	"차-(蹴)-"	32238-0-2 차따
32239-0-1	"모자라-(不足)"	32239-0-1 모주란다
32239-0-2	"모자라-(不足)-"	32239-0-2 모주라서
32240-0-1	"부르-(呼)"	32240-0-1 부룬다
32240-0-2	"부르-(呼)-" "	32240-0-2 불러라
32241-0-1	"따르-(注)"	32241-0-1 쥐운다
32241-0-2	"따르-(注)-"	32241-0-2 쥐워라
32242-0-1	"쪼:-(啄)"	32242-0-1 쪼떠라

32242-0-2	"쫓:- (啄)-"	32242-0-2 쫓사라
32243-0-1	"두:- (置)"	32243-0-1 두더라
32243-0-2	"두:- (置)-"	32243-0-2 뒤라
32244-0-1	"시키:- (使)"	32244-0-1 시킨다
32244-0-2	"시키:- (使)-"	32244-0-2 시게라
32245-0-1	"지리:- (漏, 오줌을)"	32245-0-1 즈리다(+오줌 냄새에 대한 형용사)
32245-0-2	"지리:- (漏, 오줌을)"	32245-0-2 즈레서(+오줌 냄새에 대한 형용사)
32246-0-1	"던지:- (投)"	32246-0-1 뿌린다, 던딘다
32246-0-2	"던지:- (投)-"	32246-0-2 뿌레라, 던데라
32247-0-1	"모이:- (集)"	32247-0-1 모둔다, 모두구
32247-0-2	"모이:- (集)-"	32247-0-2 모다따
32248-0-1	"만지:- (搯)"	32248-0-1 다터구, 만진다
32248-0-2	"만지:- (搯)-"	32248-0-2 다테보구, 만제라
32249-0-1	"쪼:- (曬)"	32249-0-1 쪼우구
32249-0-2	"쪼:- (曬)-"	32249-0-2 쪼와라
32250-0-1	"비틀:- (捻)"	32250-0-1 탈디, 탄다
32250-0-2	"비틀:- (捻)-"	32250-0-2 타라라
32251-0-1	"돕:- (助)"	32251-0-1 도꾸, 돕는다
32251-0-2	"돕:- (助)-"	32251-0-2 도바라
32252-0-1	"씹:- (咀)"	32252-0-1 씹떠라
32252-0-2	"씹:- (咀)-"	32252-0-2 씹버라
32253-0-1	"미끄럽:- (滑)"	32253-0-1 미끄럽따
32253-0-2	"미끄럽:- (滑)-"	32253-0-2 미끄러바
32254-0-1	"닿:- (接)"	32254-0-1 대인다(+피동)
32254-0-2	"닿:- (接)-"	32254-0-2 대에따(+피동)
32255-0-1	"누르:- (壓)"	32255-0-1 누루더라
32255-0-2	"누르:- (壓)-"	32255-0-2 눌러서
32256-0-1	"주무르:- (揉)"	32256-0-1 주물구, 주문다
32256-0-2	"주무르:- (揉)-"	32256-0-2 주물거라
32257-0-1	"메우:- (填)"	32257-0-1 메운다
32257-0-2	"메우:- (填)-"	32257-0-2 메워라
32258-0-1	"고소하:- (香味)"	32258-0-1 고:사다
32258-0-2	"고소하:- (香味)-"	32258-0-2 고:새에서
32259-0-1	"내리:- (降)"	32259-0-1 내린다
32259-0-2	"내리:- (降)-"	32259-0-2 내레서
32260-0-1	"구르:- (轉)"	32260-0-1 구분다, 구불더라
32260-0-2	"구르:- (轉)-"	32260-0-2 구부러서
32261-0-1	"만들:- (作)"	32261-0-1 맨든다, 맨드더라

32261-0-2	"만들-(作)-"	32261-0-2 맨드러라
32262-0-1	"늡-(老)"	32262-0-1 능는다, 늣떠라
32262-0-2	"늡-(老)-"	32262-0-2 늘거서
32263-0-1	"왡-(痛)"	32263-0-1 알른다, 알터라
32263-0-2	"왡-(痛)-"	32263-0-2 아라따
32264-0-1	"따르-(隨)"	32264-0-1 따른다, 따르더라
32264-0-2	"따르-(隨)-"	32264-0-2 따라따
32265-0-1	"사-(買)"	32265-0-1 싸구 이따
32265-0-2	"사-(買)-"	32265-0-2 싸 온다, 싸따
32266-0-1	"치우-(除)"	32266-0-1 치운다
32266-0-2	"치우-(除)-"	32266-0-2 치워야
32267-0-1	"부리지-(被折)"	32267-0-1 불거디디, 불거딘다, 꺼꺼딘다
32267-0-2	"부리지-(被折)-"	32267-0-2 불거데따
32268-0-1	"다치-(傷)"	32268-0-1 다티우디 말라, 샤아디 말라
32268-0-2	"다치-(傷)-" "	32268-0-2 다티워따, 샤애애따
32269-0-1	"느리-(緩)"	32269-0-1 느지다
32269-0-2	"느리-(緩)-"	32269-0-2 느제서
32270-0-1	"무치-(和, 나물을)"	32270-0-1 메우구 이따
32270-0-2	"무치-(和, 나물을)"	32270-0-2 메워서
32271-0-1	"죄:-(締)"	32271-0-1 채우구 이따, 채우디
32271-0-2	"죄:-(締)-"	32271-0-2 채와서
32272-0-1	"팔-(賣)"	32272-0-1 판다, 팔디
32272-0-2	"팔-(賣)-"	32272-0-2 파라라
32273-0-1	"뽑-(選)"	32273-0-1 뽑떠라, 뽑는다
32273-0-2	"뽑-(選)-"	32273-0-2 뽑바야
32274-0-1	"뒤지-(索)"	32274-0-1 드빈다, 드비더라
32274-0-2	"뒤지-(索)-"	32274-0-2 드베에따
32275-0-1	"마치-(終)"	32275-0-1 마취구
32275-0-2	"마치-(終)-"	32275-0-2 마취따
32276-0-1	"절이-(鹽)"	32276-0-1 절군다
32276-0-2	"절이-(鹽)-"	32276-0-2 절귀라
32277-0-1	"휘-(曲)"	32277-0-1 훈다, 후더라
32277-0-2	"휘-(曲)-"	32277-0-2 후러서
32278-0-1	"줍:-(拾)"	32278-0-1 주띠, 줍는다
32278-0-2	"줍:-(拾)-"	32278-0-2 주서따
32279-0-1	"빼앗-(奪)"	32279-0-1 아사뺏다
32279-0-2	"빼앗-(奪)-"	32279-0-2 아사빼애라
32280-0-1	"기울-(傾)"	32280-0-1 기부더라, 기불구 이따

32280-0-2	"기울-(傾)-"	32280-0-2 기부러따
32281-0-1	"아깝-(惜)"	32281-0-1 아깝떠라
32281-0-2	"아깝-(惜)-"	32281-0-2 아까바서
32282-0-1	"반갑-(歡)"	32282-0-1 방갑떠라
32282-0-2	"반갑-(歡)-"	32282-0-2 방가바서
32283-0-1	"찌-(蒸)"	32283-0-1 찌다, 찌구
32283-0-2	"찌-(蒸)-"	32283-0-2 찌서
32284-0-1	"노랑-(黃)"	32284-0-1 노오라타
32284-0-2	"노랑-(黃)-"	32284-0-2 노오래서
32285-0-1	"푸르-(靑)"	32285-0-1 푸루다
32285-0-2	"푸르-(靑)-"	32285-0-2 푸루러서
32286-0-1	"서두르-(忙)"	32286-0-1 서두루구, 서둘디, 서둘구
32286-0-2	"서두르-(忙)-"	32286-0-2 서둘러라
32287-0-1	"서투르-(不熟)"	32287-0-1 서툴다, 서툴더라
32287-0-2	"서투르-(不熟)-"	32287-0-2 서투러서
32288-0-1	"게으르-(怠)"	32288-0-1 게그르다, 게그르더라
32288-0-2	"게으르-(怠)-" "	32288-0-2 게글거서, 가즈애서
32289-0-1	"따뜻하-(溫)"	32289-0-1 따따사다
32289-0-2	"따뜻하-(溫)-"	32289-0-2 따따새애서
32290-0-1	"춡-(寒)"	32290-0-1 칩따
32290-0-2	"춡-(寒)-"	32290-0-2 치바서
32291-0-1	"뜨겁-(極熱)"	32291-0-1 따갑따
32291-0-2	"뜨겁-(極熱)-"	32291-0-2 따가바서
32292-0-1	"미지근하-(微溫)"	32292-0-1 미지그:나다
32292-0-2	"미지근하-(微溫)"	32292-0-2 미지그내애서
32293-0-1	"차갑-(寒)"	32293-0-1 차다, 스리다
32293-0-2	"차갑-(寒)-"	32293-0-2 차서
32294-0-1	"부럽-(羨)"	32294-0-1 불부더라
32294-0-2	"부럽-(羨)-"	32294-0-2 불버서
32295-0-1	"알밋-(憎)"	32295-0-1 *
32295-0-2	"알밋-(憎)-"	32295-0-2 *
32296-0-1	"비슷하-(類似)"	32296-0-1 비즈사다
32296-0-2	"비슷하-(類似)-"	32296-0-2 비즈:새애서
32297-0-1	"새롭-(新)"	32297-0-1 새롭따
32297-0-2	"새롭-(新)-" "	32297-0-2 새로바서
32298-0-1	"서:럽-(悲痛)"	32298-0-1 섭끼, 섭따
32298-0-2	"서:럽-(悲痛)-"	32298-0-2 설버서
32299-0-1	"까다롭-(難)"	32299-0-1 페럽따

32299-0-2	"까다롭-(難)-"	32299-0-2	페러바서, 페로분
32300-0-1	"외롭-(孤)"	32300-0-1	왜롭따
32300-0-2	"외롭-(孤)-"	32300-0-2	왜로바서
32301-0-1	"아쉽-(不滿)"	32301-0-1	이밥따
32301-0-2	"아쉽-(不滿)-"	32301-0-2	이바바서, 나빠서
32302-0-1	"단단하-(固)"	32302-0-1	단다나다
32302-0-2	"단단하-(固)-"	32302-0-2	단다내에서
32303-0-1	"늦-(晚)"	32303-0-1	느쏘
32303-0-2	"늦-(晚)-"	32303-0-2	느저따
32304-0-1	"남:-(餘)"	32304-0-1	기때애내따
32304-0-2	"남:-(餘)"	32304-0-2	기터따
32305-0-1	"남기-(使餘)"	32305-0-1	기티디
32305-0-2	"남기-(使餘)"	32305-0-2	기테 와따
32306-0-1	"넘어뜨리-(使倒)"	32306-0-1	대베부리능 거, 자빠부리린다, 어푸 러부린다
32306-0-2	"넘어뜨리-(使倒)	32306-0-2	대베부레따, 자빠부레따, 어퍼부레따
32307-0-1	"꾸그러뜨리-(使凹)"	32307-0-1	우구린다, 오구린다, 꼬구제리구
32307-0-2	"꾸그러뜨리-(使凹)"	32307-0-2	오구레라, 꼬구제레라
32308-0-1	"견주-(比)"	32308-0-1	견준다(+‘겨누다’의 의미), 비기구
32308-0-2	"견주-(比)-"	32308-0-2	견줘라(+‘겨누다’의 의미), 비게 보자
32309-0-1	"외우-(誦)"	32309-0-1	왜운다, 왜웁때
32309-0-2	"외우-(誦)-"	32309-0-2	왜와따
32310-0-1	"문지르-(摩)	32310-0-1	문디른다
32310-0-2	"문지르-(摩)-"	32310-0-2	문딜거라
32311-0-1	"가리키-(指)"	32311-0-1	가르키구
32311-0-2	"가리키-(指)-"	32311-0-2	가르케라
32312-0-1	"가르치-(敎)"	32312-0-1	가르티구 이따
32312-0-2	"가르치-(敎)-"	32312-0-2	가르테야, 가르체라
32313-0-1	"겨누-(照準)"	32313-0-1	겨누구, 견준다
32313-0-2	"겨누-(照準)-"	32313-0-2	겨눠라, 견줘라
32314-0-1	"겨루-(競)"	32314-0-1	비긴다
32314-0-2	"겨루-(競)-"	32314-0-2	비게라
32315-0-1	"달래-(慰撫)"	32315-0-1	달겐다
32315-0-2	"달래-(慰撫)-"	32315-0-2	달개애라
32316-0-1	"본받-(效)"	32316-0-1	보누바꾸
32316-0-2	"본받-(效)-"	32316-0-2	보누배와라, 보누바다라
32317-0-1	"어지르-(散)"	32317-0-1	기꾼다
32317-0-2	"어지르-(散)-"	32317-0-2	기뛰라

32318-0-1	"달리-(走)"	32318-0-1
32318-0-2	"달리-(走)-"	32318-0-2
32319-0-1	"우기-(拗)"	32319-0-1 우긴다
32319-0-2	"우기-(拗)-"	32319-0-2 우게라
32320-0-1	"중얼거리-(獨言)"	32320-0-1 쉬시벽꺼거린다(+이중모음)
32320-0-2	"중얼거리-(獨言)"	32320-0-2 쉬시벽꺼레라
32321-0-1	"지결이-(騷)"	32321-0-1 지지버리구
32321-0-2	"지결이-(騷)-"	32321-0-2 지지버레 바라, 지지버레두
32322-0-1	"다니-(行)"	32322-0-1 땡긴다, 땡기구
32322-0-2	"다니-(行)-"	32322-0-2 땡게
32323-0-1	"떨어뜨리-(使落)"	32323-0-1 떨구디
32323-0-2	"떨어뜨리-(使落)"	32323-0-2 떨귀서
32324-0-1	"깨-(覺)"	32324-0-1 깨더라
32324-0-2	"깨-(覺)-"	32324-0-2 깨애태
32325-0-1	"시-(酸)"	32325-0-1 시쿠다
32325-0-2	"시-(酸)-"	32325-0-2 시쿠러서
32326-0-1	"숫-(湧)"	32326-0-1 소떠라, 손는다
32326-0-2	"숫-(湧)-"	32326-0-2 소사따
32327-0-1	"좋:-(好)"	32327-0-1 도타
32327-0-2	"좋:-(好)-"	32327-0-2 도아서
32328-0-1	"빨강-(赤)"	32328-0-1 빨가타
32328-0-2	"빨강-(赤)-"	32328-0-2 빨:개서
32329-0-1	"끌:-(曳)"	32329-0-1 끄스구
32329-0-2	"끌:-(曳)-"	32329-0-2 끄서서
32330-0-1	"얇:-(薄)"	32330-0-1 너르다
32330-0-2	"얇:-(薄)-"	32330-0-2 널거서
32331-0-1	"하얗-(白)"	32331-0-1 하:야타
32331-0-2	"하얗-(白)-"	32331-0-2 하아애애서

3.2.2 곡용

32332-0-1	국(羹)-이/가	32332-0-1 구기
32332-0-2	국(羹)-을/를	32332-0-2 구구
32332-0-3	국(羹)-에(서)	32332-0-3 구게
32332-0-4	국(羹)-으로	32332-0-4 구글르
32332-0-5	국(羹)-도	32332-0-5 국뚜
32333-0-1	논(沓)-이/가	32332-0-1 노니
32333-0-2	논(沓)-을/를	32332-0-2 노누

32333-0-3	논(沓)-에(서)	32332-0-3	노네
32333-0-4	논(沓)-으로	32332-0-4	노느루
32333-0-5	논(沓)-도	32332-0-5	논두
32334-0-1	쌀(米)-이/가	32334-0-1	싸리
32334-0-2	쌀(米)-을/를	32334-0-2	싸르
32334-0-3	쌀(米)-에(서)	32334-0-3	싸레
32334-0-4	쌀(米)-으로	32334-0-4	쌀르
32334-0-5	쌀(米)-도	32334-0-5	쌀두
32335-0-1	봄(春)-이/가	32335-0-1	보미
32335-0-2	봄(春)-을/를	32335-0-2	보무
32335-0-3	봄(春)-에(서)	32335-0-3	보메
32335-0-4	봄(春)-으로	32335-0-4	*
32335-0-5	봄(春)-도	32335-0-5	봄두
32336-0-1	집(家)-이/가	32336-0-1	지비
32336-0-2	집(家)-을/를	32336-0-2	지부
32336-0-3	집(家)-에(서)	32336-0-3	지베
32336-0-4	집(家)-으로	32336-0-4	지부루
32336-0-5	집(家)-도	32336-0-5	집뚜
32337-0-1	옷(衣)-이/가	32337-0-1	오시
32337-0-2	옷(衣)-을/를	32337-0-2	오수
32337-0-3	옷(衣)-에(서)	32337-0-3	오세
32337-0-4	옷(衣)-으로	32337-0-4	오슬루
32337-0-5	옷(衣)-도	32337-0-5	오뚜
32338-0-1	방(房)-이/가	32338-0-1	바이
32338-0-2	방(房)-을/를	32338-0-2	바아
32338-0-3	방(房)-에(서)	32338-0-3	바에
32338-0-4	방(房)-으로	32338-0-4	바아루
32338-0-5	방(房)-도	32338-0-5	방두
32339-0-1	낮(晝)-이/가	32339-0-1	나지
32339-0-2	낮(晝)-을/를	32339-0-2	나즈
32339-0-3	낮(晝)-에(서)	32339-0-3	나제
32339-0-4	낮(晝)-으로	32339-0-4	
32339-0-5	낮(晝)-도	32339-0-5	나뚜
32340-0-1	낯(顔)-이/가	32340-0-1	나치
32340-0-2	낯(顔)-을/를	32340-0-2	나츠
32340-0-3	낯(顔)-에(서)	32340-0-3	나체
32340-0-4	낯(顔)-으로	32340-0-4	나출르
32340-0-5	낯(顔)-도	32340-0-5	나뚜

32341-0-1	부엌(廚)-이/가	32341-0-1	부수깨
32341-0-2	부엌(廚)-을/를	32341-0-2	부수깨르
32341-0-3	부엌(廚)-에(서)	32341-0-3	부수깨에
32341-0-4	부엌(廚)-으로	32341-0-4	부수깼르
32341-0-5	부엌(廚)-도	32341-0-5	부수깨두
32342-0-1	밭(田)-이/가	32342-0-1	바티
32342-0-2	밭(田)-을/를	32342-0-2	바트
32342-0-3	밭(田)-에(서)	32342-0-3	바테
32342-0-4	밭(田)-으로	32342-0-4	바트루
32342-0-5	밭(田)-도	32342-0-5	바뚜
32343-0-1	앞(前)-이/가	32343-0-1	아피
32343-0-2	앞(前)-을/를	32343-0-2	아푸
32343-0-3	앞(前)-에(서)	32343-0-3	아페
32343-0-4	앞(前)-으로	32343-0-4	아푸루
32343-0-5	앞(前)-도	32343-0-5	압뚜
32344-0-1	넋(魂)-이/가	32344-0-1	넉씨
32344-0-2	넋(魂)-을/를	32344-0-2	넉쓰
32344-0-3	넋(魂)-에(서)	32344-0-3	넉쎄
32344-0-4	넋(魂)-으로	32344-0-4	
32344-0-5	넋(魂)-도	32344-0-5	넉뚜
32345-0-1	흙(土)-이/가	32345-0-1	흘기
32345-0-2	흙(土)-을/를	32345-0-2	흘그
32345-0-3	흙(土)-에(서)	32345-0-3	흘게
32345-0-4	흙(土)-으로	32345-0-4	흘글루
32345-0-5	흙(土)-도	32345-0-5	흑뚜
32346-0-1	여덟(八)-이/가	32346-0-1	야드비다
32346-0-2	여덟(八)-을/를	32346-0-2	야드부
32346-0-3	여덟(八)-에(서)	32346-0-3	야드베서
32346-0-4	여덟(八)-으로	32346-0-4	
32346-0-5	여덟(八)-도	32346-0-5	야듭뚜
32347-0-1	돌(週歲)-이/가	32347-0-1	돌씨다
32347-0-2	돌(週歲)-을/를	32347-0-2	돌쓰
32347-0-3	돌(週歲)-에(서)	32347-0-3	돌쎄
32347-0-4	돌(週歲)-으로	32347-0-4	
32347-0-5	돌(週歲)-도	32347-0-5	돌뚜
32348-0-1	값(價)-이/가	32348-0-1	갑씨
32348-0-2	값(價)-을/를	32348-0-2	갑쓰
32348-0-3	값(價)-에(서)	32348-0-3	갑쎄

32348-0-4	값(價)-으로	32348-0-4	갑쓸르
32348-0-5	값(價)-도	32348-0-5	갑뚜
32349-0-1	속:(內)-이/가	32349-0-1	소기
32349-0-2	속:(內)-을/를	32349-0-2	소구
32349-0-3	속:(內)-에(서)	32349-0-3	소개
32349-0-4	속:(內)-으로	32349-0-4	소그루
32349-0-5	속:(內)-도	32349-0-5	속뚜
32350-0-1	돈:(錢)-이/가	32350-0-1	도니
32350-0-2	돈:(錢)-을/를	32350-0-2	도누
32350-0-3	돈:(錢)-에(서)	32350-0-3	도네
32350-0-4	돈:(錢)-으로	32350-0-4	도늘루
32350-0-5	돈:(錢)-도	32350-0-5	돈두
32351-0-1	발(足)-이/가	32351-0-1	바리
32351-0-2	발(足)-을/를	32351-0-2	바르
32351-0-3	발(足)-에(서)	32351-0-3	바레
32351-0-4	발(足)-으로	32351-0-4	발루
32351-0-5	발(足)-도	32351-0-5	발두
32352-0-1	짐(荷物)-이/가	32352-0-1	지미
32352-0-2	짐(荷物)-을/를	32352-0-2	지무
32352-0-3	짐(荷物)-에(서)	32352-0-3	지메
32352-0-4	짐(荷物)-으로	32352-0-4	지무루
32352-0-5	짐(荷物)-도	32352-0-5	짐두
32353-0-1	입(口)-이/가	32353-0-1	이비
32353-0-2	입(口)-을/를	32353-0-2	이부
32353-0-3	입(口)-에(서)	32353-0-3	이배
32353-0-4	입(口)-으로	32353-0-4	이불루
32353-0-5	입(口)-도	32353-0-5	입뚜
32354-0-1	낫(鎌)-이/가	32354-0-1	나디
32354-0-2	낫(鎌)-을/를	32354-0-2	나드
32354-0-3	낫(鎌)-에(서)	32354-0-3	나데
32354-0-4	낫(鎌)-으로	32354-0-4	나들루
32354-0-5	낫(鎌)-도	32354-0-5	나뚜
32355-0-1	강(江)-이/가	32355-0-1	가~이
32355-0-2	강(江)-을/를	32355-0-2	가아
32355-0-3	강(江)-에(서)	32355-0-3	가에
32355-0-4	강(江)-으로	32355-0-4	가알르
32355-0-5	강(江)-도	32355-0-5	강두
32356-0-1	젖(乳)-이/가	32356-0-1	저지

32356-0-2	젓(乳)-을/를	32356-0-2	저즈
32356-0-3	젓(乳)-에(서)	32356-0-3	저제
32356-0-4	젓(乳)-으로	32356-0-4	저글루
32356-0-5	젓(乳)-도	32356-0-5	저뚜
32357-0-1	꽃(花)-이/가	32357-0-1	꼬지
32357-0-2	꽃(花)-을/를	32357-0-2	꼬즈
32357-0-3	꽃(花)-에(서)	32357-0-3	꼬제
32357-0-4	꽃(花)-으로	32357-0-4	꼬글루
32357-0-5	꽃(花)-도	32357-0-5	꼬뚜
32358-0-1	팥(赤豆)-이/가	32358-0-1	파치
32358-0-2	팥(赤豆)-을/를	32358-0-2	파즈
32358-0-3	팥(赤豆)-에(서)	32358-0-3	파체
32358-0-4	팥(赤豆)-으로	32358-0-4	파글루
32358-0-5	팥(赤豆)-도	32358-0-5	파뚜
32359-0-1	옆(側)-이/가	32359-0-1	녀피
32359-0-2	옆(側)-을/를	32359-0-2	녀푸
32359-0-3	옆(側)-에(서)	32359-0-3	녀페
32359-0-4	옆(側)-으로	32359-0-4	녀푸루
32359-0-5	옆(側)-도	32359-0-5	넙뚜
32360-0-1	삯(賃金)-이/가	32360-0-1	쌈기
32360-0-2	삯(賃金)-을/를	32360-0-2	쌈그
32360-0-3	삯(賃金)-에(서)	32360-0-3	쌈게다
32360-0-4	삯(賃金)-으로	32360-0-4	쌈글루
32360-0-5	삯(賃金)-도	32360-0-5	쌈뚜
32361-0-1	닭(鷄)-이/가	32361-0-1	달기
32361-0-2	닭(鷄)-을/를	32361-0-2	달그
32361-0-3	닭(鷄)-에(서)	32361-0-3	달게
32361-0-4	닭(鷄)-으로	32361-0-4	달글르
32361-0-5	닭(鷄)-도	32361-0-5	닥뚜
32362-0-1	밖(外)-이/가	32362-0-1	바끼
32362-0-2	밖(外)-을/를	32362-0-2	바끄
32362-0-3	밖(外)-에(서)	32362-0-3	바께
32362-0-4	밖(外)-으로	32362-0-4	바끄루
32362-0-5	밖(外)-도	32362-0-5	박뚜

제4편 문법

4.1. 대명사

1) 인칭대명사

40101	나	40101	내
40101-0-1	내-가	40101-0-1	내
40101-0-2	내(나-의)	40101-0-2	내 게르{내 것을}
40101-0-3	나-를	40101-0-3	나르
40101-0-4	나-에게	40101-0-4	내게
40101-0-5	나-와	40101-0-5	내가{나와}
40101-0-6	나-는	40101-0-6	나는/나만
40101-0-7	나-도	40101-0-7	나두
40102	저/제-가	40102	*
40102-0-1	-가	40102-0-1	*
40102-0-2	-의	40102-0-2	*
40102-0-3	-를	40102-0-3	*
40102-0-4	-에게	40102-0-4	*
40102-0-5	-와	40102-0-5	*
40102-0-6	-는	40102-0-6	*
40102-0-7	-도	40102-0-7	*
40103	우리	40103	우리
40104	저희	40104	*
40105	너	40105	네
40105-0-1	너-가	40105-0-1	네

40105-0-2	너-의	40105-0-2	네 게{너의 것}
40105-0-3	너-를	40105-0-3	너르
40105-0-4	너-에 게	40105-0-4	네 게
40105-0-5	너-와	40105-0-5	네 가{너와}
40105-0-6	너-는	40105-0-6	네 만
40105-0-7	너-도	40105-0-7	너 두
40106	자네	40106	자네
40107	당신	40107	당신이
40108	너희	40108	너네 아바지
40109	개	40109	가아
40109-1	애	40109-1	야아
40109-2	재	40109-2	다아
40110	자기	40110	제 말만
40111	당신	40111	당신 방에서

2) 의문대명사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40112	누기우?
40112-0-1	누-가	40112-0-1	누기
40112-0-2	누구-의	40112-0-2	네에 네
40112-0-3	누구-를	40112-0-3	누기르
40112-0-4	누구-에 게	40112-0-4	누기 게/뉘기 게
40112-0-5	누구-와	40112-0-5	뉘기가
40113	무엇-이냐/입니까	40113	무시 게냐?/무스 게냐?
40113-0-1	무엇-이	40113-0-1	무스 게
40113-0-2	무슨	40113-0-2	무시르
40113-0-3	무엇-을	40113-0-3	무스 거
40113-0-4	무엇-과	40113-0-4	무스 거 간냐?

3) 그밖의 의문사

40114	어디	40114	어드메르/어디메르
40115	언제	40115	언제
40116	어느	40116	어느
40117	왜	40117	어때{어째서}
40118	얼마나	40118	얼매
40119	어떻게	40119	어떠

4)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40120 이것
 40121 그것
 40122 저것
 40123 여기
 40124 거기
 40125 저기
 40126 이리
 40127 그리
 40128 저리

40120 이거느/이게
 40121 그계/그거
 40122 더계/더거
 40123 용계/영계
 40124 공계/경계
 40125 동계/덩계/덩:계
 40126 영계르/영겔르
 40127 경겔르
 40128 덩겔르/더길르

4.2. 조사

1) 격조사

40201 이/가
 40202 이/가
 40203 을/를
 40204 을/를
 40205 에게/게
 40206 보고/더러
 40207 보고/더러
 40208 에
 40209 에
 40210 에서
 40211 에서
 40212 에서
 40213 으로
 40214 으로
 40215 으로
 40216 으로
 40217 와/과
 40218 와/과
 40219 보다
 40220 처럼
 40221 만큼
 40222 만큼
 40223 아/야
 40224 아/야

40201 잡씨
 40202 코이
 40203 귀떠르
 40204 무루
 40205 누기계
 40206 누기라구/누기르 보구
 40207 누기가
 40208 지베/지부루
 40209 메출 후에
 40210 큰지비서
 40211 훈춘서
 40212 별똥서
 40213 무스겔르
 40214 샬루
 40215 사출르
 40216 지부루/가아르
 40217 말가 쉼
 40218 쉼가 말
 40219 형보다
 40220 *
 40221 너마:니
 40222 머글마:니
 40223 등놓아{득룽아}
 40224 진혀기{진혁이}

40225 아/야

40226 아/야(누님!)

40226-1 아/야

40227 아/야(할아버지!)

40227-1 아/야

40228 이랑

고기르다

40229 커녕

40225 시내야{신애야}

40226 누님

*

40227 아바네!/크라바네!

*

40228 수우레, 고게에/수울르, 고길르/수울루다,

40229 배귀닐라구는

2) 보조사

40230 은/는

40231 만

40232 도

40233 마다

40234 부터

40235 까지

40236 조차

40236-1 조차

40237 이야/야

40238 을랑

40239 이라도

40240 밖에

40241 가지고

40230 담배는/수우른

40231 *

40232 키두/얼굴두

40233 날마다 온다/날마디르 온다

40234 오늘부터

40235 내엘꺼지

40236 마실 물꺼지/마실 물조처

40236-1 무시르 이서서

40237 나미사

40238 *

40239 암만 부재래두

40240 네빠께/제빠께

40241 꿈제가지구/책 책 자에서 꾸레가지구

3) 문장 뒤 조사

40242 고

40243 요

40244 요

40244-1(어른이 아이한테)

40244-2(같은 연배)

40244-3(혼잣말)

40242 너르 부재라 한다

40243 아라쏘/아라쓰꾸마

40244 *

*

*

*

4.3 종결어미

40301 -아라

40302 -게

40303 -으오

40301 안자라

40302 안즈세/안쏘

40303 안쏘

40304 -으십시오
 40305 -세요
 40306 -자
 40307 -세
 타남)
 40308 -으오
 40309 -십시다
 40310도 동일)
 40310 -세요
 40311 -니
 40312 -나
 40313 -오
 40314 -습니까
 40315 -나요
 40316 -니
 40317 -나
 40318 -시오
 40319 -십니까
 40320 -세요
 40321 -는다
 40322 -네
 40323 -오
 40324 -습니다
 40325 -네요
 40326 -다
 40327 -네
 40328 -소
 40329 -으십니다
 40330 -으세요
 40331 -아
 40332 -지
 40333 -이다
 40334 -이니
 40335 -이네
 40336 -인가
 40337 -이오
 40338 -이오
 40339 -입니다

40304 안즈읍쇼 / 안즈십쇼(+존)
 40305 안즈읍쇼 / 안즈십쇼
 40306 가티 가자
 40307 가티 가오(+자연발화에서는 ‘가기오’로 나
 40308 가티 가오
 40309 가티 가압쇼(+자연발화에서는 ‘가깁쇼’임.
 40310 가티 가압쇼
 40311 비 오냐?
 40312 비 오오?
 40313 비 오옴두? 누기 해애쏘?
 40314 비 오옴두? 누기 해애습두?
 40315 비 오옴두? 누기 해애습두?
 40316 어드메에 가냐?
 40317 어드메르 가오?
 40318 어디르 가압두?/어디르 가심두?
 40319 어디르 가압두?/어디르 가심두?
 40320 어디르 가압두?/어디르 가심두?
 40321 잘 명는다
 40322 바부 잘 먹쑹데
 40323 바부 잘 먹쑹
 40324 바부 먹쑹꾸마
 40325 바부 먹쑹꾸마
 40326 우티 작따
 40327 우티 작쑹
 40328 우티 작쑹
 40329 우티 작쑹꾸마
 40330 우티 작쑹꾸마
 40331 어디 아프우?
 40332 꼭 가개쑹?/꼭 가갠냐?
 40333 내 생지니다
 40334 생지니냐?
 40335 생이리오?
 40336 생이리오?
 40337 *
 40338 생시님두?/생이림두?
 40339 생신나립꾸마

40340 -입니까
 40341 -이시지요
 40342 -이시지요
 40343 -이나
 40344 -인가
 40345 -이오
 40346 -입니까
 40347 -인가요
 40348 -이야
 40349 -이어요
 40350 -습니다
 40351 -습디다
 40352 -는구나/구나
 40353 -는구먼/구먼
 자)
 40354 -일세
 40355 -으마
 40356 -음세
 40357 -올라

40340 생시님두?
 40341 생신나림꾸마
 40342 생시님두?
 40343 게 무스게냐?
 40344 기계 무스게오?
 40345 기계 무스게오?
 40346 기계 무스겜두?
 40347 기계 무스겜두?
 40348 게 무스게오?
 40349 게 무스겜두?
 40350 만쭈꾸마
 40351 만쭈떠구마
 40352 멍능구나
 40353 너어 췌 잘 먹쭈구레/먹쭈는다마(+연장
 자)
 40354 자네 껍 오라마니네
 40355 아무나레 주마
 40356 줄께/주우께{달라, 다오}
 40357 다티우리라/다튀리라/베에튀라

4.4 연결어미

40401 -고/-고서
 40402 -으면서
 40403 -어/-어서
 40404 -으니 /-으니까
 40405 -관테
 40406 -다가
 40407 -거든
 40408 -더라도
 40409 -으려고
 40410 -도록
 40411 -을수록
 40412 -듯이
 40413 -지

40401 머꾸
 40402 머그메
 40403 치바서/따가바서
 40404 따구부니
 40405 무스게길래/무스거길래
 40406 가다가서
 40407 만나거든/보거든
 40408 갈 때 가더래두
 40409 농가 주길래/주자구
 40410 나리 새도록/구부래애르
 40411 이슬쭈룩
 40412 물 쓰듯
 40413 코이디, 파치 애앤다.

4.5 주체존대

40501 -셔
 40501 이리 나사아 오오

40502 -췌소

40502 끈내애췌?

4.6. 시 제

40601 -는/ㄴ-

40602 -는/ㄴ-

40603 -는/ㄴ-

40604 -는/ㄴ-

40605 -고 있-

40606 -왔/였-

40607 -왔였-

40608 -더-

40609 -더-

40610 -는

40611 -ㄴ

40612 -던

40613 -ㄴ

40614 -ㄴ

40615 -던

40616 -던

40617 -췌-

40618 -췌-

40601 운는다

40602 긴다

40603 크다

40604 생기니다

40605 머꾸 이따/셔구 이따

40606 밥 머거췌? 잡췌알췌두?

40607 와따/와꾸

40608 먹떠라

40609 먹떠냐?

40610 *

40611 어제 본 동뫼

40612 와뻘

40613 올

40614 큰

40615 이뻘, 크던

40616 커뻘

40617 아니 머개췌/꾸개췌

40618 오개췌?

4.7 부정

40701 안/않다

40702 안/않다

40703 안/않다

40704 안/않다

40705 안/않다

애넛췌

40706 앓고

40706-1 앓고

40707 못

40708 안

40701 암 머거췌/먹때애넛췌

40702 아니 조타/도태니우

40703 아니 깨까자오/깨까자대니우.

40704 아니 가췌/가대애넛췌

40705 아니 만나봐췌/만나 아니 봐췌/만나보대

40706 먹뚜두애니꾸/먹뚜두애앵꾸

40706-1

40707 몸 마시우/마시디 모하오

40708 마때앤냐?/안 만냐?

4.8 사동과 피동

1) 사동

40801	살리다	40801	살과따/살구구
40802	늘리다	40802	늘구자/늘귀라
40803	말리다1	40803	말리운다/말리워라
40804	말리다2	40804	말긴다/말게라
40805	얼리다	40805	얼군다/얼귀라
40806	녹이다	40806	노긴다/노게라
40807	싱기다	40807	싱기구/싱게라
40808	보이다	40808	배운다/배워라
40809	알리다	40809	알기구/알게에라
40810	입히다	40810	니핀다/니페라
40811	얹히다 (+손아래)	40811	안치구/안체라(+중립), 양끼우구/양끼워라
40812	벗기다	40812	빼끼구/빼께라
40813	웃기다	40813	우긴다/우께라
40814	씩히다	40814	썰기구/썰게따
40815	숨기다	40815	꿈치운다/꿈치워라
40816	굴기다 게라(소+)	40816	굴민다/굴메라(+노), 궁기구/궁기우구/궁
40817	깨우다	40817	깨우구/깨워라
40818	돌우다	40818	도꾸구/도꿔라

2) 피동

40819	잡히다	40819	재핀다/재패따
40820	깎이다 髮)	40820	내린다/내레따(+金錢), 까뀌구/까페따(+理)
40821	끼이다	40821	끼우구/끼워따, 지피구/지페따
40822	떼이다	40822	떼우더라, 떼워따
40823	채이다	40823	채우무/채와따
40824	닫히다	40824	대끼구/대깨따
40825	들리다	40825	드긴다/드껴서
40826	업히다	40826	어핀다/어페 이따
40827	바뀌다	40827	바뀌무/바페따
40828	씹히다	40828	씨피운다/씨피워서, 씨핀다/씨페서

40829 얹히다
 웅 거/언지워따
 40830 찍히다
 40831 놀리다
 40832 실리다
 40833 꿔기다
 40834 굶히다

40829 언치우무/언치워따, 언치무/언체따, 언지
 40830 띠키무/띠케따, 띠키우무/띠키워따
 40831 가위에 놀리우무/놀리워따
 40832 실키무/실케간다
 40833 꿔끼무/꿔께따
 40834 글키우무/글키워따, 글키무/글케따

4.9. 보조용언

40901 싶다
 40902 싶다
 40903 보다
 40904 버리다
 40905 대다
 40906 -나/는가 보다
 40907 -나/는가 보다
 40908 -나/는가 보다

40901 머꾸 십습꾸마, 메께엿쑤꾸마/메께에파서
 40902 오능가 십떠니/시퍼떠니
 40903 니버 보옵쑤
 40904 머거 빠런냐?/머거 뿌렌냐?
 40905 머거 대에서/우러 싸(아)서
 40906 비 왓즉한데, 비 오겐는데
 40907 *
 40908 치분모애~애이구나

4.10. 부사

41001 실컷
 41002 많이
 41003 너무
 41004 조금
 41005 자주
 41006 빨리
 41007 얼른
 41008 기어코
 41009 가끔
 41010 먼저
 41011 나중에
 41012 가득
 41013 몽땅
 41014 모조리
 41015 혼자
 41016 항상
 41017 똑똑히

41001 실큰/시일큰, 슬큰/스을큰
 41002 마니
 41003 기내
 41004 차끼, 쪼끔
 41005 자주르
 41006 빨리, 일쁘기
 41007 즐거, 떼깍, 언녀~
 41008 기여니
 41009 드물기
 41010 만저, 압써
 41011 후에, 두에
 41012 꼴뚝(+濫)/까뚝(+適定)
 41013 다, 몬땅, 몽창
 41014 싹, 모조리(+정해진 범위, 구역)
 41015 혼자, 홀루, 호분자(+話者意志)
 41016 늘쌍
 41017 똑또기

41018 겨우
41019 늘
41020 저절로
41021 자꾸
41022 설마
41023 하마터면
41024 함께
41025 걸핏하면
41026 공연히
41027 그냥
41028 매우
41029 곧장
41030 벌써
41031 가장
41032 가만히
41033 미리
41034 이따금

41018 게:구
41019 늘쌍, 그냥
41020 저절르, 절르
41021 영거퍼, 계속, 무마에, 자꾸
41022 간대르사/간대엘사, 과연, 정말
41023 함바터문, 까따가다가는
41024 할메에
41025 펼쩌가문/벌쩌가문
41026 패:난, 패:니
41027 거저
41028 돼 게, 마니
41029 덕빡, 직빵, 꼬꼬디, 꼬끼
41030 말써, 벌써, 즐거
41031 왜앤, 데일
41032 가마:니, 꼼짱말구
41033 녁저네, 사저네, 미리, 즐거
41034 어띠다, 모처럼

4.11. 관용적 표현

1) 관용어구

41101 여보
가 일반적임)/이보옵쇼(+남편에게)

41102 여보세요

41103 들어가세요
노캐쑈, 잘 아라쑈꾸마/드러쑈꾸마, 끈쑈꾸마

41104 수고하세요

41105 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의 인사말
쑈?, 다 무사히 보내쑈?, 오랜마니오, 알태애내쑈?

41101 여보(+부인에게. 자연발화에서는 ‘이보오’

41102 이거봍쇼

41103 슈고하압쇼, 잘 이쑈, 후에 보기오, 저봐

41104 내엘 보기오, 잘 가오,

41105 오랜마네 만나쑈, 보기 드무오, 어띠다 와

41106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른에게 하 41106 퍼~안하암두?, 퍼니 췌에쑈두? 알렁하
세쑈두?

41107 오랜만에 찾아 뵈 어른에게 큰절을 올 41107 해릅때내애쑈두?(편찮지는 않으셨습니
까?)

41108	여기 있습니다(물건을 사고 돈을 주면서	41108	여기 이쭈꾸마, 여기 이쑈, 이게오
41109	예(질문에 대한 긍정의 대답) (+손아래), 올타, 올쏘	41109	예(+웃어른), 냐(+‘하오체’의 대상), 으~으
41110	아니(질문에 대한 부정의 대답)	41110	애니다/예, 아니입꾸마/애니우
41111	아무렇지도 않다	41111	이럽쏘{일 없소}
41112	내버려 뒀	41112	가만 놔뒀라, 체에라{치워라}
41113	개나 소나 많은 게 로반(중국어로 사장(社長)을 뜻하는 말)이라더군요}, 별랑게{별난 게}	41113	개보다 더 마능 게 로바니랍떼{개보다 더

2) 속담

41114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41114	깨애딘 항아레에 물부끼라딩가
41115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41115	바늘 도도기 췌도도기 똤다
41116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라	41116	부란땐 구새에서 내구리 나개쏘?